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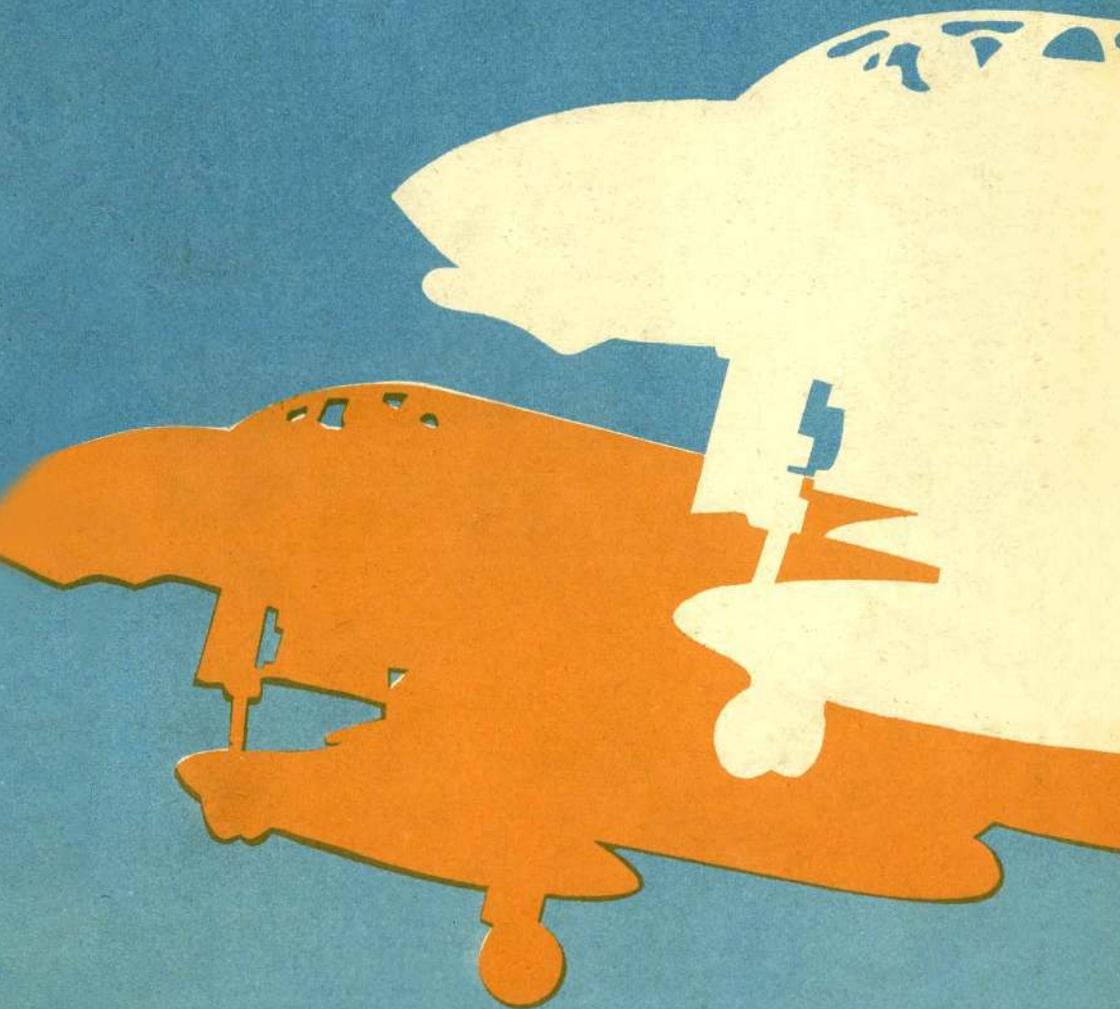
1973

광화

〈제 134 호〉

1973년 5월 20일 인쇄

1973년 5월 25일 발행



국민교육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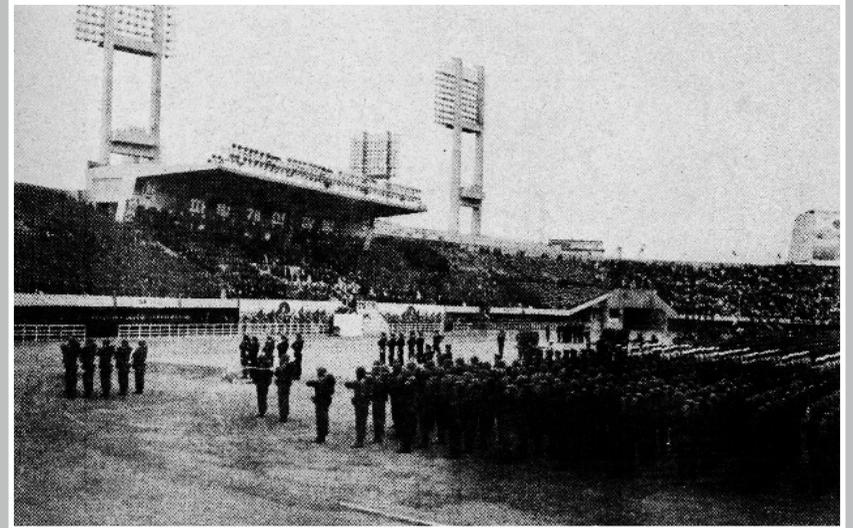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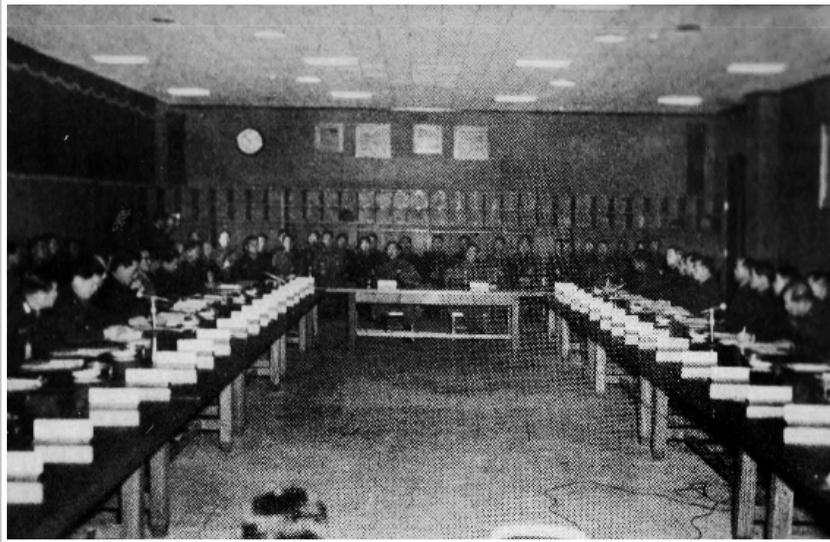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개신 파월장병 환영 국민 대회

자유의 십자군으로 파월됐던 주월 국군이 8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개신, 3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박정희 대통령각하에게 귀국 신고를 했다. 이날 환영대회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정일권 국회의장 등 3부요인과 유재홍 국방부장관, 한 산 합참의장, 각군수뇌, 「베네트」주한「유엔」군 사령관, 「광·수안·치우」주한 월남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4월 21일 공군본부 제 1회의실에서는 옥만호 참모총장의 주재로 공군 예하 전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과학화를 위한 제 방안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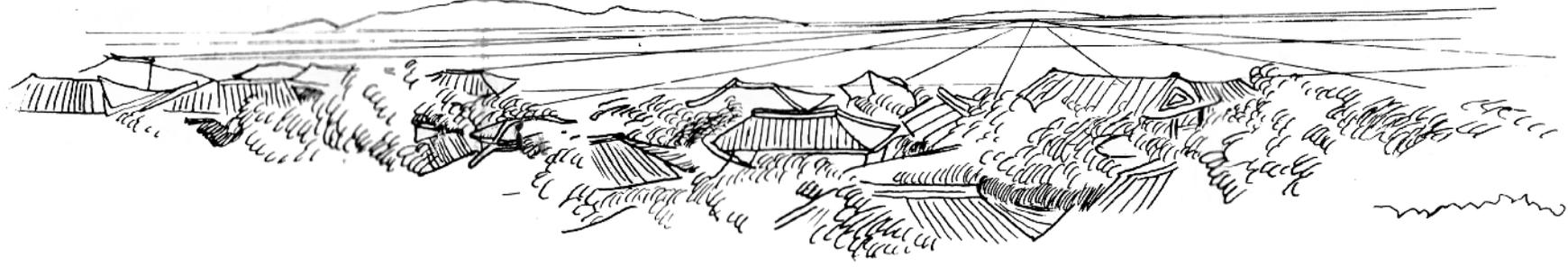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이 4월 21일 약 1개월간 예정으로 미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순방길에 올라 출국했다.



상; 주월 국군의 공중전술지원과 한·월 공수작전 임무를 맡았던「은마부대」가 3월 14일 개선했다. 옥만호 참모총장이 개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하; 공군 5091부대는 3월 15일, 한·월간 500회 무사고 공수작전을 기록하고 국방부장관 부대표장을 받았다.





공군

제 134 호

표지화·차례화·컷.....진광선, 이재철

권두언정훈감 신 찬 (10)

특별정훈교육자료

조국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박 계 춘 (83)

제 2전력과 정병지도홍 종 도 (74)

특집: 종교와 이데올로기

기독교와 공산주의정 하 은 (43)

천주교와 공산주의박 양 운 (49)

공산주의에 대한 불교적 비판이 기 영 (54)

불교와 공산주의래너싱거 (60)

천도교 사상과 공산주의백 세 명 (67)

단 자유론과 책임론김 려 수 (12)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백 상 건 (21)

공산주의의 이론적 쟁점최 광 석 (31)

담배의 세계, 암의 세계 박 경 화 (155)

엄마는 대학교수 이 병 훈 (224)

특집: 아버는 공군

공영화 중령 부인 강 속 자 (109)

장종길 소령 부인 오 윤 정 (111)

김세환 대위 부인 박 현 숙 (113)

72년도 공군 각종 범죄 분석 박 도 심 (99)

지상세미나

내무반 가족화 운동김 현 수 (91)

유신과업에 앞장 서자최 형 종 (94)

내무생활과 새마을 정신김 정 국 (96)

항공·군사·과학

「길리오·두헤」의 항공전략 사상심 사 수 (117)

처어철의 전사회고 - 바다사자 작전박 경 수 (127)

모형 엔진 항공기의 제작최 유 련 (137)

= 만 화 = 공군만평 박 진 래 (115)

물고기의 맛과 영양 박 일 필 (160)

기형문 내가 걸어 본 변산반도 김 진 환 (150)

근종근어너

미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이 준 학 (169)

세계 해빙 무우드허 경 삼 (180)

젊은「칼·바르트」안 범 무 (171)

나의 입산수도기 ②이 인 수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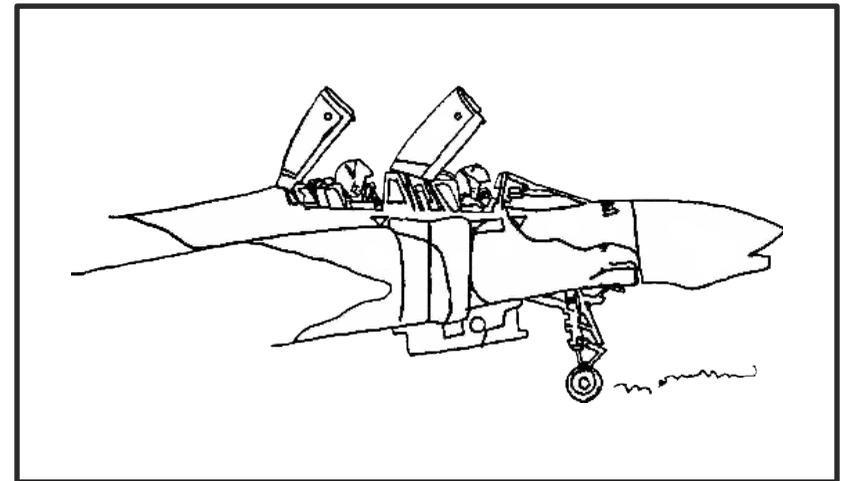
취 미 코 오 너 | 보울링이 영 (210)

금봉어, 열대어 기르는 법 김 남 기 (196)

= 단 편 = 약 혼 헤르만·헛세 (229)

공군

제 134 호 1973년 제 2 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한국적 토착화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한국적 토착화에 반론을 제기할 자는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제각기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의 토착화 과업이 급선무라고 주장 하기 일쑤다. 또 그 방법론에도 각양 각색이다. 과격론을 내세우는가 하면 점진적 입장을 지키려는 이도 있다. 여하간 이들 의견은 한국적 토착화를 위해서 참고할만한 유익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개중에는 가끔 쓸모없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를 애타게 하기도 한다. 한국적 토착화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다.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고수하자는 것까지는 좋으나 도무지 취사선택의 여유가 없다. 유교사상을 한국사상으로 옹립하려든다거나, 과거 군주시대의 유물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왜곡 해석한다든지, 심지어 반 서구적인 것이 바로 한국적 토착화로 오인하는 경우이다.

한국적 토착화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려면 우선 역사적 배경부터 검토해야 한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그 생성과정에 있어서 전제군주로부터 국가권력을 탈취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이 수세기에 걸쳐 전개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경제면에 있어서도 봉건체제로부터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수탈경제 등을 거쳐서 오늘의 국민 경제체제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그들의 정치제도와 경제조건은 서로 조화 변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와같은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민주적 정치제도는 해방과 더불어 돌연히 찾아온 선물이었고, 우리의 경제적 변천은 일제 식민지 경제에 문혔다가 해방 후 미국 원조 덕택 으로 성장해 왔다, 물론 민권신장의 투쟁 과정이 없었던 정치제도와 자율적 변천과정을 겪지 않았던 경제성장이 조화될 이가 없으며, 이들은 오히려 사회악과 부조리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어둡고 허무한 과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의 저항정신이나 신라 때의 통일외지 등의 정신적 유산과 함께 대대로 이어 온 찬란한 문화의 유산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신적 문화적 업적을 실생활에 활용치 못했음이 아쉽다. 속세를 멀리하고 심오한 경지에 서만 인성의 오도를 터득했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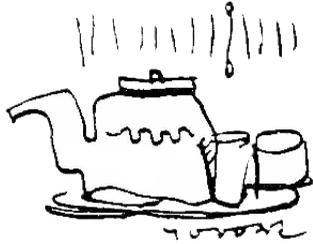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합리성을 찾아내고 부조리를 제거하면서, 한국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제도와 운영을 갖추고 문화정신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 토착화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반대하고 장기적인 과업을 완수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민족사관의 확립을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는 한국사상의 정립이다. 미국 이 오늘날 북미대륙을 낙원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녕 그들의 개척정신의 소이이다. 일본의 약착스런 「야마도 다마시」는 오늘날 Economic Animal로 변형되어 경제대국을 이룩했다. 불란서는 「영광된 조국을 찾자」는 복고주의적「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영국에는 공리주의를, 중국에서는 중화사상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민족이건 그 민족의 역사를 들춰본다면 뚜렷한 사상이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정신은 국민 누구나의 가슴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상은 어디에 있는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도 분명 한국사상이 실재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상을 어떻게 정립해서 국민에게 계몽하는가에 있다. 지금은 과거의 잘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80년대의 번영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범 국민적 유신대열에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한국사상이며 이는 또한 우리 후예에게 물려 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자유론과 책임론

김려수



1. 머리말

자유와 책임이란 상호 대립하는 관념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하는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책임의 관념이 없이 오직 자유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길이 없고, 각인의 행동도 또한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자유를 주장하고

또한 자유를 실제행위로 나타내는 경우 사회적인 질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고된다.

그러나 이때 이 책임이란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사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근세의 초기에 루터가 신의 은혜하에 신에 대한 책임에 속박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근대 사회를 중세적인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부터 해방시켰고, 다시 에라스무스로부터 시작되는 근대 휴머니즘은 인간의 자주성에의 깊은 의식에 일각하면서 인간의 해방을 위하여 결정적인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결국 개인적 자아의 자유이어서 그것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모순을 해결할 힘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적인 규모에 있어서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자유의 관념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자유에 있어서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들의 자유가 무엇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었다.

전체와 개인과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러한 견지에서 재 음미해보는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대한 자각과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중세의 가톨릭교회는 보통 신앙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고 단순하게 생각되어 왔으나 한편 생각 할수 것은 가톨릭교회는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무엇에 의해서 속박되어야 하는가를 가톨릭교회의 현실적인 통일지배의 형식을 통해 인간에 가르쳤던 것이다.

물론 이때의 전체적 통일은 외부로부터 신의에 의하여 인간에게 과해진 것이어서 그 의미는 자유와는 상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구조에 있어서 속박 가운데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 자유의 형식을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은 종교개혁 및 르네상스에 의해서 일어났으나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아직 자기가 진정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에 의해서 속박되어야 할 대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생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실체로서 비로소 우리들 앞에 그 자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세의 교회적인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사회적인 공동체에 이르는 중간에 개인주의적인 자유는 이른바 세계사의 거대한 전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무릇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것인 이상 자유의 문제도 사실은 개인중심적인 자유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러한 자기를 초월하는 공동체 내지는 사회에 속박되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크게 세계사적 규모에 있어서 취급되고 나아가서는 넓게 지구적 규범으로서의 세계 그것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역사의 집적 위에 구축된 30억의 인간관계의 총체야말로 현대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의 발생 기반으로 된것이다.

즉 생활 이해의 세계화는 30억의 인간 관계를 더욱 긴밀한 것으로 만들고 따라서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도 30억의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 간접적 연결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후에 먼저 아시아에 발생한 식민지적 예속으로부터의 해방과 민족의 독립 •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은 오늘날엔 아프리카나 라틴 •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파급하여 개성의 회복, 확

립 및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의 획득을 위한 의식을 생성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까지 그러한 지역이나 민족이 경과해 온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조건의 상위함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발전의 과정은 획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이나 민족의 의식은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 반착취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또한 각기 사회에서 패배한 제국주의의 군대가 전장에 남긴 지뢰인 사기낭비, 부정직, 미신, 탐욕, 빈곤, 질병, 문맹, 경제적 병폐등의 일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자립경제를 이룩하여 세계평화를 확립해야겠다는 점에 있어서 깊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중래의 「서구적 자유」는 이러한 「20세기의 세계인류」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쟁 재판은 뉴른베르크나 동경에 있어서의 A급전범에 관한 국제군사 법정을 비롯해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를 재판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놓았다.

전쟁 범죄에 문제된 자의 반응은 애국이란 미명하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와 기구에 대한 헌신을 구실로 한 상급의 명령에 책임을 해소하려는 자가 그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A급전범의 경우는 거의 전자의 형태이고 이스라엘에 잡혀 재판을 받은 아이히만의 변명은 후자의 형태였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국가나 기구에 대한 헌신만이 주장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이나 인류에 대한 책임이 피고 측으로 부터 언급되는 일이라곤 없었다.

겨우 뉴른베르크재판의 피고의 한 사람에게 의해서 말해지고 아이히만의 논고에 사용된 「항명권」의 관념이 이들 국제재판의 적극적인 사상의 유산으로 남겼을 뿐이다.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해도 인도에 반하는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없다는 영국법에서 비롯한 이 관념은 바로 기구의 책임 오용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의 우월을 법의 차원에까지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고전적 자유와 책임론

근대사의 초두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지도한 루터는 그의 유명한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인간이 신의 은혜에 의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 신의 은혜에 의하여 자기의 죄악과 자기 추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주체, 즉 신의 의지를 자유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루터는 1525년에 나온 〈노예적 의지〉에 있어서 인간 또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죄악

의 노예이고 스스로 자기가 택할 선을 선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것에 앞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여기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신의 은총에 의해 인간은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신의 은총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의 은총이라는 속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곳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루터의 견해는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대한 귀중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루터는 자기가 신의 은총에 의하여 스스로 추구하는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기에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작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전혀 신의 은총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인간이 취할수 있는 태도는 신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이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유와는 전혀 단절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사실은 이와같은 속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의 휴머니스호의 자유를 요약해보면 인간이 의식하는 자유의사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에 있어서의 자주독립성, 나아가서 인간의 자기지배, 환언하면 인간이 자기를 인간으로서 자각하고 자기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요구를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와같은 인간의 자주독립성에 관한 생각을 더욱 철저하게 음미하고 또한 인간의 자유를 구체화 하는 길을 방법적으로 고찰한 사람이 데카르트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된, 환언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주성과 존엄을 보유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배하여 자기에게 중하가 되는 오류와 정념과를 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오류와 정념의 근원을 인간의 신체에다 구하고 신체와 정신과를 구별하여 물질적인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고 이 기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명백히 하고 역으로 이를 지배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방법적으로 또는 자각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계의 자연은 인간의 신체와 같은 기계적인 자연인 까닭에 이상의 인식을 외부의 자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알게 되어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자연과 동일한 것으로서의 신체를 생각하고 이를 정신과 명백히 구별하여 이 자연의 구조와 법칙과의 올바른 인식을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야말로 당시 새로이 일어나고 있는 근대적 자연과학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데카르트가 생각한 자유란 구체적으로 외측에 있으면서 인간에게 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 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 자유는 동시에 인간 자신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에 속박 되고 자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그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명백히 구별되고 자유의사를 본질로 하는 정신은 신체를 지배하는 필연적 법칙의 명확한 인식을 통하여 이를 확실하게 지배처리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정신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신체로부터 또한 물질적인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데카르트의 정신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것에 진실로 책임을 질 보편적인 대상이라고는 없고 그것은 다만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신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한계 가운데 고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자아 가운데서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원리를 파악한다는 데카르트의 입장은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사극에 하나와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추구가 데카르트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적 정신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추구는 결코 개인의 문제, 데카르트가 말한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개혁만을 문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점차로 사회의 혁신까지도 포함 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회의 개혁과 변혁에 있어서의 동거나 목적은 한결같이 개인의 독립과 자유에의 요구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정은 근대 자연법 사상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본래부터 자유이고 독립적이며 누구도 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인간의 자연적 자유는 지상에 있어서의 일체의 우월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어떠한 입법적 권위하에도 구속되지 않을 자유인데 이러한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의 법칙으로서 오직 자연법만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은 자연상태로부터 합의에 의해 국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로크의 국

가란 인간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즉 생명, 신체, 재산 등 천부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조직한 사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이 이러한 국가목적을 일탈(逸脫)해서 행사된다면 그 권력의 신탁은 거기서 종료하고 인민은 새로이 당해 권력자를 설정할 자유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자유의 추구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있어서도 명백하다. 그는 개인의 이기적, 영리적 활동을 시인하고 그 자유롭고 완전한 활동에 의해서 스스로 이른바 「보이지 않는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부와 번영이 초래된다고 믿는 것이었다.

즉 각인이 자기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적 노력은 만약에 그 활동에 충분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된다면 다른 아무 것도 기다리지 않고 오직 그것만으로도 사회로 하여금 부와 번영으로 이끌어 가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설사 인위적인 법률이 졸렬하게도 가끔 그 활동을 저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것을 배제하고 자기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인위적인 장애는 다소간은 그 자연적 노력에서 오는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안전을 소멸하는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법은 언제나 국민에 의하여 그 자신의 이익을 고량하는 일을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입법자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욱 훌륭히 그들 자신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까닭이라고 한다.

록크나 아담·스미스가 보는 사회 또는 국가란 결국 개인이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천부의 본성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사회의 개혁은 그것을 위한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이때 자유를 실현해야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때 사회 또는 국가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초개인적인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고 개개인이 집합해서 만들어 놓은 집단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연법사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관념을 윤리적인 자각에까지 이끌어 올린 칸트가 결국 개인의 인격의 궁극적인 존엄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록크나 아담·스미스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의 정신이 진정으로 그 앞에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3. 새로운 자유와 책임론

전술한 바와 같은 인간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은 근대를 통해서 지속되어 특히 영국, 불란서 또는 미 합중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정치의 점차적 실현에 의하여 인간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성을 실현하기 위한 거의 최고도의 자유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 인류는 정치적 자유에 의해서 결코 제거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합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합리는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여기서 종래 개인을 단위로 하여 그 신체 정신을 분석하고 그들의 원자적 집합을 분석해온 과학에 대하여 본질적 확대가 시도되어 사회 그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서 그 내용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생겨났던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인간과 사회와의 이해가 시작되고 인간이 그 앞에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인 대상이 현실적으로 명백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문제도 종전과 같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고 있어서는 진정한 인간의 자주성은 확립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인간의 자유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띠우게 되었던 것이다.

즉 제1차, 2차대전은 근대사회가 제방면에 있어서 완비하게 되고 인간은 그 가운데서 옹분의 자유를 형성하면서 더욱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인양 객관적인 현실로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 전쟁에 수반한 사회문제의 복잡화, 심각화는 도저히 종전과 같은 예정조화의 기대를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위기를 조성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의 현실적인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회적 위기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근대를 지배한 개인을 단위로 한 사회에 관한 사고는 오늘날 어쩔 수 없는 위기에 돌입하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사회의 한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사회화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벌써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단위로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고 하나의 그 자체 주체적인 운동을 하는 실체로 자유론과 책임론서의 자태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그러한 사회적 모순이 그것에 소속하고 있는 개인에 미치는 작용을 봐서 알

수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현실에 의해서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중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대독저항운동 (레지스탕스)은 불란서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실이었음은 물론 더욱 광범한 영역에 걸쳐서 사회적 사상적으로 결정적인 그 무엇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불란서의 현대화는 급격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그것은 불란서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와 같은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었던 것이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불란서에 있어서는 내면적으로는 독일에 저항하면서 국제적으로 민주적 세력과 결합하는 이외에 불란서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은 없었던 것이다.

그 절박한 사명 앞에서는 개인적인 도덕은 물론 국가주의적인 도덕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 비중이 불란서를 억누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있어서는 애국심, 평화, 자유 등의 문제는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독일군의 불란서 점령은 단순한 군사적인 점령이 아니고 독일의 이른바 구주 신질서의 구상의 일환으로서 불란서를 내부에서 그 사회제도, 국민생활, 사상 등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는 운동이었다.

이에 대항해서 불란서가 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인 규모로 이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같은 의미에 있어서 제2차대전하의 불란서는 그 전혀 새로운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을 낳게 된 모태가 된 것이다.

즉 대독저항의 특색은 공산주의자도, 실존주의자도, 가톨릭 교도로 불란서가 높여진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현실 앞에 각기 그 이데올로기의 상위함을 떠나서 결속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불란서의 모든 국민 이 각기 품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방기케 하고 거기에 전혀 새로운 하나의 현실적인 사상을 품게 하였다.

예를 들면 대독저항운동에 참가한 한 시인은 저항운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던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불란서라고 하는 하나의 현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새로운 불란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종래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형의 인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도 내세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국가의 고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신과 내세를 믿는 가톨릭 교도와도 같이 깨끗이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의 지배를 굳게 믿고 신 가운데만이 진정한 현실이 있다고 믿는 가톨릭 교도도 이 현

세의 현실을 진실로 자유롭고 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헌신적인 희생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종래의 개인주의적인 관념적인 인간상으로부터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책임관에 약동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하튼 근대적 의미의 개인의 자유관, 이것을 새로운 자유와 책임관에 대하여 고전적 개인의 자유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러한 고전적 개인의 자유관은 새로운 세대의 자유와 책임관으로 전환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백상건



〈1〉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다같이 하나의 역사적 개념인 동시에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나 공동체를 위주로 하는

공동체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래 근세적 자유주의는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트 등에 있어서 근세적 사상가들이 제창한 이론철학에 그 기초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중세적인 종교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확립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봉건적, 절대주의적, 교권적인 온갖 인위적 압력과 통제를 부당한 간섭으로 보았다.

즉 자유주의는 기존권 위에 의거하는 모든 간섭을 인격과 창의에 대한 장애물로 보고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반 봉건적 사회 계급의 이데올로기, 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로서 유력한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프랑스혁명,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는 자유주의 세계관의 기초는 자연법학적인 자연권론, 사회 계약설이었다.

이러한 정치사상을 운반한 사람들은 17, 8세기의 계몽사상가들이었다.

그 대표자는 존·록, 볼테에르, 잔·자크, 루소 등이었다.

록이 이성법으로서의 자연법을 강조한 것이나 몽테스큐가 「법의 정신」에서 「법이란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는 칸트가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역설한 것 등등은 모두 이성 철학을 수립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의 인간이 가장 동경한 것은 자유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자유를 이상형으로 생각했다.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성이 인식 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생활했고, 각 사람은 자유 평등이 유지된 이상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이 자유주의 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를 요구했다.

그 정치적 자유는 정치참여, 즉 참정권을 의미했고, 경제적 자유는 즉 소유와 영업의 자유 즉 자본주의 경제의 자유기업을 의미했다.

그 사회적 자유는 거주, 집회, 결사, 계약의 자유를 의미했고 문화적 자유는 언론, 출판, 신사의 자유를 의미했다.

다른 한편 자유주의는 평등, 특히 인간 권리의 평등을 주장했다.

프랑스혁명에 있어서의 인권선언이나 미국 독립선언에 있어서의 자유 평등의 주장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인권의 평등이나 법 앞의 평등 따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러므로 근세 자유주의는 중세적인 차별관이나 교권적 내지 귀족적 특권을 타파하고 당시의 평등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한편 자유주의적 역사관은 중세적 사관을 물리치고 헤에겔 이래의 역사발전론이나 다윈 등의 진화론 같은 것을 믿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사회관은 개인주의적 사회관이다. 제1의적 존재는 개인이다.

따라서 사회는 제2의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근본 특성은 주권국가의 사상이다. 국가는 절대적, 불가분적, 무제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 총의의 정치적 표현이라 한다면 그 주권은 자연적 인권의 단체적 구현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 주권재군론과 주권재민론이 있기는 하였으나 국가를 주권국가로 본 점에 있어서는 양론이 일치해 있었다.

자유주의 정치의 지도원리는 입헌주의였다.

이 입헌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헌법 정치를 가정한 원리 였다.

민주주의는 정치운영의 형식이라고 인식되었다.

국체의 근본변혁을 혁명으로 인식한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정체(政體)의 변혁을 시대의 진보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았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시민계급은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공으로 되었다.

이때에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결부하게 되었다.

그 대표 인물은 영국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이었다. 그는 공리의 원리와 자리(自利)선택의 원리를 기초원리로 삼아 공법내지 정치이론 방면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했고 사법방면에 있어서 계약자유주의를 역설했다.

특히 그의 민주주의 사상은 19세기 전반에 있어서 큰 세력을 가졌으며 실제로 선거권 확장 그밖의 법제개혁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벤담은 공리주의 원리를 확립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의제를 강조했다. 그에 의한다면 경제정책상 국가가 해야 할 것은 다만 각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얻은 각 개인의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그가 사유재산제도의 안전보장을 강조한 것은 개인주의 사상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벤담의 제자 존·스튜어트·밀에 이르러서는 쾌락주의적 공리론이나 자유방임주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모순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

밀의 「자유론」(On Liberty 1859)은 그러한 시대적 환경의 소산인 까닭에 개인의 독립과 사회적 통제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시민적 자유옹호의 입장에서 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시민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밀은 「대의정부론」(Consideration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861)에서 영국 자유주의가 지주적 과두제(寡頭制)와 결합해온 이론의 결함을 지적하고 민주주의가 최선의 통치 형태라는 것을 설명했다.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신장하는 것을 생활원리로 삼았으므로 국가활동은 최소한도로 국한시키는 것을 강조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인정하고 국가의 불간섭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자유주의의 표현인 자유방임론은 자유경쟁 속에서 인민이 발전하고 국부가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경쟁이 적자(適者)를 발전시키고 부적자(不適者)를 도태시키는 사회에서 자연의 조화가 이룩된다고 보았다.

국가는 비단 경제 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대로 간

섭 통제를 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에 의한다면 국가의 기능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은 그의 저서 「대의정부론」에서 정치상의 자유는 정치에 대하여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논거의 첫째는 모든 사회제도가 사회구성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위에 성립된다는 데 있다.

현존 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대다수의 구성원이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에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도가 개조된다면 구상원의 의식은 구태의연 할 것이며, 다만 제도의 형식이 기계적으로 바뀌게 될 뿐이다. 그 논거의 둘째는 동의를 얻은 제도가 확고하다는 데 있다. 만일에 구성원의 다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도를 개조하게 된다면 그 개조된 제도는 구성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동이 오는 날에는 구성원이 동요하게 된다. 구성원의 다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도의 개조는 끊임없는 동요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 의해서 정치상의 자유는 국민의 총의를 얻음으로써 확보 된다고 보았다.

토머스·힐·그리인에 이르러서는 자유주의가 공리주의를 버리고 도이칠란트 관념론을 이어받아 이상주의를 수립했다.

그리인은 이상주의를 수립함으로써 자유주의를 옹호하게 되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인격완성을 강조했다. 그 인격완성은 결국 대중이 점점 프롤레타리아화 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있었다. 이 인격의 완성에는 국가의 보호와 간섭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일견 자유주의와 모순되는 방식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리인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종의 사회개량주의를 주장한 사회정책주의자였다.

현대의 자유주의는 지난날과 같은 「강제로부터의 자유」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인은 이상주의로서 자유주의의 결함을 보충했다.

즉 그는 국가보호간섭과 자유의 관계를 인상주의로서 해결했다.

자유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이야말로 종교적인 목적이다. 자유에는 「강제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기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가 있다.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는 소극적 자유보다도 적극적 자유가 필요하다.

「국가의 간섭을 받아도 여전히 자유다」라고 자유주의는 주장한다.

이 신자유주의는 본래의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와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허용하며 인격완성을 위한 이상주의에 세계관적 기초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 강령을 실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 전제로 삼고 있는 사상은 개인이 사회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민주주의사상의 기본적 전제는 공동적 사회생활의 단위인 개인이 모두가 평등히 이상실현을 달성하는 자격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인간 이성을 믿는다.

민주주의는 각 사람에게 평등하게 그 자유와 책임을 승인한다는데서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귀천·빈부·현우(賢愚) 강약과 차별을 없애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본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을 사회구성원인 하나의 독립적 존재로서 대우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고귀한 직업이라 해서 또는 부유한 인간이라 해서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비천한 직업이라 해서 또는 빈곤한 인간이라 해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약자 우둔자라 해서 그 존재를 멸시하는 따위의 차릴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질적 차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양적인 계산만을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약속된 모든사람은 지식·기술·건강·지위·재산 그밖의 모든 차별과는 관계없이 한 시민으로서 즉 같은 단위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등 무차별은 일반적, 형식적 전제이며, 결코 구체적 내용적 전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이 전제가 되는 이유는 평등 그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입장에서 각자의 인격적 책임하에 행동하는 것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은 형식상의 평등이다.

그러므로 질의 차이를 묻지 않는 양적 계산이 가능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수결 원리가 채택되는 이유가 있다. 사람마다 질이 모두 다르다는 전제하에 각 사람의 질을 제각기 다 같이 존중한다는 정신에서 평등의 합리성이 얻어진 것이다.

민주주의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상은 자유이며 결코 평등이 아니다. 평등과 불평등의 실질은 자유의 정도에 의존한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각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은 존재한다.

사람의 특권이 배제되는 정도에 따라 특권을 가진 사람의 자유의 정도가 감퇴하는 반면에 특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자유의 정도는 증대한다.

그러므로 특권의 해방이란 결국 그 만큼의 자유의 실현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큼의 불평등의 배제를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나 병립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족한 생각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비례되는 개념이다. 평등의 실체는 자유에 있다.

물론 자유는 제도상의 자유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상의 자유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경제적 영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따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자유는 목적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수단적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각 사람이 품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면 할 수록 그 사람은 자유라 할 수 있다.

사람이 그 목적 달성에 성공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부자유라 할 수 있다. 자유와 부자유는 어디까지나 역비례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완전한 자유라든가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인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제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할 때 가지 가지는 사회적 이해 대립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사회에 대하여 최대 가능한 자유를 부여하려는데 최후 원칙을 두고 있다.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는 역사적인 임무를 다하여 벌써 고전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현재도 미래도 인간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한 모습을 바꾸어서 계속 주장될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로 「대조직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문제」, 「언론표현의 자유문제」, 「결핍 타파의 자유문제」, 「공포 제거의 자유문제」, 「신교의 자유문제」같은 자유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보다도 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의 자유 말살문제와 파시즘의 자유 말살문제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현대의 세계를 두 세계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한 공리주의에 입각했던 고전적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반동적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량주의적·의회주의적 사회주의(사회 민주주의)와 소부르조아적 민주사회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합리주의·자유주의 입장에서 반공전선의 일익을 담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오늘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소련처럼 명실이 다같이 1당독재의 나라가 있고 형식상 여러 정당이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1당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동구 위성국들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권의 기초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강력성과 카리스마(천무의 자질)에 있다.

공산독재 치하의 여론이란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독재자에 의하여 위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며, 대중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것이 아니다. 공산독재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현명한 정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화적 방법으로는 공산 독재자를 교체시킬 수 없다.

피지배계급은 잃어버릴 아무 것도 없고 조국마저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보는 계급투쟁론이 이 사회의 적나라한 실태라 한다면 이 사회에는 공공이익도, 관용도, 양보도, 타협도 없을 것이며, 무자비한 투쟁만 존재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자비한 투쟁만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서 유리된 사고방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계급투쟁론이 역사상의 모든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현대의 계급은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식으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하에 따라서 계급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현대의 사회 계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지위와 그 수입원천으로 본다면 소위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본가 계급과 결부되는 수가 많은 새로운 중간계급의 존재를 도외시하는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의 계급투쟁론이다.

사람이 빵 없이 살 수 없다는 뜻은 물질적 가치가 생활상의 중요한 가치이며, 행복의 1요소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 가치, 유리적 가

치, 문화적 가치, 그밖의 종교적 가치도 사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존 사회질서를 전복하려는 혁명계급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독선적, 독단적 사고방식이다.

국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급착취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질서유지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능을 가진 조직적 현실체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다. 국가는 오늘날 건전한 사회정책이나 사회입법으로 계급대립을 오히려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초계급적인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공산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의 강제 질서를 비난하고 있지만 공산국가의 경제도 강제 없이 실현된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악이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오늘날의 문명국가가 추구하는 평화, 안녕 질서, 복리(福利) 따위를 너무나 무시하는 극단론이다. 공산국가가 오히려 1당독재가로서 1대 교도소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의 공산국가는 거개가 직업선택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군사적 관료국가라고 지적할 수 있다.

공산주의 제창자 카알·마르크스의 경제학설은 현실적으로 미국 경제사회에는 맞지않는 까닭에 결국 19세기 사상의 박물관에 보관할 성질의 것이라 한다.

마르크스의 첫째 가설은 자본과 부가 점차 소수의 자산가(Property owners)의 수중에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제도에서 자본과 경제력은 법인조직으로 집중했지만 부와 소유권은 그 집중에 따르지 않았다.

부는 점점 회사의 주식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연금기금, 보험회사, 그 밖의 같은 종류의 기관에의 가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부는 점점 넓게 배분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부가 증대함에 따라 부와 수입이 점차 전 인구에 널리 배분되게 되어 있다.

수입의 배분은 부의 배분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차츰 없어져가고 있다.

미국인구의 약 80%는 오히려 중산계급으로 향상되어 있고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점 중산계급 속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빈곤자는 10%이하라고 보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실정이다. 미국 사람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으므로 기아(飢餓)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낮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아의 위협이 전연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언제나 사회정책, 노동문제, 복지행정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둘째 가설은 부자가 착실하게 나라 안의 모든 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대중은 차츰 구매력을 잃게 되며, 그로 인해서 기업은 나라 밖에서 시장을 찾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와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수입과 국민의 부가 점점 널리 배분됨에 따라 미국 자체의 대중시장이 차츰 확대되었다.

물론 미국 기업가들도 어느 정도 해외시장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의 첫째 이익은 국내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 자본은 기회가 좋다고 보일 때 해외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저개발국에 있어서의 판로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그러한 시장에 입각하는 식민지적 제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관심도 없다.

마르크스의 세째 가설은 부가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하므로 인해서 주기적인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심한 위기가 자본주의제도를 파멸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미국에서는 경제재정위기를 먼저 완화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 내고 점차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내고 있다.

정부는 통화와 신용제도를 통제 하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경제공황이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다든가 심하게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든가 하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오늘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나라 안의 빈곤을 근절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아래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 중공의 건설이나 우주과학에 관해서 운운한다.

대건설 뒤에는 국민위 커다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노예경제제도(奴隸經制制度)나 농노 경제제도의 시대에 있어서 노예노동, 농노노동을 구사하

여 당시의 과학적 기술을 통하여 피라밋이나 대수도나 또는 만리장성이 강행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는 실업자가 없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놀라울 것이 없다.

과거에 노예경제나 농노경제에도 실업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그 곳 노예나 농노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저 임금에 아무 불평을 못한다고 해서 실업자가 없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공평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완전고용을 우리는 바랄 뿐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계급 정당론을 강조하고 당전위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시로 삼는 모든 나라의 정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독재가 아니라 공산당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계급정당이 계급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할 때에도 당이 국민적 이익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사실상 활동한다. 정당의 본질적 요소가 계급적 이익에 있다고 보는 것은 확실히 전세계적 사고방식이다. 오늘의 정당은 계급적, 국민적, 국제적이라는 3차원적 존재로 있는 정치집단이다. 더군다나 공산당이 전계급 중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잘 훈련되어 있고 가장 굳게 단결된 지도부분 전위대라고 자칭하는 것은 가치표준을 어디다 두는 말인가.

오늘의 각국 공산당이 일종의 관료주의적 조직체제와 관료주의적 독선으로 빠지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그 당의 상부 지령에 대해서는 맹목적 복종만 존재하고 그 이외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끝으로 전쟁 자체가 자본주의의 책임이라고 강변하는 공산주의 논리도 사실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공산국가의 침략적 야욕이나 전쟁도발적 행위가 입증 해주고 있다. 과연 대규모적인 전쟁이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우리의 공필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필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기는 공필화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역시 공포와 불안이 없는 건전한 자유사회를 바랄 뿐이다.



최강석



서 언

현대 공산주의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마르크스 주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른바 「창조적인 적용이라는 구실 밑에 그의 내용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휴머니즘적인 여운조차 현대 공산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백여년전 마르크스주의가 출현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백여년의 세월을 경과하는 동안에 많은 우정이 가해졌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중심사상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 성원의 공동소유로 하며, 계급투쟁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며 국가와 민족이 없는 「무계급 사회」를 세계적인 범위에서 실현하자는 것을 현대 공산주의자들도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이들을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범주 속에 몰아넣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구라파를 유명처럼 배회하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1세기 동안에 세계적인 사조의 하나로 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르크스의 사자상 백전불패의 위력을 지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파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자체의 생활력과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권모술수도 포함한 실천력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문에서 주로 공산주의가 다른 사조들과 구별되는 특이점들을 중심으로 이를 해부

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 관점

엥겔스는 「포이에트바하론」에서 『일체의 철학, 특히 근대철학의 근본문제는 사유(思惟)와 존재의 관계여하의 문제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유(정신)와 존재(자연)는 어느 것이 시원적(始源)의이며 근본적인가의 해답 여하에 따라 관념론자와 유물론자로 양분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물질, 자연, 존재가 사람의 의식, 정신, 사유를 생산케 하는 시원(始源)이며, 성차적인것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환연하면 의식, 정신, 사유는 물질의 속성이며 물질, 자연, 객관적인 세계는 인간의 의식 밖에,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심지어 인간의 사유는 고도로 발전된 물질인「뇌수의 산물」이며 인간의 생명은 「단백물질의 화합물」이라고 공산주의는 주장한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식이 객관적 실재물의 반영이라는 모사설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관념세계라는 것은 사람의 뇌수에 이전되어 개조된 물질적 세계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엥겔스도 관념을 실재물의 모사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은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즉 세계에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아직 인식하지 못한 사물과 현상은 장차 과학의 발전과 경험의 집적에 따라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가지론을 통렬히 반박한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그의 저서「경제학 비판」(1859) 서문에 간명하게 정식화되고 있다. 『...인간은 자기들의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정한 필연적인 제 관계, 즉 자기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적응하는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현실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위에 하나의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 구조가 축성되고 그리고 이에 일정한 사회적 의식의 형태가 조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고.

요컨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모든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구조가 인간의 의식에 반영된 것이며 정치 역시「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의 진보는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고 전제하면서 계급투쟁은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간의 모순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력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생산관계는 이에 적응해서 개편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낡은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낡은 생산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바 낡은 생산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 되는 바 낡은 생산관계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지배계급은 그대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은 투쟁에 의해서 이를 타도하고 새로운 생산관계에 기초하는 사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에 궤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에 불상용적인 모습이 없는 사회」 즉 공산사회에서 계급투쟁이 없어지고 따라서 계급이 소멸되며, 「지배 계급이 피지배급을 억압하는 기구로서의 국가도 조작되고 국가의 조작은 민족까지도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의 선차성과 의식(정신)의 후차성을 주장하면서 철저한 일원론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

둘째, 「세계의 가인식성」을 주장하면서 철저한 무신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셋째, 경제적 관계가 사회의 여타제 관계를 규제하며, 경제적 하부 구조는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까지도 좌우하는 경제적 결정론을 주장한다는 점.

네째, 사회의 진보는 계급조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계급 투쟁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생산관계는 점차 생산수단을 공동소유제로 하는 공산사회의 상용적 생산관계로 대체된다는 것.

다섯째, 이상적인 사회의 전형을 국가와 민족이 없는 무계급사회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2. 물자의 선차성과 세계의 가인식성

공산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그의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 철학의 근본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유(정신)와 존재(자연)의 관계문제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가 여부에 있다고 한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유물론은 일반적으로 의식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적 실재(물질)를 인정한다. ...의식은 다만 실재의 반영이며 최량의 경우라야 근사적으로 확실한(상대적이며, 이상적으로 정확한) 실재의 반영이다」고. 요컨대 공산주의 철학은 물질의 선차성과 의식의

후차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모든 사물과 현상을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설명하려 하고있다.

물론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에 그리고 모든 사회현상에 많은 영향을 주며 때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정신의식이 물질의 반영이며 그와 모사라는 유물론 철학의 대전제를 합리화 하는 자료로는 될 수 없다.

유물론자들이 물질과 정신의 관계 문제를 철학의 기본문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수긍할 수 없거니와 정신을 물질의 반영 내지는 모사로 보는 것은 아전인수적 독단이다.

비근한 실례로 백치나 정신이상자들에게 온갖 물질을 보여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별 못한다.

정신적인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만이 사물과 현상을 보고 그것을 자기대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물과 현상이 소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성과 지향을 가진 인간의 정신력이다. 인간의 창의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물질문명이 발전되어 왔음은 우리의 상식이다.

우리의 경험은 항상 물질적인 것에 선행해서 정신적인 것의 합목적적인 작용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물질이 정신에 반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피동적이며 정신의 능동성은 동일한 물질에 대한 관찰자의 견해를 달리하게 만든다.

하키가 유물론 철학에 있어서는 물질의 개념을 철학적인 것과 물리학적인 것과 구별하면서 철학적 개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의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감각을 일으키는 실재」라는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물론자들이 물질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를 「두뇌는 사유의 기관」이며, 두뇌는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사유정신은 후차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억지이다.

유물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신앙심, 영감, 환상 등은 이를 산생케 하는 물질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물질의 선차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의 해결을 모든 사회문제의 첫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인식의 주체는 아니다.

3. 세계의 가인식성과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와 그 합법측성은 완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실험과 실천에 검열된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가진 정확한 지식이며 세계에는 인식 못할 사물이라고는 없고 다만 아직은 인식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과학과 실천의 힘에 의해서 발견되며 인식될 그러한 사물이 있을 따름이라는 전제아래 세계의 가인식성을 주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와같은 주장은 과학의 힘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따라서 철저한 무신론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물론 과학의 발전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여러가지 자연현상들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었다.

마르크스가 예시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는 3백년 동안이나 가설(假說)이었으며 비록 그것이 극도로 큰 예측이었으나 어쨌든 가설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르베리에가 이 태양계의 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때까지 알아내지 못한 다른 한 개의 특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리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천공에서의 그 위치까지 산정(算定)하였고, 그 후 갈릴레이가 실제로 그 후성을 발견하였을 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는 증명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명할 수 없었던 것을 과학의 발달로 해명되었다고 해서 여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더우기 공산주의자들도 초인간적 힘을 인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자연법칙이나 사회법칙이나를 막론하고 법칙은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오직 여기에 순응해야 할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연 및 사회의 제 현상은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며, 모든 우연성은 필연성의 표현형태에 불과하다고 공산주의는 주장한다.

엥겔스는 「자유란 자연법칙으로부터의 독립을 몽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의 인식 안에, 그리고 그의 인식과 더불어 주어질 가능성, 즉 이 법칙을 일정한 목적에 대해 계획적으로 작용시킬 가능성 앞에 있다.……따라서 자유란 자역의 필연성의 인식이 토대로 하여 우리를 자연 및 외적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란 필연적으로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다」(F·Engels, Anti Duhring, Berlin 1958. S. 138)고 하였다.

엥겔스의 주장대로 인식된 필연성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공산주의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宿命론과 같은 계열에 속하게 된다.

이러고 보면 공산주의는 그의 혁명론에서 주의주의(主意主義)를 강조하고있는 것과 모순되

고 있을 뿐 아니라 무신론과 가인식성과도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요컨대 무신론의 이론적 근거로 되고 있는 세계의 가인식성에 관한 공산주의 이론은 이른 법칙과 이 법칙의 발현으로서의 필연성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종의 종교적 교의로 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의 현실은 또한 공산주의가 종교의 지위에 놓임을 입증 하고 있다.

4. 토대와 상부구조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이론은 공산권 내의 학자들간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여러 이론이 나오고 있다.

물질의 선차성에 기초하고 있는 유물 사관이 경제적 결정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모사설을 취하고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생산관계의 총체가 현실적 토대, 즉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이 토대 위에 정치·법률·철학·예술적인 상부구조가 축성되고 이데올로기가 조응하게 된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의 출현은 상부구조가 먼저 형성되고 그 후에 경제적 구조 즉 현실적 토대라는 하부구조가 산생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경제적 토대가 없었던 자본주의 사회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공산당의 어용학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토대의 복잡성을 운운하면서 그와 같은 모순을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대가 단순하다는 공산주의 사회에 부르조아 이데올로기가 상존하고 있으며, 계속 이른바 정풍운동(整風運動)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공산치하의 이러 저러한 정치적 변혁들이 경제적 구조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상사업을 경제사업에 선행시키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물론 경제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인간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소련과 동구공산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자 및 이윤을 경제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리베르만 방식은 공산당의 결정 즉 정치적인 조치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토대의 반영으로서 산생된 상부구조는 일단 산생되면 토대 즉 하부구조에 반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원칙 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경제상태가 결정적이라는 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공산 주의이론은 경제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서 물질의 선차성을 사회현상에 억지로 적용하려는 괴변에 불과 하다.

5. 계급투쟁과 계급협조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계급투쟁 대신에 계급협조를 설교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계급투쟁 이론은 공산주의의 핵심이며, 따지고 보면 마르크스주의와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이론 등의 공산주의 3대 구성이 모두 이 계급투쟁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르크스는 종래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급투쟁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이전의 전사회에 까지 적용하여 하나의 이론체제로 묶어 세우며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계급투쟁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이론 자체에 많은 무리과 아전인수적 해석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식에 있어서 확립적으로 한 계급 속에 간단하게 몰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의 서방 사회에는 중산계급의 대두와 프롤레타리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양대 계급으로 단순화 되지는 않았고, 또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노동조합 및 기타 기관의 조정으로 폭발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공산당선언에서 예언한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의 가장 중요한 논거의 하나를 상실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부르조아지는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무기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휘두를 사람도 만들어 냈다.

—근대적 노동계급—프롤레타리아트를…」이라고 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기대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투쟁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는 현명성을 생활경험에서 체득하였다.

이리하여 레닌의 시기에 와서는 인위적인 혁명정세의 조정과 이를 위한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레닌의 그의 특유한 권모술수—총계 말하면 러시아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에 의해서 정권을

쟁취하는데 성공하였다.

마르크스가 말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한 계급투쟁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권모술수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한 사회제도 실현에 필요한 독재정권 수립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정권탈취는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은 혁명의 시초이고, 이것을 이용하여 공산주의적 사회 제도의 수립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자본주의적 정치기구의 파괴와 공산주의적 경제제도의 확립이라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탈린과 같은 잔인무도한 폭군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스탈린의 등장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이 정권 탈취의 강력한 무기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화를 위한 혁명수출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위성국들의 형성과정은 계급투쟁이란 간판 밑에 해당 나라의 소수 직업적 혁명가들로 하여금 무혈 쿠데타의 방법으로 정권약취에 성공케 하였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반대파 숙청의 좋은 구실로 되었다.

이리하여 공산권의 형성은 자유진영의 작대세력으로서 세계 도처에서 냉전과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의 자유민주 세력과의 대결을 국제무대에서의 계급투쟁으로 선전하기에 이르렀다.

계급투쟁 이론의 변천된 내용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소련 공산당 제20차대회(1956. 2)에서 제기된 이른바 평화 공존노선이 계급투쟁을 배제 하지 않는 것은 주창자인 흐루시초프가 누차 언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계급투쟁과는 차이점이 많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투쟁형태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상의 3부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강조점은 정권쟁취를 위한 최고의 투쟁 형태는 무장폭동이며, 폭력의 행사없이 지배계급이 순순히 정권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공산국가와 자유국가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제국주의 전쟁은 불가피 한 것이라는 결론에도달케하였다.

그러나 평화공존론은 계급투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력사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경쟁과 사상적 영향력에 의한 세계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원래 계급에 대한 생활자료의 획득방법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공산

주의적 정의 자체가 일방적이다.

경제적 결정론에 입각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그와같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설사 그 정의가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을 생활자료의 획득방법을 기준으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양분 할수는 없다. 그것은 직업의 전문화와 분업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계급을 두 개의 범주 속에 몰아넣기가 곤란하며 몰아넣는다 해도 계급의식의 공통점을 발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컨대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시켜 정권유지에 이용하려는 선전적 목적에서 현재도 요란하게 떠돌고 있지만 실천적 의의는 이미 상실되었다.

6. 국가 조락론(凋落論)

공산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적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그것은 본질상 폭력적 탄압기구이며 이에 의하여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바 계급이 없으면 즉 공산사회가 되면 국가도 자연히 시들어 없어지는 즉 조락의 운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이란 책자에서 「국가는 여러 계급의 대립을 누르기 위한 필요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세력있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인 것이 보통이다. 이 계급은 국가를 사용하여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되고 그리하여 피압박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얻는다.

그리하여 고대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노예소유자의 국가며 봉건국가는 농노 및 예속농민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의 기관이며 근대의 대의제국가는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모스크바 판 1948, 241면)고 하였다.

공산주의의 이와같은 국가론은 사회의 전반적 복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전통적 국가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우리의 상식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방위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경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초계급적인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적 국가론은 오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무계급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지나친 독단론이다.

이론상으로는 일견 그럴듯 하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한지 이미 30년 이상이 경과한 소련에서는 국가는 조락되기는 고사하과 소비에트 국가기구가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물론 소련이 아직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공식 문헌에서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착취계급의 온상으로 되고 있다는 사유재산제도는 철폐 되고 있는데 계급이 상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특권계급으로 등장하고 있는당 관료들이 소련인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필요에서 국가가 아직 조락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수궁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어용학자들은 이른바 자본주의 포위 속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하니 더욱 모순된다.

이 주장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소비에트 국가의 대내적인 기능은 앵겔스가 1873년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반박논문 「권위원리에 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적 제 기능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적 이해를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으로 변하였는가? 소련의 현실은 이와 같은 앵겔스의 예언을 비웃고 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국가조락론은 그들의 환상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계급적인 행정적 기능을 정치권력의 배경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꿈이 아닐 수 없다.

조락되면 자연히 민족도 소멸되며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적인 사회, 즉 국가와 민족이 없는 무계급사회가 도래 한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창시자들은 선전적인 목적도 추구하고 있었다.

국가의 억압적 기능에 시달림만 받고 그의 혜택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무산자 대중에게는 국가의 고마움은 절실한 것이 못되며, 오히려 원망스러운 존재로서의 국가에 대한 좋지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 이점을 교묘히 자극하여 공산당편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자는 것이 마르크스가 노린 점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또한 각국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른 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단결케 하여 세계적화의 용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의식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 소멸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애착심을 갖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마르크스가 노린 점의 하나일 것이다.

중·소분쟁의 기본원인이 중공과 소련의 국가적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탁월한 공산주의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초국가적 입장에 서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중에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결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합리성 여부는 불문에 불이더라도 이 사조가 경제적 또는 정신적 욕구불만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매력울 느끼게 하고 휩쓸려 들어가게 하는 마취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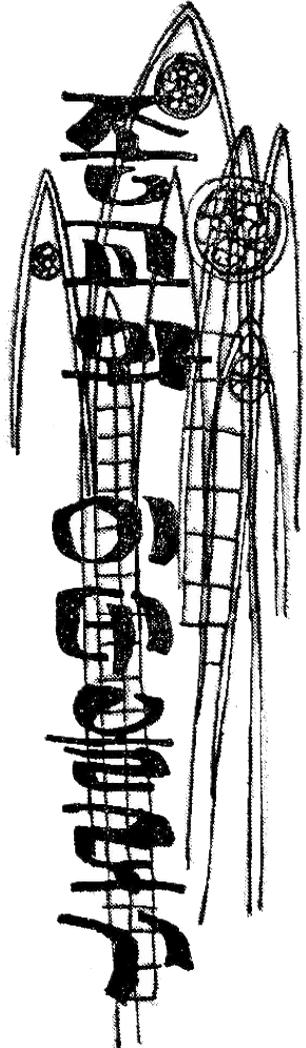
그것은 이 사조가 권력에의 폭력적 반항, 빈곤타파의 설교, 불가지론의 배격등 여하한 욕구 불만이드 이것을 해결 해 줄 것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화의 사상적 무기로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큰 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지닌 마취력은 일부 현실 도피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충분하다.

이 마취력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가관의 확립과 자아의식이 필요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특 집



기독교와 공산주의

정하은

천주교와 공산주의

박양운

공산주의에 대한 불교적 비판

이기영

불교와 공산주의

래너싱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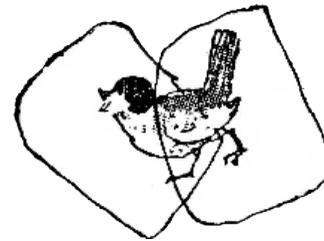
천도교 사상과 공산주의

백세령

기독교와 공산주의

정하은

〈신학박사·한국신학대학 교수〉



20세기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포악한 전체주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야수적이고 권세탐욕적인 괴물이라고 「부룬너」는 고발했다. 그의 반공논리는 매우 강렬하여 얼핏 듣기에 지나칠 정도이다. 그러나 그의 공산주의와 비판은 온후한 신학적인 빛깔로 염색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박한 것으로서 많은 기독교자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기도 한

다.

「부룬너」는 공산주의를 맞대고 포문을 열어도 도전하기전에 잠시 자문한 바 있었다. 도대체 그 많은 군중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전열 속으로 자진하여 뛰어 들어가는 기본적 동기가 무엇 이겠는가? 거기에는 어떤 매력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를테면 자유와 정의같은 것?

민중은 무엇보다도 정의의 확립을 갈구하고 있다. 세계 인민의 대다수가 비극적인 참상 속에 있다. 지구상에 사는 주민 반수 이상이 기아임금으로 노동하며 배를 곯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편 부자들은 사치와 풍요 속에 흥청거리고 아무 걱정도 불편도 없이 잘 살아 가고 있다. 이러한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보고 마르크스는 정의라고 일컫는 깃발을 앞세우고 계급투쟁을 부르짖었다. 그와 계급투쟁은 단순히 유산계급이나 창백한 지식층에 대한 반동이나 반항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이 세상을 뜯어 고치자는 것, 즉 변혁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민중은 크게 매혹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민중은 자유에의 해갈(解渴)을 원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봉건적인 압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심히 갈구했다.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하에 있는 사람들은 식민적 예속으로부터의 자

유와 해방을 바랬다. 칸디의 인도 민족해방 운동이라든가, 우리 나라의 3·1운동 등이 그러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민족주의와 동일화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반식민운동에 합세한 것만은 어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28년 당시의 신간회 운동도 그러한 한 예였다. 이렇듯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든 예측과 착취의 운명적 쇠사슬로부터 자유 해방케 하는데 전위적인 구실을 다했던 것이다. 이로서 민중의 눈에 비친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딱딱한 형이상학적 관념의 도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부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부룬너」는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매력적인 자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많은 수의 대중들, 특히 가난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다. 그것은 위의 논조와 다르다. 마르크스 이론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건 정의니 자유니 하는 것이 민중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불발탄의 미사여구로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의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도 오�히려 그것들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은 전체주의의 방안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유와 정의를 사유의 배면에 두면서 「부룬너」의 공산주의 비판을 점철하기로 한다. 「부룬너」는 실제면에서는 공산주의를 제체주의라고 지탄하면서 비판하였거니와 이론적인 면에서는 마르크스의 「자기소외」론의 허구성에 반발하였다. 이 소론에서는 후자인 이론적인 면에서만 공산주의를 비판하게 된다.

1. 마르크스의 자기소외 정복사

「마르크스」철학의 중핵을 이룬 것은 부재학언(不在學言)하고 인간의「자기소외」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마르크스가 고안해 낸 것은 아니었다. 그 연원은 「헤겔」에 있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신적 관념인 자기소외를 경제적 표현으로써 그 색체를 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헤겔」에 의하면 인간은 당초에 「자기소외」혹은 「자가분열」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 역사의 과제는 인간의 자기소외를 지양하여 본래적인 자기으로 복권하는 일이라고 했다. 역사란 자기 분열의 집에서 자기의 화합된 집(신의 집)으로 가는 인간의 귀로 과정인데 그것이 인간역사의 종국적 목표라고 했다. 일언폐지하고 이것은 「자기소외의 정복사」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기소외론을 경제사적으로 해석했다. 더우기 신학적 체계인 신, 인간, 타락 구속(救贖), 내세의 순위로 자기소외론을 다루어갔다. 물론 그 내용은 신학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룬너」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학적 노력을 「부정적인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그러면 마르크스는 어떻게 자기소외를 전개하고 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인간의 자기소외란 인간이 본래 자유였는데 그 상태에서부터 분리되어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를 의미했다. 신에의 의존, 경제적 생산에의 의존, 국가에의 의존 등이 자기소외의 두드러진 역사적 형태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첫째, 인간은 신에 의존적이다. 여기서 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인간소외의 정복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친구 「포이엘 바하」에 신관(神觀)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포이엘 바하」에 의하면 신이란 인간의 환상에 불과했다. 그는 성서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란 어귀를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고 꺾꾸로 전위해 놓았다. 이것은 곧 신의 부정적이었다. 신학 대신에 인간학을 우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신을 실재화하고 그 신에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환상의 노예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에 그러한 환상에 굴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했다. 그러니까 신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고, 인간 권위의 복권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무신론을 인권옹호와 자유보장의 기본원리로 삼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의존감은 왜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그야말로 기상천외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거룩함 의식이나 은혜에 대한 양감이라든가 어떤 죄책과 공포감 등에서 발생 했다고보다도 순연히 경제적 궁핍에서 배를 곯게 되니까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빈곤이 환상과정의 기초가 된 셈이다.

가난하기에 이적을 구하는 요행을 바라며 신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복하여 먹을 것이 충분하다면 그런 환상은 없어지고 만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의존이 없어지면 신적 환상도 사라지고 동시에 자유도 누리게 된다. 자유란 의존의 반대요, 의존에서의 해방이다. 그런 자유가 경제적 빈곤 극복에서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때 신도 종교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자기소외의 정복은 곧 비종교화 내지 무신화에 통하는 길이기도 했다.

둘째, 인간은 생산관계에 의존한다. 태초에 인간은 손수 노동하여 생계를 꾸렸다. 그때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대립이 없었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노동했기 때문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양립도 없었다. 그런데 역사가 굴러가는 동안에 인간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품을 팔아야만 다른 필수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에 커다란 차질이 생겼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노동의 자기 소외」로 표현했다. 마르크스의 자기소외 정복론에는 항시 자기 농토를 경작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원시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목가적인 망향심이 서리고 있다.

환상에 잠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인간의 자기소외론을 기초로 하여 살폈다. 여기에

서는 허다한 허문이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에 대한 「부룬너」의 날카로운 정문일침(頂門一鍼)을 찾아보기로 하자.

2. 비판과 결론

「마르크스」의 자기소외론은 실로 흥미진진하다고 「부룬너」는 전제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의 비판적 필봉을 휘두르고 있다.

소외론의 발설자 해결에 있어서 자기 소외란 결코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완전히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용어로 오용되었다고 일갈했다. 자기소외란 자기안에서의 자기의 본래적인 것과의 분열 및 소격(疎隔)이나 또는 자기의 수단화(手段化)였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생산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소격현황에 적용한데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

자기소외란 왕으로부터 떨어져간 인간의 고립적 상태, 다시 말하면 본질로부터 빗나간, 실존적인 죄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거나 또는 자기의식의 주객 수립 관계를 의미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런 인간의 내적인 문제까지도 경제적 의존관계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인간 자체 안에도 사리고 있는 교만, 이기심, 반역심 같은 일련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無知)스럽다. 그러기에 마르크스는 경제문제 해결에서 인간의 신과의 관계, 인간관계, 심지어 내적 죄문제까지 극복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너무 나도 결정론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면서 비판했다.

첫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무산화」된다고 말했다. 때가 오면 노동자들이 살기(殺氣)를 안고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마르크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마르크스는 오늘의 자본주의처럼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노동에 관한 국가법령이 실시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둘째, 점진적인 무산자와 나란히 하여 자본의 집중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제너럴·모타스」 「포드」회사 등을 보면, 실로 거대한 기업체 속으로 자본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이 다 주식회사이다. 주주들의 절대다수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미국에는 현재 2천만명 이상의 주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이 소수인에게 집중되었다기보다도 다수 노동자에게 많이 분산되어 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세째, 자본주의는 그 절정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자본주의의 아성 속으로 진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진미를 잘 모르는 나라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거센 반공의 풍조가 일고 있다.

네째, 공산화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사멸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사상 소유의 권력을 휘어잡고 전체주의적 철통의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동물적 생활수준에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소외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의 세계에는 행복과 평화가 깃든 자유의 왕국이 「필연적으로」 전개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가능성의 세계하고 필연의 세계를 혼돈하고 있었다. 그는 역사의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승리하면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문제까지도 필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특히 역사를 필연적 과정이라고 본다면 어찌 자유가 필연 속에서 허용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대로 「부룬너」의 공산주의 비판은 그 핵을 찌르고 있다. 마르크스의 철학에는 체계적 일관성이 흐르고 있다고 하나 그러나 역사적 현실의 일단면에 집착하여 경제 일변도를 면치 못했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기의 철학이 필연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필연의 왕국」 후에 「자유왕국」이 온다고 예언한 점에 있어서 실로 유토피아적 환상가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아닐 수 없다. 「부룬너」는 이래서 마르크스의 예언적 사실을 하나의 허위설로 낙인을 찍고야 말았던 것이다.

「부룬너」는 오늘도 스위스의 조용한 호반을 산책하면서 다시금 반공에의 기쁨을 뽐고 있는 성싶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경제분야만 해결되면 자유를 누릴수 있는 마르크스의 교조적 독백에 걱정을 여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풍요해 질수록 오히려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괴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사실 잠꼬대에 불과했다. 그리고 「부룬너」는 마르크스의 자기소외론이 신을 거부하는 무서운 비종교화의 논리요 체계인 만큼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분노를 자아내고야 만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의 자기소외론을 중심한 공산주의 비판에 더욱 전진 있기를 바란다.

천주교와 공산주의

박양운

〈신부·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70년대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완료되는 연대다. 이 기간 중에 우리는 국력을 급속히 성장시켜 통일에 대비할 여건과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 ◎—통일은 꼭 이룩해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공산주의를 종교화하다.

세계 제 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포스담」에서 있었던 세계 4거두 (미·소·영·중) 회담시에 「스탈린」은 「루즈벨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가톨릭교의 수령」인 「비오」 12세는 몇 사단의 병력을 가졌기에 우리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며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가?

가톨릭이 반공사상전에 있어 첨단인 기수 노릇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무신적 유물론으로 모든 종교와 정신계를 말살하려 하기 때문에 가톨릭은 사상적 정당방위로서 반공투쟁을 전개하는 것 뿐이다. 사실 광명과 암흑, 선과 악이 양립할 수 없듯이 가톨릭과 공산주의는 원리에 있어 공존할 수 없다. 혹시 누가 생각하기를 핵전쟁으로 공산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핵무기로 공산주의자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마저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포어떤 이는 사회빈곤이 공산주의의 온상인만큼 경제적 윤택으로 그를 몰리칠 수 있다고 망상한다. 물론 사회적 불균형이나 경제적 빈곤을 공산주의자들이 대중 앞에 선동재료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공산주의적 책략을 삼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공할 공산주의의 본질은 과학적 사회주의나 정치적 조직에 보다는 무신적 종교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영국의 「버나드 · 쇼오」는 「공산주의자의 생활태도란 경제적이기보다 종교적이며, 그들이 과거의 역사와 절연하고 새로운 사회질서 세운다는 것도 산업적이

기보다는 종교적 광신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카알·마르크스」는 그의 체계를 사실과 이론 위에 수립시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제이론가요, 또한 과학자로 자부하였다. 그런데 오늘의 공산당원들에게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레닌」의 원리가 신성불가침의 신조로 변화하였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대로 「레닌」에 의하면 「레닌」의 정신은 …… 이런 표현은 급기야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이상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신조주의를 이룩하고 말았다. 공산당원들에게는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이 종교적 계시자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계시는 당의 간부들의 입을 통하여 해석되는 것이다.

2. 반공산주의의 신앙개조(信仰箇條)는 유물론

그리스도교의 기본 신앙개조가 유일신에 있듯이,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진리는 물질의 존재이며, 물질을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 영혼과 신의 존재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크리스찬」과 같게 된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모든 것이 물질에서 오고 물질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자유에 대한 해석도 물질적이다.

「생명」은 단백질의 존재양식이다.

「자유」는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 소산이다.

「감각」은 운동에 있는 물질의 특성 중 하나이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인간행위의 선악과 의무감을 부정하는데 있지 않고, 인간 행위를 이 지상에 국한시키는게 있다. 따라서 사후의 인간에게는 행복도 없고 이 세상 밖에 다른 곳에 정의도 없다고 가르친다.

위의 간단한 설명에서 그리스도교 사상과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창조주이신 신을 믿는다. 만유는 신에게 종속한다.」

「맑시즘」—「물질만이 존재한다. 만유는 물질에 의존하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 사상은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하다.

3.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판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에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와 운동을 지속하는 타성의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물질에는 수동성과 타성이 있지만

또한 팽창력, 동력, 「에네르기」가 있다. 물질안에 있는 「에네르기」는 물질로 하여금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에네르기」는 저항력인 타성과 충돌한다. 이것이 물질 안에 일어나는 부단의 투쟁이며 모순이다. 이 투쟁과 모순은 악이 아니고 도리어 생과 발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 투쟁은 각 물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간에도 있다. 이 투쟁은 자연계에 있어서 발전의 조건이 되며, 또한 돌변적 및 급변적으로 일어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이 구유(具有)하는 「에네르기」가 내적 및 외적 저항력에 반대하여 부단한 투쟁함으로써 물질의 진보를 가져 온다는 학설이다.

「자연계」에 「에네르기」와 타력이 있듯이, 인간사회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산하는 활력을 방해하는 사회적 타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연계에 있어 물질의 진보는 투쟁과 급변하여 이루어지듯이 인간사회의 진보도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질만 아는 인간이 어떻게 남에게 양보하고 무사무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공산주의의 혁명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또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자유의 포기를 강요한다는 것을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인간이 아주 변할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가설 때문에 그대들의 동포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동포를 사랑하는 것인가 혹은 미워하는 것인가?」

4. 공산주의 윤리의 비판

모든 윤리에는 기반이 있는 법이다. 만일 필요한 기반이 없다면 그 윤리는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윤리 기반은 생명과 복음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인간성이 가르쳐 주는 피죄수선(避罪隨善)의 양심법도 인간윤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위의 신의 계명과 양심법이란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것은 그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 이외의 다른데서 영감으로 조차 오는 윤리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모든 전통적 윤리를 말소해 버렸다.

본시 공산주의 이론들은 정연한 윤리체계로 그들의 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윤리면에 있어서도 구질서의 윤리를 파괴하고 경제적 현실위에 새로운 윤리를 건설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현대의 경제실정에는 자본주의의 책량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제도가 내포하는 본질적 질서파괴라는 것이다. 모든 윤리의 목적은 파괴와 혼란을 제거 하는데 있으므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신질서는 무엇으로 건설할 것인가?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리대로 신질서와 신윤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모든 발전은 평형을 파괴하는데 있기 때문에 혁명은 발전을 위하여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윤리적으로 보아 선행이 되고, 이와 반대로 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윤리상 악행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자들은 공산당원을 혁명도배라고 욕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가라는 명칭을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윤리의 최고법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프롤레타리아」제도를 건설하고 발전 시키는데 있어 유조(有助)한 모든 행위는 윤리적 선행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모든 행위는 윤리적 악행이다.

공산주의 윤리는 유물론적 윤리인데 「유물론」과 「윤리」는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유물론자는 논리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없고, 더구나 의무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없다. 그것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익과 유해라는 개념 뿐이기 때문이다. 또 공산주의자들의 말대로 윤리가 물질에 종속한 다면 그는 이미 윤리가 아니다. 왜그러냐하면 윤리는 절대적이며 또한 정신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신과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윤리를 찾는 것은 모순된 일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윤리의 절대성을 피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5. 공산주의의 종교 정책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원리상 종교를 배격 하지만, 때로는 종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환심정책을 쓰는 수가 많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종교와 신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세관은 어떠한가?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행복할 수 없음을 확인할 적에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공상 안에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종교는 경제력에 대한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는 순수관념인만큼 계급투쟁과 혁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말살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을 일으킬 때 종교를 타도하는 것으로부터는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리스도 교인들이 있는데 가서는 종교의 자유와 그리스도교인의 신앙자유를 공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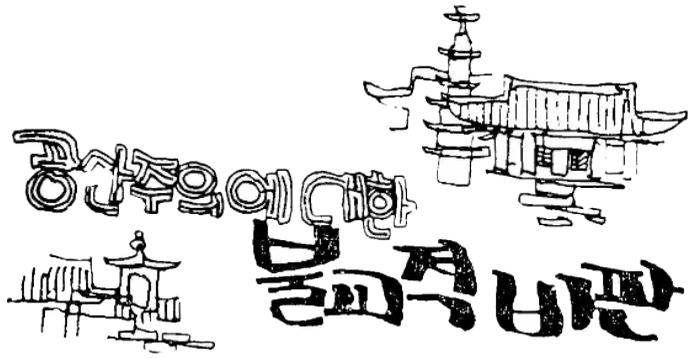
그리고 점진적으로 반종교운동을 전개하는 위장전술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이 정권을 완전히 잡은 뒤에는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종교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련 헌법에도 신

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한 복선(伏線)이 있다. 「종교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모든 인민에게 인정된다.」

6. 맺는 말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안한 경제원리 였으나 그러나 오늘의 공산주의는 종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주의와 종교는 물과 불같이 서로 타합할 수 없는 사인데 그들은 진정한 종교가 행사하는 권리와 사명을 무신론적 공산주의로써 대항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아더러 니칼」한 일이다. 그들은 이론의 매력과 실천의 기묘함을 이용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를 파괴하려 든다.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은 반공사상전에 있어 기수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당의 죄는 미워해야 되겠지만 사람만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왜 공산당이 됐는가를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행한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될 줄 믿는다. 19세기 공산주의가 태동 할 무렵에 서구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비참한 노동자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무슨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더라면 공산주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노동자와 빈민을 위한 사회복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의 형제를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모든 종교인 더우기 「크리스찬」들은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물질양면으로 협력하고 분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기 영
 <동국대학교 교수>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에 종교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만 착실히 믿고 생활하면 유물론적 공산주의자들로서는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해 볼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철학자「니콜라이·베르자예프」도 말했지만 소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혁명을 유도한 중요한 책임은 러시아 정교회(正敎會)로 돌려줘야 할만한 이유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공산주의

의 이론을 조작한 마르크스 자신으로 말하더라도 근세 유럽의 부패한 종교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대영박물관의 한 방에서 목사들의 설교집을 열심히 들추어 거기서 그 사상의 건립을 위한 기획과 설계를 꾸민 사실을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나 그 밖의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안 종교란 역시 그리스도교의 여러 종파 뿐이다. 그들의 시야에 불교나 그밖의 다른 양동종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종교」란 어휘를 쓸 때에는 그리스도교적 유신론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

으로 알아들으면 꼭 맞는다. 지금에 와서는 약간 사태가 달라진 면이 있지만 여전히 그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교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들이 두려워하는데는 그 까닭이 있다. 그것은 순전히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의 세력에 대항하여 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종교인간의 규합이 튼튼하고 그 결의가 굳고 올바르며,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다대할 때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증대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바로 그와같은 힘이 러시아 혁명 당시의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들 간에는 미약했었다. 교회의 사회적 권력은 컸지만 그 지도층이나 신도들의 지향하는바 목표나, 일상생활의 이상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와 종교」가운데서 베르자예프 자신은 스스로 러시아 정교회의 일원이면서, 자기 자신을 추상같이 비판하고 종교인의 각성을 촉구 하는 의견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이 지녔던 신관(神觀) 자체가 그와 같은 무기력, 타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베르자예프가 가장 힘을 들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느 천상에 거하시느 멀고 위엄있고 높으신 분으로만 이해했지 그들 인간들 사이에, 나 자신 안에 내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을 객관화(Objectivation)하는 결과는 기독교인의 눈을 현실에서 멀리 하고 다만 공로를 천상에 쌓아 올리는 것을 일삼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전혀 망각된 종교생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자체가 지녔던 이와같은 허점을 찌르고 공산당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내세웠던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강행하는」 새로운 종교단체처럼 대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태는 달라졌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대로 날카로운 반성과 자각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들은 과장된 신 중심주의에서부터 신-인간주의로 옮겨 오고 있으며 인간성의 신장과 발전에 보다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상적 실천적 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유럽과 그 주민들과 그 문화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게끔 되었다. 물론 러시아까지를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다. 아시아인의 세계무대로의 진출,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도 원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아시아의 전통사상, 아시아의 종교적 전통이 세계사상에서의 시민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사실 말이다.

공산당은 아시아인들을 이른 바 유럽의 식민지 열강에 대항하여 꺾기하게 충동하면서 아시아

아이들로부터 그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모든 자부와 긍지의 의식을 박탈하고 말았다. 공산당원이 된 아시아인들은 이미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아시아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만 것이다.

무지와 무식은 곧잘 허무맹랑한 거짓말까지도 만들고 불변의 진리로 만드는 위력을 가졌다. 아시아의 정신적 전통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적 노력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문자나 이론체계의 납득이란 문제도 해결하기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 각자에게 부여된 양심의 작용을 억제하는 강압적 공산주의 이론으로 근시안이 된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고차적인 양심의 발동에 근거하는 아시아의 정신적 전통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가 지니는 진리성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식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가 언제나 인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가 인간인 이상 이 양심을 저버릴 수 없는 까닭에 어떠한 외부적 압력이 그 진실한 인간성을 더 이상 속박 하지 않게 되면 그 양심은, 다시 말하여 그 인간성은 구름에 가렸던 태양처럼 다시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 낼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 범죄의 하나는 바로 이와같이 눈을, 진리를 보는 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눈을 진리에 어둡게 엄폐하면서 인간의 죄악적 성향을 조장해 왔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스스로 탐구 하여 발견한 위대한 진리의 가치를 의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참된 인간이 되도록 가르쳐 주는 휴머니즘이다. 불교는 인간을 단순히 빵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 빵을 먹어야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불교가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집착을 가지지 않고 평등하고 자비로운 참된 자기를 실현할 가능성을 지녔다는 데에 있다. 그와같은 인간을 여래장(如來藏)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래장의 장(藏:Garbha)이란 씨(種子)란 뜻으로, 여래(如來:Tathagata)란 「그와 같이 오신 분」이란 뜻에서부터 영원한 실재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참된 자기(大我真我)가 되었던 말이다. 「참된 나의 본성」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자비스러우며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그 형태와 물질의 면 밖에 보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감히 보려고 하지 않으며, 보지도 못하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실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 형이상학적 실재란 이 형이상학적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 생각하는 인간들은 그 순수한 본연의 자세에서 인

간을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이상학적 현실로부터 형이상학적 실재를 유추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자기소외란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으로 낙착되고 말 이유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인간을 유물론적 각도에서만 보는 공산주의자 자신들도 그들 자신이 번번히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의감과, 그 밖의 다른 인간 이상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우선 물질로 구성되어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항구한 실재가 아니라 항상 변천무쌍한 여러가지 직접적인 원인(因)과 간접적인 원인(緣)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주의하게 한다. 이를테면 겉으로 나타난 형상(形象)과 성격과 색채(色) 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가변적(可變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실존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 실체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목적론적인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교적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또 한 앞서 말한 형태와 물질의 구체적 작용인 감수(感受)작용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또 그와 동시에 인간은 다채한 심리작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에 따르는 행위들을 행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불교적 인간관은 낮은 차원에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존재와 사유에 관한 법칙의 타당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비밀의 피상적 일부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존재의 본질적 의미에 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질은 그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자비로운 평등한 심성(心性)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인간의 물질적 제조건, 즉 심리적이며 감각적인 그 일체는 이 인간의 본질인 여래심성(如來心性)의 씨 즉 여래장(如來藏)의 온전한 실현과정에서 그 완전성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이 그가 놓여진 사회적 물질적 조건의 개선이 자연히 인간성 자체를 개조할 수 있는 것 같이 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는 오늘의 소련이나 그 밖의 다른 공산주의 지역에서 인간이 참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고 자비로운 인간성을 회복해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아는 바 없다. 인간의 범용성(凡庸性),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비도덕성—혹은 약육강식적이고 혹은 침략적이라고 불리울 그 인간의 이기주의가 인간자신들의 심성의 훈련 없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역설이 아니면 허언(虛言)일 수 밖에 없다.

불교는 인간을 어떠한 사회제도하에 있든지 그 스스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그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뒤집을 수 없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강제란 수단이 인간의 심성을 제어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의 가르친 그 가르침 자체도 하나의 길일 뿐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것은 그 길을 가야 할 사람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산주의자들은 실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이전의 상태에서 그릇된 길을 제 길인 줄로 알고 달리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인간인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외고집통들인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공산주의와 그 주의자들 자체가 빠지고 있는 오류에 관해서 우리의 전통적 교훈이 주는 경고를 말했다. 우리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다른 분야에서의 공산주의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같은 공산주의의 허점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신을 편달해야 할 허다한 과제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반공에 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는 쉬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그것을 극복할 정도로 우리 자신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우리 자신들의 생활을 정리하는 일은 그다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자세는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고로 성취시키는 일이다. 사회질서의 확립, 정치적 시책의 수립과 실천, 국민의 정신적 자세의 양양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약해 볼 수 있는 국민간의 공동체적 단결의 공고화, 이 모든 일들을 당사자인 국민들이 그 심성을 정화함이 없이 어떻게 달성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엽 말단적인 기술적 방법론만을 흐리멍덩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고 시도 하는 것은 그릇된 집념에 사로잡혀 그와같은 기술적 방법들을 「무자비」라고 공언하는 폭력과 대계(對計)와 강제와 몰수, 살인 등의 수단으로 채울려고 하는 공산당처럼 잘 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마음의 정화, 민족 전체가 그 마음의 정화를 위한 과감한 내면적 투쟁을 전개할 때 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민족의 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역사책의 어느 구석에 제시되어 있는 기성제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그러한 어떤 기성제품을 두고 민족성이니 민족의 얼이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만 저만한 인식 착오가 아니며, 그런 것은 인간의 자기상실의 한 표현인 것이다. 민족의 얼,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자비의 씨며, 자유의 씨며, 평화의 씨며, 행복의 씨며, 평등의 씨다. 물론 우리의 조상은 그들대로 그 씨를 성장시켜 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건 어떠한 나무를 키우듯 키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혀 온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과 유물과 우리의 강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대로 이 시각에 적합한 우리의 살아 있는 일을 키우고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마음, 그 씨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은 우리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좁은 단위의 인간에게만

특유한 절대성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아무리 공산치하의 인간, 아니 공산주의자 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중생이 실유불성(悉有佛性: 모든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다)이라는 뜻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모두다 여래장(如來藏)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생명있는 모든 존재적 특히 인간은 그 질에 있어서 자바의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의 인식과 그 사실이 지향하는 바, 그 의미를 확실히 모르는 탓에, 따라서 이기주의적 욕심과, 시기과 질투와 분노가 노도처럼 치밀어 오도록 내버려진 참을성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어서만 그 자바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따름인 것이다. 바로 메스주의적 세계관의 오류는 그와같은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가려진 탐욕과 주인공,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노예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공산당적 인간존재는 바로 이와같은 그릇된 사유의 산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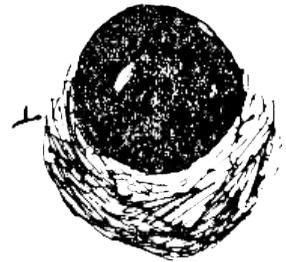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나 한사람이 결코 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하여 명심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상호 의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불교적 진리를 명심해야 겠다. 우리의 형제자매며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행복과 자유는 우리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행복과 자유의 터전을 굳건히 추구해 갈 때 그들의 행복과 자유는 또한 분명히 보장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조국과 근대화, 자립경제건설, 민주역량의 배양, 그리고 국제 유대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머지 않은 장래에 조국의 자유민주 통일의 길을 단축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 조국의 복nick을 향해 자유의 파도를 일으키자.

불교와 공산주의

래 너 싱 거
(홍 중 언 역)



「마르크스·엔겔스·마르크스주의」라는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교본 제일권에서 레닌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서술하면서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주장한 바와같이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모든 종교에 반대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종교나 종교철학에 대해서는 항상 이면(裏面)의 여지를 남겨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종교와 투쟁해야 한다. 개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박멸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종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유물론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교와의 투쟁은 모든 유물론의 기초이자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초석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종교와의 투쟁을 초석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교와 투쟁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이 저서에서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종교와 투쟁하는 전략과 근본적인 모든 종교적 신념을 말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레닌은 그 추종자들에게 종교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기만, 사기, 협잡 등, 사람의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레닌의 교시는 소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신조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있다.

불교와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이 전제사에서 가르친 것만 보더라도 마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이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교국에서도 불교를 말살할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불교국에서도 레닌의 이러한 철저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불교와 불교철학을 말살시키려는 흥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불교도들은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칼마르크스와 수많은 그의 제자들의 독선적 가르침을 받아들여 도록 조직적인 훈련을 받아왔지만 「실론」고유학문인 불교 철학의 힘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골수분자들까지도 마르크스가 가르친 사이비 철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마르크스 사상 선전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불교도와 타종교인들을 도울 목적으로 본인은 미로크스주의와의 불교의 교리에 대한 비교 연구를 내어 놓는 바이다.

유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론」(Progress Publishers, Moscow 1964) 란 책자에서는 유물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물질적 기초를 일의(一義)로 생각하고 사고를 질료(質料)의 특성으로 보는 자들은 유물론의 동조자다.」

이와같은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인 개념은 심성(心性)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근본요소라는 불타(佛陀)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다.

칼마르크스는 유물론이 2500여년전에 중국, 인도 및 희랍에서 생겼다는 것이며, 이들 고대 유물론자들의 가르침에는 더욱 훌륭한 추찰(推察)을 할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고 한다.

불교를 반대하는 마르크스

이미 2500여년 전 인도에 유물론 있었다고 말한 것은 그가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가 불교를 좀 더 알았더라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항시 벌여온 논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첫째, 마르크스가 불교의 근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2500여년 전 불타와 동시대인으로서 유물론자인 「아지타 캐샤람발라」(Ajita Keshakambala)와 「차르바카」(Charvaka)의 유물론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불교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타는 「아지타」나 「차르바카」같은 이들의

유물론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바라문교의 경전 연구에 전념하기까지 하였다. 불타가 전적으로 반대했던 인도 고대 유물론자들을 마르크스가 찬양했다는 사실은, 만일 오늘날 불타가 살았다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들을 보면 마르크스가 모든 종교에 대한 투쟁을 규정할 때 공격 목표로 불교를 선택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심성(心性)이 삼라만상의 근본요소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심성이 삼라만상의 근본요소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불교 밖에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살시켜야 한다고 규정할 때 그가 꼭 불교를 지적해서 말한 것이나 아니나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불교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불교국에서 마르크스가 불교에 대해서만은 대단히 관대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거짓말임에 틀림 없다.

영원한 발전

칼마르크스는 발전을 질료(質料)의 영원하고도 불변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타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Anicevata Sankava) 불타는 질료의 불변의 본질은 생(生:Uppada), 존재(Tchti), 사(死: Bhangā) 의 윤회라고 가르치고 있다. 윤회설에 따르면 인간이 나 또는 생명없는 모든 물체도 무한한 시공(時空)에 존재하는 동안 그 구성분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한다는 것이다.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우주 자연법칙은 생명체이건 무생물이건 모든 존재, 즉 유성(流星)과 성군(星群)과 은하수와 영원한 자연계 그 자체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칼마르크스는 소위 과학적 논지에서 시작하여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다는 주제에 도달할 때까지 그가 항상 애용하던 모든 물질 현상의 무한한 발전론과 무한한 진보론 사이에 모순을 범하는 데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관해서는 무한하다고 마르크스는 말하지만 이 무한성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제자들도 마르크스가 가르친 무한한 발전론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거나 논의하려는 자는 하나도 없다.

생명의 기원

자연의 무한성에 관한 모호한 이론과 무한성을 이해할 지혜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마르크스는 지구상에 사는 동식물의 생명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인정하고 그 기원은 약 10억년 전 이라고 말하고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이 산출한 통계를 그대로 복사한 마르크스는 지

구 자체도 수 10억년 전에 탄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비록 수 10억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에 비교하면 지극히 무의미하고 미소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칼마르크스가 시간과 공간의 무한 론을 들고 나왔지만 실은 그 자신도 이 이론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만 유물론을 분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고 내어 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가 주장한 바로 그 무한론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물론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무한개념

예컨대 만약 무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개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영원」 그것이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으뜸가는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무한한 것은 무엇이든 그 기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지구도 수 10억년 전에 탄생했다고 말할 때에 적어도 제자들에게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구가 그와 그 일파의 과학자들이 설정한 기간보다 2~30억년 전에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지구 탄생 이전의 무한한 시간에는 무엇이 있었든가를 설명해 놓았어야 할 것이다.

향상하는 질서를 따라 영원히 움직인다는 발전과 진보론에 관한 칼마르크스와 정설도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다는 개념을 성립시킬 수 없다.

무한한 시간이란 어떤 형태의 물질이 발전을 시작해서 끝마칠 때까지의 일정한 시간이다. 마르크스가 가르친대로 하면 자연의 물질적 발전이나 사회의 진보는 무한한 시간 중에서 발전과 진보의 최후의 상태에 도달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나면 완전한 정지상태, 즉 부동하고 불변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는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쉽게 말하면 질료는 영원한 발전과 진보 상태에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설과 시간과 공간은 무한한 현상이라는 개념과는 절대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시·공(時·空)개념

불타는 이와같은 마르크스주의의 독단론처럼 모순에 빠질 염려는 조금도 없다. 불타도 시·공의 무함성을 가르쳤지만 무한성의 교리를 그에, 다른 교리에 적용시킬 때 조금도 모순이 없다. 불타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무한한 시공에 존재하는 동안 진화와 퇴화, 발전과 쇠퇴를 윤회 한다고 설파하였다. 이 윤회설은 생과 존재와 사의 유전(流傳) 또는 윤회전생설(輪廻轉生說)로 불교도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불타의 설법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나 물체는 무시무종(無始無

終)한 시(時), 공중에서 현재라는 지극히 짧은 일각을 따라 윤회전생한다고 한다. 죽음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고 새로 태어나면 또한 자동적으로 죽음이 따르며 진보에는 퇴화, 발전에는 쇠퇴가 자동적으로 따른다. 이러한 현상은 무한히 계속된다.

마르크스·엥겔스와 레닌도 그들 철학의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들 저서에는 장황한 설명을 늘어 놓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교육할 목적으로 저술했다는 그들의 저서가 「자본주의자」나 「제국주의자」나 「부르조아」 등의 어휘로 꼭 차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마르크스의 철학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말로서는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식층이 그들 철학의 이면에 숨어있는 기만성을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교묘하고도 장황한 논조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칼마르크스는 이해 할 수 없는 장황한 논조를 늘어놓음으로써 그의 영성한 이론에 관한 철학적인 의문에 대한 답변을 교묘하게도 회피하였다. 이러한 모든 의문 때문에 갈팡질팡 하면서도 마르크스는 자연과 사회형태는 하급형태로부터 상급형태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과정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해 왔다는 소위 사회 발전론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진보론

칼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사회 진보론과 시·공의 무한론을 연결하기를 피하고 있다. 어떠한 시간의 무한론도 자연이나 사회발전론과 부합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무한 시간이란 결국 사회나 자연이 최후의 상태까지 발전해서 소위 「진보의 영원한 황금기」에서 정지할 때까지의 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불타의 가르침은 사회과학면에서도 극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정당하고 실제적이며, 또한 진실하다. 불타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사회 그 자체도 변함없이 윤회법칙을 따르고 있다. 즉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시간의 영겁(永劫) 속에서 여러 유성에 다양한 사회제도와 문화가 등장하여 또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영원한 항상 추세

칼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발전은 언제나 항상 추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르크스의 무한론과 모순되는 것이다. 사회 발전은 언제나 향상하는 추세로만 진보한다면 무엇 때문에 문화가 현상태에 머무르고 있는가? 만약 마르크스의 시간 무한론을 소위 영원한 항상 추세를 가진 사회 발전론에 적용하면 틀림없이 사회는 무한한 시간 이전에 이미 항상 추세의 정상

에 도달하여 그 정점에서 머물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철학자이며 지도자인 마르크스·엥겔스·레닌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그들의 주종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안출한 소위 영원한 항상 추세를 가진 사회 발전 형태로 만들려고 고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마르크스의 영원한 진보이론은 사회가 원점(元點)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할 때의 시간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야기된다. 이렇게보면 마르크스는 그의 추종자들이 사회가 원점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발전을 시작한 원점 이전의 무한한 시간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던가를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사회 진보론으로써 우주 삼라만상 즉 인간, 생물, 유성, 성좌 등 모든 존재는 그 시발점 또는 원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타의 설법에 따르면 모든 현상의 시작은 곧 종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오리라고 믿고 있는 소위 「영원한 황금시대」 즉 공산주의 시대는 과거에 결코 없었던 것과 같이 미래에도 절대로 없을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공산주의

칼마르크스는 역사란 사회가 진보해 온 모습 또는 사회가 저위 형태로부터 고위 형태로 발전해온 법칙적 운동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초로하여 사회의 진보운동은 과거나 현재의 인간 역사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최고도로 진보한 사회형태, 즉 공산주의에로의 필연적이고도 법칙적인 변천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나 그의 추종자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필연적이고도 법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회 현상을 진실로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서 그들이 바라는 공산주의가 자연스럽게 이룩되도록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가? 마르크스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와 투쟁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변증법적 투쟁을 유발시켜 순인위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진설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기체 (有機體)

유기체에 대한 변증법에 의하면 칼마르크스는 사회가 항상 진보하는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도 계속적인 진보상태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를 면밀히 검토하면 생명의 물질적 기초는 진보하는 유기물의 복잡한 합성물인 단백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단백질이 복잡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신적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확언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면 칼마르크스는 심성에 대한 불교의 신념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인간의 마음은 단백질로 된 실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와같은 「정신적인 단백질」은 유기체가 어떠한 단계에서 새로운 형태와 특성을 나타내는 더욱 높은 단계로 변천하는 동안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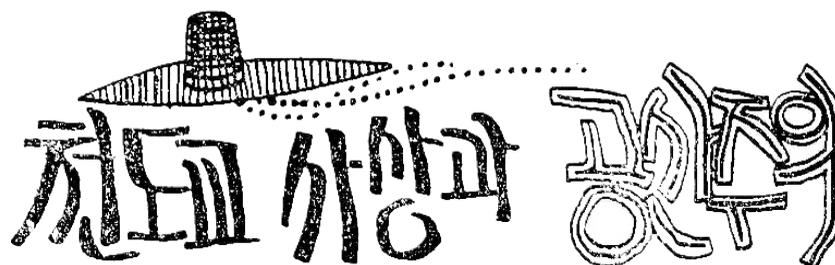
가소로운 공산주의 인간 군상

칼마르크스가 종(鍾)의 기원에 관한 그의 이론을 정당하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이다. 만약 그가 그의 이론을 정당하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이론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질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분자나 미분자, 전자나 양자는 진보와 발전단계를 거쳐 최종 단계에는 인간이 될 것이고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으로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미립자는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르크스가 말한 변증법적 과정과 영원한 발전 법칙을 따라 발전하면 제일 먼저 단세포 조직으로 변하고 점차 다세포동물로 발전하여 다음단계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 발전이 진보되기 전일지라도 칼마르크스가 그의 방대한 저서에서 가르친 모든 경제원칙은 변증법적으로 공산주의 인간 군상이 지구가 수용 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늘어날 때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용하고 부적당하다는 것을 양식 있는 지성인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 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유성과 수많은 성군에서 생기는 공산주의 인간 군상의 증압도 말할 수 없이 클텐데 칼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유성과 성군에 생겨날 공산주의 인간 군상의 방지책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여유있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그들처럼 자립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그들처럼 개개인의 작은 힘을 큰 힘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단합과 협동의 정신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 이제부터의 국제사회란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우물쭈물하면 1년 뒤 떨어진다. 1년 동안 우물쭈물하면 10년 내지 20년 남에게 뒤떨어지는 것이다.



백 세 명
〈천도교 · 도사〉



천도교사상과 반공이념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하여는 종교계가 앞장을 나서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나라에서 창도되었으며 또 가장 연도가 열고 새로운 천도교 사상이 그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해야 할 줄 안다. 그것은 공산주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이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천도교 사상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혹평하는 것은 암만해도 신앙인은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는 동시에 아무리 종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욱 더 반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해방 후 이북에서도 자주 들었지만 해방 전 일제시대에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는 친구들과 더불어 이론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그들은 가끔 「어쨌든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최후의 적은 오직 천도교가 있을 뿐이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일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천도교 사상이 공산주의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우기 이 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도저히 천도교의 투쟁공적을 당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갑오 동학혁명을 농민전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3·1운동에 있어서도 소위 민족대표라는 종교인들은 일제에게 항복하고 정말 항일투쟁은 농민들이 도맡아 했다고 유물사관적인 계급투쟁으로 내세우는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천도교의 투쟁사를 자기네들의 그것으로 바꿔 채우려는 수작인 것이다.

여기서 천도교사상이 공산주의를 이겨 낼 수 있는 승공이념이란 것은 천도교를 신봉하는 필

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상대적인 공산주의자들의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그러면 천도교사상이 공산주의를 이겨 낼 수 있는 경위를 아래와 같이 밝혀 보기로 한다.

승공 이념과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이 창도된 것이 1860년의 일이니 이제 겨우 백년이 넘는 새 종교인 것이다. 당초의 창도 동기로 말하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고 죄악의 바다에 헤매는 창생을 건지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의사가 남의 병을 치료할 때에 먼저 그 병의 원인부터 캐어 묻는 것처럼 교조 최재우 선생께서는 위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원인부터 연구해 본 것이다. 20년 동안이나 8도 강산을 방랑하면서 인심, 풍속도 살펴 보았고,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 본 결과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어떤 사물을 물론하고 그 본성을 그대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잘 되어질 것이요 그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설명에 필요치 않은 설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지도 이념은 철두철미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가르침으로 일관했으니 어떻게 인간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었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지도 이념이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옛날 성자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 금욕주의를 강조하여 자기 개인을 위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를 위하는 것을 선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회생, 봉공, 멸사, 헌신 등의 이타(利他)주의만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필경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지만 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란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겠다는 개인의 의욕을 갖고 있거니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임인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를 위한 다고 하면서 실제로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자기 개인만을 위하는 거짓말쟁이로 되어 진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속이고 서로 의심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필경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어지러운 세상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과거 윤리는 어찌하여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가르침을 되풀이 했는가 그것은 사고 방식에 유치한 옛날사람들인 만큼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에 있어서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를 해롭게 해 가지고 자기 개인만을 이롭게 하면 도저히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을 고려해서 자기 개인을 위하는 것 죄악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를 위하는 것을 도덕행위로 규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은 자기 개인에게는 해롭지만 옳은 일이니까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며 악은 자기 개인에게는 이롭지만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순된 가르침으로 되서 버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개인에게 해로운 선은 행하지 않고 자기 개인에게 유익한 악만 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람마다 입으로만 착한척 하면서 실제로 있어서는 나쁜 짓만 감행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천도교 사상에서는 자기와 하인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국가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합치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도교의 새로운 지도이념에서는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것을 「선」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기도 해롭고 다른 사람도 해로운 것을 「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제 자타간이나 개전(健全)간에 있어서 이해가 합치하는 이유를 밝혀보자 한다 사람은 개개 별별이 떨어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하필 인간뿐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물론하고 모두 형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명사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만 가지고 인간일 수는 없는 것이다.

차라리 육신 속에 내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육신 속에 내재한 영성마저 육신처럼 개개별별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국가사회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천도교에서도 인간의 육신이 개개별별이 떨어진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육신 속에 내재한 영성 만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유해 말하면 방안에 가설된 전등은 육신과 같고 전등 속에 내재한 전기는 영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전등속에 내재한 전기가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육신 속에 내재한 영성이 하느님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따로따로 떨어진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했기 때문에 역시 사람과 사람도 따로따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개인대 개인, 개인대 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천도교 사상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영성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도 한 덩어리로 연결된 통일체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교조 최재우 선생께서는 그의 경전에서 「도가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을 뚜렷이 밝혔거니와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따로 떨어진 육신의 「나」가 아니고 혼합된 영성의 「나」인 만큼 「나」를 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모두 위하는 행위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를 거꾸로 풀어 보면 자기 자신이 잘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를 위하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를 위하는 좋은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므로 아무리 혼란한 세상이긴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살기좋은 낙원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상은 윤리면에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을 대강 밝혔거니와 옛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군주정치 아래서 대다수의 국민대중이 극소수의 특권층에게 억압된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시 세상은 혼란해졌기 때문에 천도교 사상은 인간의 존엄 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사람이 곧 하느님이니 사람 대하기를 하느님 같이 해야 한다」는 구호를 부르짖고 봉건 독재정치를 상대로 치열한 반 항투쟁을 전개 했던 것이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일인 천도교 사상에 대한 해설은 대강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부터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공산주의의 성격을 분석 검토 해보기로 한다.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해방 후 우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공산주의의 성격을 분석 검토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질 것이다.

첫째, 공산주의는 그들의 주장 그대로 유물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필 유물론이나 하면 공산주의의 창도자인 칼마르크스가 경제학자였던 관계로 인간생활의 기초가 경제에 있다고 보고 경제제도가 바로 잡혀야 인간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기할 것이라는 데서 유물론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공산주의는 독재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창도한 동기가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반 대적으로 시정하는 의미에서 통제경제를 주창했기 때문에 정치면에서까지 개인의 자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독재정치가 시작된 것인줄 안다.

독재도 그냥 독재가 아니라 소위 무산자독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보여줌과 같이 피착취 계급인 무산노동자의 단결에 의하여 자본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독재정치인 것이다. 그리하여 무산자 독재는 소위 공산당이라는 「당」의 독재를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과연 공산당의 독재야말로 옛날에 봉건 영주의 그것은 명함도 드릴 수 없는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의 독재란 것도 결국은 개인의 독재인 것이다.

그 실례를 소련의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찾아보면 레닌시대는 개인의 독재였으며 스탈린시대는 스탈린 개인의 독재 였던 것이다.

보다 가까운 기억에서 찾아보면 북한의 공산 정권은 집권자 개인의 독재 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세째, 공산주의는 거짓을 수단으로 하는 사상인 것이다.

「부정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목적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마르크스의 말인 줄로 알고 있거니와 거짓을 수단으로 하는 공산주의 자체가 참된 사상이 될 수 없다는—봄철 뿜 제소리 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해방 후 북한은 1946년 1월 3일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궤기대회를 연다고 군중을 서울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는 돌연히 「막부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푸랭카아드를 들고 행진한 사실을 위시하여 6·25동란은 대한민국에서 북침한데서 시작되었다고 거짓을 우겨대던 것으로도 그들의 본성이 명료하게 드러났거니와 북한의 소위 정강정책이란 것의 전부가 믿을 바가 못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들은 자유진영 이상으로 자유를 부르짖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산당 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일반대중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잠꼬대 같은 이야기다.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소위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모든 교파의 교라는 일률적으로 유물론적 해설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5일만에서는 장날을 매 일요일로 변경해서 신도들이 교당에 집합하는 것을 방해한 실례까지 있었다.

그래도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는가. 선거에는 비밀투표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평남 성천군에서는 천도교 신자가 많았던 관계로 노동당 입후보를 낙선시켰다가 타지방 노동당원들의 응원아래 낙선시킨 선거구를 습격해서 방화, 투석으로 일대 접전이 전개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비밀투표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는가.

대다수의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하지만 「당」간부급 이외의 정말 노동자들은 역시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것이요 농민들의 현물세가 25%로 되었다지만 100% 바치고도 모자라서 사서 바치기 까지 하는 실례가 수도룩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송된 재일교포들이 「취직을 시켜준다」 「사업을 하게 해 준다」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끌려 갔지만 이제 그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다.

천도교 사상과 공산주의의 우열 대조표

이상에서 논술된 것을 다시 종합, 정리해 보면 맨처음 허두에서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우수한 사상이 필요한 것을 말했고 다음으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인 천도교 사상을 논술했으며 나중에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논술했다. 일언이폐지하여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인 천도교 사상 보다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데 인간은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문제는 이미 해결된 셈이지만 보다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상에서 논술된 바 천도교 사상의 내용과 공산주의 사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그 우열을 판단하기로 하자.

첫째, 공산주의의 기본이념이 유물론 이라고 했겠다. 그와 반대로 천도교 사상의 기본이념은 영성을 본위로 한다고 한 것이다. 영성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은 이념인데 유물론은 물질을 본위로 살자는 것이요 영성 본위는 인간 자신을 본위로 살자는 것이다.

근대에 주체성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지만 주체성을 물질에서 찾아야 하겠는가,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야 하겠는가, 밥을 안 먹고는 못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질을 본위로 살자는 유물론은 사고방식이 유치한 원시 인간들의 이야기요 정신력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는 독재사상인데 반하여 천도교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극단으로 강조하여 사람 대하기를 하느님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천대와 괘시를 받기 싫어하고 높여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람마다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천도교 사상을 환영한다는 결론으로 되는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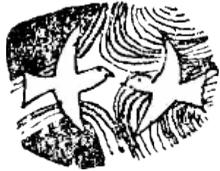
세째, 공산주의는 거짓을 수단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했다. 그와 반대로 천도교 사상은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인만큼 거짓의 필요성조차 없다고 했다. 거짓이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맞는 것처럼 꾸미는데 필요한 것이요 본성 그대로 사는 데는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천도교리에서는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길」과 「참으로 돌아가는 길」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참은 실체요 거짓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자는 실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거짓의 기초 위에 선 공산주의가 참의 토대 위에선 천도교 사상 앞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자를 감추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이 이념에만 그쳐 가지고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생활화 해서 모든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는 동시에 국민정신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10월유신의 정신아래 우리 국민은 굳게 단결 하여야 할 것이다.

제 2전력과 정병지도



홍종도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 2전력 운동과 정병지도업 무란 어떠한 것인가? 실제로 이 교육에 나 서고 있는 정훈장교에게서 그 방법적인 문제를 들 어보기로 한다.

〈편집실〉

1. 서론

공군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전력을 재정비하고, 전력 증강을 위하여 특별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형적인 전력의 증강이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상황에 부합된 정신전력의 바탕이 없는 실질적인 전력 구현으로서 전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여 「공군 제 2전력 활동지침」을 마련하였고, 동년 9월에는 공군본부 제 2전력위원회와 예하부대 정병지도 위원회의 실천 지침을 하달하여 유형적, 무형적인 전력 극대화를 추진하였다. 10월 17일에는 민족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10월 유신의 발현으로 유신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또 공군에서도 기존 제 2전력 위원회를 국가적인 목표와 부합시켜 유신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 전력의 극대화 및 총력안보의 실현을 위한 공군의 전면적인 전력의 증강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제도 모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서 장병 개개인의 정예화를 시도하여 전면적인 공군 전력 극대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유신 정병지도계획인 공군 정병지도 요강을 하달하여 정병지도업무의 지침을 삼고 있다. 그렇다면 장병 각자는 어떻게 제 2전력을 실현하며, 또 그것이 공군의 정예화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병영 생활과 일상적인 군 생활에 어떻게 부합시키며, 업무 집행 실무자들이 정확한 방

향을 잡아 혼연일체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 실천, 분석, 평가하여 군이 바라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바람직한 군 생활의 운영을 위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일원화한 체제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진행시켜 제 2전력을 포함한 정병 지도 업무를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본론

가. 의의

공군에서의 제 2전력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단지 막연한 상태에서 정신 전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왔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제 2전력은 무엇을 뜻 하는 것이며, 이의 활동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 2전력이라 함은 전력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와 체제, 기풍, 기술 등 무형적인 체제의 전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성능의 전투폭격기나 유도탄, 그리고 정비에 필요하며,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장비를 제외한 인력 자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전승을 획득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연마,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체제의 확립 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2전력은 장병들의 정신 자세의 확립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공군 관리 조직에 있어서 개개인의 전문화된 기능과 이러한 개개단위의 정예화를 바탕으로 허실과 낭비를 없애고, 이들 모두 전력화 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 체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 와 규범, 기풍 그리고 환경의 개선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 2전력의 실천은 10월 유신에 입각하여 보다 고도화된 정신 기능과 물질 기능의 능률화를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분야의 진척보다도 우선적인 성격을 띠고,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척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 배경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강조되고 있던 정신분야의 중요성과 또한 이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강조하게 된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국내외적인 정세의 흐름과 당면한 적과의 무력 충돌을 배경으로 한 「이데올로기」적인 대결 상태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제일 우방인 미국이 「닉슨·독트린」에 의해서 약소 국가는 민족 자결과 자국의 능력에 의해서 자활을 찾아야 하게 되었으니, 이는 점차적인 월남의 종전과 세계에 흩어진 막강한 미국의 국력이 미국의 자신을 위한 미국군으로서 방침을 바꾸고, 우방국으로부터 점차 철수하려는 것이다. 냉전을 거듭하던 세계의 강국들이 점차 이해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평화 공존을 부르짖고, 해빙 무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평화사상이 자극하고 있음은 그 둘째이며, 미국과 일본이 친 중공정책을 펼쳐 자유 우방의 강대국 집권자들이 중공을 방문하고, 중공과 협조를 모색하며,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는등 국제 무대 진출을 꾀하고 있는 반면, 중국 본토의 대표권까지도 가지고 있어 유엔에서 큰 역할을 하던 자유중국이 국제 관계에서의 미아로서 처리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는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이며, 철저한 방위 체제의 필요성을 각성시킨 때문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김일성의 유일 체제에서 유일 사상을 확립하고, 4대 군사노선에 의해 전쟁 준비를 완료한 후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 이의 방어가 필요한 때문이며, 자유 민주주의를 도입한 우리의 체제가 우리들 자신의 자활에 대해서 힘과 추진력을 제공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맹점마저 지니고 있어 북한의 군사력과 그들의 정신력에 대해 직접적인 대결엔 다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건에 놓여 있다. 우선 국방의 전위를 담당 한 장병들의 정신자세를 확립시키고, 국방에 대한 민족적인 사명감을 주입하여 스스로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희생 봉사하며, 왕성하고 철두철미한 군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2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작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한의 공동성명으로 대화없는 긴장의 대결로부터 대화 있는 대결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의 심리적인 공세에 대비하며, 민족의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자각하여 정신 자세를 확립하고, 군의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10월 유신으로 군, 관,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정신 자세의 확립과 비능률, 부조리, 불신 사회 풍조를 배격하고, 참되고 슬기로운 민족의 정기를 구현하여 효율적인 총력안보와 자주 국방의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다. 목표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추가되고 있는 제 2전력과 이를 포함하여 장병 개개인의 정예화를 시도하고 있는 정병 지도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의 정예화를 시도하고 있는 정병 지도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자. 유신정신을 바탕으로 정신전력을 개발하고, 전력 극대화를 위한 참신한 기풍과 새 가치관을

조성함으로써 공군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정병지도는 다음과 같은 실천 목표를 달성하고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병 지도의 실천 목표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 — 10월 유신 및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여 민족의 활로를 찾고, 자립, 협동, 근면 정신에 의한 자활의 능력을 배양하며, 민족 스스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둘째 ; — 승공 사상을 고취 하여 필승의 신념과 감투 정신을 정신을 배양하고, 적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사상적, 심리적 공격에 대하여 방어 활동을 강화하여 정신 무장을 공고히 하고,

셋째 ; — 한국의 사상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와 민족 주체 세력을 확립하여 국민 정신 자세를 확립하며,

네째 ; — 지휘 관리 체제를 개선하여 군 전력 저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능률적인 군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다섯째 ; — 군 기강을 쇄신하여 검소하고 결백한 생활 자세를 확립하여 단결된 군의 목숨을 과시하고, 국민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며,

여섯째 ; — 교육 및 인사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을 통해 임무와 사명감을 주입시키며, 장병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왕성한 근무 의욕과 능률적인 군 운영에 기여한다.

즉 군 전력 향상을 위한 정신적인 장애요소와 불합리한 제반 조건을 제거하여 능력을 계발하며 일상 생활을 통하여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체제를 개선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 내용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1) — 10월 유신 및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 한다.

10월 유신이란 민족의 활로를 찾고,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부조리, 비능률, 비생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각성과 혁신을 촉구하며, 국력을 총집결시키기 위하여 박 대통령 각하의 영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군은 국방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만치 군활동 전반에 걸쳐 부조리, 비능률, 비생산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제반 사회 제도를 한국화하는데 적극 호응하며, 자주성과 효율성을 고취하여야 한다.

또한 범 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있어서 다만 인력 자원에 의한 병력 지원과 장비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생활을 통해서 적극 참여토록하며,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에 적극 호응하며 자립, 협동, 근면의 정신을 받들어 인화단결을 이루어 자주국방을 위한 총력안보를 위해 군·관·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국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승공사상의 고취와 군인 정신의 함양

장병에게 승공사상을 고취하고,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교육의 철저를 위해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민주 군대의 이념을 주입시키며,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주시시켜 남북 대화의 뒷받침이 될 국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정신 무장을 공고히 하며, 모순된 북한의 실정을 소개하고,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이해시켜 민주 근대로써의 긍지를 주입시키고, 승공사상을 신념화 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필승의 신념과 왕성한 감투 정신을 고취시켜 백전 백승의 기개를 배양하여 왕성한 사기를 갖추어야 하며, 올바른 시국관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식을 고조시켜 총력 안보의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과 같은 실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냉전에서 해이될 수 있는 정신 무장의 이완을 막아주고,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승공정신을 멸공정신으로 그리고 반공정신으로 약화시킨 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등화시켜 동일시한 뒤 용공사상을 주입시키고 적극적인 용공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려는」그들의 전략을 사전에 분쇄하기 위하여 정신적, 사상적 교육의 철저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급 지휘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계획과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형태로 실시될 수 있는 정훈 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개개 장병의 군인 정신을 총화된 하나의 힘으로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3) —한국 사상 교육의 철저

우리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체질에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로 인해 민족의 슬기와 전통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무작정 받아들인 제도적인 모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늦게나마 이를 인식하고, 민족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민족성을 알아 민족 주체 세력과 민족 주체 정신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군인은 난국에 처해있을 때 구국적인 희생정신과 감투 정신으로 국가의 존영을 위해 희생되어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순국 선열 및 성군, 명장, 애국지사의 정신을 본받아서 통일외지를 키워 나가며, 민족적인 기풍과 관습을 이어 한국적인 토착화를 이루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병 개개인은 국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며, 국가의 흥망 성쇠를 한몸에 지니고 있음을 자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한국의 사상 교육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제 2전력 구현을 위한 정병 지도와 정병지도를 위한 정병 지도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지휘 관리의 개선

정병 지도 업무를 통해서 제 2전력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지휘 관리의 개선이다.

지휘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능률적으로 군을 운용하기 위함인데, 지휘 관리의 절대적인 효과는 상관의 임무 수행 능력과 부하의 임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자세, 그리고 임무 수행의 질과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예공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병 각자의 사명감을 자각케 하고,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공군의 전통 정예 공군의 긍지를 숭상하는 기풍을 조성해야 하며, 제도, 규범, 관습, 기풍면에서 정신적 저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신 전력을 향상시키고, 공군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지휘통솔의 교리 및 수칙을 연구 발전시켜 병영 생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개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함으로써 인화 단결을 도모하고, 지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5) —군 기강 쇄신

정신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 기강은 쇄신되어야 한다.

군 기강 쇄신을 위해 서는 장병으로 하여금 각종 업무에 자발적인 참여와 임무완수의 자세를 확립시키고, 술선 수범과 상호 존중의, 기틀을 마련하며, 군 사기의 저해요소인 퇴폐 풍조를 일소하고 새생활 자세를 확립하며, 검소하고 청백한 기풍과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정부의 시책을 술선 수범하는 자세를 확립하며, 군수물자를 선용하고 군용 시설을 애호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조리, 비능률, 비생산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장병 상하 상호간 존중의 자세를 확립하고, 임무에 대한 책임의 완수와 군인다운 자세의 확립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즉 부조리의 기풍을 없애고,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원리원

칙에 의거하여 처리 하도록 해야하며, 책임과 권한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 퇴폐 기풍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이의 근절책을 강구하며, 군기 지도의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교육 및 인사 관리의 개선

군 운용에 있어서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작전 임무 수행이 최우선이며, 모든 것이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집결 되어야 하지만, 비전시에 있어서는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훈련에 집중 되어야 한다.

특히 제 2전력의 근본이 되는 정신 교육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더우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활동은 우선 교육에 그 일차적인 배려를 하여, 기본적인 능력의 배양과 숙달을 도모하고, 정신 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훈 교육의 철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의 필요성은 장병의 사명감과 사기에 직결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장병 각 개인은 많은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중 특정한 것만이 특정한 시기에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잠재적 능력이 부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발휘되는 상대적 개념을 사기라고 하며, 사기는 다음과 같은 장병 개개인의 사명 의식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이 잠재적 능력이 부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발휘되는 상대적 개념을 사기라고 하며, 사기는 다음과 같은 장병 개개인의 사명 의식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첫째: —장병 개개인이 다같이 공동 목표를 의식하고 있는 정도와

둘째: —그 목표의 필연성 및 가치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 목표가 도달 가능하다고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사명감의 자각은 공동 목표와 목표의 필연성 및 가치성, 도달 가능성을 장병 각자가 납득하고 행동의 원동력화 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사명감의 고취를 위하여 정훈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지휘관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간 지휘관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정신교육의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기회 균등을 위한 인사 관리로서 적재 적소에 보임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력 및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 관리를 실시하며, 선병 제도의 개선으로 군이 목표로 하는 장병의 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병지도 위원회의 활용으로 보호 사병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장병의 복지 시설 개선으로 보람 있는 병영생활을 영위하여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개선하고, 향상 시켜 능률화 시킬 때 비로소 제 2전력이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공군본부 정병 지도위원회와 예하부대 정병 지도위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장병 각자에게 자각과 인식을 촉구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신교육과 정신 훈련을 위하여 지휘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고, 확고한 사상과 정신 무장이 이룩된 상태에서 장병 각자가 지닐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의 능률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임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충일할 때 무형적인 전력, 즉 제 2전력은 증강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제 2전력이란 장병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무형적인 정신 기능과 기술, 그리고 운영을 위한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2전력과 정병 지도의 관계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도달 과정의 수단인 것이다.

정병 지도는 제 2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이며, 제 2전력은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정병 지도와 제 2전력 실천 계획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정병 지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급 부대와 하급 부대의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관계 참모부서간에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정병 지도 지침이 제시하는 제반 업무를 공동 계획하고, 실천하여 평가하며, 분석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방안과 효과적인 방법을 재발하고, 실천에 있어서도 장병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병 지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 2전력은 무형적인 것이어서 성과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일순간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 될 수 없으며, 꾸준한 노력과 반복 교육, 반복 실천에 의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장병들 스스로의 각성과 가치의 판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무조건 주입식으로 명령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몽과 선도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요구에만 그치지 말고 상대적인 배려가 따라야 하고,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더 큰 열의와 성의를 보여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명심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정병 지도를 원활히 구현하여 최종 목표인 제 2전력을 극대화 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국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이 구국의 대열에 혼연히 참가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것인, 안정되고 능률적인 민주 질서를 확립하자. 그리하여 그 위에 발전과 번영의 꽃을 만개케 하고 이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주자.

—박 대통령 개헌안 공고 담화문에서—

○ 헌법 개정은 유신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길을 마련한데 불과 한 것이며 유신과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늘의 절대적인 지지와 굳은 단결을 바탕으로 하여 조국의 영광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담화문에서—

박계춘

1. 서언



70년 4월 박대통령 각하가 제창한 새마을운동은 전개되기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잘 살기 위한 일대법국민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정부에서는 전국 3만 3천여 이·동(里洞)중 우선 그 절반인 1만 6천 6백개 이동을 72년도 새마을 운동 대상으로 삼아 총 1,245억여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 밖에 6천 108개의 이동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이·동은 총합 2만 2천708개 이·동에 이른 것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가난에 시달려 문명과 문화를 등지며 살아야 했던 우리 농어촌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혁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초가지붕이 말끔한 기와지붕이나 「슬레트」지붕으로 새로이 단장 하였었고, 좁고 꼬불꼬불한 마을 안길과 농로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신작도로 넓혀지고 바로잡아졌으며, 산간벽촌에 까지 전기를 끌어 전등은 물론, 텔레비전까지 나날이 늘어 도시와 같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비닐하우스, 목축, 특용작물재배, 각종 해산물 양식사업, 기타 가공부업의 진흥으로 농어촌의 소득은 눈에 보이게 늘어 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성실, 근면, 자조, 협동으로 스스로 노력만 하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반드시 성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하면 된다」는 자신과 반드시 「이 운동은 성취시켜야 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동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봉화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지난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이룩한 공업분야의 성장 및 고속도로화를 기반으로 농촌근대화에 집중 노력함으로써 그 봉화의 불길에 더욱 화염을 토하게 만든 것이다.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공업분야의 발전, 그리고 제 3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농촌근대화 집중작업은 곧 농·공업을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 그리하여 국민부(富)의 균점을 목표로 한 원대한 「조국근대화의 터전」을 투시한 것이다.

조국근대화, 그것은 곧 농촌근대화 작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며 농촌근대화 작업은 우리가 몸소 피와 땀을 흘려 거둔 값진 이 새마을 운동에 긍지를 갖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근대화에 집중 노력을 기울이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새마을 운동의 본질

새마을 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잘살기 운동이며,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개발운동이고, 이를 생활화하는 행동철학인 것이므로 경제개발과 정신개발의 병행운동으로써 국가 발전과 민족중흥,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약하는 것을 그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첫째, 잘살아보자는 의욕과 그 의욕을 실현하기 위한 근면, 자조, 협동의 노력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은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욕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무엇보다 먼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 소득이 늘어 부유해져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이웃과 상부상조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생활에만 만족하지 않고 내일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보다 잘 사는 내 고장 번영된 내 조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므로 잘 살기 운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은 자조적인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그 본질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살기 위해 내 마을 내 고장을 가꾸는 지역사회 개발은 바로 내 나라를 가꾸어 내 겨레가 잘 살게 되는 조국근대화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

동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과 지역사회개발운동을 지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와 문화의혜택을 전국적으로 균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의 세째번 본질은 복지, 문화혜택의 균점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대화된 잘 사는 나라는 곧 지역간이나 산업간의 격차가 없이 복지와 문화의 혜택을 고루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복지 문화혜택의 균점화란 바로 국력의 충실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국력배양을 목표로 하는 통일 지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인 동시에 조국 근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범국민적인 유신적 일대 약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새마을 운동의 방향

조국 근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마을 운동은 그 운동의 추진과 전개에 있어서 사회개발과 정신개발 및 경제개발의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개발 운동인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미 그 시발이 주민의 근면, 자조,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 가꾸기서부터 출발되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새마을 가꾸기란 바꿔 말하면 생활환경의 개선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조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기로 무한한 우리의 지력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룩해야 할 일을 꼭 이루어 놓고 말겠다는 의지로 추진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고, 나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성과를 실감할 수 있는 점에서 큰 뜻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내 집에서 부터 시작하여 내 마을, 내 고장, 내 나라를 내힘으로, 개발하고 가꾸어 나가기위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개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지향해야할 하나의 특징적인 운동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방향의 새마을 운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동이 되는 사회개발 운동이 하향식인데 반하여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이 주동이 되어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공동 노력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공공 기관은 하나의 협조자이며 지원력에 불과하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사업은 더욱 큰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는 정신계발 운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그 기반이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정신은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와 원동력으로서 그 추진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정신의 계발이야말로 새마을 운동의 또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에는 반드시 주민의 정신계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계발의 중요성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새마을 운동이 주민들의 지역사회 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선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성과를 스스로 체득케함으로써 보다 더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새마을 정신이 유발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그 원동력이 되는 정신 계발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째, 새마을 운동은 소득증대를 지향하는 경제개발운동이어야 한다.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개발과 정신계발을 지향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 잘 살아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의 또하나의 기본방향은 소득증대에 직결되어야 한다.

소득을 증대하는 경제개발이 성수되었을 때 새마을 운동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서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기약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소득증대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 전개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

70년 4월 22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초기 단계에서는 부락단위의 국토보존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사실상 새마을 운동의 준비기간이 있으며 시험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새마을 정신에 배태기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에 접어든 이 운동의 실질적인 첫 사업 기간은 70년 11월부터 71년 5월까지에 걸쳐 실시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전국 3만3천267개의 이·동부락에 양회 335포씩을 지원하여 국토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10개의 지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일차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에 투철한 마을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러한 점에서 일차사업기간에 추진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 정신을 정착시켜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단계의 새마을 운동은 71년 10월부터 시작된 72년도의 2차사업기간인 것이다.

이 기간에 새마을 운동을 거족적 국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사업 대상부락도 1차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보인 1 6천6백개의 부락으로 축소했으며 지원규모도 현저하게 늘려 부락단위로 양회 500포, 철근 1톤씩을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증대사업과 이 운동의 기초가 되는 새마을정신의 계몽활동을 병진함으로써 농어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까지도 적극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새마을 운동이 환경개선 정신계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본격적인 국민운동으로 정립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단계 사업은 지금까지의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검토하여 지난 11월에 확정된 73년도의 새마을 운동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사업이 될 것이다.

73년도의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의 영속화에 주안을 두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이미 실시하여 왔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및 정신계발을 더욱 유효하게 추진하여 영속화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는 한편 새마을 운동의 영속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체계화와 범국민운동으로의 극대화 그리고 생산과 소득 증대를 그 골자로 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5. 유신사업으로서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그 본질과 발전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10월유신의 이념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이 운동은 마땅히 유신사업의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과 자주·자조·자립·자위·자결의 유신 정신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하나로 귀일되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마을 운동이 지향하는 잘 살고 조국을 근대화하고 통일을 성취하려는 목표는 국력

을 배양하고 조직화하여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성을 형성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 발전시키고, 국토와 자원을 종합개발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며, 부조리와 비능률을 척결하여 사회개혁을 이룩함을 목표로 하는 10월유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제 10월유신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범국민적인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어촌의 근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 하여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영속화 시키고, 고소득, 고능률로 그동안의 개발 및 소득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력의 배양과 조직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새마을 운동이며 10월유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의의와 사명감으로 이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신과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6. 새마을 운동과 우리의 자세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 운동이 접화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간지 불과 2년남짓 밖에 안 되었지만, 이 짧은 동안이나마 새마을 운동이 남긴 위대한 변혁의 발자취는 우리 민족의 무한한 저력을 산 증거로써 제시해 준 자신과 희열의 결정이었다 하겠다.

새마을 운동의 기치 아래 뭉쳐서 땀흘리며 이룩한 성과는 부락민 전체의 가슴에 공감과 자선과 의욕을 불러 일으켰고 온 마을에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킨 것이다.

침체와 추진의 부산물이었던 미신, 도박, 술타령 등의 퇴폐풍조는 일소되고 그대신 검소하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생활자세를 가다듬게 해준 것이다.

반목과 대립을 일삼던 씨족과 부락간의 배타적 감정이 없어지고 총화와 단결의 일체감이 형성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는 명량한 생활 분위기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입과 지도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성취한 결과 부락민들은 자력에 의한 부락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진해서 새마을 운동의 열의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농촌은 옛날의 조용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농촌이 아니며, 생기가 넘치고 잘살아 보자는 의욕에 가득차서 생동하는 새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마을 운동 그 첫 시발단계에서부터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새마을 운동은 반드시 농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계몽돼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지도방침에 따라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 참여 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제 민족중흥을 지향하는 새마을 운동은 영속화의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우리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땀흘려 이룩한 이 기반 위에서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참여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노력해서 보다 더욱 잘 살자는 「잘 살기운동」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잘 살게 되면, 그 마을이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온 마을이 잘 살면 우리 나라 전체가 잘 사는 변영이 이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새마을운동에는 도시, 농촌의 구별이 있을 수없으며, 온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72년의 새마을 운동을 살펴 보면 농촌에서는 부락민들의 자율적인 호응과 참여로 소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대도시 시민 중에는 그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소극적이었고 참여도가 낮았다 한다. 거족적인 잘 살기운동인 새마을 운동에 국외자나 방관자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자율적이며 총화적인 참여가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의 참 뜻을 되새겨서 지난해 못지 않는 자율적인 참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개발운동이기도 함은 앞서도 언급되었다. 모든 국민이 나태하고 의타적이며 유아독존적인 구태의 연한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탈피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조국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애국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 하는 범국민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땀흘려서, 부지런히 일하며 자립하려는 근면정신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조의 정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상부상조하여 개개인의 작은 힘을 총화의 커다란 힘으로 집대 시켜나가는 협동정신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발휘하여 그를 생활화 시켜 나가고 체질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새마을 운동의 생활화이며 이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다 잘 사는 가정을 이룩할 수 있고 나아가 풍요한 우리 마을과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1, 2년에 끝나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 못지 않게 변영을 이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 꾸준히 영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장기적인 사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급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오늘 당장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새마을 운동에 쏟

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결실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
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알의 보리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보리로 그치고 말지만, 땅에 떨어진 보리
가 스스로를 썩게하여 싹을 트이면 수백개의 보리알을 열매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새
마을 운동에 있어서 한 알의 보리알임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외면하고 그대로
있으면 언제까지나 보잘 것 없는 한 알의 보리 밖에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새마을 운동
에 불태워 나간다면 언젠가는 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새마을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정신을 일상생활에서부터 생활화해
나가는 자세 그리고 자기를 썩혀 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의 보리가 될 각오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모지의 땅을 개척하여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만든 「덴마크」나 「이스라엘」의 경우
처럼 우리도 이 땅에 번영과 풍요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국근대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범국민적 대약진 운동인 새마을운동에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지상 세미나



내무반 가족화운동

김 현 수 (전우신문 논설위원)



바야흐로 전 국민의 열화같은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
는 10월유신의 대업은 이제 본 궤도에서 그 내실을 굳히
고 있다.

10월유신의 이념과 목적은 이 나라 이 겨레와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구국의 영단으로서의 격동하는 국제정세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면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능률의 극대화와 국력의 조직화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여 민
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인 약진운동이라는데 있다.

이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해결하지 위한 일대 전진대열에 우리
전 국군장병들은 선두에서 그 역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특히 우리 군은 국가안보의 주축으로서의 국방태세를 보다 공고히 하여 대외적으로는 어떠
한 적의 침략도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자주방위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유신의 헛
불을 들고 국민총화 속에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로 체제정비를 이루어 조국 근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풍요 한 내일의「비전」을 바라보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 거보(巨步)를
내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절감해야 하는 바 우리 군의 시대적 사명과 막중한 책임 의식

을 공고히 하여, 민족의 소명(召命)에 부응하는 영광 어린「유신국군」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하겠다.

군의 사명과 임무는 어떠한 시대적 변천, 또는 정세 변화에도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사회 어떠한 조직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 특유의 가치체계인 동시에 철칙으로 하고 있는 바다.

그것은 군인복무규율에도 명시되어 있거니와, 군은 국토를 외침으로부터 수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공헌할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단 하루의 내일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실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철리를 되짚게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주변정세의 변동기에 언제나 그 영향을 받아 왔다. 그와같은 국난에 처하여 군사력과 국력이 강하고 겨레의 단결이 공고했을 때에는 제 아무리 강대한 외세의 도전일지라도 능히 그를 미리 방지하거나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외세의 영향을 면치 못하였던 슬픈 민족의 운명을 자초(自招)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주변정세의 변동기에 처하여 자국과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있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칫하면 그 희생물이 될지도 모르는 위협과 시련의 국면을 맞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남달리 27년간이라는 민족의 분단사를 갖고 있으며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참한 전쟁을 피하고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일조국을 이룩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가 부여 되어 있다.

그러면 이같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격랑을 헤치고 민족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통일염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 민족사를 개척해 나아가기 위한 결단과 조직화된 국력의 축적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특히 우리 군은 국방의 제1선에서 주변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토방위를 위한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동·서 해빙「무드」니, 남·북대화의 시대니 하는 대명사나 기류가 결코 국방력의 감축 또는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력의 재정비강화를 지향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냉철히 생각컨대 국제 전력간에 세력균형이 형성되고 평화공존을 부르짖게 된 것도 힘을 바탕으로 한 이해 관계 때문이요, 우리의 주도하에 남·북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 것도 모두가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은 무엇보다도 국방력과 직결되는 종합 국력의 우열

(優劣)또는 강약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전후 동구라파에서 또는 중국 땅에서 공산화과정을 보았고, 또 우리 땅에서 6·25동란의 배경 및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첫째도 힘, 둘째도 힘, 세째도 힘이 있어야 나라와 겨레의 안정과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을... 그러기에 국방력은 국력의 척도다. 오늘 우리가 총력안보를 그토록 고창(高唱)하는 소이(所以)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군의 정예화와 방비 태세의 완비를 가속화시켜야 하는 핵심적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의 돌풍(突風)은 예고없이 오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갈파한 어느 선철(先哲)도 있거니와, 이 지구상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엄존하고 있으며 전쟁의 불씨도 가세진 것이 아니며 국지전은 항존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터이다. 비록 「대화 있는 대결」이기는 하나 이 대결이야말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움이 깃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하겠다.

10월유신은 바로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정과 번영의 터전 위에 통일조국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지의 발현이다. 이에 우리군의 막강한 위력은 전쟁역지력 및 평화와 통일촉진력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1백% 수행하는 빛나는 초석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자.

군 내무반은 병영생활의 기본 단위이며, 군의 핵심적 요소로 하는 전우애와 단결력 그리고 전력의 생성, 발전되는 원천적 조직이다.

따라서 군 내무반 가족화운동이 의미하는 바 전개과정은 곧 10월유신이 지향하는 바 국력의 조직화를 통해 조국을 외국으로부터 수호하고 민족의 번영에 부응하기 위한 일대 약진운동이 아닐 수 없다. 즉 「유신이념의 생활화」라는 오늘의 거족적인 사명을 우리군은 「내무반 가족화운동」을 통해 실천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실천 강령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우선 우리 군의 존립목적으로 하는 바 국방의 대임을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간에 철통같은 단결을 전제로 한 복무태세가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기 속에 상경 하애(上敬下愛)의 화기에애한 기풍이 60만 전우간에 맥맥히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강과 기풍이야말로 곧 애국애족의 불타는 정열과 신념으로 승화되어 명실공히 무적 강군을 자랑하는 정예국군으로 신장(伸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반 가족화는 유신이념이 충만된 자주·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선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개발 정신은 바로 군 장비 및 군 기구의 개선발전을 비롯, 전략·전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동시에 군의 경제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10월유신의 의의도 우리 주변의 모든 비능률과 부조리 등을 과감히 제거하고 혁신적이고 효율화된 제도를

마련하며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우리 전 장병들은 병과와 직책, 그리고 전후방의 구별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개발적이고 건설적인 의욕의 팍방울을 무한히 흘려야 하겠다.

10월유신의 생활화가 바로 군 내무반 가족화 운동으로부터 시발되고 결실된다는 것을 자각 하면서—

유신과업에 앞장서자

최 형 중 <전 서울대 교수>

한국적 민주주의를 우리 땅에 뿌리박기 위한 유신헌법이 온 국민의 열화같은 지지를 얻어 나라의 기둥으로 정립됐다. 유신의 새해를 맞은 우리는 이제 이제 이 새 헌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유신적 개혁을 단행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일치단결 총 꺾기해야 하겠다.

분단된 조국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통일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굳은 의지와 집념을 거울삼아 우리는 이 10월유신을 기점으로 민족의 슬기와 예지를 모아 전진적이고도 진취적인 자세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안으로는 국력을 배양하며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견지하고 밖으로는 국제적 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10월유신을 구현하는 길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적 대과업이 고동치기 시작한 이때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용약 군문에서 조국의 간성, 민족의 방패로 산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

10월유신은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생산적이며 비능률적인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 해보자는 것이다.

때문에 방관에 참여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새로운 가풍을 조성하려는 국민적 혁신인 것이다.

장병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지금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는 국론의 분열이나 혼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태에 적응 할 수 있는 유효하

고도 적절한 생활방식과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대화가 곧 평화나 통일이라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기와 예지를 한데 모으자는 것이 곧 10월유신이다.

그 10월유신이 조국통일을 뒷받침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대열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는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을 1천「달러」로 하고 수출을 1백억「달러」로 늘리자는 것이 어느 개인이나 한 단체의 영리를 위하 자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후손을 위하 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힘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던져진 유신과업은그 누가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지상명령인 동시에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자기 임무의 성실이다. 우리의 임무는 국토방위이다.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땅과 바다와 하늘의 울타리를 든든히 해야 하겠다.

둘째로, 각 직분에서 기술을 연마해야 하겠다.

세분해서 일하는 장병 여러분은 그 분야의 기술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술은 비단 군에서만만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피 불길처럼 타오르는 새마을 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군에서는 물론 사회에 나가서는 앞장에서 이 대열을 끌고 나가야 하겠다.

조국의 안정된 번영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10월유신은 문자 그대로 자주·자조·자립하고 협동하고 자위하는 데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는 그 어느 누구의 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두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예로서 군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과업에 앞장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이 유신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내무반의 가족화운동으로 협동과 자조하는 전우에 선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군에서 닦은 그 정신은 임전무퇴와 기상을 함양하는데 근간이 되었지만 또 그것은 사

회에 나가서는 봉사정신으로 구현되어 그것이 곧 애국으로 치닫고 변영된 조국의 내일을 기약하는 일꾼의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오늘날 조국이 요구하는 주체적인 힘이 되어 나와 이웃의 활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미 우리 군은 이 역사적인 대명제인 10월유신을 맞아 부조리와 비능률, 그리고 비생산적인 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또 그러한 다짐은 군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유신적 개혁이 착착 단행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복지국가 건설에 힘써야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그 동안 서구식 민주정치의 모방에서 파생된 정치적인 부조리와 비능률 그리고 외래 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태도가 가져온 무질서하고 퇴폐적인 풍조를 일소하는데 앞장 섰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경험을 살려 그 소원을 염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그 행동적인 실천은 바로 우리 국민 각자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낙오없이 성실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만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약동하는 조국의 품 안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을 지상의 임무로 하고 있다.

군에서 더욱 배우고 익혀서 흐르는 시대의 내외 정세를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지니고 이 역사적인 과업성취에 단합된 힘을 과시해야 하겠다.

내무생활과 새마을 정신

김 정 국 (서울대 교수)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지난 1월 20일 국방부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 「군이 인근 부락의 새마을 운동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자체의 새마을사업에 더욱 중점을 두라」라고 지시했다. 그 동안 군은 각 부대 주둔지역 부락에 대한 대민지원으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물론 그러한 지원사업도 좋았으나 이제 유신의 첫해를 맞은 우리 군은 우리의 내부반에 새마을 정신을 고취시켜 우리의 핵심과업인 조국방위 임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 운동을 내무생활의 근간으로 하여 유신과업의 핵심체로서 보다 다적극화하고 영속화시켜 생활화해야 하겠다.

장병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월유신은 보다 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을 번영으로 이끌자는 이른 바 「잘 살기 운동」인 것이다. 때문에 새마을 운동과 10월유신은 불가분리의 표리 일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마을 운동은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요, 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어느 한 계층이나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온 국민이 벌여야 할 운동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새마을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가 근면해야 하고 자조적이며 협동하는 두뇌개혁의 새로운 정신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 정신의 계발은 곧 새마을운동의 기본목표의 하나인 것이다.

자고로 진정한 정신은 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와 원동력으로써 행동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새마을 정신은 우리의 살림에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마을 정신이 행동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정신을 군 병영의 내무생활의 기본신조로 삼고 하나의 추진체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정신을 함양하여 근면·자조하고 서로 협동하는 의지적인 정신이 행동화되고 실천으로 옮겨서 생활화될 때 우리는 나 자신과 같이 남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하고 애족하는 슬기로운 운동으로 승화 발전돼 나갈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새마을 정신을 내무생활의 기본 요소로 삼고 생활해 나가갈 때 우리는 확고한 군인정신과 국가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군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군인의 희생정신, 또 조국의 내일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스스로 돕는다는 자세는 실로 중요한 것이다.

이는 곧 군인정신인 동시에 새마을 정신의 기초가 될 것이며 새마을 운동, 즉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먼저도 말했지만 새마을 운동이 잘 살기 위한 범 국민적 운동이라고 생각 할 때,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을 늘려서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잘 살아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이나 도시에 있어서의 새마을 운동은 소득 증대와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마디로 우리는 내무반의 명랑화를 위하여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정신으로 융화 단결하여 생활의 과학화에 힘써야 하겠다.

생활의 과학화는 공동이익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병영을 조직화하고 명랑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농민이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고 농업 기술자가 되었을 때는 결국 소득 증대에 귀결되는 것이다. 소득증대를 촉진한다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수반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전 국토의 작업장화와 모든 일손의 생산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 걸치레를 하거나 허기진 창자를 움켜잡고 잘 사는 남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내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장의 고통을 참고 버티고 이겨 나가야 하겠다.

왜냐하면 새마을 정신이 누구를 굶기거나 못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부지런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못살 이유가 있을 리 없다.

게으른 자는 굶을지언정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내일을 개발하고 그 수입을 늘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 못하는 타성을 우리주위에서 과감히 뿌리 뽑아보자는 것이 우선과업이며 새마을 운동인 것이다.

농사하는 농부가 농사일에 기술자가 되어 소득을 증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스러운 민족의 부름에 용약, 조국의 간성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마당에 더욱 자신의 임무를 연구 개발하고 과학적으로 조직화하여 내무생활의 실(實)을 거둘 때 우리는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마을 정신을 내무생활에 직결시키자는 커다란 이유인 것이다.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참여해서 잘 살려는 운동에 앞장 서야 하겠다.

72년도 공군 각종 범죄 분석

박도심

범죄분석의 목적은 범죄를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 검토함으로써 범죄발생의 원인, 범죄가 발생되기 쉬운 환경 등 범죄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함에 있는 것이다.



범죄 분석의 목적

군의 범죄현상은 군 조직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사회 범죄 현상과는 다른 특수한 범죄요인이 내재하고 특수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군 내에서의 범죄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석되고 있다. 즉 죄과 별, 소속별, 계급별, 특기별, 학력별, 연령별, 환경별 및 원인별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72년도 공군 각종 범죄분석 (73년도 1월 말 통계)

1. 67년 이후 범죄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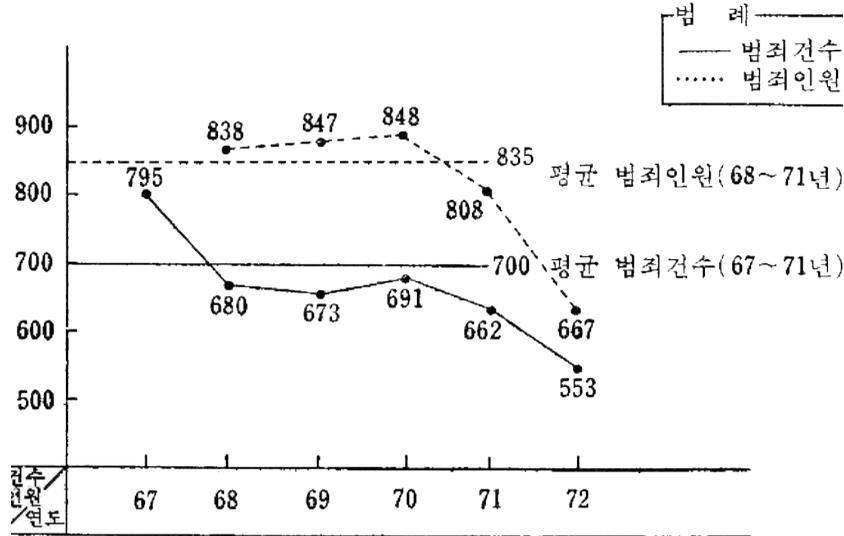
가. 67년 이후 71년까지의 연도별 총 범죄건수를 본다면 67년도 795건, 68년도 680건, 69년도 673건, 70년도 691건, 71년도 662건이며, 6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범죄건수 약 700건에 비해 72년도 총 범죄건수는 553건으로써 약 21% 감소된 현상임.

나. 68년 이후 71년까지의 연도별 총 범죄자 수를 본다면 68년도 838명, 69년도 847명, 70년도 848명, 71년도 808명이며, 68년 이후 4년간 연평균 범죄자 수는 835명이며, 각 연도별 범죄자 수는 대동소이하였으나, 72년도 범죄자 수는 총 667명으로써 68년 이후 연평균 범죄자 수 835명에 비하여 약 20% 감소되었음.

다. 67년 이후 71년까지의 연도별 범죄계수를 본다면 67년도가 8.54, 68년도가 8.22, 69년도가 7.94, 70년도가 7.7, 71년도가 8.33으로써 연평균 범죄계수 8.1에 비해 72년도는 범죄계수 약 6으로써 약 24% 감소된 수치이며,

라. 67년 이후 각 연도별 범죄를 그림표로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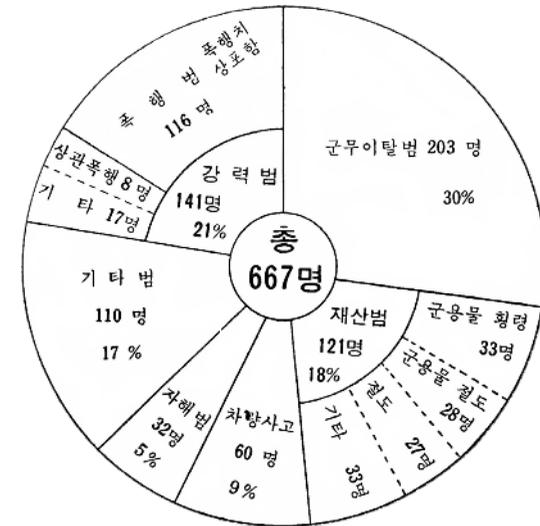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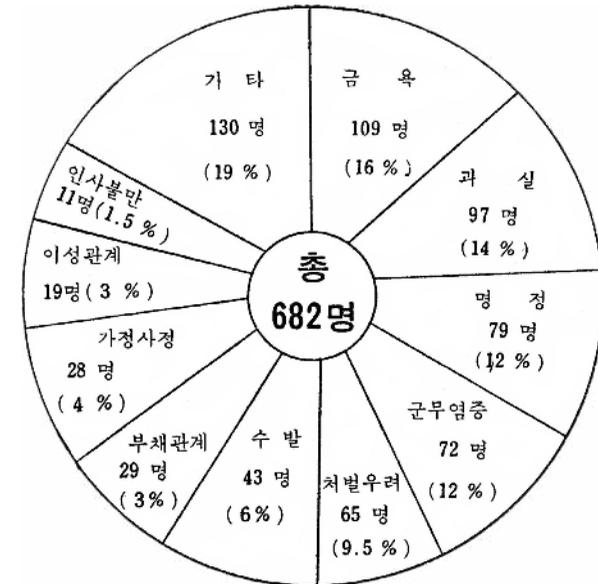
2. 72년도 범죄개황

가. 72년도 총 범죄건수는 553건에 범죄자 수 667명으로써 범죄계수 6의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72년도 범죄예방 목표계수 7.2에 훨씬 모자라는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67년 이후 처음으로 범죄가 대폭 감소되어 가장 적은 연도가 되었음.

1) 전 범죄를 유형 별로 본다면 군무이탈범이 203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30%, 강력범이 141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21%, 재산범이 121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18%, 과실범 중 차량사고자가 60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9%, 자해범이 32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5%, 기타범이 110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범죄자 중 총기로 인한 범죄자는 13명이며, 범죄별 현황을 그림표로 표시하면 표 2와 같다.



2) 전 범죄를 원인별로 보면 총 범죄자 수 682명(원인별 통계에 있어서는 군무이탈자 통계를 복귀자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5명이 증가되었음) 중 금욕으로 인한 범죄 109명, 과실 97명, 명정 79명, 군무엄중 72명, 처벌우려 65명, 우발 43명, 부채관계 29명, 가정사정 28명, 이성관계 19명, 사불만 11명,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림표로 표시하면 표 3과 같다.



3) 전 범죄자를 계급별로 본다면 일병이 143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21%를 차지하여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사 121명, 병장 102명, 상병 76명, 이병 50명, 중사 48명, 상사 25명, 위관장교 43명, 영관급 이상 장교 15명, 군속 12명, 기타 등으로 되어 있음.

4) 전 범죄자를 특기별로 본다면 수송이 123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18%를 차지하여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차량사고자 6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통신전자가 81명, 비행기 정비가 79명, 인사행정이 77명, 시설이 69명, 보급이 63명,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음.

5) 전 범죄자를 학력 별로 보면 고졸이 483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72%를 차지하고, 연령별로 본다면 21~25세가 404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6) 전 범죄자를 범죄 발생 장소별로 본다면 영외에서가 361명, 영내에서가 306명으로 되어 있고 영내 중에서는 내무반이 84명, 사무실이 40명, 창고·노상이 각 16명, 초소가 13명, 기타 등으로 되어 있고 범죄발생 상황별로 본다면 근무 중 죄를 범한 자가 170명으로써 가장 많고, 휴가 중 90명, 외출 중 81명, 퇴근 후 57명, 전속부임 중 20명, 출장 중 17명, 기타 휴식 중, 대기 중 등으로 되어 있음.

3. 중요 범죄별 분석과 대책

가. 군무이탈범

전체, 범죄의 30%를 차지하는 군무이탈범은 203명으로써 71년도 225명에 비해 12명 감소되었고, 이를 분석하면 첫째, 계급별로는 일병이 64명(32%), 상병이 34명(17%), 병장이 33명(16%), 하사가 32명(16%), 이병이 27명(13%), 중사·군속이 각 3명, 기타 계급 등으로 되어 있고, 둘째, 원인별로 보면 처벌우려가 57명(28%), 군무염증이 51명(23%), 부채관계 26명(12%), 가정불화·빈곤 등이 22명(10%), 이성관계 16명(7%), 장기복무 후회 14명, 인사불만 11명, 신병관계 6명 등으로 되어 있고, 셋째, 환경별로 보면 영내를 무단이탈하여 군무이탈한 자가 69명(34%), 휴가 중 58명(29%), 외출 중 53명(26%), 전속부임 중 14명, 출장 중 4명 등으로 되어 있고, 넷째, 특기별로 보면 비행기 정비가 36명(18%), 통신전자가 32명(16%), 인사행정이 24명(12%), 시설이 21명(10%), 보급이 19명, 수송 18명, 보안 10명, 기타 특기별로 되어 있음.

〈대책〉

첫째: 군무염증과 장기복무 후회 등의 원인은 평소 지속적인 각종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군인의 기본자세를 확립함으로써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정훈 군중 활동의 강화로 군 복무

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점, 군인의 사명감 등을 명확히 인식시켜 군복무의욕을 증진하는 동시 군무염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적이고 공포적인 내무생활을 지양하기 위하여 소속장 기타 내무생활지도 책임장교 등의 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내무생활 명랑화를 위하여 전일 병들의 고참병들에 대한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신고제도, 사적, 제재, 교육을 빗자한 부당한 집합, 기합 등을 근절하여야 겠으며, 장기복무자에 대하여는 보직, 진급, 해외파견, 교육 등에서 처우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처벌우려로 인한 군무이탈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휴가, 외출시 사전에 부득이 미귀영하게 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미귀영자가 귀영하였을 때 내무반 등에서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미귀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사적제재 등 고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 소속장병에 대한 교육과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것이다.

셋째: 가정의 불화, 빈곤 등으로 인한 군무이탈에 대하여는 평소 소속장병에 대한 신상파악을 정확히 하여 가정사정에 문제점이 있는 장병을 파악하여 수시로 면담 등을 통하여 선도함으로써 자포자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환경하에서는 군 복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평소 가정통신을 이용하여 가정의 문제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동시 특히 외출, 휴가시에는 사전에 개인 면담, 교육 등을 통하여 가정사정으로 군무이탈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며 행동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부채로 인한 군무이탈은 B. X, 식당 등 민간업체에 대한 외상액을 실효성있게 제한 통제하여야 할 것이며, 사병들간의 금전거래, 사병에 대한 공사금의 위탁 등을 근절하는 동시에 검소한 생활정신을 주입시켜 외출시 금전을 낭비하는 습성을 없애고 평소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항상 소속사병들의 부채관계를 파악하여 조정 감독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가정과 연락하여 해결하는 등 관계관들이 선도 및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이성관계, 신병관계로 인한 군무이탈은 소속상관의 소속장병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문제점이 있는 이성관계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교육과 진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군중, 의무계통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신병보유자에 대하여는 의무계통 및 가정과의 긴밀한 상의 협조하에 적절한 치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사불만으로 오는 군무이탈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각종 인사제도(전속, 배속, 보직, 근무할당, 휴가, 외출, 진급, 상벌 등)를 지양하고 인사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인사에 관하여 불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설득으로 불만을 해소시

키고 능력만 있으면 군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입시킴으로써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도함이 요구된다. 평소 군법교육을 통하여 군무이탈자에 대한 처벌과 처벌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포활동의 강화로 군무이탈자는 반드시 체포된다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동시에 일벌백계주의적인 엄한 처벌로 위협적인 효과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강력범(주로 폭행)

1) 개황 및 분석

강력범은 총 101건에 범죄자 141명으로써 총 범죄자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71년도 강력범 192명(133건)에 비해 약 27% 감소된 양호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첫째: 죄과별로 보면 폭행범(폭행 치상 포함)이 116명으로써 강력범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관폭행 8명, 초병폭행 3명, 살인(미수 포함) 2명, 강간 5명, 협박 4명, 폭행치사·강도 각 1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둘째: 계급별로 보면 하사가 35명으로써 강력범의 25% 차지하고 있으며, 위관급 장교 27명(19%), 병장 19명(13%), 상병, 상·중사가 각 18명(13%), 일병 14명(10%), 기타 계급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군기확립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위관급 초급장교 중 폭행범이 많은 것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인 것이다.

셋째: 특기별로 보면 관제 비행기정비시설이 각 18명으로써 강력범의 1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인사행정 17명(12%), 통신전자 14명, 보급 13명, 기타 특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넷째: 원인별로 보면 명정이 62명으로써 강력범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발 41명(29%), 사감 16명, 기타 원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장소별로 보면 영외의 노상이나 음식점, 내무반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영외에서의 강력범은 퇴근 후, 외출 중, 휴가 중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시간별로는 18:00~24:00 사이가 전범죄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2) 대책

첫째: 강력범 원인 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영내외를 막론하고 음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위하여 영내에서의 주류판매의 재검토, 음주장소와 시간의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특히 영내외를 막론하고 회식시는 책임관을 임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관들은 평소 음주벽이 있는 사병에 대하여는 개인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외출, 휴가 전에는 특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강력범의 원인 중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발로 인한 것인 바 우발이란 평소 군인 정신이 해이된 상태나 교양 또는 인격의 결함 등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평소 각종 교육훈련의 강화와 인격지도교육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사감으로 인한 강력범(주로 폭행)은 평소 내무생활이나 근무처에서의 생활 중 상경하에 정신의 결여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이므로 특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나 인격적인 모욕 등을 근절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 할 수 있도록 관계관들의 부단한 교육과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대상관폭범(8명)은 평소 계급의 존엄성, 상급자에 대한 신뢰감, 존경심의 결여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상하 질서를 확립하고 상경하에의 기풍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범죄는 군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중요한 것이므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중히 처리하여 전 장병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 이외에 내무생활 등에서의 사적 제재를 근절하여야겠고 구타하는 습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선도와 감독이 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계급별로는 하사와 위관급, 초급장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산범

1) 개황 및 분석

재산범은 총 71건에 범죄자 121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71년도의 재산범 104명(67건)에 비해 약 14% 감소되었으나 건수상으로는 4건 증가되었으며 이를 분석하면,

첫째: 죄과별로 보면 군용품 횡령이 33명으로써 전 재산범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군용품 절도 28명(23%), 절두 27명(22%), 장물에 관한 죄 10명, 횡령 7명, 공갈·군용품 분실 각 3명, 사기 2명, 기타범 등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계급별로 보면 상·중사가 28명으로써 전 재산범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일병이 20명(21%)을 차지하고 있고, 하사 22명(18%), 병장 20명(17%), 상병 15명, 기타 계급으로 되어 있고

셋째: 특기별로 보면 수송 29명(24%), 보안 22명(18%), 통신전자 20명(17%), 보급 16명, 시설 9명, 기타 특기로 되어 있고,

넷째: 원인별로 보면 금욕이 101명으로써 전 재산범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명정 등으로 되어 있다.

2) 대책

첫째: 재산병의 주된 원인은 금욕에 기인되므로 군수물자 취급부사 장병 보임시에는 장병의 가정환경, 성격, 성실성, 책임감, 이성관계, 기호(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병을 선택하여야겠으며, 특히별로 보면 수송, 보안, 통신전자, 보급, 시설 등이 대부분이므로 특히 물자취급자, 물자수송자, 물자 지출입 통제자 등에 대한 신상파악 철저와 교육 및 감시감독의 강화로 범죄의 위험성이 발견되면 즉시 보직을 교체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직을 바꾸는 방안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수물자 취급장병에 대하여 평소 군수물자 선용에 관한 교육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관계관들의 군수물자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혀 수시로 재고조사를 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관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계급별로 보면 상·중사, 하사, 일병, 병장 등이 대부분이므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군수물자 부정처리 요령이 풍부한 상·중사급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군 경력과 업무지식이 미숙한 하사, 일병급에 대하여는 교육이 선행되어야겠고 제대를 앞둔 병장급에 대하여는 군수물자 취급을 금지시키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네째: 이 외에 평소 장병에게 검소한 생활정신을 주입시켜 낭비벽, 음주벽 등을 교정시키고 해외출장 장병에 대한 범죄예방교육(관세법) 등이 병행되어야겠다.

라. 자해범

1) 개황 및 분석

자해범은 총 32명으로써 전 범죄자의 5%를 차지하고 있고, 71년도 자해범 총 39명에 비해 약 18% 감소되었으며 이를 분석하면,

첫째: 죄과별로 보면 자살 13명, 자살미수 16명, 군무기피목적사살 3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둘째: 계급별로 보면 일병 12명(38%), 상병 6명(19%), 하사·이병 각 4명, 병남 3명, 중위·상중사 각 1명으로 되어 있고,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25명(78%), 중졸 4명(12.5%),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 바 고졸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환경별로 보면 군무이탈(무단이탈 포함) 중이 11명 (34%)으로써 가장 많고 휴가 중 9명(28%), 근무 중 3명, 기타 출장 중, 외출 중, 입원 중 등으로 되어 있고,

네째: 자해방법으로 보면 음독(수면제, 농약, 쥐약 등) 14명, 총기 8명, 흉기사용 4명 외 기타 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원인별로 보면, 염세가 10명(31%)으로써 가장 많고 가정사정 범명(불화, 빈곤, 우화 등), 처벌우려 5명, 근무염증 4명, 이성관계 2명, 기타 신병관계, 부채관계, 장기복무, 후회 등으로 되어 있다.

2) 대책

첫째: 자해범의 주된 원인은 염세인 바 이는 문제사병에 대한 개별적인 인격지도 교육 및 군생활의 강화로 왜곡된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 건전하고 확고한 인생관을 확립토록 하여야 하겠고,

둘째: 불우한 가정 사정은 군무이탈, 폭행범 등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써 이는 철저한 신상파악과 관계관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지도계몽활동으로 건전한 판단력을 보유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군 생활에 불만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무생활 명랑화 등으로 군 복무의욕을 증진시키고 신상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이성관계, 신병관계, 부채관계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대책을 마련 해결해 주어야 하며, 하사와 하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장기복무를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총기 및 실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관물함 및 소지품 등을 수시 검사하여 위험물(극약, 실탄 등)을 사전 제거 하여야 하겠고,

다섯째: 계급별로 보면, 군 생활이 처음도 아니고 완전히 적응되지도 못한 일병이 가장 많고, 또 전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군생활 경력이 6~16개월 사이인 사병들에 대한 선도적인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주의 집중과 감시감독이 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 차량사고를 비롯한 과실범과 명령위반,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일반범에 대하여는 분석을 생략하고 대책은 종합대책에 언급하겠다.

3. 각종 범죄 예방 종합대책

첫째: 모병시 적성검사와 철저한 신원조사를 통하여 성격이 왜곡된 자, 가정사정에 결함이 있는 자(결손, 불화, 빈곤, 우환 등) 전과자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교육훈련의 강화(정신교육, 군중, 정훈, 법무교육 등)로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여 군인의 기본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초년병인 일병급에 대한 교육훈련과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세째: 신상파악 철저 (부채관계, 신병관계, 이성관계, 가정사정, 군생활에 대한 불만 등)와 소원수리 제도 및 면담제도의 활용으로 장병의 문제점을 조기발견하여 해결책과 선도책을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장병의 복무의욕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신병의 고참병에 대한 신고, 부당한 단체기합 교육을 빙자한 불필요한 집합, 하급자에 대한 폭언 등 사적 제재 행위를 근절하여 내무생활의 명랑화를 기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적성 소질에 맞는 특기부여와 연고지 등에 대한 배속, 공정한 휴가, 외출, 근무할당 등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실효성 있는 음주통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겠으며 범죄자를 은폐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신상필벌과 일벌백계주의로 엄중처벌하여 전 장병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72년도 범죄 전체 개황과 중요 범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예년과 달리 72년도 범죄가 대폭 감소된 것은 기년말의 비상사태선언에 호응한 공군 자체 11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한 관계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다. 끝으로 72년도 범죄분석이 개괄적이며 미비한 점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공군 범죄예방책 수립에 도움이 되어 73년도에는 72년도와 같이 범죄가 대폭 감소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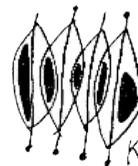
특집: 아빠는 공군



「공군」이라는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의 내조자로서 공군의 아내들은 그들만이 겪는 에피소우드 속에 보람과 희열을 느끼며 산다. 조국방위의 성스러운 사명 앞에 자세를 가다듬는 부군에게 행여나 불운이 닥칠까 그들의 손길은 더욱 깊고 세세한 곳까지 미친다. 사랑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단 한 순간의 탈선도 없이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우리 공군의 주부들의 숨은 내조담을 들어 본다.

〈편집실〉

강 속 자 <공영희중령 부인>



아빠는 공군이라는 제목의 원고청탁을 받고 보니 꿈꿨던 한 소녀가 푸른 제목의 사나이를 일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그날로부터 시작된 그이와의 생활, 십여년을 한꺼번에 펼쳐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으나 사양이 통할리 없는 공군의 생리를 잘 아는지라 용기를 내어 그이와 함께 생활해 온 십여년의 오솔길을 거슬러 가보면서 과연 이제까지 살아 온 자세가 옳았는가 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봐야겠다.

철부지 소녀 시절, 구정이 며칠 지난 어느 날 고모님과 함께 집을 방문한 한 공군소위(그 당시는 계급도 몰랐지만)는 여대생인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 듯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른들과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이야기 끝에 나에게 한 마디의 인사조차 없이 가버린 사람과 어쩌다 인연

이 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역세기만한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의 성격과 정열적인 빨간 마후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매혹되었다고나 할까? 그이에게 다가 올 내일들을 의지하고 사랑의 꿈 속에 하루하루를 살던 신선 시절은 부엌없는 단칸 셋방에서도, 살을 에이는듯한 겨울철에도, 서투른 솜씨로 힘겹게 살면서도 마냥 그이가 자랑스러웠고, 즐거 웃기만 하였다. 그러나 몇 달 후 뜻하지 않은 그이의 비행사고로 몇 개월간의 병원생활 그이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기에 이르렀다. 퇴원 후 안정이라는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비행기와 함께 하늘을 날면서 생활하는 그이가 어떤 불행에 처하지 않기를 출근 후 무사히 대문을 들어서서 그 이를 맞을 때까지 기원을 계속해야 하는 생활을 매일 되풀이하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됨에 따라 생활에 익숙해 지고 항공기에 대한 나의 신뢰와 이해가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게 되었고 짓궂기만한 그이와 동료들의 대수롭지 않은 농담 하나에도 얼굴을 붉히고 야속함을 느끼던 부끄럼 많은 그즈음 부딪쳐온 차가운 현실은 소녀적 꿈을 만분의 하나로 줄여도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의에 사로잡혔었다. 그것은 많지 않은 보수에 생활마저 모르는 그이에 비해 벼들의 호화로운 결혼생활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모든 것을 바쳐 나만을 위하기를 바랐던 간절한 한 연약한 여인의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늦게서야 퇴근하고 약주와 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그이라 더욱 늦어지기 일쑤이고 비상대기다, 파견근무까지 있고 보면, 항상 기다림에 지치게 되고 막상 집에 돌아온 그이와 별다른 따뜻한 말조차 나누지 못한 채 잠들게 마련이기에 때로는 하숙집이나고 짜증도 부러워지만 전연 소득조차 없는 노릇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군의 가족이 된 지 얼마 후 비로소 나의 생각이 너무나 얽박한 여인의 소견임을 깨닫게 되었다. 넓은 세계, 그리고 밝게 생활하는 그이에게 나만을 위해 달라던 마음, 생활 자체가 기밀 속에 속하는 그이에게 혼자 생활하는 동안의 사사건건들, 부대업무에 지친 주말을 여행을 하자고 떼를 쓰던 일들, 이 모두가 부끄러운 바램이었다. 남자들 세계는 테두리보다는 온 정열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활동무대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정보다는 몸담고 있는 공군의 생활이 더 큰 비중을 여인의 욕심으로는 야속하게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나 자신보다는 공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는 그 자세가 믿음직스럽고 머리 숙여지기도 한다. 폭음을 내면서 하늘 저멀리 치솟는 은빛 날개를 볼 때마다 남 모르는 호뭇함과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끼기도 한다. 푸른 제복과 빨간 마후라의 상징인 조종사의 아내였음이 더없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역시 다정다감한 여인이기에 좀더 나에게도 정과 시간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지만 온 정성과 정열을 쏟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치밀하고 과감하게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것이 나의 참된 도리임을 깨닫고 좀더 그의 반려로서 부끄럼 없는, 부족

함이 없는 여인이 되도록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한다.

오 윤 정 <장 풍갈소령 부인>



「아가씨는 어떤 직업의 상대와 결혼 하겠습니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묘한 인연으로 누구의 소개도 없이 우연히 만나 첫 데이트 때의 질문이었다.

「직업과 관계없이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라도 좋다.」고 대답한 기억이 난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라면 누구든 한번쯤은 노파심에 조종사라면 선뜻 허락을 않으시리라 믿는다.

예외없이 그이도 조종사였기에 조그마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그이는 첫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한 직업을 개의치 않는다는 말에 서슴없이 자기는 조종사라고 밝히며, 가진 것은 없지만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만을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군이라며 결혼을 신청했다. 사춘기를 겨우 벗어난 어린 나이였기에, 아무런 타산도 없이 오직 마음에 든다는 조건만으로 첫 신청에 이미 마음을 정해 버렸었다. 그러나 여자의 유지한 자존심에 처음부터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알까 봐 서투른 연극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철없는 숙녀는 그이의 연인이 되어 갔다.

알게 된 첫해의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된다. 무엇이든 선물을 하고 싶었다.

친구 『옥』이가 군인간 동생에게 준다며 마후라를 뜨고 있기에 불현듯 그이에게 마후라를 떠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종사는 빨간 마후라를 한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뜨게질을 배워 육군들의 턱받이같은 모양으로 빨간 마후라를 완성했다.

24일 밤에 남자에게는 처음으로 선물을 하기 때문에 쓱스르워 얼른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결혼한 다음,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그 턱받이같은 마후라가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상태로 나오기에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왜, 이렇게 새겔로, 그냥 있느냐?』 물으니 그제야 꺾끗 웃으며 『조종사의 연인이 그렇게도 조종사에 대하여 무식했느냐?』고 하시며 빨간 마후라는 그렇게 생긴 것 아니고 커다란 스카프라고 가르쳐 주는게 아닌가.

그때의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마음은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생하다.

그렇게 조종사의 아내로서 아무런 예비지식도 없이 그이의 아내가 되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본능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터득해 온 아내의 의무와 본분을 얼마만큼 수행했는지 아직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십전심으로 느낀 그들의 철저한 임무수행과 다른 사람들 한데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와일드 해 보이면서도 수십 수백가지의 계기체크를 해가며 최신무기를 다루는 치밀한 성격, 강인한 군인정신, 고결한 명예를 제일로 삼는 전투조종사의 아내로서 자기도 모르게 반은 군인이 된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다.

그이가 의욕적으로 군무에 임하고 사격스코어가 좋아 기뻐할 때는 같이 희열을 느끼며 행복해지고 그이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며, 침체해질 때는 같이 마음이 어두워져 의욕이 일지 않지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건강이 좋지 않은지? 혹은 인과관계에 저해가 생기지 않았는지? 무엇이 그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난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을 태일러 될 수 있으면 안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조용히 살핀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웃에 아버를 잃은 가족을 보게 되어 같이 밤을 지세우고 애통해 하던 일도 잊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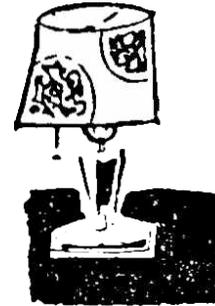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하찮은 꿈을 꾸어 하루 종일 신경을 피로하게 쓰던 일이며 예고없이 늦게 들어올 때는 마음은 초조하다 못해 몸이 한줌으로 줄어드는듯한 착각에 빠지다가 그이가 들어오면 안도감에 눈물이 글썽해지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조종사의 아내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지마는 않는다. 그이가 야간비행이 있는날 시내에 불일이 있어 기지버스를 타고 갈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진동하듯 들려와 열린 차창을 내다보니 팬텀의 편대가 용광로의 불기둥과 같은 배기까스를 뿜으며 음속을 돌파하듯 붉게 노을져 가는 아름다운 하늘을 더욱 장엄하게 장식하며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닌가 순간 그 웅장함에 모든 사고력이 마비된듯 났을 잃고 저 속에 그이가 조종간을 굳게 잡고 앉아있으려니 생각하니 감당하기 어려운 감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미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그이만이 올라왔은 것 같아 고개가 숙여졌다. 『천주여! 저들이 항상 무사하도록 지켜주소서.』하고 기구를 마치고 눈을 돌리니 활주 로의 붉고 푸른 전등불도 그들의 장도를 비는듯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렇듯 막중한 역할을 하는 그이이기에 오로지 임무에만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원천이 되는 가정을 편안하고 포근한 안식처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임무라 생각하고 첫눈에 반해 타산없이 택한 길이였지만 높고 푸른 하늘을 주름잡으며 맑은 기상과 고귀하고 위대한 그의 폭넓은 사랑을 만끽하면서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련다.

박 헌 숙 <김세환 대위 부인>

나의 아기는 지금 두살 된 계집아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경쾌』하면 꼭 사내아이처럼 거수경례를 한다. 아무리 여자아이처럼 절하는 것을 가르치려 해도 막무가내로 거수경례만 한다. 아빠가 당직 서느라 며칠 집을 비우고 보이지 않으면 길 가다가도 군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아빠』하고 부르며 따라가려 한다.



그 아이가 처음 제복을 알아보게 된 것은 생후 5개월 되던 때인가 보다. 전속하는 아버를 따라 탄 경부선에서 잠깐 자리를 뜬 아버를 찾다가 뒤에 선 공군아저씨를 보고 자꾸 보챈다. 보다 못한 공군아저씨가 안아주니까 그제야 울음을 그친다. 아마도 아바인줄 알았나 보다.

나는 결혼 전에 공군에 있는 아버를 통하여 몇몇 공군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단지 유니폼이 주는 젊음이 아닌 또다른 싱싱하고 때묻지 않은 내면적인 젊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만끽하는데 서슴치 않았기에 나 또한 그 꿈을 잃고 싶지 않아 공군인 아버와 결혼하여 나의 만 2년째인 공군 아내의 이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활이란 더구나 군인생활이란 언제나 파란 하늘 밑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나보다. 때로는 검은 먹구름이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그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

우리에게 그렇게나 어린 갓난아기가 있는지조차 아는지 모르는지 무정한 전속명령에 따라 현실적인 O·헨리의 단편 소설은 시작되었다.

막상 생후 5개월의 갓난애와 함께 우리의 옥내 캠프 도구를 풀었을때 나는 아버와 함께 어이 없는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내가 공군의 아내였기에 받아야 했던 위로와 친절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한집 건너 공군부인들의 심심찮은 위로로부터 앞집 뒷집 동네 아줌마들의 과분한 친절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나는 서울에 있어야 했고 내가 아프다면 누가 와서 나의 아이를 돌봐줘야 하고 나란히 놓인 나의 가구에 걸레질을 하고 가끔은 정다운 친구의 방문에 깔갈거리는 웃음이 있어야 할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을 영망으로 만들어 버린 제복이 보기조차 싫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라가 있는 한 군대가 있을 것이고, 군대가 있는 한 이른바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한다는 공군이 없을 수 없으니 공군의 역사는 길이 이어질 것이고 그 아내들의 보따리 행각 또한 끝나

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감히 나 자신과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공군의 많은 아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에.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아빠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방은 우리가 한다는 자부와 언제나 푸른 젊음들속에서 신선한 호흡을 같이 한다는 내적인 풍만함과 내 비록 전속에 대한 불만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낯선 풍물에 대한 경이를 주지 않던가?」라고 말하고 싶다. 이젠 아빠의 전역도 1년남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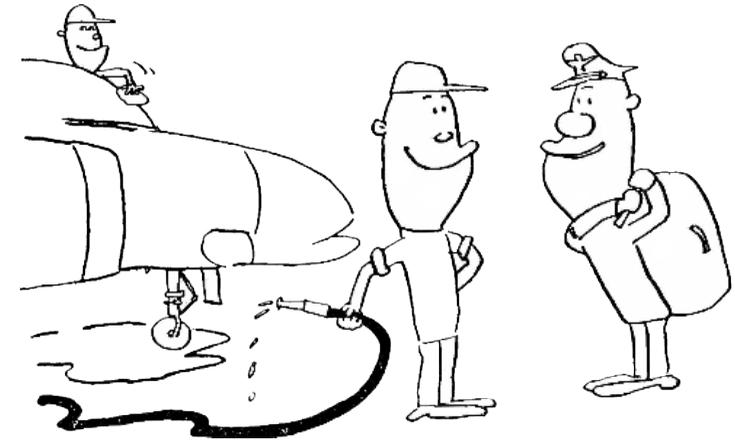
가장 붉게 타오는 청춘의 5년을 공군에서 보낸 아빠가 마치 졸업을 맞는 생도와 같은 착잡한 감회와 앞날에 대한 설레임을 감출 수 없듯이 나 또한 그에 못지 않는 제복에 대한 「경의」는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을 것이니 공군이여 우리 모두의 가슴에 길이 빛나리.

공군만평



◀ 건 망 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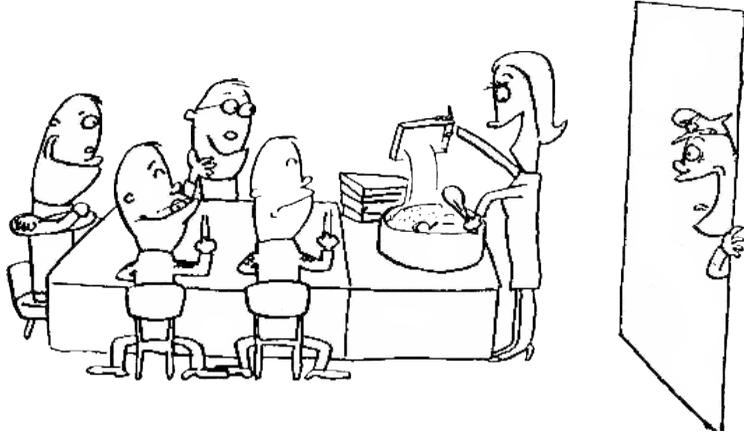
근무자: 당직 사령님의 얼굴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근무
중이라 할 수 없군요!
당직사령: 잘 한 일야!
암호가 생각날 때가
지 이렇게 있으마!



◀ 전문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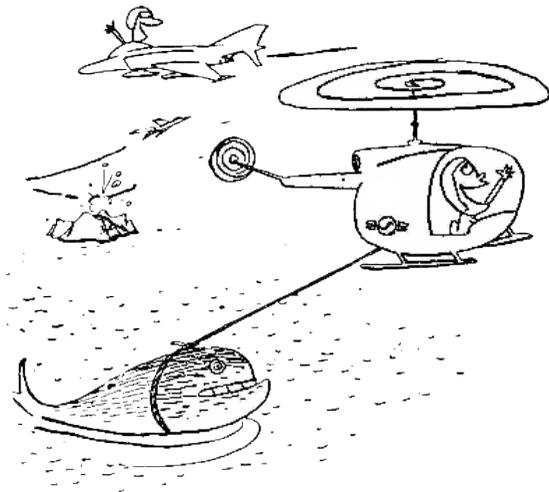
「유독히 항공기 세척반으로 자원해 온 동기는 뭔가?」
「입대 전 직업이 세탁업, 때 벗기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어유」

공군만평



◀ 도시락 합동 비빔밥 ▶

맛이 어땠더냐구? 그저 전주 비빔밥이 무색할 정도였어! 남남!



「사격장 부근에 나타났길래 발칸포로 한방 했지」「댕큐! 덕분에 비행단에 잔치 벌이게 됐어!」

「길리오·두헤」의 항공전략사상



심사수

1. 「두헤」의 생애

「길리오·두헤」(Giulio Douhet, 1869~1930)는 1869년에 이태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이태리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장교가 되었으나 일찍이 항공기의 중요성에 눈을 떠, 일차대전에서는 이태리군의 전투조종사로서 활약하였다. 세계의 강대국 군대에서 항공기를 군용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부터였으며, 1912년에는 항공기를 군용무기로 채택하지 않은 강대국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기가 군사작전에서 주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도 항공기는 전장에서 주역을 담당 하지 못했으며, 참호전에 의하여 교착된 전선을 타파하려는 노력에서도 공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차대전이 발발한 때는, 「라이트」형제가 북 카로라이나 주(NC)의 키리 호크 (KittyHawk)에서 최초의 비행실험에 성공한지 불과 11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항공기는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전장에 등장하였던 것이다.

「두헤」가 항공기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1909년이며, 이 해에 그는 항공세력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였다. 1차대전이 진행됨에 따라 항공기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자, 항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두헤」의 신념은 굳어져 갔다. 그의 신념은 너무나 굳고 명백한 것이었으므로, 항공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군의 고위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는 통렬한 비난을 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1916년 말, 이태리 내각의 한 요인에게, 이태리 육군참모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난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 때문에 그는 군병회의에 회부되어 1년간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1918년 2월, 그는 다시 군에 복귀하여 중앙항공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1차대전이 끝난 후, 1921년에는 공군으로 승진하였다. 그의 불후의 명저「제공」(Il Domino del,

Aria—The Command of the Air) 제1부가 발표된 것은 바로 이해였다. 이듬해 (1922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에 의한 로마진군이 있었고, 그 후 그는 항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관직을 사양하고, 항공세력의 발전을 위한 저술과 계몽에 노력하다가 1930년에 52세로 사망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기가 승패를 결정하는 주역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손 치더라도,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신생무기(항공기)에 주목한 「두헤」같은 사람의 상상력과 비전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였다.

「두헤」는 1차대전의 교착상태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만약 앞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우세한 항공세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항공세력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예언자적인 원시안과, 광신에 가까운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예언자적인 통찰력과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감히 수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상군과 해상군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26년에 「두헤」는 「제공」제 2부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그는 「미래전의 전망」, 「1900년대의 전쟁」등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저술과 논문은 모두가 「제공」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현재 출판되고 있다. 그의 저서는 1932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1935년에는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제공」이 영어로 출판된 것은 1933년이며, 영문의 완역판이 출판되기는 2차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이였다.

「두헤」는 유지했던 1차대전의 항공기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항공세력의 미래를 전망하였으며, 그는 최초로 항공기의 잠재능력을 평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그 개발되어질 항공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전술적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는 단연코 항공전략사상가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족하다. 그의 예언은 후세의 항공세력이 발전해 나가게 될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또한 많은 항공전략이론가들에게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다.

2. 「두헤」의 「제공」사상

「두헤」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의지 사이의 분쟁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만이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또한 제공권에 의해서만이 적국의 전쟁수단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사상의 요점이다. 그리고 이 제공권을 획득하는 길은 적의 항공기와 더불어 공중전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적의 지상군과 접촉하는 전선 배후로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를 강타하여 적국의 국민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마비시킴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항공기의 강타 목표는 적의 지상군이나 적의 항공기가 아니라, 전선 배후에 있는 전투력의 원천이 그 목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는 그 침투능력과 운반능력을 가지고 전략폭격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 전략폭격만이 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헤」가 볼 때, 지상군과 해상군의 우세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제공권이 획득되어지는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 국가가 만약 제공권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는 적의 우세한 공군에 의하여 항공기 생산공장을 파괴당하므로 제공권을 회복할 수단까지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력을 유지하고 동원할 수단까지 상실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 한 나라가 제공권을 상실하여 적의 공중공격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산업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군과 해군의 전투력을 지탱하는 산업 및 경제 능력이 마비되며, 더욱 근본적인 것은 이에 따라 그 국민이 전의를 상실하여 전쟁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두헤」사상의 요점은 전략폭격에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독창성은 항공기가 유지했던 당시에 있어서 앞으로, 무한히 개발될 항공기의 침투능력과 운반능력에 대한 예견과 착안을 가지고 항공기의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적의 전투력과 의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데에 항공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두헤」가 참여하여 체험했던 1차대전은 교착상태의 지속이었으며, 전선의 변동없이 한 전투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치루는 소모전이었다. 그래서 1차대전은 쌍방이 승리와 패배를 분간할 수 없는 「휴전」으로 종결되었다. 「두헤」는 이러한 승부 미결로서 끝난 1차대전의 전술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리 분석하였다. 즉,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무기의 파괴력과 살상효과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이러한 화력의 발전 때문에 지상군은 공격작전을 전개하는 것보다 방어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작전에서 어느 편이든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어측에 비해 월등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며, 더우기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화력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비록 공격측이 방어측보다 수십배 우세한 병력을 가자더라도 지상작전에서는 침투와 돌파가 불가능할 것이며, 결국은 쌍방이 결정적 승리 없이 끝난 1차대전의 전술을 되풀이하고 말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았다.

따라서 「두헤」는 해군과 지상군은 결정적인 최후의 승패를 좌우할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항

공기가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지상과 해상에서 방어작전을 전개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항공기는 그 속도와 침투능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격작전에 적합하며, 방어작전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군과 해상군만으로는 완벽한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완전한 방어는 항공기에 의한 제공권의 획득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지상과 해상의 방어는, 그 방어선의 배후에 있는 영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해군과 지상군이 승리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 그 승리가 적의 영토를 완전히 점령해서, 적이 그 땅을 근거지로 이용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승리는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상과 해상에서의 승리만으로써는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제공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항공기가 공중에서 집중적 공세를 가할 수 있도록 지상군은 방어에 주력 하는 것이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병력사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두해」는, 항공기가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하는 이유를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 항공기는 지구표면의 장애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항공기의 속성인 속도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수한 공격무기이다. 공격작전에 있어 가장 큰 이점은, 작전계획에서의 선제, 다시 말하면 공격지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공격병력을 최대한 집중시킬 수 있는 자유에 있다. 이와 반대로 방어하는 적은 우리가 공격을 가할 지점과 방향을 모르고, 그들의 병력을 분산하여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항공기가 한 지역을 기지로 할 때, 이 기지로부터의 항공행동반경 이내에 있는 적의 모든 지역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이 지역을 통틀어 전장으로 만들 수 있다.

다. 항공기는 방어용으로는 적합 하지 못하다. 만약 항공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격해 오는 적의 항공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공격작전에 사용된 항공기 100대는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1천대의 항공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중방어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항공기를 공격작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두해」는 주장하면서, 공격작전을 전개할 때에 있어서 항공기가 강타를 가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공격은 다음과 같은 목표에 대하여 시행하면 된다. 평시산업, 공업시설, 개인 및 공공의 주요 건물들, 수송시설 및 교통중심지, 그리고 시민의 주택지역 등이다. 이런 목표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포탄이 있으면 된다. 즉, 폭발탄, 소이탄, 그리고 독개

스탄이다. 폭발탄은 목표를 파괴하고, 소이탄은 거기에 화재를 일으키고, 독개스탄은 소화작업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다.」

「두해」는 항공공격의 목표선정에 있어서 무차별폭격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폭격기의 공격 목표는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 때의 목표선정은 군사시설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력의 물리적 원천이 되는 공업시설을 파괴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산업의 생산활동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군사력의 조성을 뒷받침하는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의 생활 터전을 상실케 만들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상적인 국민생활의 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사기를 근본적으로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공격을 가할 때는 「다시 공격을 가할 필요가 없을만큼, 단 1회의 공격에서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때 그 효과는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약화를 초래시키는 이점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두해」가 말하는 목표의 선정 및 그 파괴에 관해서 말했거니와, 「두해」가 그러한 무차별 완전파괴를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공권의 획득에 있는 것이다. 「두해」사상에 있어 전략폭격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제공권의 획득이며, 목표의 선정 및 파괴는 제공권 획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법은 전략폭격 밖에 없으며, 제공권이 장악될 때 비로소 지상군과 해상군의 승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제공권과 획득 없는 완전한 전략폭격을 할 수 없으므로, 제공권이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는 최초의 수단이며 또한 최종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제공권의 획득을 위한 방법에 관해서 「두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다. 즉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군의 항공기에게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적 공군에 대해서는 항공작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적의 항공작전을 방해하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적의 항공수단을 파괴해야 한다. 적의 항공수단은 공중과 비행장과 적납고와 공장에 있다. 적의 항공수단을 파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의 항공수단을 어느 곳에서든지 — 공중, 공장, 지상을 가리지 않고 — 발견되는대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군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공권을 획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점에 관해서 「두해」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들을 열거하였다.

(1) 아국의 영토를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적의 직접적인 무서운 공격으로부

터 아국의 국민사기와 자원을 보호한다.

- (2) 제공권을 획득함으로써 적에 대한 우군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 (3) 제공권은 우군의 작전기지와 병참선을 보호하며, 적군과 기지와 병참선을 위협한다.
- (4) 적의 공군이 그들의 지상군과 해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며, 반면에 우리의 공군이 우군의 육·해군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5) 적으로 하여금, 그들의 공군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적의 군사력 재건을 위한 바탈을 박탈한다.

이상에서「두해」의 제공권 사상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두해」는 미래전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공군력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제공권의 획득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성취할 수 있으려면, 지상군과 해상군과는 다른 임무의 독자성에 비추어, 공군이 독립된 군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기의 성능이 유지했고, 또한 전쟁에서의 실적이 미미했던 당시에 있어서 경험에 의한 안전성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까지 항공기는 육군과 해군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두해」는 미래전의 승패는 항공세력에 의해서 판가름될 것임을 예견하였으며 항공기를 종속적, 보조적 지위에서 해방시켜 새롭게 독립된 군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육군과 해군은 그들의 독자적인 지상작전 및 해상작전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 별도로 항공수단을 가진다는 것은 무방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육군 및 해군과는 완전히 별도로 독자적인 전쟁수행을 할 수 있는 공군을 가진다는 것,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필요성 등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육군과 해군은 상호 협조해서 행동해야 하지만은 또한 각각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한 쪽을 다른 쪽에 종속시키는 것은 쌍방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 마찬가지로 공군은 항상 육군, 해군과 협동해서 행동해야 하지만은 공군은 육·해군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3. 「두해」이론의 비판

전선 배후에 있는 적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제공권을 획득하고, 획득된 제공권을 이용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달성한다고 하는 「두해」의 이론체계는 전략폭격기가 투하하는 폭탄의 물리적, 심리적인 효과를 극히 높이 평가하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폭탄의 파괴력을 너무

크게 계산했으므로「단 1회의 공격에서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었다. 그는 전략폭격대의 편성은 폭격기 10대를 단위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 대의 폭격기가 각각 2톤의 폭탄을 탑재한다면 한 폭격대(10대)는 20톤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 폭격대는 직경 500미터 지역 내에 있는 목표를 어떤 것이든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각각의 한 폭격대가 500미터 직경의 지표면을 파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폭격대 50개 (항공기 500대)만 있으면, 단 1회의 출격에서 적 영토내에 있는 50개의 목표 — 예를 들면, 보급품 집적소, 산업시설, 철도 중심지,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하였다. 또한 「두해」는 폭격 효과가 심리적·사기면으로 미치는 영향을 크게 평가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프랑스의 4개 중요도시가 단 한 시간의 폭격에 의하여 거대한 불길 속에 싸일 것이며, 최초의 항공공격이 시작되지 불과 36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프랑스는 평화를 제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루 동안에 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을 10개 도시, 20개의 도시 또는 50개의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폭격으로 인한 재난의 소식은 라디오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접 폭격의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른 도시의 주민들도, 직접 폭격을 당한 것과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정부나 군대의 당국자들이 그 국민의 질서유지를 위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공공기관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산업활동은 정지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괴와 죽음의 악몽이 계속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은 전혀 영위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두해」가 폭탄의 파괴력을 과대평가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폭탄의 파괴효과가 물리적 및 심리적인 면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의 예견과 기대가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2차대전의 경험에서 실제로 입증되었다.

첫째, 물리적인 파괴효과에 관해서 보면, 10대의 폭격기가 투하하는 20톤의 폭탄이 직경 500미터의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두해」의 주장은, 대피호 시설이나 지하화가 되지 않은, 지표상에 노출된 가벼운 건물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견고한 건물, 특히 방어시설이 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견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파괴효과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폭탄의 물리적인 파괴력을 과대평가하는 과실을 범했던 것이다.

둘째로, 심리적 면에서 미치는 효과를 보면, 「두해」가 기대한 주민생활의 혼란은 2차대전에

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두혜」의 예견은 그가 물리적 효과를 과대평가했던 것보다도 더 큰 오류임이 밝혀진 것이다.「두혜」는 미래전을 상상함에 있어서, 공격을 담당할 항공기의 발전만을 주시한 나머지, 과학의 발전에 따른 총체적인 다른 수단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항공공격에 대한 대응수단의 발전을 간과해 버렸던 것이다. 항공기의 발전에 발을 맞추어 대공화기, 요격 항공기 등도 개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피수단이 강구되고, 특히 전파탐지에 의한 조기경보체제가 등장함으로써 기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2차대전에서 항공공습의 효과는 「두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마비시키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며, 특히 인간의 정신력과 국민의 사기도 전쟁의 목적, 지도자의 통수능력 여하에 따라 무한히 발전 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함이 입증되었다. 「두혜」는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정신적 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두혜」의 이론에서 지적되는 두번째의 결점은, 그가 전투기를 경시했다는 데에 있다. 이 점은, 제공권의 획득이 공중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폭격에 의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사상체계에서는 불가피했던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전투기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은 아니지만, 폭격기를 중시했으므로, 전투기의 능력과 독자적인 가치를 간과하였다. 「두혜」가 말하는 전투기는 폭격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며, 순수히 전투임무만을 위해 항공기를 설계 제작하는 것은 군사력을 비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두혜」가 볼 때 예는, 항공우세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략목표에 대한 폭격에 있는 것이지 결코 공중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지적되는 「두혜」사상의 단점은, 그가 항공기의 속도를 경시 했다는 것이다. 폭탄을 탑재하여 지상군의 전선이나 지리상의 장애에 구속 받음이 없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여 가 공할 파멸을 적에게 안겨다주는 폭격기를 중시한 그에게 있어서는, 항공기의 속도보다는 운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두혜」의 전략사상은 해군전술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는 해군이 제 해권을 장악하는 본질이 함전의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력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항공기에 있어 폭탄탑재능력과 속도, 이 양자 중 어느 것이 본질적이나 하는 문제 앞에서 속도를 버리고 폭탄 탑재능력을 택했던 것이다. 그가 속도를 전혀 무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속도라는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하면 극히 중요성이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결론으로 항상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폭격기이든 전투기이든, 중간속도 (Medium Speed) 이상은 필요치 않다. 속도가 결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기의 기본적인 다른 특성들이 변화되는 일이 없이, 단순히 시속이 10마일 내지 20마일

더 빠른 항공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두혜」가 폭격기의 중요성을 예견한 것은 참으로 타당한 탁견이었다. 그러나 모든 군용항공기에 있어서 사활적인 특성이 되는 속도를 경시 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큰 결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네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두혜」사상의 오류는, 공세 위주의 전술이론이다. 「두혜」는 항공기의 침투능력과 공격능력만을 중시한 나머지, 항공기가 방어 작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제 항공기는 (지상군의) 요새방어선을 돌파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요새방어선 배후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기는 그 행동과 방향 (Action and direction)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항공기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통로를 선택하여 최단시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항공기는 그 본질상 공격병기이며 방어작전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공중방어란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공격위주의 전술사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함이 2차대전에서 입증되었다.

1940년 7월부터 시작된 영국전투(Battle of Britain)에서 영국공군은, 독일공군의 지속적인 폭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전투기를 개발하여 이를 방어작전에 사용함으로써, 독일공군의 작전기지와 항공기생산공장을 폭격하지 않고서도, 영국본토 및 해협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고, 본토방위에 성공했던 것이다.

또한 1943년에 시행된 연합공군의 독일 본토 폭격작전에서, 연합군의 폭격기 (B-24, B-25)는 독일공군의 요격전투기의 방어전술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전략폭격이 좌절되고 말았으며, 특히 1943년 8월에 시행된 제 2차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 공격에서는 독일 공군의 전투기의 반격을 받아 폭격기 60퍼센트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 폭격기 단독으로 실시하던 전략폭격작전은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독일에 대한 전략폭격은 장거리 엄호 전투기 (무스탕)가 등장하자 1944년 초부터 다시 개시하게 되었다. 항공기의 전술임무수행능력, 전술공군의 중요성을 무시한 「두혜」의 주장은 2차대전의 경험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섯번째로 들 수 있는 「두혜」사상의 결함은 그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두혜」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 가정은 「과학의 발전은 방어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과학기술의 발달이 방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틀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작용은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나를 불문하고 공통히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원칙 일 것이다. 그러나 「두혜」는 항공기의 침투능력을 중요시 한 나머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될 대공방어기술의 발전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과학의 발전이 방어측에 유리하도록 작용한다고 하는 원리는 해군과 육군의 경우에만 그럴 것이라고 국한시키고, 항공세력에 있어서는 공격측에 유리하다고 속단했던 것이다.

이것은 비약이며 논리상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신병기의 증대된 위력은 방어측에 유리하다고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원리이며, 이것은 곧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공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전쟁이 공세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유치했던 고대 및 중세에 있어서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주항공군이 등장한 금일에 있어서나 공통되는 전쟁의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표군에게 있어 과학이 방어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항공작전에 있어서도 역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리 했어야만 타당했을 것이다.

「두해」는 이상과 같은 그릇된 가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 한 것이다. 즉, 「공격병기인 항공세력이 제공권 획득을 위해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지표군은 다만 수세를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제공권의 획득을 위해서는 적의 항공세력보다 우세한 항공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세한 지상군과 해군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두해」사상의 결합점을 지적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상이 탄생했던 시대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시대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다. 「두해」의 항공전략사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상에서 시도해본 비판은 어디까지나 금일 우리들의 입장에서 「두해」사상을 반성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 지구상에 항공기가 최초로 등장한지가 겨우 20년 밖에 되지 않았던 항공기와 유년시절에 「두해」의 사상을 정치시켜 놓고 그의 사상을 다시 반추해 본다면, 그의 사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사소한 결합점 같은 것은 흐려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지적했던 몇 가지의 단점과 오류는 그의 전략사상에 있어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의 이론의 골격이 되는 전략폭격의 개념은 2차대전이 지나고 우주항공군으로 발전된 금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정당성의 빛을 더해가고 있다.

2차대전의 경험에서 「두해」사상의 지엽적인 부분이 비록 타당성을 일부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론의 근간인 전략폭격 및 제공권의 개념은 그 타당성과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두해」사상의 본질은 핵시대인 금일에 있어서의 어떤 전면전쟁에서도 결코 그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다.

바다사자 작전

다음의 글은 당시의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처어칠이 저술한 「제 2차 세계대전」중에서 독일군의 영국 상륙작전 준비와 영국의 대응준비에 관한 부분들 발췌한 것이다.

박경수



우리들이 포획한 공문서에 의하면 1939년 9월 3일의 개전이 얼마 안되어 독일 해군 참모부는 영국침입 계획의 연구를 시작 했다. 우리들과는 달리 그들의 유일한 침입로는 좁은 영·불해협의 횡단에 있다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 이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지만 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해협 횡단 침공은 우리의 방비가 가장 견고한 곳으로 오게 되어 있었다. 이 일대의 지역은 옛부터 프랑스에 대해 연안 전선을 구성하고 그 모든 항구에는 방비공사가 실시되어 소함대의 주요 기지이기도 했다.

후년에는 런던 방위의 비행장이나 항공사령부의대부분이 설치되고 있던 장소이다. 이 섬 중에서 이곳만큼 신속하게 전투 행동에 들어가거나 또는 3군이 협력해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는 없었다. 레터제독은 영국침입의 명령이 해군에 내려진 경우 거기에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동시에 그는 많은 조건을 내어 놓았다 그 첫째는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의 연안, 항만·항구의 전면적 지배였다. 그렇기 때문에(황혼전) 기간중 침입 계획은 잠자코 있었다.

그러한 조건들은 놀랄만큼 빨리 채워졌기 때문에 레더제독은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지면서도 만족해 하였고 덩케르크와 프랑스의 항복직후 총통과 면회해서 하나의 안을 내놓았다. 그는 5월 21일에 그후 당시 6월 20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히틀러와 면담했다.

그러나 영국침입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국 침입의 명령이 내려져도 그 상세한 계획은 쉽게 다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히틀러는 회의적으로 「이러한 거사에 수반하는 색다른 곤란은 나도 잘 안다」고 했다. 또 히틀러는 강화(講和)를 칭할 것이라는 희망을 남몰래 품고 있었다.

6월의 마지막 주까지 독일 최고 사령부는 침입 문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7월 2일에 이르러서야 영국침입이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계획토록 하는 최초의 명령이 내려졌다 (총통은 어떤 조건 —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권 획득 — 아래에서는 영국의 상륙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하였다.

7월 16일에 히틀러는 다음의 지령을 내렸다.

「영국은 군사적으로 절망상태에 있으면서도 강화를 청하는 모양이 없으므로 나는 영국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실행토록 결정했다.

모든 작전의 준비는 8월 중순경까지 완료 할 것」이미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었다.

내가 6월 중 독일의 해안 계획안에 대해서 어렵듯이 듣고 있던 바에 의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었다. 즉 그리네로부터 해안의 도버에 대한 중포사격과 프랑스 연안에 구축된 다른 포대로부터의 엄호사격에 의해서 최단거리인 좁은 일종의 해협 횡단 회랑을 설치해서 기뢰 원으로써 굳히고 다시 그 바깥쪽에 U보우트를 배치해서 수비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이 회랑을 통해서 대부대를 피상적으로 연속 수송하고 보급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해군 안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은 육군의 수뇌가 담당할 차례였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군을 가진 우리들은 우세한 공군의 엄호 아래서 소함정을 가지고 그러한 기뢰원을 막아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되어진 12~20쌍의 U보우트를 격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미 출발점에서 부터 매우 불안한 계획이었다.

그렇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강복 후에 오랜 전쟁과 이에 수반하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영국을 굴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것이었다.

독일 해군 그 자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 앞바다의 해전에서 많은 손해를 입어 지금은 반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미한 원조 밖에는 별로 육군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러나 해군은 또한 자기들의 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할 수 없는 사이에 어떤 행운이 약속되

어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독일 육군 사령부는 처음부터 영국 침입에는 많은 의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준비도 않고 또 훈련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몇 주간 사이에 눈부신 대승리가 계속됨에 따라서 그들은 대담해져 갔다. 해협의 안전횡단에 대한 책임은 내각 제도상으로 보아서 육군에게는 없었고, 일조에 유력한 병력이 상륙만 하면 일은 충분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사실 레더제독은 이미 8월에 도해의 위험, 즉 도해 중에 흑시전 병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에 육군의 주의를 끌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다. 육군을 도해시킬 책임이 분명하게 해군에게 돌아가자 독일 해군성은 모두가 비판적이 되어 버렸다.

7월 21일 3군 수뇌는 총통과 면회했다. 히틀러는 그에 대해서 전쟁은 이미 최후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운명의 전환이 올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그는 미국의 영국에 대한 원조에, 또한 독일의 소련에 대한 정치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바닷사자」작전의 수행은 전쟁을 급속하게 종결짓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레더제독과의 긴 회담 뒤에 히틀러는 조수의 간만이나 흐름이나 모든 바다의 신비에 관련을 갖는 해협횡단이 어떤 것인가를 차차 알게 되었다. 레더제독은 「바닷사자」작전은 「굉장히 대담하고 모험적인 거사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길은 짧아도 단순한 도하 작전과 같은 것은 아니다. 적의 지배하에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단일횡단 작전과는 다르다. 기습작전은 기대할 수 없다. 방위를 준비하고 결사의 각오를 가진 적이 우리들에게 대항하고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해협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의 작전에는 40개 사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대의 곤란은 물자의 수송과 저장이다. 우리들은 영국에서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급품은 어떠한 종류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없다」고 레더 제독은 말했다.

그는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제공권의 획득과 도버해협에서의 우세한 포대의 효과적 사용과 기뢰원에 의한 보호를 말하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 갔다.

「계절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북해와 영·불해협의 일기는 9월의 후반에는 대단히 나쁘고 10월 중순경이 되면 안개가 짙다.

때문에 주요 작전은 9월 15일까지에는 완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후가 되면 공군과 중포의 협력은 가장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전실행기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제일의 요소

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선의 길이와 공격지점의 수에 대해서 3군 참모간에는 꽤 거친 논쟁이 일어났다. 육군은 도버로부터 포오틀란드의 서쪽 「라임레지스」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에 걸쳐서 많은 지점으로 부터의 상륙을 주장하고 또 도버의 북쪽 「램스 케이트」에 보조적 상륙을 행할 것을 바랐다. 해군사령부는 안전 횡단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노오드 폴란드와 와이드 섬 서단과의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육군참모부는 도버로부터 서쪽으로 라임만에 걸친 여러 지점에 먼저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거의 연달아 16만의 군대를 상륙시킬 계획을 세웠다.

참모총장 할더장군은 브라이튼 방면에 적어도 4개 사단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일, 램스 케이트의 지역에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적어도 13개 사단이 전선에 걸친 여러 지점에 될 수 있는 한 동시에 상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했다.

공군은 그 밖에 침입의 제 1진과 함께 고사포 52문을 수송할 선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군 참모부는 이러한 대규모의 급속한 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육군이 말하는 것과 같은 폭이 넓은 모든 지역에 선단을 호송하는 것은 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그러한 범위로 육군은 최선의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해군은 공군의 우월을 의지하더라도 일시에 1회 횡단 이상의 방위를 실시하는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며 도버해로의 가장 좁은 곳이 가장 곤란이 적다고 하는 의견이었다.

침입 제 2진으로 16만명의 병력과 장비를 일거에 운반하려면 1백만톤의 선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록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는 요구가 충족되었다손 치더라도 승선지대에는 그와 같이 많은 선박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설비가 없다. 좁은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제1부대를 수송할 수 있을 것이며, 제2진을 상륙시키기까지는 적어도 이틀을 요한다.

불가결로 되어 있는 6개사단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곤란이 따르고 있다.

레더제독은 다시 넓은 범위에 이르는 상륙은 선택된 여러 지점에 있어서의 만조 시각이 3시간 내지 5시간 반의 차가 뜻하는 사항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불리한 조수의 간조를 참든가 혹은 동시 상륙을 단념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각서가 교환되고 있는 동안 많은 귀중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8월 7일에 이르러 잠시 할더 참모총장과 사이에 최초의 대담이 행하여졌다.

그 회담에서 할더는 이렇게 말했다.

「본관은 해군안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 육군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한 자살행위이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륙한 군대를 만육기에 틀어넣는 것과 같지 않은가?」 레더 제독도 넓

은 범위를 걸친 상륙은 해협 횡단 중에 부대가 큰 손해를 입는 결과로 이끌게 할 뿐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히틀러가 타협적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육군도 해군도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8월 27일에 최고사령부로 부터 내려진 지령은 육군의 작전은 이용할 수 있는 선박과 횡단 상륙에 관한 여러 사실을 참작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디일, 램스 케이트 지대로의 상륙은 포기되었지만 상륙선은 포크스톤으로부터 보그너로 연장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일치를 보는데 까지에도 8월 말까지 걸렸다. 더구나 모든 것이 공중전의 승리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그것은 이미 6주간에 걸쳐서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후로 결정한 상륙 지구의 폭에 대해서 최종안이 세워졌다. 육군의 지휘는 「룬트슈테트」에게 맡겨졌지만 선박부족 때문에 병력은 13개 사단으로 감축되고 12개 사단을 예비로 갖게 되었다. 제16군은 로테르담, 볼로뉴 간의 모든 항구에서 승선하고 제 9군은 볼로뉴와 아브르간의 항구들로부터 승선해서 브라이턴과 워어딩 사이를 공격한다.

도버를 육상으로 공략한 후 양군은 캔터버리, 애슈포드, 데이피일드, 아런텔에 연결하는 선으로 전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부 11개 사단이 제 1파로 상륙될 예정이었다. 상륙의 1주간 후에는 다시 전진해서 그레이브센트, 레에케이트페터 스피일드, 포즈머즈에 이르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낙관적인 희망이다. 예비 제6군은 증원부대를 공급하는 일과 사정이 허락되면 공격선을 웨이머드까지 연장할 목적이라 기대할 작정이었다.

할더장군의 의견에 의하면 「대륙에서 독일군에 대항하고 있는 군대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교두보만 확보되면 위 의 3군 이상으로 증가하기는 용이할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이었다.

독일은 든든한 장비가 잘 갖추어진 병졸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단지 선박과 안전도해 뿐 이었다.

최초의 일에 대한 중압은 참모 군령부 위에 가해졌다. 독일은 여러가지 필요에 따르기 위해서 도해 선박 1백톤을 가지고 있었다.

침입군을 신기 위해서는 그 반 이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초까지에 참모부는 다음 것을 징발했다고 보고할 수가 있었다.

운송선…………… 168 (70만톤)

대형화물선…………… 1,910

예인선과 트롤선 419

모터보우트 1,600

이 선단은 적당하게 승선된 후에 해로와 운하에 의해서 집결항으로 운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사이 7월 일찍부터 우리들은 빌헬름스하벤, 키일, 쿠크스하벤, 브레멘, 엘텐의 선박들을 연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프랑스의 항구나 벨기에의 운하에 있는 소형선과 대형 화물선까지도 공급했다.

9월 1일 침공용 대선단의 남하가 시작 되었을 때 우리 항공대는 안트워프로부터 아브르에 이르는 전선에 걸쳐서 이것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고 습격했다.

독일 해군 참모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해안 앞바다에 있어서의 적의 부단한 공격적 방어 (바닷사자)작전의 승선항에 대한 폭격집중, 해안 경찰의 활동들을 적의 문턱에 이른 상륙작전을 예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또한, 「영국 폭격대와 영국 공군의 기뢰 부설부대는...지금도 아직 충분한 작전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국군 부대의 활동은 현재까지에는 독일의 수송에 아무런 결정적 방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손해에도 불구하고 독일 해군은 그 임무의 처음 부분을 완료했다.

그들이 사고나 손해 때문에 예상한 바있는 1할 정도는 완전히 소모되었는데 남은 것은 그들이 제1차 계획에 세워두고 있던 최소한을 채울만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이르러 해·육군은 그 무거운 짐을 공군에 넘겨 주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영국의 소함대와 주정대군(舟艇大軍)에 대항하기 위해서 양쪽의 기뢰원의 난간을 설치하고 공군 의 하늘 덮개로 유지하려고 하는 횡단통로의 계획 전체의 성패는 영국공군을 패주시키는 일과 해협 및 영국의 동남부의 하늘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달려 있었다. 그것은 횡단 통로 뿐만 아니라 상륙지점의 제공권이 장악될 것인가 어떤가 하는 문제였다.

해군도 육군과 함께 독일 공군 원수 괴링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

괴링은 그 책임을 인수받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일공군은 그 양적인 큰 우세를 갖고만 있다면 몇 주간의 격투 후에 영국의 방공을 쳐부수고 켄트, 서섹스 두주의 비행장을 파괴하고 해협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그는 영국 특히 런던의 폭격은 퇴폐적인 평화를 애호하는 영국인으로 하여금 평화를 갈망하는 상태에 빠뜨릴 것이며 침입의 위협이 수평선상에 점점 짙어져 오기만 하면 더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독일 해군성에는 이보다 더한 확신은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심은 깊었다. 그들은

「바닷사자」작전은 다른 술책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만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월에 그들은 무차별 공습과 무제한 잠수함전이 「적으로 하여금 총통의 조건에서 강화를 받게 한다」에 이르지 못한다면 「바닷사자」작전을 1941년 봄까지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카이텔 원수와 요들장군은 공군 최고 지휘관이 자신만만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것은 나치 독일의 전성기였다. 히틀러는 캄피에우에서 프랑스의 휴전에 굴욕을 강요하기 전에 환희에 날뛰었다. 독일군은 의기양양하게 파리의 개선문을 지나서 샹제리제를 행진했다.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승리를 장악한 이상 최후까지 쳐부수는데 무슨 주저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닷사자」작전에 참여한 3군의 어느 누구도 각각 좋은 면에는 날 뛰고 좋지 않은 일은 서로 밀기만 했다. 날이 감에 따라서 의혹과 지체가 나타나고 그것은 나날이 더해갔다.

7월 16일의 히틀러의 명령은 8월중순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군은 다함께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7월말에 히틀러는 가장 빠른 D데이를 9월 15일로 잡은 것을 승락하고 계획되고 있던 공습 강화의 결과가 판명될 때 까지 실행명령을 보류하기로 했다.

8월 15일 해군 참모부는 침입작전 선전에 대한 영국군의 방해 행동에 의해서 9월 15일까지에는 준비를 완료할 수가 없다고 보고했다.

해군 참모부의 요청에 의해서 D데이는 10일 전의 예고를 조건으로 해서 9월 21일로 연기되었다. 그것은 예비 명령을 9월 11일에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했다. 9월 10일에 해군 참모부는 다시 호전되지 않는 말썽 많은 일기와 영국군의 대항 폭격에 의한 여러가지의 장애를 보고했다.

그들은 필요한 해군의 준비는 21일까지에는 사실상 완료할 수가 있지만 작전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해협의 절대 제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지적했다. 거기서 히틀러는 예비 명령을 3일간 연기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D데이는 24일까지 늦추어졌다. 14일에 히틀러는 다시 그것을 연기했다. 14일 레더제독은 다음의 견해를 표명했다.

(一) 상공의 현상은 아직 위협이 지나치게 큼으로 해서 작전 실행의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L) 「바닷사자」작전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영국의 위신을 높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 결과 우리들의 공격에서 발생하는 유력한 효과는 말살된 것이다.

(C) 영국 특히 런던 공습은 간단없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기만 좋다면 「바닷사자」작

전에는 관계없이 공습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공습은 결정적 효과를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 그러나 영국인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닷사자」작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만일 취소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만 하면 영국인에게는 상당한 안도감을 주게 될 것이다.

17일에 연기는 무기한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 우리들이 보아도 타당한 것이었다. 리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1) 해협연안으로의 상륙준비는 상세하게 적에게 알려져 있고 적은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은 그 징후이다.

독일의 작전항을 공격하고 정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 잉글랜드 남해 앞바다 도버수로, 프랑스, 벨기에 해안에 가끔 구축함이 나타나는 일.

프랑스 북해안 앞바다에 초계정이 늘 배치되고 있는 일, 처칠의 앞서의 연설 등등.

(2) 본 영국 함대의 주력은 대부분은 서방 기지에 두고 있지만, 침압군의 격퇴를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

(3) 이미 다수의 구축함 (30쌍이상)이 남부와 동남부의 여러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공중 정찰에 의해서 확인했다.

(4) 전해지는 정보는 모두 적의 해군 병력이 이 작전 구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침입준비가 점점 높아져서 절정에 달한 과정을 거친 우리들은 처음에 이겨서 자랑스럽던 기분이 차차로 의혹의 기분으로 변하고 마침내 전혀 결과에 대한 자신을 잃게 점에 이른 것을 느꼈다. 사실 자신은 이미 1940년에 잃고 있었다.

1941년에 침입계획의 부활은 무시당했으며, 재차 프랑스 몰락 직후의 심상 한 시대와 같은 독일 지도자들의 상상력이 유지될 수는 없었다. 운명적인 7, 8월 중 우리들은 육·공 동료에게 대규모의 수륙 양면 작전에 수반하는 수월 하지 않은 곤란에 대해서 납득시키고자 노력한 해군의 리더를 보았다.

그는 해군 자신의 약함과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서 넓은 상륙지역에 동시에 대군을 상륙 시키려고 하는 할터의 엄청난 계획에 한도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한편 하늘로 치솟은 대야심을 품고 괴링은 공군만으로 화려한 승리를 장악하려고 결심하고 상륙 지역에서의 영국의 해·공군을 조직적으로 멸살시키려고 하는 종합 계획에 협력한다고 하는 겸허한 역할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록을 보니 독일 최고사령부가 공동목적을 위해서 또 3

군 상호의 능력과 한도는 올바로 이해해서 협력하는 정연한 팀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던 것은 분명했다.

각자가 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마찰은 처음부터 뚜렷이 나타났고 할터는 리더에게 책임을 지울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계획을 실제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일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총통의 간섭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3군 상호의 관계가 개선된 빛은 보이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육군의 위신은 가장 높았으므로 그 지도자들은 해군 동료를 깔 보고 있었다. 주요작전에서 육군이 자신들을 해군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은 부정할 수 없다.

전후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요들장군은 통명스럽게 우리들의 작전계획을 줄리어스 시이저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독일의 참모급위 육군 군인이 바다의 여러가지 위험에 직면하면서 대육군 부대를 방비하는 해안으로 상륙시키거나 전개시키거나 하는 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내뱉은 말인 것이다.

영국에서는 어딘가 우리들의 결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들은 바다에 대한 일에는 정통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우리의 피 속에 스며 들고 있는 것이며, 그 전통은 한 사람의 해군 군인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약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침입의 위협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서 똑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덕분이었던 것이다.

국방상 아래에 협조하는 3군 수뇌에 의해서 작전 지도가 행하여지는 제도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팀워크와 상호 이해와 적극적 협력의 표준을 낳게 했다. 후에 바다로부터 대상륙작전을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이 작전의 건설한 준비완성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위험천만한 대사업의 기술적 요구의 완전한 이해로써 이루어 졌던 것이다.

비록 독일군이 1940년에 근대적 수륙 양면작전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그 때문에 잘 훈련된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아직 그들의 거사는 해·공군 앞에서는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구와 훈련도 없었다. 적의 침입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들이 품고 있던 자신이 많은 불안이나 자성때문에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쓴 바와 같다.

그런데 독일측에서는 어떠한가 하면 최고사령부와 총통은 이 모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싫어져 가기만 했다.

우리들은 서로 상대방과 기분이거나 전력 평가를 알 수는 없었지만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독일·영국의 해군성간, 독일 최고사령부와 영국 3군참모 수뇌간, 그리고 총통과 이 책의 저자간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미지의 견해 일치하는 주마다 점점 분명해져 갈 따름이었다.

만일 우리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자주 같은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면 전쟁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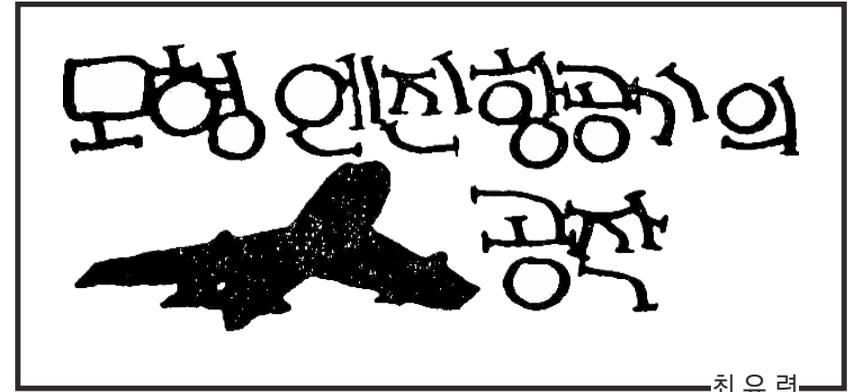
물론 우리들 사이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공중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낙찰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측은 과연 영국민을 버젓이 폭격 — 그 효과는 굉장히 과장되고 있었다 — 에 대항할 것인가 하고 의아해 했다.

그에 대해서 독일 공군 원수 괴링은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쪽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공직자(公職者)들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국민이 유산과업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때 국가발전을 위한 위대한 전진은 힘차게 계속될 것이며 유신의 보람찬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것이다.

— 제 8대 박 대통령 취임사서 —



1. 엔진기의 종류

엔진이란 엔진을 단 비행기, 즉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동력으로 해서 나는 비행기를 말한다. 근래는 전기 모우터, 로켓 등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보는 엔진을 Gas Engine이라 한다.

가스엔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Gas Engine
 - Piston Gas Engine
 - Spark Ignition Engine
 - Glow Engine
 - Diesel Engine
 - Jet Engine

위의 여러가지 엔진 중에서 글로우엔진과 디젤엔진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으나 제트엔진은 크게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스파아크식은 현재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2. 엔진의 대략

글로우엔진을 중심으로 그 원리와 구조,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기 로 하자.

가. 엔진의 원리

1) 4행정 엔진

피스톤 엔진에는 4행정과 2행정 엔진의 2종류가 있다. 현재 모형항공기의 엔진은 거의 2행정

엔진이다. 4행정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과정이다.

2) 2행정 엔진

2행정 엔진은 4행정 엔진에서 4번으로 나누어진 동작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작용하는 엔진이다.

압축과 흡입이 동시에 행하여지고 폭발과 배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4행정 엔진과 2행정 엔진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조상으로 볼 때 4행정 엔진은 복잡하다. 혼합가스를 빨아들이는 Valve 배출하는 Valve 등은 복잡하여 조절도 어렵고 또한 값이 많이 든다.

② 2바퀴 도는 동안에 4행정 엔진은 한번 더 폭발함으로 실린더가 하나 뿐인 경우는 2행정보다 진동이 더 심하다. 그러나 2행정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한번 폭발해서 동력을 발생하므로 진동이 적고 같은 크기와 중량으로서는 2배 가까운 힘을 내는 잇점이 있다.

③ 2행정 엔진은 피스톤에 올라 온 새로운 연료와 경기의 혼합기의 일부를 그냥 버리게 되는 점이 있어 연료의 손실이 있다. 그러나 작은 엔진이기 때문에 양이 적어 큰 문제는 아니 된다.

나. 글로우 엔진의 급별

Piston이 위로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상사점에서 밑으로 내려와 하사점까지 이르렀을 때의 피스톤의 움직인 용적을 행정용적(行程容積) 혹은 스토르크 용적이라고 한다.

행정용적은 보통 원기둥의 계산법과 같고 이 용적이 클수록 엔진의 힘은 커진다. 모형엔진은 이 행정용적의 크기에 따라서 종급별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의 급별은 F.A.I.(세계항공연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지만 그와 비슷한 구분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A급.....2.9cc 미만

B급.....2.9cc~5.075cc

A급에 속하는 엔진 가운데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에는 0.020, 0.049, 0.061, 0.099, 0.15, 0.19 등이다.

B급에 속하는 것에는 0.23, 0.29, 0.32, 0.35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엔진은 아직 국산이 없어 주로 일제와 미제 등을 쓰고 있다.

미제로서는 OK Cub, Fox, Veco, Maccoy 등의 제품이 있고, 일제로는 Fute, OS, Enya, KO 등이 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너무 작은 것이나 너무 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 0.099, 0.15, 0.19,

0.23 정도로 택해야 할 것이다.

3. 엔진 다루는 법

가. 필요한 물건

- 1) 공구...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플러그렌치, 몽키렌치, 라디오 펜치, 프라이어 또는 펜치
- 2) 연료펌프...펌프가 없으면 20cc정도의 주사기나 관장기도 이용할 수 있다. 주사기를 쓸 때는 굵은 비늘의 중간을 잘라 써야 한다.
- 3) 전원...건전지나 축전지를 쓴다. 사용하는 엔진 플러그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V나 2V를 쓴다. 점선 때의 전류는 3~5 암페어라야 한다. 건전지는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가볍기는 하나 처음 엔진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전력의 소모가 많으므로 축전지에 비해 비 경제적이다.
- 4) 배선 코드...엔진 플러그와 전원을 연결하는 전선인데 양끝에 클립이 달려 있어야 한다. 클립은 보통의 클립이 아니고 구리나 놋쇠로 만들어진 짐승의 식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오드의 길이는 60cm~100cm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 5) 플러그...글로우 엔진에 쓰는 플러그는 글로우 플러그이다. 보통의 플러그처럼 +, -로 방전해서 점화되는 것이 아니고 Heater의 양극이 연결되어 있어 전원에 연결되면 바로 Heater가 적열(赤熱) 되도록 있다. 흡입된 혼합기체가 그 연소열로 인하여 계속 적열이 계속되어 폭발이 지속되는 것이다.
- 6) 연료...글로우 엔진의 연료는 다음과 같이 배합하여 만들어 쓴다.
 - 표준 배합
 - 알코올 60%
 - 니트로벤젠 15%
 - 아주까리기름 25%
 - 시운전용
 - 알코올 60%
 - 니트로벤젠 7%~10%
 - 아주까리기름 30~33%

- 소형 엔진용
알코홀 55%
니트로벤젠 15%
아주까리기름 30%
- 경비용 고효율
알코홀 45%~50%
니트로벤젠 25%~30%
아주까리기름 25%
- 디젤의 연료
에틸 50%
석유 25%
모빌유 25%

7) 연료탱크...연료탱크는 대별하여 3종류가 있다.

Break in 용과 U-control 용, 그리고 Free Flight용 등이다.

그러나 이것도 각 종류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형태가 다양하고 U-control에 쓰는 탱크는 특별하다.

나. 글로우 엔진의 다루는 순서

엔진은 처음 새것을 사면 길들이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Break in이라 한다.

엔진의 길들이 기는 최소 합계시간이 한 시간 정도, 엔진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길들이기는 엔진 자체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며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엔진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딱 짧아진다. 어떤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 Break in을 하지 않고 바로 최고조로 운전을 거듭하면 그 수명이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Break in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준비: Break in에는 엔진회전을 느리게 하기 위하여 보통 쓰는 프로펠러보다 좀더 큰 것을 쓴다. 엔진에 따라 치수는 다르지만 보통의 것에서 3~5cm 정도 더 긴 것을 사용한다.

Break in 용의 프로펠러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cm)

엔진	.049	.099	.15
----	------	------	-----

Prop의 지름×피치	15×7.5	20×10	22×11
엔진	.19	.23	.29
Prop의 지름×피치	25×15	25×15	27.5×15
엔진	.35	.60	
Prop의 지름×피치	30×15	33×15	

연료는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만드는 것이 좋고 경비용으로 파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에는 시운전용의 대를 만들어 이대에 엔진을 비스보오드(나트 조리개)로써 단단히 조이고 이 대를 무거운 책상에 긴 나사로 고정하거나 바이스에 물려도 된다. 이것이 끝나면 엔진 뒤에 연료탱크를 놓고 엔진과 탱크를 연료파이프에 연결한다.

2) 순서

ㄱ. 프로펠러를 정위치에 놓이도록 고정한다. 프로펠러가 수평에서 위로 올라갈 때 압축이 걸리도록 한다. 압축이 걸린다는 것은 프로펠러를 돌리려고 서서히 움직이면 어느 곳에서 힘이 드는 곳이 있는데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위치를 잡아 프로펠러의 너트를 단단히 조인다. 너트를 조일 때는 반드시 렌치를 사용해야 한다.

ㄴ. 플러그를 뽑아서 배터리에 코오드로 연결하여 플러그가 완전한가 전압이 높지 않은가를 조사한다. 플러그에는 반드시 지장 전압을 연결한다.

ㄷ. 플러그는 왓샤와 함께 정위치에 꽂는 플러그 렌치를 사용해야 하고 펜치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ㄹ. 다음에 연료를 넣는다. 이때는 반드시 니어들 밸브를 완전히 잠가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료가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 시동이 어렵게 된다.

ㅁ.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주는 배선 코오드를 엔진과 배터리에 연결하여 순조로이 전기가 통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연기가 나가는 배기구를 들여다보면 플러그의 히이터가 달아서 실린더 속이 환하게 보이면 순조로이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이므로 안심하고다음에 옮겨간다. 배터리의 한쪽 극에서 나오는 코오드는 플러그에, 또 한쪽 극의 코오드는 엔진의 몸통 어느 부분에도 물리는데 보통 배기

구에 많이 물린다. +-의 구별이 없으니 어느 쪽에 물려도 상관없다.

나. 연료가 파이프를 통해 카브레터에 닿도록 흡입한다. 간단한 조작이지만 조금 요령을 알아야 순조로이 된다.

먼저 잠가두었던 나이들 밸브를 조금 열어 둔다. 그 다음 왼쪽 손가락으로 카브레터의 윗 구멍을 막고 오른 손으로 프로펠러를 왼쪽으로 약 1/3있이나 1/2바퀴 정도 천천히 돌리면 기름이 빨려 올라 온다. 기름이 밸브에 닿았다고 생각될 때 손을 떼야 한다. 이때까지의 조작은 플러그에는 전원을 연결해 주지 않은 상태이다.

사. 초오크와 주사를 한다. 카브레터의 윗구멍으로 연료를 3~4방울 주입하여 프로펠러를 돌리면 곧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것을 Choke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배기구로부터 펌프로서 연료를 두어번 돌려 넣는다. 이것을 주사라고 하는데 주사할 때는 프로펠러를 돌려 수직이 되게 하면 피스톤이 하사점까지 내려가서 주사할 수 있게 실린더 속이 비게 된다. 그 뒤 프로펠러를 한번 돌려 수평이 되게 해 둔다. 그리고 나이들 밸브를 2~3회 돌려서 꼭 죄었던 것을 풀어준다. 이것은 연료가 빨려 들어갈 틈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로써 시동할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이다.

오. 배선코오드를 플러그에 물려 완전 하게 전기가 흐르게 한 다음 프로펠러를 돌린다. 이를 크랭크 업이라 한다.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나, 세째 손가락을 프로펠러 날개의 중간 쯤에 걸어서 빠르고 힘찬 동작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자기 앞으로 손을 빼는 것 같이 돌린다. 순조로우면 2~3회 동작으로 엔진이 걸린다. 이 크랭크업 동작은 실제 경험하면 곧 터득하게 된다. 손의 동작이 느리거나 부정확하면 손을 다치는 수가 있다.

스. 시동이 되고 난 뒤에는 나이들 밸브를 돌려 될 수 있는대로 회전을 느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이들 밸브의 조이는 정도에 따라 폭발음이 달라진다. 많이 조일수록 소리가 높아진다.

Dreak in에서는 회전율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처음에는 3분으로 해서 쉬었다가 엔진이 따뜻할 정도로 식은 다음 또 다시 계속한다. 배선코오드는 시동되자 말자 곧 떼어야 하고 Dreak in 시간이 합계 60분 정도가 되면 된다.

U-control 기의 기초

1. U-control기란 무엇인가?

엔진기에는 엔진을 가동시켜 손에서 놓으면 제멋대로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것과 날아가는 비

행기 내부에 단파수신기를 넣어두고 지상에서 전파를 송신해서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는 멀리 날지 못하게 줄을 달아신 날리는 것 등이 있다. 이것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달린 줄로 조종하여 재주를 부리게 한다. 처음 말한 것은 Free Flight 기, 다음 Radio Control기, 세째번이 Line Control 기이다.

U-control기란 이 Line-control기의 일종이다. U-control은 두 가닥의 줄로써 비행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비행기를 말하는데 조종자가 쥐는 핸들과 줄이 이루는 모양이 U자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U-control은 1940년 미국의 Jim Wollier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하여 특허를 얻은 것인데 가체의 성질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Sports기 { 조종연습용 입문기
Scale기
Semi Scale기
Team Racing기

Speed기 { 연습기
경기기

Stunt기 { 연습기
경기기
Combat기

가. U·C의 구조

조종장치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조종자가 핸들을 움직이면 이에 따라 Control Wire가 작용되어 그것이 리이드 와이어에 전해지고 이 힘은 기체에 붙어 있는 벨 크랭크를 움직이게 한다. 벨 크랭크는 거기에 연결된 시룻을 밀거나 당기거나 하고 푸시룻은 수평미익의 승강타에 달려 있는 Horn을 밀거나 당기거나 하여 승강타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올려서 조종이 되게 해 준다.

나. Control Wire

조종을 하는 금속줄이며, 날릴 비행기의 엔진의 크기에 따라 줄의 굵기도 달리 해야 한다. 줄에는 외가닥으로 된 강철선도 쓰고 가느다란 강철선을 몇겹으로 꼬아서 케이블형으로 만들어 쓰는 것도 있다. 앞의 것을 Solit Wire라 하고 뒤의 것을 Cable Wire라 부른다. 줄의 굵기와 정비는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 비행기 기체의 중량, 비행기의 속도, 비행하는 반경 등에 따라서 와이어를 당기는 힘이 결정되는데, 최소한 비행기 무게의 5배에서 최고 20배까지 되니 그 힘을 견디어 낼 굵기의 피아노선이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비행 도중에 줄이 끊어져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 솔릿와이어든 케이블와이어든 줄을 펴거나 말 때 줄이 접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보통 킱크라고 하며 킱크되면 이 곳에서 쉽게 끊어 진다. 쓰고 난 뒤는 반드시 기름이 묻은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 깨끗이 말아 뒀야 한다. 그리고 리이드 와이어와 콘트롤 와이어와의 연결점에 있는 클립, 스위벨 등도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리이드 와이어

벨 크랭크에 연결되어 날개 내부를 지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강철인데 이것 역시 콘트롤와이어와 같다. 케이블이나 솔릿 피아노선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라. 벨 크랭크

조종 장치의 중심부의 하나이다. 파는 것도 있으나 만들어서 써도 된다. 합석의 두꺼운 것이나 얇은 철판, 놋쇠, 구리쇠, 알루미늄도 좋다. 혼도 마찬가지로이며, 풋슈롯은 1.5~2.0mm 직경의 강철선을 쓰면 된다.

2. UC 날리는 법

가. 기초

1) 콘트롤하는 줄 검사

줄을 펴고 당기고 할 때는 서서히 해야 한다. 줄이 꼬였다고 생각될 때는 살며시 펴면 되나 갑자기 잡아당기면 줄이 킱크되어 그 곳이 약해져서 끊어진다. 녹이 슬어도 안 되니 쓰고 나면 기름기가 있는 수건으로 잘 닦아서 꼬이지 않게 감아뒀야 한다. 콘트롤 라인의 길이는 평온한 날이고 엔진의 출력이 정상적 일때를 표준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다.

- 0.099~0.19.....12m~16m
- 0.19~0.2916m~20m
- 0.29~0.6020m~24m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위의 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엔진의 출력이 약하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줄의 길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점은 앞서 말한 U릴리 핸들이 제일 높다. U릴리는 무거워서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으나 줄의 길이를 자유 자재로 조종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편리하다. 줄이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 끝에다 낚시에 쓰는 수이보르라는 것을 달아두면 더욱 좋다.

2) 날리는 사람의 위치와 바람의 방향

날리는 방향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배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조종사가 바람을 등지고 원의 중심에 서서 오른 손을 바로 올린 선과 원주와의 교차점에서 앞으로 45°되는 자리가 출발 지역이 된다. 날리는 방향에는 2가지가 있다.

- ①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 ②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방향

①의 시계방향은 왼손잡이가 많이 날리는 방향이고 왼손, 오른손 할 것 없이 사람의 취미에 따라 제각기 다르나 시계 방향은 토크의 반동으로 기체를 밖으로 향하게 하는 까닭으로 안정성이 강해진다. 특히 작은 기체로써 하는 스피드기는 그 안정을 위해서 대개 시계 방향이다. 오른 손잡이는 반시계 방향이 자연스러운데 요는 처음부터의 습관에 달려있다.

3) 팔의 요령 : U 콘트롤을 날리는 데는 팔과 손목으로써 조종한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 ① 팔 전체로써 조종하는 법 (팔 조종)
- ② 팔꿈치까지를 움직여서 조종하는 법 (팔꿈치 조종)
- ③ 팔목을 움직여서 조종하는 법 (손목 조종)

등 세 가지가 있다. 처음 날리는 사람은 ①의 팔조종이 무난하여 안전하다. 이것은 팔 전체를 한 개의 막대기로 해서 팔 전체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비행기에 과격한 운동을 시키지 않아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저절로 손목 조종으로 옮겨가게 되고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4) 연습방법 : 혼자서 하는 방법과 코오취를 받는 법이 있다. 단시일 내에 빨리 그리고 기체를 땅에 박아 파손하는 위험을 적게 하는데는 코오취를 받으며 하는 것이 좋다. 복실 핸들이라 해

서 콘트롤 라인에 이중으로 핸들을 달아 하는 수도 있다. 보통은 초보자의 손 위에 코오취 손이 겹쳐져서 같이 조종한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곡기(曲技)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혼자 팔 조종을 하기로 하고 출발이전 착륙이전 항상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수평이 되어 있으면 된다. 즉 중립 위치대로 하면 별일 없다. 초보자는 조금 돌면 어지러워지므로 주위에 건물이 다가서 있고 4면 모두 건물로 둘러 싸인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먼 곳에 있는 나무나 집, 산 등을 바라 볼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날려야 한다.

경험을 쌓을 때까지는 큰 탱크에 기름을 가득 넣어서 오래 날게 하는 것을 피하여서 20~30초에 그치는 것이 좋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줄이 항상 팽팽하게 당겨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초보자는 바람이 좀 강한 날은 피하는 것이 좋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비행기가 들어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비행기가 뜨는 것에 놀라 끌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절대로 높이 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들어가면 저절로 기체가 내려가니 땅에 들어박힐까 해서 살짝 끌어 올리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놀라지 말고 서서히 팔 전체를 조금씩 움직여서 조종해야 한다. 만일 손에 당겨지는 힘이 느껴지지 않으면 틀림없이 줄이 처진 것이니 그 때는 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줄이 팽팽히 되게 조치해야 한다. 좀 익숙해질 때 까지는 이륙, 수평비행, 착륙의 3가지 연습으로 그쳐야 하는데 수평 비행도 본격적인 1m 20cm 정도의 높이는 위험하니 적어도 3m 정도의 높이로써 수평 비행의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혼자 날리거나 코오취와 함께 날리거나 출발 때의 보조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엔진의 조절이 끝나면 보조원은 기체를 잡고 항상 조종사의 신호에 주의해야 한다. 조종사는 한번 다시 중심 위치에서 핸들을 움직여보고 줄과 콘트롤시스템에 이상의 유무를 확인한 뒤에 중심 위치에서 보조원에게 팔을 들어 준비 신호를 보내고 팔을 서서히 내려서 출발 신호를 한다.

보조원은 조종사의 팔이 내려지면 절대로 밀지 말고 기체를 절선(切線)방향으로 놓아준다.

나. 스타트(Stunt) 비행

① 수평 비행이 제대로 되면 약 30°에서 45°로 점차 각도를 크게 해가면서 하강과 상승의 연습을 한다. 착륙 연습도 정식으로 한다. 착륙에는 절선착륙(切線着陸)과 삼점착륙(三點着陸)이 있는데 아물든 비행기가 상하지 않게 보기 좋게 하면 된다. 절선 착륙은 약간 기수를 숙인채 활공 자세로 들어간 그대로 땅에 닿도록 하면 되고 삼점 착륙은 지면에서 20~25cm 정도의 높이가 되었을 때 약간 엘리베이터를 올리면 앞바퀴와 뒷바퀴 섀미 거의 동시에 착륙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14~15종의 곡기를 완전히 소화해내는 사람이 없으나 그 몇 가지만 마스

터해도 자유로이 창공에 그 묘기를 발휘할 수 있다.

가스프리 플라이트기의 지식 (Gas Free Flight)

1. 가스 프리기

가스엔진이 달린 Free·Flight기라는 말인데 U콘트롤 등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가솔린 엔진기 하면 이프리플라이트기를 가리켜 왔다. 특히 2차 대전 후 글로엔진의 발달과 함께 아주 널리 보급되어 온 것이다.

현재 국내의 경기 규정으로 보아 가스프리는 대체로 체공 시간을 다투는것이 보통이다. 즉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말한다. 엔진이 구동(騷動)해서 나는 것을 엔진런이라 하는데 고무 동력기처럼 동력이 다 탈 때까지 무제한으로 놓아주면 대개는 너무 날아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기에는 엔진런을 제한하고 있다.

손에서 던져서 날릴 때는 15초 동안이고 지상에서 출발시킬 때는 20초로 되어 있다. 이것을 넘으면 오오버런 이라고 해서 실격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 타이머를 써서 시간이 되면 연료가 들어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카브레터의 입구를 막게 하거나 하는 장치가 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쓰지 않을 때의 방법으로 미리 연료의 양을 조절해서 시간이 될 때 연료가 다 되도록 하는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이머를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Timer를 만들지 않는 한 연료 조절을 하는 길 밖에는 없으나 아주 정확한 방법은 못 된다.

2. 가스 프리기의 종류

(가) 파이프론 형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며 지퍼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아메리칸스타일이며, 현재 가스프리의 세계적인 대표 형식이다. 주익이 파이프론 위에 얹혀 있다.

(나) 솔더형

흔히 볼 수 있는 L-19, L-20 등과 비슷한 것으로 지금도 라디오콘트롤기는 대개 이와 같은 모형이다. 이것은 소위 견익식(肩翼式)이라는 것인데 날개가 동체의 바로 어깨 부분에 얹혀 있는

형식이다. 파이론이 나오기 이전에는 모두 이 형식이다. 지금도 유럽에는 특징 있는 솔더형을 많이 쓰고 있다.

(다) 캐빈형

솔더형과도 닮은 점이 있으나 실물기와 같은 조종실이나 객실이 있는 기체를 말한다. 충분한 동체 단면적을 가지면 조종실이 없어도 캐빈형이라고 한다. 스포오프기, 세미스켈기나 일정한 짐을 싣고 오래 동안 날아야 하는 패이로오프기도 모두 이러한 형식이다. 현재는 이 세 가지가 혼합된 중간형도 나오고 있다. 제일 많은 형식이 파이론 형이기 때문에 파이론형 가스 프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3. 가스프리(Gds Free)의 비행 조정

본 비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은 고무 동력기나 글라이더나 똑같다.

- ① 중심 위치가 예정한 장소에 와 있는가?
- ② 주익이나 미익이 틀어져 있지 않는가?
- ③ 주익이나 미익의 붙임각은 알맞게 되어 있는가?
- ④ 주익이나 미익이 흔들흔들 움직이지는 않는가?
- ⑤ 엔진의 트러스터라인은 설계도 대로 맞게 되어 있는가?
- ⑥ 엔진런 시간은 정확하게 20초를 초과하지는 않는가?
- ⑦ 데터마라이저 장치는 정확하게 작동하는가? 특히 팝업 장치의 경우 팝업된 각도는 적당한가.

이것이 끝나면 손으로 던져서 하는 활공 시험에 들어 간다. 물론 바람이 없거나 있어도 약하게 부는 날을 택해야 한다. 익하중(翼荷重)이 작은 기체는 가볍게 하고 익하중이 큰 기체는 좀 험차게 던져서 활공하는 모양을 관찰한다. 판판한 흙땅에서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풀밭이나 보리밭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기체를 파손하지 않을 장소를 택해야 한다. 정상적인 글라이딩을 하도록 조절하는 방법은 이미 글라이더 편에서 설명하였으나 다만 가스프리는 고무 동력기나 글라이더처럼 날개를 자유로이 앞뒤로 이동해서 조정하기는 어려우니 날개의 각도와 수평꼬리의 각도로써 조절한다.

앞으로 급하게 내리박는 비행 자세일 때는 날개의 붙임각을 조금 더 주든지 수평 꼬리의 붙임각을 작게 해서 뜨는 힘을 줄인다. 반대로 뒤 꼬리 부분이 쳐져 피칭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조

정한다. 던졌을 때 왼 쪽이나 오른 쪽으로 선회할 때는 방향키와 수평 꼬리로써 조정한다. 왼쪽으로 선회하는 경우는 수직 미익의 타부를 오른쪽으로 달아주거나 수평 꼬리를 왼쪽으로 기울이도록 달아준다. 반대로 오른 쪽으로 선회하면 그 반대로 조절해 주면 된다.

탱크에 기름을 넣어 엔진런의 시간을 재어 프로펠러를 뒤집어 뒷면을 바꿔서 단다. 프로펠러를 뒤집어 달면 아주 느린 상승을 하게 된다. 데터마라이저(Dethermalizer)에 불을 붙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때 비행상태를 잘 관찰해 두었다. 곧 조정해야 한다.

비행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서는 모습이 보이면 주의해야 한다. 프로펠러를 바로 달아서 추진력이 강해지면 루우프 (위로 올라가서 뒤로 뒤집히는 것)를 하거나 급강하해서 내리박는 수가 많다. 이때는 주익이나 수평 꼬리에 나무나 종이를 받쳐서 붙임각을 더 해준다. 100가량 붙임각을 주면 어느 정도의 기체까지는 공중에서 서거나 루우프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내리박는 일도 거의 없다.

가스프리는 좋은 성적을 내려면 급상승을 해야 하고 급상승에 있어서 직선 상태의 상승은 엔진이 꺼진 후에 실속(實速) 하기가 쉬우니 나선형 상승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파이론형 가스프리에서는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감아도는 강한 공기의 흐름, 즉 프로펠러 후류(後流) 때문에 기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왼쪽으로 사이드 스트라스트를 붙여서 좌선회 해가면서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쪽으로 든지 돌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스파이탈 상승이라 하는데 급상승을 한 뒤 엔진이 꺼지면 오른쪽으로 글라이딩을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내가 걸어본 변산반도

김진환

변산반도의 내소사 전경을 여행하려는 욕망은 드디어 나를 때때로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김제를 거쳐 부안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게 하고야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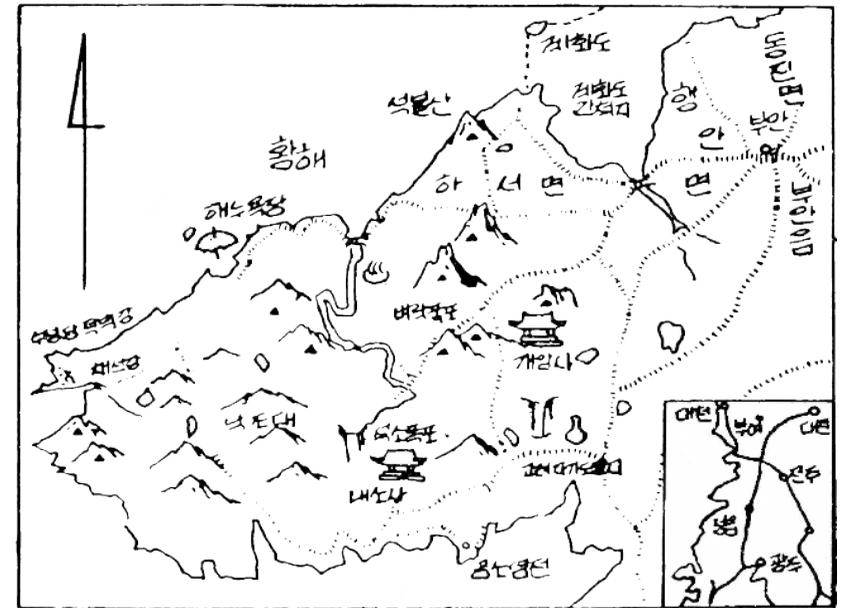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지도를 펼쳐보면 서해안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 항구 바로 아래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몇해 전부터 우리들의 귀에 익혀진 유명한 변산반도이다. 제주도의 1/3정도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변산반도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노령산맥의 북쪽 줄기가 운장산 방면으로부터 뻗어있어 태인과 고부천 근처에서 구부러졌다가 서해안으로부터 내달은 곳에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채석강, 내소사가 있고 내소사 서북방 6킬로 지점에 직소폭포가 있어 자연적인 경관이 기묘묘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변산반도이다. 특히 부근에 월명암지 배후에 낙조대가 있어 황해의 붉은 해가 떨어지는 광경과 만타에서 바라보는 월명은 변산반도의 제절경으로 부르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변산반도를 찾으려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서울을 위시하여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행자는 김제에서 하차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여행자는 정읍이나 신대안에서 하차하여 찾은 것이 편할 것이다. 누구든지 변산반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한없이 펼쳐진 김제평야를 바라보면서 버스에 몸을 실은 채 달려야 하고 그 버스는 군소재인 부안군을 지나게 된다. 합승과 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변산해수욕장은 부안군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변산까지 71킬로, 김제에서 변산까지 47킬로, 정읍에서 변산까지 55킬로이다. 매일 전주로부터 25회, 김제로부터 50회, 정읍으로부터 15회, 부안으로부터 32회 등을 운행

하는 버스가 있어 교통편은 다른 관광지 보다 편리한 편이다.

부안군에서 변산반도 해안을 따라 23킬로쯤 버스 편으로 평야를 달리면 관광 제반시설을 갖춘 변산해수욕장에 이른다. 이곳은 무엇보다 멀리까지 모래밭이 기복이 없이 넓게 뻗어있을 뿐 아니라 위험물이 적고 물이 맑아 전북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매년마다 만 2천명 이상의 해수욕객 및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에는 백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관광호텔과 여관, 카바레, 음식점, 다방, 이밖에도 보오트 시설, 상수도 시설까지 갖추어진 넓은 초원의 형형색색의 캠프촌에서 젊음을 구가하는 모습들은 이곳의 낭만과 정서를 대변하는 듯하고 하기 합숙훈련을 위한 임해학교 교사가 있다.



〈변산반도의 명승고적〉

변산반도를 찾는 여행객은 무엇보다 먼저 채석강부터 방문하는 것이 적당하다. 부안에서 오는 버스는 해수욕장을 거쳐 종점인 고요하고 깨끗한 마을인 격포라는 곳에 당도하게 된다. 변산해수욕장에서 서쪽 7~8킬로 지점에 있는 격포는 옛부터 우리나라 수군의 근거지로써 수군별장, 검사 등을 두어왔고 이조 때에는 전라우수영 관할의 격포진이 있었다. 그리고 유명한 채

석강은 바로 마을 앞에 전개되는데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상의 달 그림자를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전설에서 채석 강 이름의 따온 것이다.

바다에 다가선 계봉은 봉화대로 유명하며 그 밑은 절벽으로 되어 있다. 이 절벽은 수성암이 용기 되어 단층을 이룬 곳으로 흡사 만권의 책을 쌓아 올린 것 같다. 이 절벽을 안고 북으로 돌면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다. 맑은 물과 흰 모래 바위가 영통하여 그 풍치가 더할 나위 없는 절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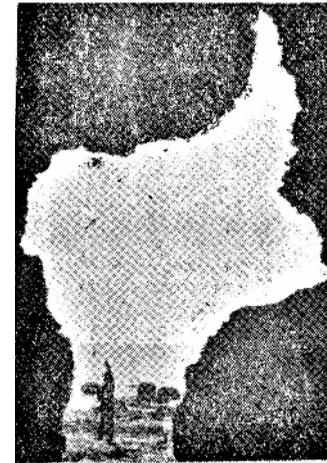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여행자는 누구나 이곳 채석강을 둘러 맑은 물에 다시 몸을 씻고 아름다움에 도취하려 한다. 거의 1킬로쯤을 헤아리는 해안선을 끼고 돌아 격포마을로 뒤돌아 가는 길가에는 또 하나의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쭈기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 해변가에 가 보아도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돌들은 없을 것이다. 해안 주변가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돌들이 한없이 펼쳐 있는데 밤알만한 것부터 주먹만한 것 등 갖가지의 돌들이 깔려 있다. 이것을 한참 신기하게 구경하노라면 더 좋은 형형색색의 모양과 빛깔을 지닌 아름다운 돌들이 여행자의 눈을 끈다. 이것저것 골라서 줍다보면 오래지 않아 양손과 호주머니에 가득 넘쳐서 더 가져오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다음의 코오스는 내소사가 된다.

격포에서 3킬로쯤 나오면 마포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여기서 변산해수욕장은 반대편으로 60여리를 가면 된다. 5킬로 정도부터는 해변의 정서를 만끽하면서 산길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걷는 길이라도 아름다운 해변의 정경 탓인지 지루함을 느낄 수 없다. 얼마 후 똑딱선이 드나드는 곱소라는 나루터와의 갈림길에서 곱소염전을 지나 석포리에서 북쪽으로 3킬로쯤 들어간 산골짜기에 내소사가 위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430년 전 해구두타가 처음 세우고 소래사라 칭하였다가 불타 없어지고 난 후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벽제를 공략할 때 석포로부터 이곳에 들어와 균중재를 시주하여 절을 중창하고 내소사라 불렀다 한다. 중정을 사이에 둔 대웅전은 약 330년 전에 세번째 지은 것으로 보물 제291호 지정문화재로 과연 훌륭한 조각과 동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침으로만 쌓아올린 건물로서 그 신비함이 찬탄을 금할 수 없다. 건물의 크기는 3칸 4방으로서 전면의 길이 12.33미터, 측면의 길이 15.45미터, 높이 10.64미터에 이르는 이조 초기 형식의 건물이다. 특히 문적자의 조각과 실내의 단청 솜씨는 신기한 전설과 함께 참으로 비범한 것이라 하겠다. 문화재로서 대웅전을 비롯하여 고려동종 법화경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절의 특색은 절 입구 양편에 전나무숲이 울창하게 하늘을 덮고 있어 속세를 떠나 선경을 본 느낌처럼 고요에 있는 것이다. 내소사의 웅장함을 구경한 다음 내소사에서 도보로 서쪽으로 돌아 산을 넘고

다시 북으로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봉래구곡이 보인다. 그 중간에는 놀라운 감탄을 금할길 없는 존재로 등장하는 직소폭포가 신비스럽게 흐르고 있는데 이 냇물은 다시 실상사의 절터를 지나 중계계곡을 빠져 해창에서 바다로 흐른다. 내소사에서 해창까지의 도보 코오스는 약 12킬로로 직소 폭포까지는 8킬로 정도이다. 폭포와 높이는 약 20미터이며 그 밑은 제2 제3폭포가 있고 제1폭포 바로 밑에 실상용초는 옛날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 하며 옥녀담 푸른물이 만산의 단풍을 거꾸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진정 선녀가 내려올 것 같은 신비경이다. 이 변산반도에는 고려자기 도요지가 있는데 내소사까지 내려와 수십리 지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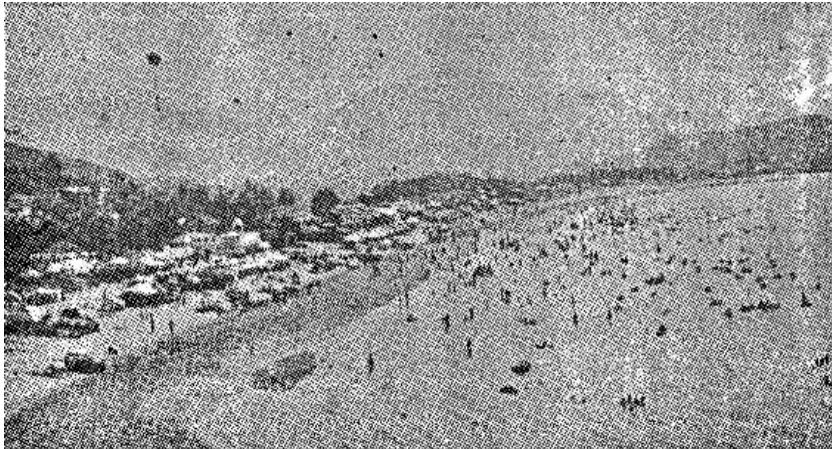
〈서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성당〉

영천리 마을에 이르러 출몰리로 가는 반대 방향길을 4킬로 부안 쪽으로 가면 유천과 대도변에 도요지의 기념비가 눈을 끈다. 옛날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놓여졌다는 고인돌은 개암사가 있는 협상곳은 봉우리를 왼손으로 끼고 올라가 석탄리 마을로 들어서야 한다. 이 마을에는 고인 돌이 몇개 있는데 돌의 크기는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이다. 개암사는 부안읍에서 남으로 출포행 도로를 약 10킬로 내려가다가 서쪽으로 골짜기가 있다. 고려 속종시 원감국사가 창건 효정 9년 밀영해중이 재건하여 이때 대웅전이 증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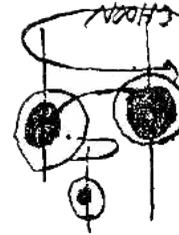
정조 7년 대웅전을 중수하였다하며 대웅전은 보물 제2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김유신 장군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며 고종 원년 김사문이 여기에 홍수왕 유히비를 세웠다. 그리고 울금바위는 개암사 북쪽에 솟아있는 거대한 암괴를 말한다. 개암사 뒤 가파른 산봉을 거어 오르면 커다란 암굴에 이르면 이곳이 원효방으로 샘물이 여기서 흘러 나왔다 한다. 이 바위

를 돌아가면 북편에 굴 하나가 있고 또 동편에 굴 하나가 있다. 정상에는 깨어진 기왓장이 있는데 당장 소정방이 김유신장군을 만난 곳이라 하며 울금바위 산성은 옛 기록에 우진산성 또는 우금산성이라 하였다고 한다. 나한시대 변한왕이 진한, 마한의 난을 피해서 우진 양장군에게 여기에 축성케 하였다 하며 백제 의병이 나당 연합군과 싸운 주유성이 바로 이곳이다. 가장 즐겁게 하여주는 코오스는 해수욕장서 조금 떨어진 시소리 마을에서 소로로 접어드는 가장 높은 쌍선봉을 넘어 직소폭포로 해서 내소사로 내려가는 횡단코오스이다.

이 코오스는 여행하기보다 하이킹 내지 등산이라고 볼 수 있어 흥마로운데 쌍선봉에 자리잡은 월명암에서 하루밤을 지내는 것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낙조대에서 서쪽 황해 바다에 떨어지는 저녁해를 보는 것은 최상급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산허리를 끼고 가는 해창 해안선의 장관과 직소폭포를 이루고 있는 봉래구곡의 묘미도 여행가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것이며 채석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적벽강의 기암 절벽에 서서 황해를 굽어보는 전경은 또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유신과 소정방이 만났다는 개암사 뒤의 우진암의 장쾌와 흔들바위의 신기함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보배를 누구나 마음껏 즐겨야 할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변산의 제1명승지 변산해수욕장〉



텔레비전 광고 특히 담배선전프로에 등장하는 인물은 언제나 싱싱하고 잘 생긴 젊은 남녀들이다. 그 때의 배경은 한없이 넓고 청신하여서 젊은이들의 자신에 넘친 표정이 한결 돋보이기 마련이다.

이상과 같은 정경이 말하자면 「담배의 세계」라고 칭한다면 이와 반대로 텔레비전에는 절대로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상영될 수도 없는 매우 대조적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여기에 일단 발을 들여놓는 날이면 다시는 밝은 세계로 되돌아오기란 매우 드물다. 여기에는 싱싱한 젊은이들의 표정도 아릿다운 미소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지위의 고하 또는 빈부의차에 관계없이 그 모습은 매일반이다. 그것은 비단 똑같은 모양의 환의(患衣)를 입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망적인 앞날에 대한 비관적 표정의 공포성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획일적으로 어둡고 침통하게 부각되게 마련이다. 이 세계는 다름아닌 『암』의 세계인 것이다. 나는 여기에 가본 것이다.

나는 금년 나이 45세이며, 가정에는 처와 두 어린아이가 있다. 1963년까지만 해도 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즐기고 있었다. 앞으로의 희망도 컸었다. 그해 어느 날 나는 음식 먹는데 다소의 지장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 주치의의 의견은 만일 그런 증상이 내 주까지 계속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소개하여 진찰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 주에도 지장은 여전하였다. 전문의의 진단은 “신경성”인 것으로 보이며 만일의 경우 생각하여 오는 10월경에 재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던 중 익년(1964년) 1월에는 단순한 “신경성”만은 아닌듯 하다는 것이다. 허둥지둥 나는 어느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담당의는 매우 안됐다는 표정으로 진찰결과를 나에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후두암”이라는 것이다.

이 선고를 받는 순간 맨 첫번째로 나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아내와 아이들의 앞날 이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오랜 꿈의 결실이라고도 할 우리들의 새집도 종래는 무의미하게 되겠다는 쓸쓸함이었다.

진단을 내린 전문의는 나더러 지체하지 말고 저 유명한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후에 나와 처는 그 병원을 찾아 차를 몰았다. 내가 지정받은 병실은 7층의 동측 병동이었는데 4명의 환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실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 병실에 들어서면서 목격한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때는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그 광경은 텔레비전 담배광고에 나오는 모닥불 피아티의 광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환자들은 각기 침상 옆에 서서 핑크빛 나는 유동식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아주 조심스레 부어 넣은 다음 머리 위로 치켜올려 연결된 가느다란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그 핑크색 유동식이 천천히 흘러내려오게끔 꾸민 것이다. 또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관은 왼쪽 혹은 오른쪽 콧구멍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끝은 목을 통과하여 위 속까지 도달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들의 『밥을 먹는』 방식은 말하자면 이런 스타일이어서 실은 『먹는』 것이 아니라 『흘려 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에 있어서 목, 입, 혀, 식도 등은 완전히 또는 그 대부분이 외과적으로 제거되어 없기 때문에 아래턱 밑에서부터 가슴팍에 이르는 부위의 뒷벽(後壁)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밖에 충격을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환자들은 식사 때 조건 반사적으로 분비되는 아무 소용되지 않는 침을 흡수처리하기 위하여 주먹만한 약솜뭉치를 턱밑에 받쳐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플라스틱관 식사』 광경은 내가 “암” 선고를 받은 슬픈 그날 이후에 받은 또 하나의 큰 충격과 침울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주섬주섬 환자의와 환자 가운데로 갈아입고 나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환자휴식실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 모든 환자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 이 한자들 중 더러는 한 두 주일이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 담당의는 나의 처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내 담당의에게 나도 수술을 받아봤잖아 기껏해야 저 환자들처럼 차마 볼 수 없는 저런 험한 꼬락서니가 될 바엔 차라리 그냥 곱게 죽는 편만 못하니까 절대 수술을 받지 않겠노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아마도 나에게서는 저렇게 심한 정도의 대대적인 근치수술은 필요 없을 것이

라고 하면서 위로하여 주는 것이었다.

창 밖에는 함박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엾은 아내가 저 눈을 헤치고 다시 150리길을 홀로 되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슬픈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태연스러우려고 애쓰면서 아내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였다.

“길이 미끄러울테니 운전할 때 조심 해야겠어”……

승강기의 문이 닫히면서 아내를 문 저쪽으로 갈라놓은 그 순간부터 몇 시간동안은 아마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으리라! 나는 환자들을 똑바로 보기 싫어서 도망치다 시피 이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자마다 한결같이 혀(舌), 인후(咽喉), 턱, 코 또는 입이 부분적으로 또는 송두리째 제거된 몸서리나는 광경만이 망막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 중 어떤 환자는 이미 없어진 코나 입을 재생형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부나 육편(肉片)을 만들기 위하여 가슴팍이나 어깨 또는 목덜미 부분에서 피부를 부분적으로 절개(切開)하여 마치 옷가방의 손잡이마냥 U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공포와 연민의 외증(渦中)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도 멀지 않아 수술을 받는다면 저 모양이 되겠지……

나는 내심 나에게 수술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선을 천장이나 밑바닥이나 벽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가끔적이면 동료환자를 보지 않기로 하였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병실 TV 스크린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담배선전이 심심치 않게 반복된다. 그 향, 그 맛을 자랑하면서 한대 피워보지 않겠느냐?고 유혹 하는 것이다. 그러나……여기 불쌍한 무표정하고 무기력한 환자들은 그 향기, 그 맛에 흘러 거의 반생 아니 일생을 피워왔지만 이제 다시는 그 담배를 피울래야 입술도 없고 맛을 알래야 혀바닥도 이미 가버린지 오래된 사람들이다.

TV선전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음성이 명랑하고 깨끗하지만 여기 조용히 스크린을 힘없이 바라보는 환자는 소리를 낼래야 성대조차 없는 가엾은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은 상호의사 유통을 위해서 펜과 종이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인공성대』를 부착하여 겨우 어렵פות이 알아들을수 있는 발성을 하기도 한다.

다음날 아침 나는 수술실로 안내되었다. 기관경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호호스를 삽입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마치 칼날을 밀어넣는 것 같았다. 목을 힘껏 뒤로 제치고는 금속성 관을 입을 통하여 기관 깊숙이 삽입하는 것이다. 그러자니 미친듯이 구역질이 나고, 금방이라도 숨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았다. 이때 두세 사람의 의사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기관경을 들여다 본다. 때때로 여기저기로 조직편(組織片)을 떼내기도 한다. 나는 결국 숨이

막혀서 기절하고 말았다. 의식을 회복한 나는 최소 2시간 동안은 아무 것도 먹지 말고 안정 하도록 지시받았다.

보험원이란 직업상 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대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서 우선 수술에 앞서 방사선 치료를 시도해 보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실패로 끝나고 1964년 8월에 드디어 나는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 하였다. 생각과는 반대로 이 비운에 대해서 아내는 매우 굳센 의지를 보여 주었다. 수술실로 가는 도중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또 이것은 내가 발할 수 있는 마지막 음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11시간 동안의 긴 수술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내가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나는 이미 내게서 후두(喉頭)와 식도의 일부분 그리고 기타 목의 이곳저곳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았다. 나도 이제는 영락없이 내가 병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게 그렇게도 큰 충격을 준 다른 수술환자들의 경우와 똑같은 환자의 몰골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도 저사람들처럼 행하게 별려있는 목구멍이 얼마나 끈질긴걸까?.....

나는 이제는 하나의 인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생물학적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 후에도 8회에 걸친 성형수술을 거쳐 겨우 목의 전벽을 만드는 동안 몹시도 쓸쓸하고 몹시도 힘든 적응과정의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다.

텔레비전은 이같은 지루한 나날에 매우 중요한 위안의 도구였다. 내가 속해 있는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한결 같이 과거에 텔레비전 담배광고에 매혹되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약 19,000갑의 담배를 피우고 난 우리들 환자들의 몰골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멋진 젊은이들의 모습과는 매우 판이하다는 것을 밝혀 두어야겠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담배선전과 함께 우리들과 같은 담배 때문에 발생한 후두암 환자들의 모습도 상영하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또 육편을 기르고 있는 환자의 기이한 모습도 재미있으리라! 또는 좀더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이 완전히 달아나 버린 지독한 “골초”환자가 담배불을 붙인 다음 그것을 직접 숨구멍에 갖다가 밀착시킴으로써 담배연기를 직접 폐 속으로 빨아들이는 아주 『용감(?)』한 환자의 모습은 어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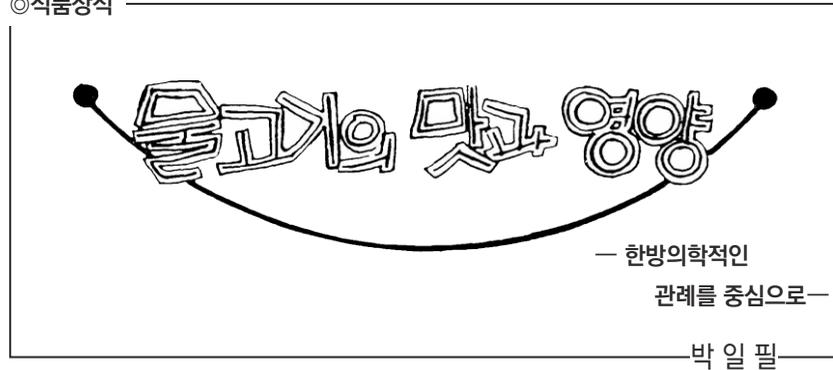
우리 병동 사람들은 TV스크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스포츠 카나 말이나 헬리콥터를 타지는 않는다. 그 대신 우리들은 병실용차(휠체어)를 타고 수술실로 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도 운이 좋은 사람만이 수술실에서 다시 자기방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병동은 그래도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3층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폐까지 절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나는 아직 제3 병동에 까진 안 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우리는 불순한 외세에 대해 민족적 경감을 높이고 반면 지나친 기우와 패배주의를 불식하며 주체의식을 가다듬으며 아시아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과 그 앞날을 바르게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하겠다.

— 1965. 방미시 출발 인사에서 —



보통 우리들이 먹는 많은 식품이나 음식 중에는 즐겨 좋아하는 것과 그다지 즐기지 않는 것과 또 싫어하는 것들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것들 하나 하나의 영양이나 맛이나 질적 내용을 세밀하게 계산하거나 헤아려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선 계산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편식(偏食)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은 물론이겠나.

소위 값비싼 것만 맛 있고 좋다는 고루한 생각을 버리고 값싸면서도 마련하는 솜씨와 태도에 따라 맛과 영양을 골고루 즐기고 얻을 수 있는 식품(食品)들이 많을 것이니 현명한 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슬기로운 지혜와 관찰과 솜씨가 요구되므로 여기에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기타 여러가지 종류의 식품들을 소개한다.

붕어

위장,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폐결핵, 기침, 각기(脚氣)에 좋다.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서 몸은 폭이 넓고 머리는 둔하게 뾰족하며 주둥이 끝은 둥글고 수염이 없는 게 특징이다. 몸빛은 등쪽이 갈색이고 배쪽은 배색에 황갈색이며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색깔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붕어구이, 붕어조림, 붕어찜, 붕어회, 붕어죽 등 다양하게 조리(調理)할 수 있으며, 큰 붕어는 뼈가 무를 정도로 고아 체에 거른 다음 맵쌀과 후춧가루를 넣고 찌는 죽은 몸 보신에 일품이다.

위와 장을 비롯 간을 튼튼하게 하고 각기나 피가 머리 부위로 몰려 얼굴이 붉어지고 이 때문에 두통, 귀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를 멎게 하고 어린이들 얼굴 부위의 종기에 태워서 재를 발라주면 좋다. 폐결핵으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할 때, 무우를 넣어 푹 삶아 먹고, 당뇨병 등으로 목이 말라 물이 자꾸 먹히는 데 내장을 빼어 버린 다음, 배속에 차잎(茶葉)을 채워넣고 종이로 싸서 구워먹는다. 이 때 비늘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유선염(乳腺炎)에는 산봉어 한 마리와 마늘 한 개를 함께 짓찧어 붙이면 효과가 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땐 산봉어 한마리를 우선 내장을 도려내고 오배자(五倍子) 가루를 태운 후, 진흙으로 싸서 불에 탈 정도로 구워 가루를 만들고 이 가루를 1돈중씩 술에 타 마시면 효험이 있다.

잉어

자양분 많고 황달, 갈증 치료에 좋고 피는 어린이 종기에 특효

잉어(鯉魚) 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며 몸빛은 주홍빛이 섞인 갈색이고, 배쪽은 빛깔이 좀 엷다. 입가에 두 쌍의 수염이 있고 황금색이 질수록 맛이 좋으며 큰 것은 100cm짜리도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으나 「아시아」와 극동지방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몸에 비늘이 36개 있는 것을 친다. 옛부터 자양분이 많아 보신용으로 알려져 있다.

황달, 목이 타서 물을 자주 마시는 증세(소갈 : 消渴)와 몸이 붓는병(浮病)을 치료해 준다.

썬개는 눈을 밝게 하고 눈병과 귀병을 치료하며 신결석(腎結石)에 이빨을 태운 다음,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먹고 뼈는 여성의 대하증과 성병에 좋다.

성홍열(猩紅熱)에는 비늘을 태워 재를 술에 타서 먹기도 하고 피는 어린이의 피부 종기에 특효이다.

몸이 붓는 병(浮症)엔 큰 잉어 한 마리와 팔 한 되를 물에 끓여 즙을 먹고 신결석 방광결석(膀胱結石)엔 이빨 1근을 가루로 만들어 먹는다.

오래된 이질엔 단오에 뼈를 태운 재를 먹으면 잘 낫는다고 한다.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땐 머리 부분을 태워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먹거나 국을 끓여먹어도 효과가 있다.

조기

단백질, 비타민 A 등 풍부하고 어린이의 발육, 소화의 촉진제이다.

조기(石首魚)는 민어과에 속하는 바다고기로 두개골 속에 돌같은 단단한 두개의 은황색의 뼈가 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5cm 정도의 것은 물강다리, 조금 큰 것은 강다리, 이보다 더 큰 것을 세레니라 하며, 15cm 이상 된 것을 조기라 한다.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흔하고 맛이 좋은 것은 노란색깔의 참조기이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잡히는 것은 거의 이에 속한다.

조기(助氣)란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험이 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하여 비타민류로는 특히 A와 D가 많다. 양질(良質)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어린이들의 발육과 원기회복에 좋으며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배탈이나 설사하는데, 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화불량에 순초를 넣어 끓여 먹기도 한다.

머리 속에 들어있는 물같은 흰뼈는 결성증(結石症)을 치료하는데 쓰이며 같아서 먹는다.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굴비 또한 맛과 영양가가 일품이며 굴비의 성분은 수분 71%, 단백질 16%, 지방 7%, 열량은 100g 당 127칼로리이다.

해삼

단백질이 풍부하고 발육에 좋고 정력(精力)을 돋우고 소화 잘 된다.

「스티코프소」에 속하는 극피(棘皮) 동물로 근해의 수심 10~30m되는 바위틈 또는 모래에 퍼져 서식한다.

몸은 둥글고 넓적한 편이며 촉수는 20개, 배쪽에 활동하기 위한 관족(管足)이 석줄로 돌아나 있다. 색깔은 보통 등 부분이 암록색 또는 암갈색이고 배는 적갈색을 띤다.

수온이 섭씨 16도 이상이 되면 깊은 바다로 스며들어가 여름잠(夏眠)을 잔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지에 많이 서식하며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아 중요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선 해삼백숙, 해삼알찌개, 해삼전, 해삼초, 해삼탕, 해삼회 등을 해먹는다.

신선한 것을 썰어 놓으면 딱딱한게 특징이며 상하면 늘어서 물기가 생기며 냄새가 난다.

「알칼리」성에 약해서 약한 「알칼리」에도 곧 녹아버린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발육을 돕고 소화도 잘 되어 노인들에게도 좋다. 그리고 혈압을 내리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방에서는 신장을 튼튼케 하고 정력과 남성의 양기를 도우며 입포(?)에도 좋다는 것이다.

오징어

정력 높이고 경도를 순하게 하고 빈혈, 복통, 산후 하혈에도 좋다.

오징어(烏賊魚)과에 속한 연체(軟體)동물로 몸은 원추형이며 크기는 길이 30~40cm 정도, 적갈색의 작은 반점이 많으며 몸 색깔은 주위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보통 암갈색을 띠나 죽은 후에 희게 된다.

우리나라의 동해와 남해에서 많이 잡히며 성분은 수분 26%, 단백질 67%, 지방 6%, 회분 7%, 열량은 100g당 294 칼로리로 이외로 영양가가 높다.

한방에서는 기운을 돋우고 정력을 높일뿐 아니라 경도(經度)를 순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빈혈, 자궁내출혈, 복통 등에 좋고 태워서 가루를 낸 다음 술에 타먹는다.

뼈는 오징어골, 흑어골(黑魚骨)이라 하며 지혈제(止血劑)로 사용되는가 하면 과로하여 열이 나고 허리 아픈 데나 오래 된 설사, 이질, 기침 등을 치료하는데 좋다.

오래 된 기침엔 뼈가루를 설탕에 섞어 먹되 분량은 이를 1회 5돈중, 어린이 2돈중이면 된다.

배꼽 부위의 종기엔 뼈가루를 기름에 개 붙이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데는 가루를 뿌린다. 몸속의 검은 액은 흑진(黑津) 또는 오징어 기름이라 하여 대구 간유(肝油)의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

대구

눈알이 맛 좋고 영양가도 좋으며 탕은 산모(産母) 젖 잘 나는데 도움이 됨

대구과에 속한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70cm 정도로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입이 크고 비늘은 잘고 겨울에 많이 잡힌다. 빛깔은 진한 회갈색으로 배 쪽은 희고 등지느러미와 옆구리에 일정치 않게 많은 무늬가 있으며 옆줄은 회백색, 아래턱에 하나의 수염이 있다.

우리나라의 동해와 서해를 비롯, 일본, 「베링」해, 「오츠고」, 미국 「오리건」주 연안에서 많이 잡힌다.

고기는 얼간, 자반 등을 만들어 먹고 간으로부터 간유를 얻어내어 알은 알젓, 아가미와 창자는 장란(腸卵)것을 만들어 먹는다.

특히 눈알은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아 고급요리에 사용되며 거의 버릴 것이 없을 정도이다.

젓이 적은 산모가 대구탕을 먹으면 젓이 많아진다는 옛부터의 비방이다.

구충(驅虫)의 효험도 있어 오래 묵은 대구 한 마리를 물로 씻기 말고 달여먹으면 잘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유종(乳腫)에는 껍질을 물에 담갔다 붙이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알은 신경통에 이용 높다.

복(河豚)은 참복과에 속한 바다생선으로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롭다. 물에서 공격을 받으면 공기를 들이마셔 배를 불룩하게 내미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하돈(河豚), 복 생선, 복어라고도 부르며 가시복, 검복, 메리복, 밀복, 황복, 흰점복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몸 윗부분은 갈색, 등근 무늬가 있고 아래 부분은 희다. 살은 맛이 일품이나 내장 특히 알과 간은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 먹으면 중독되며 생명까지 앓아간다. 독성(毒性)은 5월 산란기에 가장 강하다. 성분은 바다생선 가운데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으로 허약한 몸을 보하며, 특히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한 치질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나병(문동병)과 관절염에 살을 불에 태워 하루 3회, 1회에 3~9그램씩 복용한다.

한편 강한 독성을 품고 있는 알은 옛부터 신경통, 류머티즘 경련, 야뇨증(夜尿症) 등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등창의 근을 빼기 위해 알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고약을 붙이기도 한다.

자라

허약한 몸 튼튼하게 해주고 추위타고 손발 찬데 좋다.

자라과에 속한 파충류의 일종으로 6~8월 사이에 모래땅에 나와 알을 낳는다.

성장이 더디고 수명은 20년 정도이다.

맛이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강장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알도 맛이 좋고 보신제로 꼽는다.

한방에서는 주로 껍질을 약에 쓴다. 몸이 허약하고 열이 나는 증세와 여성의 대하증에 좋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엔 식초를 약간 넣어 누런 빛깔이 되도록 약한 불에 오래 곤다.

고기와 껍질은 내분기 계통의 기능을 촉진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추위를 잘 탄다든가 손발이 찬 사람이나 노인 등에 좋다. 하루 한 마리씩 3~4마리 정도 매일 공복에 먹는다.

이 밖에 오래 된 학질이나 신경통에도 좋다. 입술이 트는데는 껍질을 태운재를 뿌리고 허리

아픈데(腰痛) 껍질을 태운 가루를 술에 타서 하루 2회씩 복용한다. 오래 된 학질에는 껍질에 식초를 발라 주어 가루를 2돈종씩 술에 타서 하루 3회 먹는다.

수지질에는 껍질과 오배자(五倍子)를 함께 달여 뜨거운 탕으로 씻으면 좋다.

조개

글리코겐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다.

조개는 두족류(頭足類)를 제외한 모든 연체동물(輕體動物)로 조가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막조개, 바지락조개, 전복, 굴조개, 홍합 등 종류도 무척 많다. 성분은 수분 82%, 단백질 11%, 지방 1.0%, 탄수화물 5%, 열량은 100g당 71칼로리고 단백질 속엔 「히스지친」「리진」같은 좋은 「아미노」 산이 있고 특히 「글리코겐」이 풍부하여 소화가 잘 된다.

환자나 어린이 노인에게 좋은 식품으로 「비타민」 B₁B₂를 비롯, 철, 동, 망강, 옥소 등 무기 질(無機質)이 풍부하며, 12~1월경에 잡은 것이 맛이 좋다.

위 「카타르」와 위경련 등에 굴껍질을 태워 가루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뱀장어

영양가가 높은 정력 강장제이나 기름기가 많아 환자에겐 나쁘다.

참장어과에 속한 물고기로 우리나라는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河川)에 많이 서식하며 담수 중에는 산란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서 알을 낳는다.

부화된 치어(稚魚)는 투명한 버들잎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강 입구에 도달하면서 실뱀장어로 변하고 하천을 따라 올라와 담수 가운데서 자란다.

암컷은 약 10년쯤 담수(淡水)에서 살다 산란하러 바다로 나가고 이들의 수명은 5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해떨어진 후 3시간 동안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먹이는 주로 새우, 게, 조개, 작은 물고기 등 수온이 섭씨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식욕을 갑자기 잃고 겨울 동안은 먹지 않고 진흙에 파묻혀 산다.

성분은 수분 47%, 단백질 17%, 지방 35%, 열량은 100g당 380칼로리로 상당히 높다.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정력 강장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간은 강장제로 손꼽힌다. 그러나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환자나 어린이는 조금씩 먹어야 한다.

허약한 몸을 보하고 몸안의 모든 장기(臟器)를 튼튼하게 하며 폐결핵엔 아주 좋은 식품이고

등창엔 껍질을 붙이면 좋다고 한다.

가물치

쓸개즙은 인후염에 특효

가물치과에 속한 민물고기로 몸길이는 60cm 정도로 몸빛은 짙은 암청갈색, 배쪽은 흰색 또는 황백색을 띤다.

양옆을 가로 질러 아래 위 가로로 된 불규칙한 무늬가 있고, 등지느러미 양쪽에 또 다른 여덟 개의 무늬가 있음이 특징이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여 보신제로 이용되며 껍질을 벗기고 살만 도려내어 막걸리에 빨아 낸 다음 고추장에 버무려 만든 가물치회는 맛도 일품으로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이뇨(利尿)와 몸이 붓는 부증(浮症)에 사용해 왔다.

한약방에서는 몸이 붓는 병과 치질 치료에 사용한다.

특히 쓸개는 급성 인후염에 특효가 있다. 쓸개즙을 목구멍 언저리에 떨어뜨려 준다. 만성신장염엔 1근 정도의 가물치에 동아와 파의 머리를 넣어 죽을 끓여먹기도 하나 부스럼이 있는 사람은 금해야 한다.

새우

정력 돕고 젓 잘 나오게 하며 풍증(풍증)으로 생긴 담을 삭여 준다.

장미류 「마크루라」에 속하는 모든 갑각류(甲殼類)를 말한다. 몸은 좌우 대칭을 이루며 머리와 가슴부분, 배부분, 꼬리부분 등 3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지며 머리와 가슴부분은 굳은 딱지로 덮히고 눈, 촉각, 보각(步脚)이 있다.

제 2촉각이 몹시 길고 배 부분은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참새우, 대하, 보리새우 등이 있으며 한대(寒帶)에서 열대에 걸쳐 민물(淡水) 또는 바다에 널리 분포한다.

구이, 볶음, 찌, 찌개, 지짐, 탕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은 중국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젓으로 5월에 담은 오젓, 6월에 담은 육젓을 비롯 추젓, 백하젓, 곤쟁이젓 등이 있다. 성분은 수분 86%, 단백질 11%, 지방 1%, 열량은 100g당 54칼로리로 정력을 돋우는 식품으로 한방에서는 젓을 잘 나게 하고 머리 부위의 종기와 풍증으로 해내 생긴 담을 삭게 하는 식품으로 되어

있으나 많이 먹으면 혈액생산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가재

침 잘 흘리는 아기에 좋고, 즙(汁)은 종기에 발라도 좋다.

가재과에 속한 절족(節足) 동물이며 새우와 게의 중간형으로 대하와 비슷하며 몸길이 3~6cm 정도로 맨 앞의 큰 발에 집게발톱이 있고 뒷걸음질 잘하는 특징이 있다.

개울 상류의 돌 밑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의 북해도 동북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맛은 게와 비슷하고 페「지스토마」의 중간숙주(宿主)로 돼있어 날 것으로 먹는 것은 대단히 해롭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가재는 대부분 페「지스토마」의 기생충을 갖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영양가는 약간의 단백질이 있고 민간요법으로는 침을 잘 흘리는 아이들에게 구워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열나는데 생가재를 짓찧어 한 공기 정도의 즙을 만들고 여기에 조를 넣어 함께 끓여먹고 증기가 아물지 않는 곳에 즙을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홍역에 즙을 먹이면 발진을 촉진한다는 것이 민간요법을 장려하는 사람과 한방의 견해다. 문헌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처방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아롱든 생즙을 먹는 것은 병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어

장기(臟器)를 보하게 해주고 포나 회는 허약체질에 좋다.

상어(沙魚)는 교류(鮫類) 속하는 고래상어, 팽이상어, 돌상어, 악상어, 수염상어, 별상어, 철갑상어 등을 통틀어 말한다. 행동이 민활하고 성질이 사나우며 새끼는 대부분 태생이며 열대지방에서 주로 서식한다.

살은 식용으로 쓰고 껍질은 말려 물건을 문지르는데 사용하는가 하면 구두와 각종 공구의 장식용으로 쓰인다.

성분은 수분 70%, 단백질 22%, 지방 0.4%, 열량은 100g당 76칼로리로 상어백숙, 상어산적, 상어찜, 상어포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

여자가 먹으면 성질이 사나와진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상어가 사납다는데서 나온 근거없는 낭설이다.

몸안의 모든 장기(臟器)를 보하는 식품이며 특히 포나 회를 하여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허약한 체질을 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껍질은 토혈(吐血) 과 식중독을 치료해 준다.

메기

부종, 이뇨(利尿), 작용에 좋고 꼬리, 독침도 약으로 쓴다.

메기과에 속한 민물고기로 길이 100cm 정도이고 머리는 평퍼짐하고 입이 몹시 크며 네 개의 큰 수염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몸에는 비늘이 없어 매끄럽고 등 쪽과 측면에 암갈색 또는 짙은 황갈색의 불규칙한 구름모양의 무늬가 있다.

머리와 배쪽은 담황색, 담회색 또는 백색이며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을 제외한 전국의 하천에 서식하며 중국, 일본 등지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구이나 찜 등을 해먹으며 한방에선 통통 부은 몸을 내리게 하고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메기국이 좋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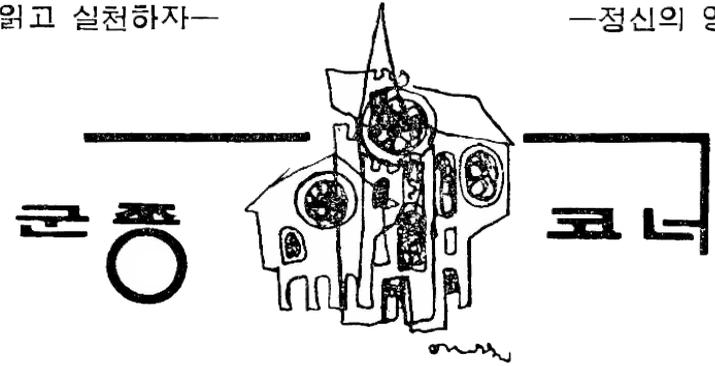
민간요법으로는 입이 비뚤어진 부위에 꼬리를 잘라 붙이기도 한다.

메기는 종류에 따라 독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목이 몹시 타고 물이 먹히는 증세에 달여먹기도 한다.

군종코오너

—읽고 실천하자—

—정신의 양식—



미래의 나라를 향한 신앙



군목 이준학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이다. 우리는 물론 예수의 인간정신이 현실의 윤리적 삶을 지극히 중히 여기는 것임을 그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미래의 「그 나라」이었다.

이는 예수의 일생을 통한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마침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올 약속을 하시므로,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해결 역시 현실적인 인간정신이나 윤리적 삶, 문화의 추구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그 나라를 소유하므로만 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과 끝 없는 인류문화의 개발로 팔목할 시대에 사람들은 살고 있으면서도 현대인은 왜 허무와, 절망과, 고독과,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인간이 「미래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그릇된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는 비극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그릇된 인간의 태도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찮은 현대 과학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존재의 겸손을 상실해버린 일부 인간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지상주의에 빠져 「미래의 나라」따위는 어리

석은 자들의 잠꼬대 정도로 비웃어 버리는 무신앙의 태도이다. 인간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결코 절대적인 존재는 못된다.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상적인 인류의 평화를 구현하고 아름다운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윤리와 철학을 만들 수 없음은 현대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더 절망하고 더 불안해 하고 고독 속에 방황한다.

둘째로, 「미래의 나라」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오해가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영원의 종교적 의지와 그 관심을 이용한 사이버 악덕 종교인의 사교적(邪敎的) 신앙 조성이다.

나는 얼마전에 일월산을 방문했다가 사이트 바로 밑에 한 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기도원의 서글픈 자취를 보고 아픔을 느낀 일이 있지만, 이같이 일월산을 위시해서 계룡산, 팔연산 등등 수 많은 유사 신흥종교들의 교주가 무지 몽매한 인간을 유혹해서 스스로 신(神)이 되는 천편일률적인 소치는 현실을 도피하여 미래세계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오실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 24:4-5)」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신앙의 태도로 신앙에서 존재의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오로지 내세적 관심만으로 신앙을 곡해하는 두 가지 잘못으로 인해 세계는 혼란과 비극의 와중에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부 기독교 지성인들이 말하는 소위 윤리적 기독교, 현실 개혁자로서의 기독교만을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미래적 관심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종교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까지나 인간 존재의 영원을 향한 의지의 해결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나라」를 향한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항상 소망 속에서 인간의 삶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윤리적 생활을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재능과 손질을 따라, 신 앞에서는 겸손히,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앞에서는 솔직히, 미래를 향해서는 열심히 사는 신앙인 것이다.

젊은 칼·바르트



안 병 무 (한국 신학대학 교수)

세계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아 진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주도하는 문화는 기술과학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고 모든 가치의 기준은 그 영역 안에서 결정돼 왔으나 이제는 과학적 난관주의를 갈 데를 다 간것같다.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형성하는 세계는 인간의 본향이 아니라는 예감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

현금까지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들은 과학기술이 형성 변화시켜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었다.

서구의 신학의 역사는 그 사회의 사회구조나 사상과 깊은 관련 속에서 형성 됐다. 이날까지 한국의 신학계는 서구 신학을 소화하기에 벅찬 나날을 보내왔다. 그러나 언제나 몸으로 느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세간살이는 제쳐놓고 담너머 남의 집 잔치에 덩달아 기뻐하고 그집 비운에 눈물을 짖는 것 같은 허전함이다.

남의 지혜를 빌린다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개 주어진 지혜를 사장하면서까지 남의 것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로는 남에게는 영양인 것이 내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주고간 침대 하나를 얻어다가 방에 놓았다. 그 침대는 단간방에 딱 차서 웅신할 틈이 없었다. 한 두날은 그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은 즐거웠다. 그러나 자는 것 이외에 그 방은 쓸모가 없게됐다. 그런데 겨울이 와서부터는 추워서 그 침대에서 잘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그 방을 폐방하고 말았다. 까닭은 방을 그것에 맞게 크게 지을 수도 없거니와 그 침대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귀중한」 침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대신 좁은 집의 방 한 칸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는 결과밖에 없었다. 물론 그 침대를 내버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폐방하면서까지 그것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왜 그 침대의 자료를 분해해서 자기 처소에 맞도록 이용할 생각을 못할까?

이제부터 20세기의 서구 신학의 주류를 훑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서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나 우리 방에 옮겨진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방의 규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대신 그 방을 차지하고 있을만큼 큰 중량을 가진 것도 많다. 여기서 그것을 훑어 보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 그대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이용할 궁리를 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장물을 분해하고 또 재구성 할만한 섬세한 장기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면 이 평론은 그 크기와 모양을 훑어보는 것으로 그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질실한 것이 보이면 섬세한 기구 대신 도끼질을 하고 큰 못을 탕탕 박아서라도 뜯어고쳐 볼 용기도 생길는지 모른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이 평론을 하려고 한다.

이 평론의 자료는 「하인츠 차안트의 (Heinz Zahrnt) 의 “Die Sache mit Gott (1966)”에 많이 의존하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20세기 신교신학을 평이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은 그에게 의존할 의무는 없으나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목사의 고민

20세기서구신학은 칼·바르트에서 시작됐다. 그의 신학사상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그의 전기의 신학사상을 보기로 한다.

19세기의 신학은 슈라이엘마허 (Schleiermacher)가 그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로 릿츨 (Ritschl), 하르나크 (Harnack) 그리고 트렐취 (Troeltsch) 등이 그 주류를 형성했다. 그것을 일러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다.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직접 소개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것을 한마디로 성격화 한다면 이른바, 「인격과 역사」에 무한한 가능성을 본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바르트는 슈라이엘마허를 초점적으로 대결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가 직접 영향을 받고 또 논쟁을 벌인 대상은 하르나크다. 하르나크는 1899~1900에 걸친 저울학기에 베를린 대학에서 저 유명한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을 강의했다. 강좌는 그가 손에 노트도 없이 했다는 것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노련한 학자였으며 그 자신 그가 말한 내용에 젖어있던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차안트」가 말한대로 시민적 이상주의 시대의 하나의 거의 완결된 표상이었으며 인간정신, 역사의 발전, 하나님과 세계, 종교와 문화, 신앙과 사고, 신적 의(神的義)와 지상의 질서 왕좌와 제단이 아무런 모순 없이 잘 조화될 수 있다는 당대의 낙관주의적 신념의 응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르나크는 그의 일곱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기본에서 얻은 이 이상은 우리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그 궁극적 목표와 지침이 예시된 고상하고 장엄한 것이다. 인간이 언제

이에 도달하려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

우리는 2, 3백년 전과는 달리 이미 이 방향을 향한 윤리적 의무를 느끼고 있으며 우리에게 조용히 스며드는 예언적인 감수성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했다. 이것은 낙관주의의 절정이다. 그는 그가 이해하고 사는 세대는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 직선을 그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불과 15년 후인 1914년 8월 4일 1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독일 카조이자 월헤름이 전장도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선포했다. 그런데 이 선포에 대해서 어용학자와 예술인 93명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에 서명했는데 하르나크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사태는 그 시대의 낙관주의를 조소한 것이며 하르나크가 구가하던 19세기의 시민적, 이상적 세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를 회상해서 바르트는 존경하던 그들이 그같은 전쟁을 지지한 그 자세에서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그들의 윤리, 도구마 그들의 성서해석 그리고 그들의 역사 이해를 그 이상 따를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19세기의 신학은 그것으로 끝장난 것이라고 했다.

그래 바르트는 스위스의 공업지대인 사펜윌 (Safenwil)의 이른바 한 시골 목사였다. 그의 초기의 신학적 사고는 그가 시골의 한 목사였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의 동료들인 툴나 이겐 (E.Thurneysen), 부른너(E.Brunner), 고갈텐(F.Gogarten), 멜츠(G. Merz) 등도 그러했다. 목사로써 그의 고민은 어떻게 이같은 상황에서 옳은 설교가 가능하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손에 성서를, 또 한 손에는 그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현실을 보도하는 신문을 들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몸부림 쳤다. 이 둘의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인간의 삶의 문제성과 성서의 내용, 이것은 서로 연관이 지어져야 한다. 까닭은 이 성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에게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대체 그것이 가능하냐가 문제였다. 즉 젊은 목사 바르트는 해야 한다는 당위(Sollen)와 할 수 없다 (Nicht-Koennen)의 사이에서 고민 했다.

목사는 「하나님을 말해야」한다.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하여간 어느 때 그에게 2000년 내로 자명적이었던 이 임무가 갑자기 불가능한 것으로 문제 됐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떤것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강요 당하는 길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느 날 설교를 하려 나가려는 길에 창으로 밖을 내다 보았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우선 교회로 올 생각은 않고 햇볕을 즐기면서 산책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그는 이론적으로는 저들의 죄 가운데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웬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음을 느끼고 놀랐다. 여기에 바르트는 자기의 신학적인 신

념에 대해서 반성 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이러한 과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한 것은 성서 자체의 성격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신학적 신념 때문인가? 그때까지 바르트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을 자명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신학적 영역에서 설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그는 저들에게 인격 역사의 존엄성과 그것에 의해서 발전되는 미래를 낙관하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문화 또는 정신생활을 할 수 있는 특수층의 자기 도취였고, 일주일동안 어두운 탄광 속이 아니면 순간의 여유도 주지않는 기계와 씨름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접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아무리 얘기해야 저들의 삶은 그것을 역행할 뿐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그는 성서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성서의 내용은 정말 그가 배운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인가? 이러한 물음은 그를 성서연구에 도취하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종교적 의식한 인간의 정신사의 현상으로써의 성서 이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저들이 인간의 측면에서 기독교를 보았다고 해서 신을 전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언어와 정신에 그 관심을 쏟았다. 그런데 바르트는 성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각도에 입각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는 성서의 내용은 절대로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바른 사고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보였다. 성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이며 그것은 인간이 그에게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찾고 발견했느냐를 전한다.

이것을 발견한 바르트는 「주가 말씀했다」(Dominus dixit)가 성서의 내용의 전부라고 보았다. 이것은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가 부름과 대답이라면 인간의 종교적 부름의 대답이 성서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다. 그러나 이로써 바르트는 인간의 대답에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자체에 집중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이 구체화되어 첫 선을 보인것이 그의 유명한 「로마편지 (Römerbrief)」이다.

그 첫 출판은 1918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 자체에 곧 불만했다. 그래서 1921년에 그의 다른 논문들과 강연들을 앞세우고 그 내용을 대폭 수정 정리했다. 그는 이 2판에 대해서

첫판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기초적인 것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는 「내게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킬케고오르가 말한 시간과 영원의 끝없는 질적 차이」에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이 가로 놓여있다.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교량도 연속성도 없다. 그 둘 사이에는 한 영점(永點-Gletscherspalte) 주지대 (Polarregion) 황무지(Verwüstungszone)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적인것과의 끝없는 질적 차이로써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 없는 순수한 경계점이고 시발점으로써 마주 선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 경험, 예배 등과 절대로 일치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불안 속에서의 중지명령, 우리의 안도속에서의 전진명령, 우리의 부정 (Nein)에서 긍정, 우리의 긍정에 대한 부정, 우리의 처음은 그의 끝, 우리의 끝은 그의 처음,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것과도 — 주, 구원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미지의 분 — 이것이 산 하나님이다.

바르트는 한 예언자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단결성을 외친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점은 어디 있는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 격리가 그 유일한 합일」이며 「하나님과 세계와의 본질적인 격리에 대한 인식만이 세계 안에서의 신의 현존의 유일한 가능성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게시」의 성격이 문제된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이실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이런 문제에 직접 대답하려고 하지않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이질성은 그의 계시의 이 세계에 대한 부정성을 주구 강조한다. 하나님은 세계사에서 「원의 절선」과 같은 것이며 그의 계시는 「한 수학적 점」이다. 그러므로 그 계시에는 「사람이 정립할 수 있는 설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계시의 역사성 따위는 물론 긍정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그는 계시는 원역사 (Urgeschichte), 비역사적사건 (Unhistorisch Ereignis), 비시간적 시간(Unzeitliche Zeit), 비공간과 공간(UnrSumliche Ort), 불가능한 가능성 (Unmogliche MOglichekeit)이라고 한다. 그는 킬케고오르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Kenntlichkeit)은 바로 이상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고 한 바로 그 입장에 섰다. 그러므로 그는 칼빈의 「제한된 것은 무제한한 것에 맞지 않는다.」 「시간은 영원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의 예수도 이른바 역사적 사건으로써의 계시는 될 수 없다. 사실상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화를 모른다 (차안트),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역사에 사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자취는 하나의 지나감이며 퇴거며 이변이지 파악

할 수 있도록 정지된 어떤 흔적도 없다.

그는 역사의 예수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유일한 단 하나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을 들어낸 것이라는 데서 그의 주장을 여전히 관철한다.

부정과 긍정: 지금까지 서술한 바르트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정성(Nein)만 강조돼 왔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의 처음의 고민, 즉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 밖에 나올 것이 없다(Nicht-Können),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에게는 여전히 해야한다(Sollen)는 과제가 그대로 있다.

그는 신 또는 그의 계시는 직접 전달 할 길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는 오직 변증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나타 낼 수는 없고 명제와 반제 속에서만 표현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 즉 적극적인 표현은 곧 소극적 표현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창조된 신은 곧 숨은 신으로, 인간의 신의 형상성은 인간의 죄로, 삶은 죽음을 말함으로써만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신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도 결국 말할 수 없다는데 귀착된다. 그렇다면 설교도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멈추게 될 것이다. 이 변증적인 표현법은 그 대상은 제시할 수는 없다. 그의 말대로 그에게서 These-Antithese 다음 Synthese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즉 정(正)과 반(反)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는 그를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도 거기 도달하지 못한 모세와 비길만하다(차안트), 그 방법은 결국 신 또는 그의 계시를 날아가고 있는 새를 스캔하는 것과도 같다. 스캔하는 동안 새는 벌써 거기에는 없다. 그것은 또한 절벽의 절경과도 비교된다. 절벽의 절경기는 순간도 설수 없다. 서는 순간 좌(左) 아니면 우(右)에 떨어진다. 그런 뜻에서 가톨릭의 바르트 연구자인 「발라자」는 이것을 바르트의 비극이라고 했으며 그의 절규는 절망 속에서의 몸부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철저한 부정은 바로 철저한 긍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철저한 부정(Nein)으로써 심판을 뜻한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멸절(Vernichtung)이 아니라 바로잡음(Aufrichtung)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버림 받고 있음(Aufheben)을 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 곁에 들리운 것(Aufheben)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 밑에서 있는(하나님의) 부정(Nein)을 하나님의 긍정(Ja)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다. 인간의 불손성과 불순종성에 대한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깊은 용서의 소리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다.

인간의 저항적(Trotz)인 절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Trotzdem)의 조용한 조화에서 오는 소멸 이상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이른바 그의 변론적인 긍정의 표현이다.

비 판: 젊은 바르트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그가 시대의 아들이라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그 시대의 제약을 받았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구체성에 충실 했다는 뜻이다. 그는 학창시절에 그 당시의 신학적 조류를 충분히 연구 흡수했다. 그는 베르린대학에서 하르나크, 말부르크에서 헬만(W. Herrmann)에게 사사하면서 그들의 선자리를 바로 이해했다. 그는 그들의 배경이 슈라이엘마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을 알았기에 슈라이엘마허 연구에 충집중했음 뿐 아니라 그 핵심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목회를 할 때에는 대학강단 신학과 현실사회 사이의 거리를 통찰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 시대의 문제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뛰어든 것을 것이다. 그가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이에 뛰어들어 임금 문제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든지 목사로서 사회민주당의 당원이 됐다는 사실 등은 그가 그 시대문제에 민감했음 뿐 아니라 시대의 구체적 문제에 충실했음을 나타낸다. 그가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심각하게 문제삼은 것은 그가 추상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성에 충실한 데서 온 것이다. 반면에 수가 그의 신학적 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역시 그 시대의 제약성을 말한다.

그가 설교가 어떻게 가능하나 하는 과제를 앞세웠는데 처음에 내놓은 그의 로마서는 자기도 속해 있던 당시의 신학 조류에 총공격을 퍼붓는데 시종한 것은 시대적 제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로마서를 쓴 정신은 바로 1차대전 이후 급전한 비관론과의 관련을 무시할 수 없다. 그때 「스팽글라」의 「서구의 몰락(Untergang des Abendlandes)」은 구라파를 흔들었는데 이러한 시대성을 바르트가 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언자적인 눈과 정열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그 시대성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올 것이며 그 앞에서 무엇이 의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서 출간을 계기로 그의 정신적 배경은 구약의 에레미아, 신약의 바울, 그리고 루터, 칼빈, 킬케고 오르라고 했는데 한 걸음 나가서 니체의 「인간은 극복 되어야 할 존재」라는 말에 적극적 동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밟고 어디로 향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는 증거다. 더욱이 그가 당시의 종말론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목사 블룸하르트.(Blumhardt)에 영향을 받은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Nein은 바로 이러한 예언자적 배경에 의한 것이며 바로 그 시대는 이 Nein의해서 새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 Nein은 곧 그 효과를 보게 된 것은 아니다. 이 Nein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를

향한 오늘에 더욱 절실한 절규다. 그 당시의 그의 Nein은 서구사회에 충격을 준 것이기는 하나 서구는 대전 후 그 폐허 위에 다시 재기하여 과거와 과념적 낙관주의를 기술과학으로 이어받아 그대로 밀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 길이 아니다(Nein)라는 것을 실감한 때가 온 것 같다. 오늘의 서구사회가 이끌고 가던 문화는 어떤 수정주의나 온건한 개혁 따위로 구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때야말로 초기의 바르트의 철저한 Nein이 구체화 되어야 할 때로 보인다.

한동안 사회문제에 뛰어들던 바르트는 낙관주의적 자유주의신학의 청산과 더불어 그러한 사회활동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말씀의 증인으로 전념했다. 그것은 그가 세대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를 조종하고 수정하는 따위로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증거이며 동시에 철저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관」의 탄생을 중요하다고 본 증거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문화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의 최후의 삼손적인 부정의 정열을 일으키게 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를 모든 것의 「정지」의 붉은 신호로 내세웠다. 이것은 그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려는 브레이크다. 그러기에 그의 로마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사실상 말하고 있지 않고 계속적인 Nein만 되풀이했다.

그는 이 선언으로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밑에 형성된 종교와 모든 문화 속에 숨은 우상을 추방하자는데 초점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를 기존의 그 어떤 것 과도 동일화하는 것을 거부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관련의 줄을 단절하기 위해 난도질을 계속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써도 하나님의 역사성을 거부함은 사실상 무신론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정도이다. 사실상 그는 무신론적 저항이 기존의 신에 대한 변증보다 참에 가깝다고 주저없이 말한다. 그의 절규는 유신론, 무신론을 넘어선데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판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자원을 모르는 말이다.

또는 그의 신이나 인간의 이해는 비 그리스도교적이 아니면 적어도 전 그리스도교 적이 아니냐, 신약은 고사하고 구약적일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일으킨다. 그것은 그에게서 사랑이나 은총 또는 희망의 어떤 흔적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기존의 신학적 물음이다.

그의 절규는 성서내용의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 때문이다. 그의 Nein에서 그 어떤 것은 제외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변증법적 합을 전제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도 이미 말한 바지만 티리히(P. Tillich)가 말한대로 그의 논법은 변증적이며 비록 변증적인 자기 지양을 말하나 종당에는 변증법 자체도 지양해 버린다. 그에게는 취사선택이 없다.

그에게는 철저한 부정만이 있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노렸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그가 참된 성서이해에로 이끌기 위해서 였다고 대답하면 (대부분이 그를 그렇게 변호한다) 그것은 너무나 빨리 기존의 궤도를 탄 대답이다.

혹은 후기의 바르트의 신학적 발전의 측면에서 그의 일방적 부정을 변호해 버리면 그것은 바로 그가 거부한 변증적인 관찰이 되고 만다. 바르트는 로마서의 첫판 머리말에서 바울을 그 시대의 틀에서 보는 역사비판학적 연구에 대해서 자기는 때와 장소에서 달라지지 않는 참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역사 비판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자기는 영감론(Inspiration Lehre)과 역사비판학적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전자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그는 영원한 영을 말한 다음 「한번 참으로(Ernst) 나타난 것은 오늘에도 그렇다. 오늘에 참된 것은…… 이미 있는 참된 것과의 직접적인 관련 속에 있다」고 한 다음 「참은 이미 오래 전에(Schon laengst) 발견됐다.

참된 영의 세계(Geisterschaft)에 연결되어 있다면 원래의 참을 붙잡으라!」는 말을 인용한다. 그 참시간과 장소의 대립을 통합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가 「주석에서 가졌던 관심은 성서의 역사적 이해나 문장의 뜻이 아니었고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개념들로 되어 있는 표식들이 거의 완전히 없어지고」 「글자들(Words)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하며」 「내가 내 앞에 문제의 수수께끼 밖에 아무 것도 생각지 않을 경지까지 문서가 거의 문서로서 존재하지 않는 데 까지, 내가 저자를 잘 알아서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게 하고 그가 그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나도 너도 문자도 사라지는 그 수수께끼, 그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는 역시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의 대립이전의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말씀」 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한 말씀은 대립 속에 그 자리가 없을 것이다.

까닭은 그것은 그 대립이전 또는 대립성이 해소되는 현실이니까! 바르트는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은 언어가 단절된 저쪽에 있다. 그리스도를 말하나, 역사적 출현이전 또 위 또는 깊이의 그를 말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역사에서는 여전히 숨어서 만날 수 없다.

그는 종교나 문화는 물론이고 신앙마저도 어떤 내용이나 잠깐이라도 정지할 정신적 거점을 허락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대립이전의 무의식의 현실, 무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그는 「이것이다」는 곧 「아니다」로 부정하는데서 정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에게 향한 학문(Wissenschaft)적이 아니라는 비판은 변지수가 틀린다. 더욱이 그가 역사비판적 방법을 인정한다면 로마서 강해에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른바 영감(이것은 동양적으로 말하면 직관이다)으로 했다.

그는 문자의 뜻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이미 학문의 영역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넘어선 어떤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는 그것을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은 글자 그대로 도끼질해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 바르트의 지향하는 바
 는 가장 중요한 것을 노린 것이다. 그의 표현이나 투쟁의 양식은 우리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바
 로 서구 세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으킨 낭비가 많았다는 것을 시위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후의 바르트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세계 해빙 무우드

— 한 종교인의 느낌—

허 경 삼 (서울신학대학 교수)



“오늘 우리는 인류의 이상인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는 새 시대의 문턱에 섰습니다. 나는 이 시
 기야말로 인류가 대화와 협조의 윤리를 존중하여 공존 공영하는 세계평화의 새 질서확립의 기
 회요. 「아시아」인에게는 「아시아」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 속에 조화를 이룩해야 할 교류
 와 협력의 시기이며, 우리 한국민에게는 조국 근대화의 굳건한 터전 위에서 국토분단의 비극을
 종식시켜야 할 통일의 연대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박 대통령 각하가 제 7대 대통
 령에 취임할 때의 취임사의 한 귀절이다.

박 대통령은 또 계속하기를 “이른바 동서간의 해빙기운(解氷氣運)이 점차 높아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공의 화해 움직임이 싹트는 등 최근 우리 주변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같은 변화가 우리 「아시아」에 감도는 침략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평화의 열풍
 (熱風)으로 발전되어 가는 커다란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분단된 조국을 평화로운 방법
 으로 하루 속히 통일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중외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
 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가 동서 대결의 양극과 시대로부터 협상의 다원화 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음을 민감하게 감식하고 이에 대처할 민첩한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오늘의 국제정세를 볼 때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할 수 없을만큼 세계는 변하여 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과거 10년 동안 세계는 동서 양대 진영의 대결이라는 양극시대로부터
 강대국간의 협상이라는 다원화 시대로 변천하여 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냉전상태의 지양(止
 揚), 평화공존의 체제수립을 서두르는 등 국제적 해빙무우드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있다. 파리회
 담을 통한 월남전의 평화적 해결전망, 중공의 UN 가입, 미·중공의 화해와 제휴, 미·소의 대
 화, 일·중공간의 평화조약 체결전망, 일·중공간의 수교(修交), 동·서 독일의 교류 등 눈이 휘
 둥그레 해질 정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때를 맞추어 남북한간에 활발한 대화가 진
 행 중이어서 양대진영의 평화공존이나 대화나 협상같은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던 지난 날의
 철학은 오늘에 와서는 좀 먼구스러울 정도로 인기없는 것이 된 느낌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 「세계 해빙 무우드의 역사적 문턱」이라는 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듣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쭈욱 내려가는 느낌이다. 반목과 질시, 비방과 욕설, 불
 신과 증오, 적대와 전쟁 등으로 점철되었던 냉전의 세계, 그것이 언제 인류의 전멸을 가져다 줄
 는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 불안과 공포로 하루 하루를 숨도 크게 못쉬고 살아야 했던 지난 날
 들을 회상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풀어지는 해빙위 소식은 온 인류가 다 같이 쾌재를 부르
 지 않을 수 없는 천행이며, 쌍수를 들 뿐만 아니라 목청이 터져라 외치며 기뻐함이 조금도 지나
 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한 종교인의 양심으로 필자는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해빙기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평가하는 일을 감히 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로, 현 세계 해빙 무우드를 원리(Principle)면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테스트하여 보아야 한다.

그 원리의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은 「세계는 가정이며 온 인류는 한 가족이다」라는 가장 기본
 적인 것이다. 비록 영토에 한계가 있고 각 국가의 조직과 체제가 다르고 인민들의 언어와 생활
 양상이 같지 않고 피부색깔이 다르더라도 이 지구는 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며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스럽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 원리
 로 하여야 한다.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는 비록 성격과 기호의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엔 상호 이
 해가 있으며, 동정이 있다. 거기엔 상호 신뢰와 애정이 있으며, 상호 협조와 협력이 있게 마련이
 다. 이런 것들은 이해 타산적이거나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해도 극복하는 높은 차원의 것이며, 고난이 온다 해도 굴하지 않는 고상한 성질의 것이다. 거기
 에는 희생이 수반되며 자기포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오늘 국제간에 일어나고 있는 해빙의 무우드는 이런 고차원의 정신적 기반이 없이 순전히 눈가림만의 우호관계이며 이해관계 이상을 넘지 못하는 대화이다. 과거 열국들은 세력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경주하여 왔으며 또 자체의 힘을 과시하여 왔다. 양국의 체제는 힘의 대결을 정점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었다. 특별히 「아시아」는 이 양국의 힘의 각축장(角逐場)이 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소련과 중공과 북괴는 소련을 정점으로하여,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힘에 겨운 씨름을하여 왔다. 그런데 소·중공을 동일시하여 온 우리의 각오는 오늘에 와서는 뒤엎어졌다. 소·중공 간의 세력의 우열경쟁에서 양대국은 긴장을 불러 들였으며 양대국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일본대로 자체의 입장을 안전하게 그리고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변외교정책(多邊外交政策)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을 대신 하여 극동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던 차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공 방문은 일본의 체면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자체의 안전에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경제면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일본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경제가 현재까지의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중국본토와 같은 곳으로 넓혀야 할 뿐 아니라 동남아 진출에 있어서도 그 지역 상업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 화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중공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나카 일본 수상은 중공을 방문하여 단시일 내에 중공과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수교를 맺게 된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다변적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음은 또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월남전에서 미국은 4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고, 1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썼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월남전에서 미국은 지쳐버렸다. 이리하여 미국은 약소국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과잉개입해서 빠져나오기 위해 양국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소위 닉슨·독트린은 이리하여 등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은 월남전을 월남화하고 「아시아」 문제를 「아시아」화 하자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각국의 세력경쟁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대화니, 협상이니, 수교니, 화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해빙무우드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본적 현상이 아니라 이해타산과 체면유지와 여론에 이끌린 무우드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원리의 두번째로 들어야 할 것은 「세계를 보전하고 인류를 번영케 하는 것은 인류의 본질적 지상과제라는 사명의식에서 출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몇몇 욕심많은 철부지 군주나 독재자들에 의하여 여러번 초토화되었었으며 그러한 난폭한 자들에 의하여 인류는 여러번 비극을 겪어야 했었다.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내신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위에 편만하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전쟁을 일으켜 파괴와 살육을 자행하였다. 전쟁은 죄요 살육과 파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행위요 사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UN의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대리하여 이러한 죄악행위와 배신행위를 응징하고 규탄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간의 소위 해빙 무우드가 과연 이러한 숭고한 인류의 지상과제에 대한 사명의식에서 나왔느냐 할 때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둘째로, 현 세계 해빙무우드를 그 수법 (Technique) 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표면상 화해라든가 대화라든가 하는 형식의 해빙 무우드가 과연 그 수법에 있어서 정당하나, 어쩌나 하는 면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강대국간의 비밀 외교에 의하여 약소 국가간의 운명을 자기네 멋대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미·중공 화해의 결과로 작년 12월에 인·파 전쟁이 일어났고, 금년 3월엔 월맹 정규군에 의한 남침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4반세기 동안의 장개석 정부와의 우호관계를 하루아침에 저버렸다. 일본 뿐만 아니라 20여년간 중공 봉쇄책에 주력을 해온 미국도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닉슨 대통령 자신이 중공을 방문 하였다. 양국체제시대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약소국가의 안보정책은 용이하였다.

미국이든 소련이든 어느 한 동맹국을 믿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극화체제로 변함에 따라 약소국가들은 자기네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논리는 정당하다. 강대국들의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체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으니 거기엔 국제도나 외교윤리 같은 것은 전적으로 무시된 기생외교(姦生外交)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利)를 보기 위하여서와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는 약소국가에 대한 신의를 헌신짝 같이 내동댕이치는 그런식의 정책을 서슴지 않고 쓰는 강대국들의 배신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 하나 현재 진전되고 있는 세계해빙무우드를 보고 기쁘게 여기면서도 고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지나치게 현실위주의 외교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50년 UN에 의하여 이미 침략자로 낙인이 찍힌 바 있는 중공, 항상 UN을 비방하고 부정하던 중공을 UN에 가입시키고, 대신 UN 창설멤버의 하나이며 줄곧 유엔 상임이사국의 하나이던 자유중국을 UN으로부터 「현실 때문」이라는 핏발을 붙여 축출해 버리는 열강들의 수법을 공의의 신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의문을 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현실 위주의 외교수법은 본래의 UN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니 인간들이 하는 일은 별 수 없는가 보다. 박 대통령은 10월유신선언에서 이 사실을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 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말로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우리는 이상에서 국제정치의 냉혹성을 보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깨달아야 할 일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는 것일 것이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국가관의 대립과 경쟁이 실리에 입각한 이합 집산의 양상을 띠고 있는 오늘과 같은 때일 수록 우리는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극동의 국제 정세가 조국의 앞날에 강요할 막중한 시련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연재 ②



이인수



제3의 탄생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7월 보름 해제날이 되었다. 나는 이번에 수계(受戒)하는 4명의 동료행자와 다른 말사(末寺)에서 선발되어온 2명의 다른 행자들과 수계식을 갖게 되었다. 오전 11시 법주사 큰 법당인 대웅보전에서 은사(恩師)는 나를 처음부터 지도해 주신 추담스님으로 모시고 법명은 법해(法海)로 하고 절차에 따라 수계식은 진행되었다. 우리는 인례(引禮) 스님의 뒤를 따라 향내음이 은은하게 감돌고 촛불이 밝혀져 있는 법당에 들어가 정좌해 있었다. 곧 이어 전계(傳戒) 갈마(羯磨) 교수(教授), 삼화상(三和尚)이 시자(侍者)들의 모심을 받으며 불단(佛壇) 앞에 부설된 높은 법상(法床)에 오르셨다. 그 위엄은 사뭇 일체의 번뇌망상을 조복받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았다.

전개화상은 침착하고 엄숙한 음성으로 사미십계(沙彌十戒)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계설이 끝나자 우리는 세속적 형식적 생활방식을 떠나 수도자적 생활을 표하는 삭발(削髮)을 하고 청빈과 고결(高潔)로 수도를 통한 진리의 법왕(法王)이요, 중생의 스승이 된 것을 맹세하고 대복전(大福田)의 법복인 가사장삼을 받아 입었다. 법복을 입는 순서가 끝나자 이번엔 신표(信表)로 왼팔에 연비를 하여 불타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모두의 눈에는 촛불에 반사된 결의가 서려있었다. 그 다음은 선서 차례였다.

먼저 전계사 스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다.

「내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묻노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사문의 목숨과도 같은 계율을 세세생생 성불작조(成佛作祖)할 때까지 불석신명(不惜身命)히 잘 지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복밭이 되겠는가?」

『능지(能指) = 능히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은 추호의 거짓이 없는 진실 그대로의 대답이었다.

스님께서는 다시 고구정영히 말씀하셨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계위사(戒爲師=계율을 스승삼아라) 하라 했으니 진실로 계율은 바른 법(正法)의 안내자요 스승인 것이다.

그러나 계율은 무턱대고 지키는 것만이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니 개차법과 지지작법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러테면 사명스님의 일살다생(一殺多生)의 파계는 파계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요컨대 “할 짓은 하고 하지 아니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계(持戒)요, 할 것을 아니하고 안 할 것을 하는 것이 파계가 되는 것”이니 자비심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파계도 지계가 되고 번뇌망상에 집착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면 지계도 파계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차성계(自性戒)를 닦아 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비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계율을 잘 지켜 나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니라. 방일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대각의 그날까지 애써 정진 정진할지이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생명력(生命力)있는 귀한 법문을 들었다. 「갈마」와 「교수」를 하신 두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모든 의식은 끝나고 우리의 「제 3의 생명」은 탄생되었다.

육체적 생명의 탄생이 제 1의 생명이요, 정신적 자아에 눈뜨는 것이 제 2의 생명이라면 정신적 자아에 입각한 신앙의 생명을 탄생시킨 수계식은 제 3의 생명의 탄생인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하고 완전한 자기개발의 최고가치를 접해 도약하는 거보(巨步)였다. 더 높은 인격과 더 심원한 진리를 위한……

수계가 끝난 후부터는 사문의 자격으로 교리를 배우기 위해 강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먼저 산만한 교리적 견해에 중심과 체계를 세우고 수도의 노정기(路程記)를 배우기 위해 행자생활도 같이 하고 수계식도 같이 한 동료들과 같이 강원에 들어가 경학(經學)을 연수(研修)하기로 하고 즉시 강원에 입교했다. 나는 불타의 혼이 깊이 스며있는 법주사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사문이 되고 또 강원에 입교하여 불교생활의 기초와 불교적 입지를 굳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강원 교육방법이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강원을 졸업하고도 신사조(新思潮)와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대인에게 오묘한 불교의 진수를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다. 이것은 비단 법주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전체적인 현상으로 모든 종교가 근대화 되어가는 판국에 유독 불교만이 침체일로에서 과감히 탈피치 못하는 안타까

운 현실의 단면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현대철학이 가지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한문(漢文) 술어에서 발견하곤 하는 기쁨이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이해도 잘 안 되는 골치 아픈 얘기들을 이 빠진 축음기판처럼 틀어대는 철학교수의 낡아빠진 노트 속의 강의보다 몇 배나 흥미있고 유익한 학업이 되어 궁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강사스님의 자상한 강의와 분위기를 명랑하게 하는 동료학생들의 익살스런 장난은 대학의 아카데미한 분위기 때문인지 열성 때문인지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전념 하는 나의 노력은 일진월보하여 마침내 불타의 일대 노정기를 마칠 수 있었다. 노정기를 마치기까지는 강사스님의 각별하신 격려와 꾸준히 노력하는 댓가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럼 없는 결과이었다. 어느덧 4년간 정들어 살아온 법주사가 정화(淨化) 싸움으로 나의 비둘기 꿈을 깨우고 자꾸만 살벌한 전장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어 정이 떨어져버렸다. 그 때까지 끝나지 않았던 비구 대처간의 분구싸움은 법주사에도 법정투쟁으로 번져가게 되었다.

이로 인한 법주사는 수도승이 사는 사원이라기보다 배덕자들의 합숙소란 말이 나오리만큼 외우내환으로 소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입산한 후 내가 느끼는 최초의 실망이요 분노였다. 나는 뒷방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화응」 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이라면 그래도 충격적인 사건들로 착잡해진 내 입장을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겉으로는 도덕자인척 성직자인척 하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심보들을 가지고 있으니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선자의 집단이 사문(沙門)사회의 대명사나 된 듯이 날뛰니……」

「자넨 아직 어리군, 수신(修身)하는 방법도 모르는 바보야 그러면 어떤가? 지지고 볶든 말든 상관 말고 착한 것은 닦고 악한 것은 버리고 자네 할 바나 잘하면 선악이 모두 훌륭한 스승이야. 눈이 하나 뿐인 병신들이 눈을 둘 가진 사람보고 병신이라 할 때 자네는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줄 능력이 없으면 자네 눈이나 애꾸가 되지 않게 보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 곧 그런 소굴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지. 나는 내일 떠나기로 했네.

무거운 절이 떠나느니 가벼운 사문(沙門)이 떠나는 거야. 자넨 수신하는 사람이니 꼭 참고 살게. 누구를 위한 사문 노릇은 아니니까? 스님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헌다히 있을 텐데. 자네같이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걱정하시며 그 다음날 범어사로 떠나셨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會者定離)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어가며 모여있는 모든 것은 꼭 헤어진다」는 진리는 참으로 인간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더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헤어져야하는 운명의 벽에 부딪칠 때 더욱 슬픈 것이다.

이별의 슬픔은 역시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아직 정든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은 깊이 맛보지 못했던 나는 존경하는 강사스님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체험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였다. 스님계선 돌연 지병(持病)이신 위장병이 악화되셔서 부득이 강의를 중단하시고 조용한 암자를 찾아 요양을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 때문이었다.

스님의 급격한 병환은 법주사와 우리 학인들에게 커다란 손실일뿐더러 나 자신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스님없는 강원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나로서는 법주사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스님이 계속 강단에 서길 바란다는 것은 무자비하고 몰염치한 청인 것이다. 떠나시기 전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학인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셨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사장삼은 입으셨으나 시자의 부축을 받으며 강단에 오르셨다. 매우 피로해 보이는 스님의 얼굴에서 병환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전 강원대중은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하게 스님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지막 말씀을 경청하려 했다. 「아마 이번이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오.」 스님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으셨다.

「수년간 강석에서 얼굴을 마주했던 여러분과 헤어진다는 것은 무척 섭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생에 맺은 인연이 이것 뿐이나 어찌하겠소. 그래, 내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모이라 했소.」 한 마디 반 마디가 아픔을 가중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 동안 말을 멈추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나는 여태껏 학문과 이론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왔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었을뿐 실제에 있어 당면한 절박한 상황 속의 인생문제는 아니었소. 즉 사바세계의 많은 고통 중에 애별이고(愛別離苦)를 얘기할 때도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론이지 실제로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게 하지는 못했던 거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심오한 강의도 결국은 수박겉핥기에 불과 했던 게 사실이요. 그래서 나는 이번 내가 여기를 떠나면서 30년 강사생활에 최초이자 최고의 열과 성의를 다한 강의를 체험하게 하고 싶은거요.」

스님의 표정 속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별이 슬픈 것이라고 느껴지거든 쉬지 말고 공부하고 수신하십시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마른 나무도 오래 비비면 불이 나는 것이요.

그러나 바위가 뚫어지기 전에 나무에 불이 붙기 전에 쉬거나 중단하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쉬지 말고, 열심히 정진할지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간곡히 일러두는 바이요. 스님의 교훈은 어느때 보다 차분하고 조리있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한결같이 숙연해 보였다. 아침 공양을 마친 스님께서는

상좌(上佐)인 「시자」를 데리고 조그마한 바람을 짊어지시고 광목두루마기에 방갓을 쓰고 이슬이 축축히 내린 속리산에서 하산의 발길을 재촉하셨다. 그리고 보니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시간도 벌써 몇 년이 지났었다. 나는 나오지 말라는 스님의 말씀을 마다하고 산문(山門)밖까지 전송을 했다.

「이젠 그만 들어가게, 자네들이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마치고 강원을 졸업 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틸려고 했는데...

인간의 육체엔 한계가 있는 법이니 다 인연이지. 오랫동안 강단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스님으로서의 너무나 초라하게 떠나는 길이라 동정이 앞서서 나에게 스님은 오히려 격려와 앞날의 염려까지 해주셨다.

「스님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우린 목멘 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스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나도 초라한 작별의 인사였다.

「울긴— 장부는 눈물을 아껴야 해, 더 큰 슬픔도 있을텐데」스님은 발길을 돌리시고 아침햇살을 받으며 오래 정들었던 산들을 되돌아 보지도 않고 주장자를 끌며 휘적휘적 내려가셨다. 그런 스님의 모습은 모든 수도승들이 평생 수도끝에 맞아야 하는 공통된 모습으로 외롭고 쓸쓸한 길을 외롭지 않다며 걸어야만 할 것같은 나의 먼 훗날을 그리며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다.

나는 큰방으로 들어와 평소에 스님이 가르쳐주신 인도의 용수(龍樹)가 짓고 신라의 원효(元曉)가 소(疏)를 낸 기신론(起信論)을 목청을 돋구어 슬픔을 이기려는 듯 죽죽 내려 읽었다.

언젠가 하신 스님의 말씀대로 무상(無常)을 체념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무상을 초월하는 불타가 되기 위해서라도 가슴을 에이는 아픔을 짓눌러야 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한 인간이 사는 곳엔 그 어디를 막론하고 「절대」란 있을 수 없는 것인 모양이었다. 간단한 예로 절대최선을 제일선에서 실천해야 될 종교인 사회, 그중에서도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사원사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니 이래서 이 세상을 증생이 사는 사바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공림사 선원

아침마다 서문이 감도는 낙영산 밑에 자리 잡은 공림사는 법주사같은 산란함도, 총림같은 복잡함도 없이 안정되고 포근한 분위기가 공림사의 특색이라면 특색이었다. 나는 교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므로 집착을 끊는 방법을 설명하는 강원보다는 번뇌망상을 조복받아 직접 부처님의 마음을 습득하는 선에서 수도하기로 하고 먼저 「공림사」에 와계신 법주사의 화응스님과 상의하여 선원에 방부를 드렸다. 나는 선배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다시 수행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선공부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차라리 강원에서는 유형적인 책이나 보고 외며 지식을 쌓으면 그만이지만 선원에서는 무형적인 마음 정립하여 망상을 조복받고 일체의 집착을 끊어야 하므로 내면적인 자기초극이란 이론과 실천 내지 실증의 차이는 천지 현격한 것이다. 자기완성이란 자기가 무엇인지 의심없이 확연하게 깨달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깨닫는 길은 자기 회의에서부터 비롯하여 일체의 잠념을 버리고 거짓 자아(自我)에서 본연정당한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는 참선수행만이 그 첩경이라고 보면 그게 어렵고 힘든 가지 발길이라고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다. 최후의 하나까지 번뇌란 번뇌는 모조리 쓸어내리고 대자유 대해탈을 얻어 다시는 윤회하는 중생적 고통을 면하려면 누구든 언제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참답고 영원한 자아로의 재전환하는 종교적인 참선수도는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간적인 욕구인 것이다. 마음의 가난을 자아개발로 살찌우고 인간 양심의 폐허를 수도로써 재건하려는 수도승들은 누더기 한 벌에 사치를 다하고 나물밥 한 그릇에 배를 채우며 방석 하나로 욕심을 꺾고 평생을 진리에 계합시키고 너와 내가 합일하는데로 정진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더없이 숭고한 수도승의 대 열 맨 뒷꽂무니에 서서 미숙하나마 길을 걷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걷고 있으며 걸어갈 영원한 진실로 통하는 무한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몰두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밀고 나가는 우직한 성격이란 언제나 피해를 가져오는법 덕분에 감기몸살을 모르고 건강을 자랑하던 신체가 정신력과는 반대로 눈에 띄게 나는 쇠약해 졌다. 찌는듯한 여름철의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에 꼬박 12시간씩 매일같이 좌선(坐禪)을 한다는 것은 아직 초심자인 나로서는 실로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자꾸만 약해진 건강은 정상적인 수행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었다. 나는 짜증이 났다. 아직 선(禪) 공부의 기초도 제대로 닦지 못한 나로서는 약화된 신체적 여건이 정진력(精進力)을 자꾸 퇴화시키는 것이 안타까와서 였다. 그러나 건강은 짜증을 낸다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었다.

수도를 멈추고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시간을 줄이라고 권하는 주위의 염려도 무릅쓰고 강행군을 하여 하루도 어김없이 선을 하던 나는 끝내 해제를 며칠 앞두고 영양부족으로 졸도를 하는 소동을 빚고야 말았다. 한창 무더운 오후 정진 1시간 동안 좌선을 끝내고 선방의 풍습대로 십분 동안 행선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핏 돌며 빈혈을 일으켰다. 나는 아찔함을 느꼈을 뿐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의식이 분명치 않았다. 내가 의식을 다시 회복한 것은 무더운 태양이 지고 땅거미가 찾아드는 저녁 7시경 선방이 아닌 간병실(看病室)에서였다. 내 옆에는 법주사에서 부터 나를 격려해 주시던 화옹스님을 비롯한 자연, 「법연」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음 이제 깨어나는군, 바보같은 녀석, 이대로 죽었으면 어쩔뻔 했노.»

화옹 노스님은 혀를 꼰꼰차며 나무라셨다. 나는 눈만 껌뻍 일본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노스님은 조용한 말로 타이르기 시작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연한 기회에 「마음」은 만물의 조물주요, 우주의 핵심이며 진리의 본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여 출가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찌나 성격이 급했던지 출가하던 그날부터 잠자고 밥먹는 것도 있고 열심히 수도를 했어. 그러나 수도의 끝장인 견성성불은커녕 일주일만에 그만 몸져 눕게 되었지. 그레 부처님께서 병문안을 가셔서 이렇게 물었어. 「너는 출가하기 이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느냐?」그는 비파타는 악사였다고 대답했지. 부처님은 다시 묻기를, 그럼 비파를 타는데 줄을 팽팽히 했을 때와 느슨하게 했을 때와 어느 때가 소리가 제일 잘 나더냐? 하니 그가 대답하길 「팽팽하면 줄이 끊어져 소리가 안 나고 느슨하면 둔탁한 소리로 듣기 싫고, 절묘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적당하게 조왔을 때」라고 대답을 했어.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행도 그와 같으니 고행주의는 사람 몸을 해쳐서 수행을 방해하고 쾌락주의는 정신을 나태케 해서 수행을 해치니 너는 수행해감에 있어 「비파」처럼 양쪽에 치우침 없이 몸과 마음을 돌보며 하라. 이것이 수행의 묘(妙)요, 중도(中道) 나라』고 하셨어. 「물론 수도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굶는다고 잠 안 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이 마음이니 자넌 해제 때까지 병실에 누워서 와선(臥禪)이나 하게. 그럼 몸조리나 잘해」

화옹스님의 목소리는 자식없는 할아버지가 모든 젊은이들을 염려해주는 그런 애정있는 음성이었다. 나는 몸조리나 잘 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한없는 정을 느꼈다. 스님과 도반들의 정성어린 간호로 일주일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으나 그 후에 나는 절대요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시간생활을 할 수 없어 불붙는 수도열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조락(凋落)의 계절 가을이 왔다. 가을이라는 건조한 단어가 웬지 쓸쓸해 지는 것은 가슴에 젖어드는 허무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해의 가을은 너무나 가슴 아픈 가을이 되었다.

낙엽이 사뿐히 발밑에 떨어지는 날이었다. 화옹스님은 무슨 생각에서였던지 나를 부르시더니 스님께서 평생을 입고 살아오신 「누더기」를 벗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좋은 옷을 헤드리니 누더기를 벗으시라고 해도 한사코 고집으로 누더기를 입으시던 스님이라, 내가 의아해 하자 스님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으며 이젠 누더기와도 인연이 다했나보이. 누더기는 나의 욕심의 전부였지. 평생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수도승이 남길 유산은 누더기뿐이다. 그러나 어차피 이 육신도 버릴 것인데... 자넌 법주사 때 누더기를 달라고 졸랐지 이 누더긴 30년전 어떤 노스님께 물려받은 거야. 조용히 깨끗이 살고가. 누더기를 입는 사람은 그래야 돼」라고 무엇을 암시하는 듯 하는 것이었다. 나는 유산이란 말이 좀 쓸쓸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무심히 들어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경험이 없는 탓으로 범한 어리석음이었다. 스님께서는 그 다음날 당신이 쓰시던 일체의 일상지물을 모두 소각해 버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나가셔서 법체를 깨끗이 씻고 법복을 단정히 입은 다음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입적하신 것이었다. 방선시간이라 쉬고 있던 대중에게 어느 관광객이 달려와서 웬 스님이 바위 위에앉아서 죽어있다고 알려주는 소리를 듣고 혹시 「화응」스님이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간 것은 나였다. 예측대로 청량골(淸涼窟)을 반듯이 펴고 좌선을 하듯 앉아서 입적하신 것은 스님이었다.

그 잠들듯한 깨끗한 모습은 숨만 쉬다면 산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시며 정정하시던 스님을 보고 우리는 백수(白壽)는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삶과 죽음의 차이가 이렇게 순간적이고 가까울 수가 있을까? 뒤늦게 달려나온 대중들도 깜짝 놀라며 감히 시신(屍身)에는 손을 못 대고 염불만 할 뿐이었다. 태어날 때는 예고가 있어도 죽을 때는 예고가 없는게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사파와의 인연을 끝맺을 줄은 너무 나도 천만 뜻 밖의 일이 었던 것이다.

고래로부터 수도를 많이 한 선승(禪僧)들은 생사를 자유자재하여 좌탈입망(坐脫入亡)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평생을 누더기 한 벌로 아무 욕심없이 살며 빈 손으로 온 인생인데 빈 손으로 세상을 살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게 수도승의 본색이라고 늘 말씀하던 스님의 돌연한 입적은 스님의 일상의 생활선조인 「무집착의 생활」과 연관시켜 볼 때 참으로 40년 수도승다운 숭고한 종교적 죽음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생사의 굴레를 초월하여 선택된 죽음의 세계로 입적한 스님의 시신을 거두어 절차에 따라 다비작법(荼毘作法)으로 장례식을 봉행했다. 화장을 모신 뒤 우리는 스님의 뼈도 남기지 않고 기왓장에 갈았다. 스님은 한과의(果實)의 사리도 남기지 않고 가셨다. 다 갈린 뿔가루는 평소예 스님을 따르던 후배들의 손에 의해 구성된 염불 소리 속에 낙엽이 덩구는 낙엽산 기슭에 뿌려졌다. 산이 정기(精氣)가 좋으라고. 이것으로 깨끗한 평생을 살 고간 화응스님의 모든 생애는 조용히 끝난 것이다.

일체의 희비애락은 죽음이란 어두운 장막이 내림으로써 모두 끝난 것이었다.

대중들이 먼저 돌아간 다음 나는 우두커니 스님의 유해가 뿌려진 낙엽산 기슭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지금도 어디에쯤 서서 나를 보시며 그 자비한 웃음을 웃고 계실 것 같았다.

나는 입 속으로 「화응스님, 관세음보살 ...」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죽음이 주는 의미가 허무라면 쓸쓸 그 쓸쓸함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스님, 편히 쉬소서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겠지요. 나무아미타불— 인생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종말 지어지는 것이지만 시간만은 종말을 모르고 계절을 이끌고 초겨울로 치닫

고 있었다. 침묵 속에 잠긴 채.

나는 또 한분의 존경하는 스님을 어디론가 보내버리고 스님의 따뜻한 입김이 손길이 마음이 누벼져있는 누더기를 입고 기억을 망각하는 「무집착의 생활」수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세속사람이 보는 기준에서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없이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이기도 하지만 일체를 체념이 아닌 초월로 승화시키는 생활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좀 더 진실에 접근하려는 몸부림의 잘라에서 영원으로 통하려는 인간힘의 생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진실하게 접근하고 영원으로 통하려는 시도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는 방해물은 가끔 수행자들을 좌절시키기까지 하기도 한다. 칠전팔기의 용기가 없으면 정말 힘든 고행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찾아가본 적 없는 길을 찾아가기란 장님이 설악산을 오르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각자에게 길을 묻고 격려를 받으며 수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느 때와 같이 관람객에 안내를 하고 내 방에 들어와 숨처럼 영긴 피로를 책으로 풀곤 했다. 독서는 법주사 이후 버릇처럼 되어 매일저녁 책을 읽지 않으면 못 잘 정도로 버릇이 되어 버린 습관이었다. 마루에 귀뚜라미가 고요를 깨고 하루종일 떠나갈듯 시끄러웠던 경내는 태풍이 지나간 뒤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킴과 같이 어두운 밤의 장막이 내려 무서우리만큼 무거운 정적 속에 공립사를 휩싸고 있었다. 나는 촛불 밑에서 등화계절을 몸소 느끼거나 하려는 듯 책을 읽고 있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똑 그치더니 마루를 밟는 소리와 함께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가 났다. 밤이 되며는 아무도 나를 불러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어 얼른 대답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똑, 똑똑,」 다시 노크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법해수좌 나와 나. 들어가도 괜찮아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반 B였다.

「음 무슨 일인지 들어와, 법연은 문을 열고 싱글싱글 웃으며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응 저밖에 학생들이 왔어」 낮에 안내하던 법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학생 이리 들어와요.」 법연은 밖을 내다보고 조용히 말했다.

「실례합니다.」 깎듯한 인사를 하고 들어온 사람은 흰 칼러가 눈에 부시도록 빛나는 여학생 두 명이였다. 무슨 일로 왔는지? 우선 자리에 앉아요. 좀 지저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보다 저 죄송스런 부탁을 하러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녀들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했다.

「무슨?」 애들이 낮에 시간이 없어서 안내를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얘기들으러 여관에서 몰래 빠져왔는데 지금 저쪽에 한 30명 와있어요. 법사님 내일이면 우린 떠나요. 죄송하지만 꼭 해주세요. 애들이 법사님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안경을 낀 학생이 받았단다

「응, 알았어. 학생들이 어디 있지?」

「일주문(一柱門)의 근처에 있어요.」

나는 학생들이 있는 데로 갔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중 한 학생이 생글생글 웃으며 낮에 들려주신 얘기가 하도 재미있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불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야단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법사님 우리 학교에서 소승 불교와 대승불교를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설명해주세요. 시험에도 냈어요.」

「그러죠. 실속파 학생들인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란 불교의 소극성과 적극성을 대표하는 불교사상들인데 쉽게 말해 소승불교는 작은 수레이고, 대승불교는 큰 수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는 얘기를 시작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승불교란 택시나 자전거와 같아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몇몇 소수가 자기 혼자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혼자서만 평안 찾고 피안에 이르는 주의를 말하며 대승불교란 기차나 버스와 같이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자는 주의를 말합니다.」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 학생들은 강의실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하고 진지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란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불교요, 소승불교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승불교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다른 어디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제물로 희생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대승불교 사상이 우리에게 널리 보급된다면 남북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통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향은 자기 몸을 태우므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여러분에게 내 독서시간을 뺏기면서까지 얘기 해 주는 것처럼.」

여학생들은 내 얘기에 까르르 웃었다. 맨 처음에는 30여명 밖에 안 되던 학생들이 한 백여명 가량이나 모여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대승불교의 실천행인 「6바라밀」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을 실천해 옮기는데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보시」라는 것으로 많은 중생에게 보수나 댓가없이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 정신적인 용기, 무엇이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 행위는 깨끗하고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주는 것처럼 누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계」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사는 공동세계에서는 각자가 도덕생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만큼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적 국민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정말로 실천하기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려면 참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용」이라 합니다. 그 다음은 「정진」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항상 노력하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또 다음은 마음을 안정하여 명상하는 「선정」이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반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설법을 하고 있었다.

「이런 짓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당연한 얘기라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를 학문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밀」이란 여섯가지 방법을 실천에 옮기면 꼭 피안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니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진리는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단니까 나의 긴 얘기가 끝나자 학생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학생들은 석별의 인사를 하고는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졌다.

금붕어, 열대어 가르는 법



김남기

● 금붕어 기르는 법

1. 금붕어의 종류

현재까지 우리들이 기를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는 영국 박물관의 보고에 의하면 약 3,00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금붕어가 20종, 열대어가 2백 종가량으로 나머지는 일반 담수 어 기타 해수어에 속한다. 이러한 금붕어는 고정종(固定種)과 잡종(雜種)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화금(和金)

화금의 모양은 일반 붕어와 같이 몸이 좁고 길며, 나래와 꼬리는 짧다. 다만, 꼬리가 세 꼬리로 된 점만 다르다. 색깔은 붉은 것, 붉고 흰것이 섞인 것 흰것 등이 있는데 흰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화금은 강하고 번식도 많아 일반이 기르기 쉬우며, 이것을 영국명으로는 콤만·피쉬(Common Fish)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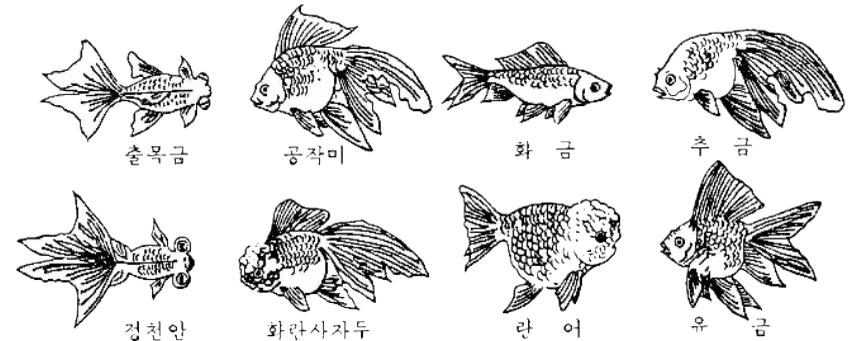
2) 유금(疏金)

화금보다는 고급종으로 모양이 둥글고 길이는 짧고, 나래와 꼬리가 넓고 길다. 그리고 등지느러미가 특히 높아 전체를 한층 더 아름답게 하며, 꼬리는 세 꼬리, 네 꼬리로 자랄수록 아름답다. 색깔은 화금과 같으며, 이 종류와 비슷한 것으로 유금사자두(疏金獅子頭)가 있다.

3) 난어(蘭魚)

보통 난충(卵虫)이라고 불리우는 고급어로 어항 속의 여왕이다. 몸의 모양이 둥근 편이고 등지느러미가 없고 꼬리와 나래가 짧고 머리에는 육류가 발달되어 있다. 색깔은 누런색, 붉은색,

붉은색과 흰색의 얼룩, 흰색 등이 있다. 아름다운 반면 약하기 때문에 기르기가 어려운데 비슷한 종류로 화란(和蘭) 사자두와의 사이에서 생긴 추금(秋錦)이란 것이 있다.



4) 출목금(出目金)

눈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특징인데 몸의 모양이 화란사자두에 가깝고 나래와 꼬리는 길고 짧은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붉은 것, 검은 것이 있는데 보다 나은 것으로 삼색으로 된 것과 눈이 뒤로 튀어나온 정천안(頂天眼)이 있다. 눈이 튀어나온 반면 시력이 극히 약한 이 붕어는 몰려다니는 일이 없고, 언제나 수면 수저에 정지하여 있을 때가 많다.

5) 공작미(孔雀尾)

화금과 비슷한 몸모양에 꼬리가 진기하게 공작의 것과 같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것이다. 색깔은 흰색에 나래만이 붉다.

6) 동금(東錦)

화란사자두와 삼색출목금과의 사이에서 생긴 것으로 몸의 모양은 사자두와 같고 색깔은 잡색으로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이 섞인 것이 있다. 모양과 색깔이 아름답지만 색깔이 선명치 못하다.

7) 주문금(朱文金)

삼색출목금, 화금 및 붕어의 세 종류 사이에서 생긴 고정종으로 잡색성의 붕어 중 가장 색깔이 선명하며 아름답다. 몸의 모양은 가늘고 긴데 꼬리는 외꼬리로 몸의 길이에 비해서 훨씬 길기 때문에 스마트한 맛을 보여준다.

2. 금붕어의 선택법

금붕어의 종류에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려면 모양이 좋지 않더라도 강한 것을 주로 선택하고 대개 잡색성이 좋은데, 삼색유금, 주문금 등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쌍을 맞추려면 어린 것을 구할 때는 최소한 한쌍을 얻을 수 있도록 4마리 정도는 길러야 하는데 암수의 구별은 대개 3년생이 되어야 완전할 수 있다. 이 성의 구별은 자웅의 생식기의 차이, 모양의 차이 등으로 구별하는데 암컷의 생식기는 둥글고 밖으로 약간 돌출한데 반해 수컷의 것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암컷은 짙막한 몸길이를 갖고 수컷은 대개 몸이 긴 편이다. 특히 산란 전에는 암컷이 알을 가져 배가 부르기 때문에 판별이 용이하다. 산란을 주로 하기 위해 선택할 때는 보통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정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붕어의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에 관한 것인데 병어(病魚)는 재 수명대로 살지 못하니 모양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몸의 발달이 일정하지 않다든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것, 배가 몸에 비해 몹시 큰 것 등 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조화되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한다.

3. 용기(容器)와 기구

일반적으로 금붕어를 기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는 유리로 된 둥근 어항과 네모진 어항이 있는데 둥근 것은 금붕어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으나 사람의 시력에는 지장이 있으며, 쇠붙이나 나무, 시멘트 등으로 만든 곳에서 기를 때는 독소를 충분히 없앤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금붕어를 기르기 위한 기구의 종류는 뜨기, 고무호오스, 소제구 등이 있는데, 뜨기는 금붕어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철사예다 망사를 감아서 만든다. 고무호오스는 대개 물을 갈아주는데 사용하는데 이때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도 소제하여 주며, 소제구는 어항 속을 소제할 때와 어항에 붙은 더럽게 된 이끼를 소제할 때 사용하는데 어항 속 소제 때는 비베트를, 어항의 이끼를 소제할 때는 면도날을 꼬챙이 끝에 달아 사용한다.

4. 금붕어의 먹이

금붕어의 먹이를 자연사료(生飼)와 인공사료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연사료에는 금붕어의 새끼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물벼룩과 장구벌레, 먹이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지렁이 등이 있고, 인공사료에는 고기의 가루, 누에의 번데기, 말린 새우와 물벼룩 등의 동물 성인과 밀가루, 겨, 비지 등의 식물성이 있는데, 금붕어는 어린 때에는 단백질을 많이 취하고 클수록 감소시켜야 한다.

또 먹이의 양은 3년생 이상과 이하의 것으로 구별해서 3년생 이하의 것은 그 붕어의 머리 크기만큼, 3년생 이상의 것은 머리 크기의 절반쯤을 각각 매일 안정한 횟수로 나누어 조금씩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항의 크기와 금붕어의 수

어항의 크기	길이 3cm의 금붕어	길이 5cm의 금붕어
1 호 (길이 1.2자×높이 0.8자 ×폭 0.8)	4마리	1마리
2 호 (1.3×10×0.8)	4"	1"
3 호 (1.3×10×10)	5"	2"
4 호 (15×10×0.8)	6"	2"
5 호 (15×10×10)	7"	3"
6 호 (20×10×10)	15"	4"
7 호 (20×12×12)	20"	6"
8 호 (30×15×15)	50"	10"
9 호 (30×20×15)	50"	15"
10 호 (40×20×20)	80"	25"

5. 기르는 법

금붕어를 기르는 데는 용기와 물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물물, 수도물, 펌프물 등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일장일단이 있다.

수도물은 소독제로서 염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12~24시간 햇빛에 쬐이면 되나 우물물과 펌프물일 경우에는 온도차가 심하고 산소의 용해량이 적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 또한 물을 갈아주는 횟수는 금붕어가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고, 적을 때에는 15일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데,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5°C~20°C로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의 양은 적고 낮을수록 산소의 양은 많아진다.

한편 번식을 위해서는 어미될 붕어의 선택과 수초의 준비가 필요한데, 어미붕어는 3년생인 것이 가장 좋고 6년 이상의 것은 산란에는 적당치 못하다

또한 수초는 밑바닥에서 위로 세워놓는 것이 좋는데 수초를 넣었는데도 산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어미붕어를 잡아내어 따로 수용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넣어준다. 금붕어는 1년에 3~4회 산란하는데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따뜻한 때로 물온도가 18도 이상일 때에 산란을 하고, 겨울 동안은 알을 만드는 시기가 된다. 산란은 새벽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미붕어는 산란이 끝나면 알을 먹을 염려가 있으므로 따로 수용하여야 하며, 일단 산란이 끝나면 수컷이 그 위를 다니며 사정을 한다. 이러한 행동이 몇 번 되풀이 되면 끝나는 것이다. 산란이 끝나면 알을 이동시켜 다른 그릇에 부화시키는 것이 좋다. 부화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8도 정도이면 3일이면 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화한 것은 10일 동안은 물도 갈지 않고 먹어도 주지 않다가 그 후에는 인공사료나 물벼룩을 넣어주면 가장 좋다. 이때 새끼 붕어가 어느정도 자란 후가 아니면 어미붕어와 같이 넣지 않는다.

6. 병의 종류와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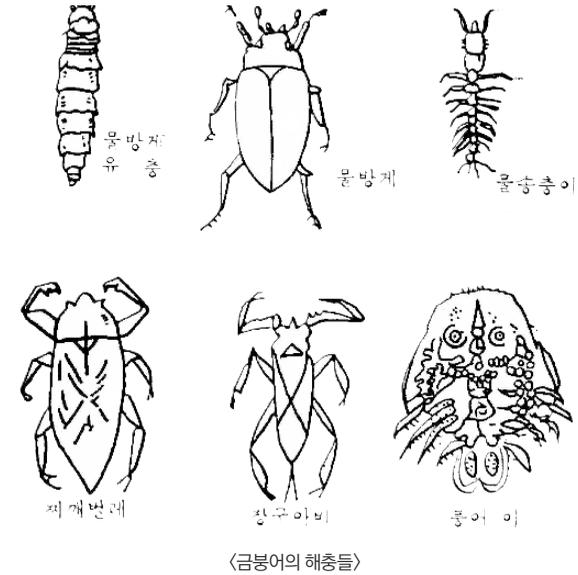
무엇보다 먼저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어장이나 행사인에게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염수로 소독을 하여 병원충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수초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평시에 건강하게 길러야 하며, 너무 좁은 곳에 많은 수를 넣지 않아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뜨기를 사용하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료를 사용할 때 같은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말고 생이를 같이 사용해야 하며, 수질이나 수량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한편 대체로 금붕어가 건강할 때에는 색깔이 선명하고 모여다니는 것이 보통인데 몸에 불편

이 생기면 식욕을 잃고 홀로 따로 떨어져 수면이나 수저에서 정지하고 만다. 또한 등지느러미를 펴지 못하고, 변의 색깔은 푸르고 검은색으로 길게 늘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색깔이 흰 것과 마치 한천(寒天)과 같이 늘어진 것 등은 병이 있다는 표시이다. 이와같은 징후의 발생을 뒤도록 빨리 발견하여 따로 내어 절식(絶食)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백점병(百點病 Ichth ybphthirius)

이 병에 걸리면 마치 소금을 덮어쓴 것같이 온몸에 흰점이 생기는데 내버려 두면 일주일 내에 죽는다. 강한 전염성을 가진 이 병은 발견되는 즉시 따로 떼내어 치료하는 한편 어항도 전부 소독해야 한다. 병원충은 붕어와 표지 밑에 숨어들어 기생하는데 기생한 충은 붕어로부터 영양을 취하고 자라서는 붕어로부터 떨어지는데 한 마리의 병원충은 500~2,000마리 새끼로 되어 수중의 붕어를 찾아다닌다. 병원충이 기생하는 기간은 25도 정도의 수온이면 한달 이상을 30도 이상이면 2, 3일에 성숙하여 붕어의 몸에서 떨어진다.



치료법은 1갈론의 물에 어큐름 4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는 요법도 있으며, 물 1갈론에 5% 메찌린부루 두 방울을 떨어뜨려 수온을 30도 가량 올려주면 약 일주일 후에 낫게 된다.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물 1갈론에 대하여 0.5 그레인(0.032g)을 기준으로 물에 완전히 용해시켜 사용하면 일주일 후에 완치된다. 붕어의 병 중에서 이 병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다른 병은 극히 쉽

다.

2) 송피병(松皮病 Dropsy)

비늘이 마치 솔방울처럼 일어나는데 그것은 비늘 밑의 액이 뭉쳐 비늘을 밖으로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 병에 걸리면 일주일 내지 삼주일 내에 죽게 되는데 전염성이 없으나 아직 치료법이 연구되지 않았다.

3) 고기이병(魚虱病)

보통 금붕어의 이(虱)로 알려진 번식력이 강한 벌레로 생기는 병이다.

연중을 통하여 6월부터 9월까지에 이르러 제일 많다. 요법은 식염수, 약품등을 사용할 때가 있으나 핀셋 등으로 잡아주면 된다.

4) 아가미병(鰓腐病)

새끼에 많이 보이는 병으로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다. 아가미 두께가 부어 오르는데 요법은 수온의 변화가 원만한 곳에 안정시켜 2%의 식염수를 이용한다.

5) 수생균병(水生菌病)

붕어의 알이나 죽은알 등에서 보이는 솜모양의 균으로 붕어가 약할 때나 몸에 상처가 있을 때 걸리기 쉬운 것으로 요법은 식염수로 한다.

6) 적반병(赤斑病)

혈관이 충혈하여 붉은 반점을 이루는 이 병은 붕어를 곧잘 죽게 한다. 물이 극히 불결하든지 너무 많은 수를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요법은 맑은 물에 이동하여 안정시키는 수 밖에 없다.

8) 한위병(寒胃病)

급격한 수온의 변화로 발생한다. 물 위에 흰 막과 점액이 나타난다. 요법은 청수에 안정시키거나 식염수를 이용한다.

9) 기포병(氣泡病)

수중에 용해된 산소과다로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리면 배에 기포가 붙고 붕어는 거꾸로 되집어 늪게 된다. 요법은 냉수에 넣어 시원한 곳에 두어 치료한다.

● 열대어 기르는 법

열대어의 산지라고 하면 열대지방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즉 열대지방을 필두로 아열대지방, 온대지방의 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열대어를 기르는 취미와 재미있는 점은 다른 물고기에 비해 모양이 여러가지로 재미

있고, 비교적 빛깔의 변화가 많으며, 비교적 좁은 곳에서도 기를 수 있으며, 번식이 대부분 간단하다는 점 등이다. 더우기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서는 손쉽게 기르고 번식시킬 수가 있다.

1. 처음 기를 때의 준비

먼저 열대어가 살 집인 어항은 물만 새지 않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면 빛이든지 좋으나 철분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일이 많으며 또한 자라는 정도에 따라 크게 자랄 종류일 때에는 어릴 때부터 큰 어항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또 수초를 심고도 어항 속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래는 굵고 가는 것을 함께 사용하여 풀이 잘 뽑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열대어를 기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온인데 대개 보온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히타」를 사용하여 어항속의 물을 직접 올려주는 직접보온 방법과 어항을 보온함에 넣어서 온도를 높여주는 간접보온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간접보온 방법이 더욱 적당하겠다.

또한 열대어를 기르기 위해서 사용 되는 기구 중 가장 필요한 것만 들면 먹이통으로, 먹이통은 대개 생이(生餌)를 사용할 때에 쓰이는데 유리로 되어 어항에 부착시키는 것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어느 것이라도 주관하며, 수초를 짜르는데 필요한 가위, 유어(幼魚)에 모이를 줄 때나 착균란(着菌卵) 등의 배합에 사용되는 「스포이드」, 수온계, 난방장치에 사용할 온도계 및 최고 최저 온도계, 그리고 유리담이와 뜨기, 피스톤 식으로 된 산소공급기, 수중의 먼지를 제거하는 필터 등이 가장 필요한 용구이다.

2. 열대어를 취급할 때의 주의

수온의 일정한 유지는 열대어를 기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섭씨 25도로 균일히 해주면 된다. 그러나 병이 들었거나 산란기에는 반드시 30도 정도로 올려주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적온은 25도이나 생존가능의 한계는 15도부터 35도까지이다.

그러나 수온이 5도 이상 급변할때는 열대어는 죽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는 2도 이상의 급변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수온의 급격한 변화는 병의 원인이 되고, 또 항상 수온을 30도 정도로 해주면 성장은 빠르나 빨리 노치되고 수명이 짧아진다. 보온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산소의 용해량인데 이것은 수온에 따라 다르고, 또 수초의 유무, 수면으로부터의 산소용해의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 수초를 많이 심고 적당한 광선

을 적도록하고 모이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

1) 열대어를 살 때의 주의

- ① 습성을 잘 알아야 한다.
- ② 같은 배일 때는 그 중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 ③ 색깔이나 모양에 특징이 있는 열대어는 그것이 선명한 것을 택한다.
- ④ 기형으로 생긴 것은 피해야 한다.
- ⑤ 암수의 한 쌍을 사도록 하되 사이가 좋은 것을 택한다.
- ⑥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같이 기를 수는 없다.
- ⑦ 상처가 없고 병에 걸리지 않은 것
- ⑧ 너무 나이가 많아서 노쇠한 것은 활동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열대어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수초 등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이동시킬 때의 주의

- ① 수온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릇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경우라면 「비닐」봉투라도 무방하나 특히 겨울에는 보온병을 사용하거나 상자의 들레를 솜으로 싸고 그 속에 건전지를 넣어서 보온을 하면 가장 안전하다.

- ② 수질이 변화하지 않을 그릇

음식물이 들었던 병을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로 씻은 다음에 사용 하는데 이때 병 뚜껑의 안쪽을 씻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③ 간단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 이 밖에도 신경이 날카로운 열대어는 머리를 유리병에 부딪쳐서 죽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 들레를 종이로 감아준다. 이렇게 가지고 온 열대어를 그냥 온도차가 있는대로 어항 속에 넣고 말고 만약 3도 이상의 차가 있을 때는 담은 봉투나 병을 어항 속에 담그었다가 꺼내준다.

3) 조명하는 방법

자연상태에 있었서의 조명은 수초와 열대어에게 유익하나 너무 강할 때는 유리에 이끼끼고 물이 녹색으로 변하여 열대어를 볼 수 없다가 심하면 모두 죽어 버린다.

그러므로 인공조명 중의 형광등은 보다 효과적 이다. 형광등은 수초와 열대어를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으므로 어항의 크기와 W수를 고려해서 보통 어항의 위에 장치하는 것이 좋다.

4) 함께 기를 수 있는 열대어와 기를 수 없는 열대어

열대어는 한 종류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같이 보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 그렇다고 아무 거나 함부로 같이 놓고 기를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엔젤」과 「스마트라」가 있는데 「스마트라」가 「엔젤」의 수염을 쫓기 때문에 「엔젤」이 약해져서 모이도 먹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베타」는 투쟁력이 강한 대표적인 투어(鬪魚)로써 숫놈끼리 같이 두면 서로 싸우고 죽이며, 「부루구라미」는 커지면 상당히 사나워지고, 「쥬엘 피쉬」는 사이가 나쁜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로 몸집이 크더라도 덤벼들고 「블랙 샤크」는 자기보다 큰 고기라도 배를 물어뜯는다. 이 밖에 혼영(混泳)을 시켜봐서 다른고기에 해를 미치면 격리시켜야 한다.

3. 먹이의 종류와 주는 법

먹이는 인공사료와 자연사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사료는 동물성과 식물성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분말과 정제가 있다.

생이(生餌)로는 실지렁이, 장구벌레, 물벼룩 이외에 「화이트 웜」(White—Worms) 「마이크로 웜」(Micro—Worms) 및 「인프저리아」(Infusoria) 등이 있다. 또한 새끼의 먹이로 사용되는 것 중에는 「브라인 시림프」(Brine Shirimp Eggs)라는 것이 있다.

먹이는 소량으로 자주 주되 새끼일 때는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잘라주어야 하며, 생이를 줄 때는 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아구리 후라빈」으로 소독한 후 먹이통에 꼭 넣어줘서 밑바닥에 떨어진 먹이가 모래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병의 처치와 해충

1) 병의 종류와 치료

- ① 백점병(白點病)

열대어에 가장 많은 병으로 대부분의 병은 이것인데 금붕어와 병과 같다.

- ② 구면병(마우스 황가스)

입 들레에 곰팡이가 생기고 전염물이 몹시 높는데 이 병에 걸리면 모이를 먹지 못해 체력이 약화되어 죽는다.

치료법은 「옥시폴」 원액을 부드러운 붓에 묻혀 입에 바른 즉시 닦아주는데 이때 단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약기운으로 죽고 만다.

- ③ 영양실조증

부화한 유어에게 불규칙하게 모이를 주면 발육이 불량하여 몸이 작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항상 배가 부르지 못한 열대어는 다른 어항에 격리시켜 여러가지 모이로 바꿔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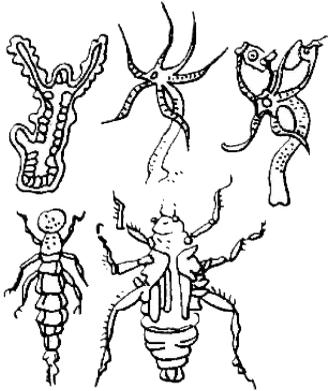
- ④ 지방과다증

너무 지방질이 많은 모이를 주어 시일을 오래 끌게 되면 죽는 일은 없지만 간장 근처에 갈색 점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증상이다.

⑥ 변비

모이를 주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건조한 모이를 오래 주게 되면 식욕이 없어지는데 이때는 「파라핀 오일」에 모이를 적셨다가 주면 된다.

2) 해충의 종류와 그 처치



잠자리의 유충

① 히드라(Hydra)

언뜻 보기에 민들레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번식이 빨라 한 마리만 어항에 들어오면 며칠 지나 가득히 번식 한다.

「히드라」는 촉수로 고기를 감아서 독을 주사하여 마비시킨 다음 잡아먹는다.

⑤ 붕어 이(魚虱)

원형의 해충으로 물 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물고기의 몸에 붙어 기생하는데 3마리 정도의 크기이므로 쉽게 발견하여 핀셋으로 집어내면 된다.

③ 잠자리의 유충

보통 고기보다 상당히 느리게 헤엄쳐 다니므로

곧 눈에 띄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고기도 잡아먹는다.

④ 방계의 유충

큰 것이 들어오면 곧 눈에 띄어나 작은 것은 눈에도 잘 띄지 않고 여러모로 피해를 준다.

5. 수초와 달팽이

수초는 열대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뿌리를 모래에 박는 침수종(沈水種)과 부수종(浮水種)의 2가지가 있다.

침수종에는「사지타리아 나단스」「자이안트 사기타리아」「사기타리아 부수다라」「마이크로 사기타리아」「아마존 스위트 푸렌트」「아나가리스」「가봄바」「미리오 휘람」「루뒤키아」「하이구로휘로」「위타스 프라이트」「크리프트 고라인」「스파다 독」「해야 그래스」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부수종에는 「리시카」「위타 편」「위타 레다스」「위타 히야신스」 등이 있다.

수초를 번식시키려면 수온, 수질, 광선 등이 중요하며 비료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열대어의 배설물이 보통은 비료의 역할을 하게된다.

또 어항에 달팽이를 넣는 경우는 관상용과 청소용으로 구별되는데 어떤 종류의 열대어는 이들을 잡아 먹어버리기도 한다.



마다가스트 레느리프 푸렌트



6. 종류에 따른 사육법

1) 태생(胎生) 송사리과

① 구피: 열대어 중 맵시가 가장 곱고 생존력이 강하며 잘 번식하는 것인데 숫놈의 빛깔은 천

차만별이라 눈을 현혹케 한다.

한달에 10마리 이상 수십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낳는 즉시 분리시키지 않으면 먹어버릴 염려가 있다 길이 2~5cm 이며, 적온은 20°C~30°C이다.

② 「블랙 모리」: 수질에 저항이 약하고 초색성(草色性)이며 검을수록 우종이다. 수초가 뜬 오래된 물에 이끼를 끼워 햇볕에 내어놓고서 수온 25°C~28°C를 유지하면 좋다. 길이 4~6cm로 야채의 속잎을 데쳐주고 식염을 약간 풀어준다.

이상에도 「바리아터스」 「스워드 테일」 「플라티」와 「구피」의 신종인 「스워드 구피」 「리봉 레스 구피」 「환테일 구피」 「자이안트 구피」 「골든구피」 등이 있다.

2) 카라신과

① 「네온 테트라」: 카라신과를 대표할만한 고온 것으로 네온과 흡사한 빛깔을 내고 있으며 번식에 강하고 병에 잘 걸리지 않아 초보자라도 기를 수 있다. 길이가 3~4cm이며 물의 적온은 25°C이다.

② 「헤드 갠드 테일 라이트 피쉬」: 빛을 윗쪽에 대고 보면 눈과 꼬리의 부분이 금빛으로 번쩍 거리는 귀여운 열대어로서 길이가 5~10cm이며 수온은 25°C에서 잘 자라며 번식도 웬만하다.

③ 「아노스트머스 아노스토머스」: 열대어 중 가장 체구가 큰 것으로 큰 수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몸이 검은나 옆에서 보면 금색 띠가 두 줄기 꾸불꾸불하게 있으며 등 가까이도 띠가 보인다. 등과 꼬리지느러미는 색이 붉으나 그 나머지 지느러미는 얇은 코발트색이다. 가만히 있는 자세가 야릇하게도 전후좌우로 움직이고 있어 재미있으며 입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를 받아 먹는 꼴도 볼만하다. 길이 12~15cm로 수온은 26°C가 좋다.

이밖에도 「팬슬 피쉬」 「피라니아」 「몽크후오샤」 「산타마리아」 등이 이에 속한다.

3) 잉어과

① 「라스보라 헤테로모루화」: 「네온 테트라」 만큼 아름답기로 이름있고 크기도 같은 것으로 하반신에 검은 삼각형의 무늬가 있다. 대체로 튼튼한 편이나 백점병에 걸리기 쉽고 26°C의 수온을 유지하면 번식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② 「제브라 다니오」: 잉어과의 「구피」라는 별명이 있어 번식이 강하고 생존력도 강한 길이 4~5cm 길이의 것으로 한 두마리보다는 여러 마리를 한데 기름으로써 진가가 나타난다. 줄기가 몇 줄기 가로로 있고 눈이 어지러운 정도로 돌아다니는 활발한 열대어로 적온은 25°C이다.

4) 투어과(鬪魚科)

이름대로 성질이 거칠어 같은 수조에 다른 종류를 넣어두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우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몇 종류는 오히려 더 온순하다.

이 투어과의 열대어는 수면상에 입을 쳐들고 직접 대기의 숨을 쉬는 특징이 있으며, 알을 낳을 때는 숫놈이 수면에 수포를 일으켜 그 안에 알을 부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① 「베타」: 투어의 대표적인 것으로 숫놈끼리는 서로 물어 죽이므로 어항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색채가 곱고 숫놈은 유난히 지느러미가 길어 열대어 중에서도 손꼽을만큼 아름다운 종류이다. 길이 5~8cm로 28°C가 적온이다.

② 「크로킹 구라미」: 열은 다색의 색깔로 자주, 파랑, 초록이 얼룩대는 5cm 길이의 고기로써 소리를 내어 울 줄 아는 것이 특징이다. 수온은 27°C가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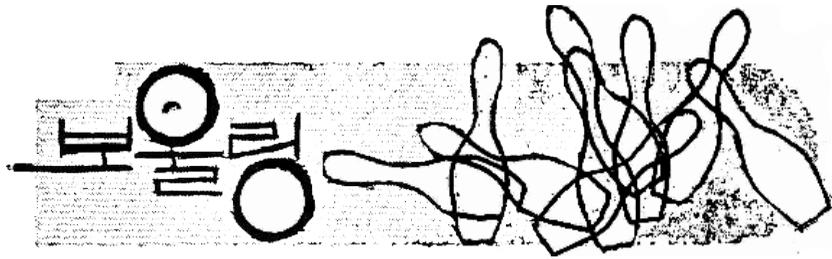
또한 「파라다 이스 피쉬」 「드와프 구라미」 「부루 구라미」 등이 투어과에 속하는 것들이다.

5) 시크리드과

이과의 열대어는 대체로 체형이 크고 널리 알려진 「엔젤 피쉬」나 「디스카스」 같은 호화로운 열대어이다. 알을 낳으면 암·숫놈이 맞붙어서 부화시키는 습성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부가 뜻이 맞지 않으면 부화시킬 수가 없어 다른 짝을 찾아다닌다.

「엔젤 피쉬」: 체형이 특이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률이 높다. 암수의 짝이 맞으면 알을 낳고 부화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방해물은 모조리 쫓아버려 필사적으로 새끼를 보호하는 습성이 있다.

같은 과에 속한 것으로 「디스카스」 「부루 아카라」 「화이어 마우스」를 들 수 있다.



이영

쭉 뻗은 「레인」위에 “콧”하며 부서지는 「핀」들의 난무와 그 통쾌한 음향은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학문명 속에 물질문명의 노예로 전락되어가는 현대인들의 각종 스트레스나 그에 따른 욕구불만을 해소시키는 돌파구가 되고 있다. 구미각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보울링이 대중스포츠로 성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0년도를 기점으로 현재 대중화에 한창이다.

이번 지면에는 보울링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와 간단한 기술습득요령 및 기본상식을 소개함으로써 보울링에 취미를 갖고자 하는 독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보울링 (Bowling)의 역사

보울은 나무로 만든 공이라는 뜻이고 보울링은 이 보울을 굴린다는 말이다.

움직이지 않은 물체를 보울을 굴려 넘어뜨리는 놀이는 원시시대에도 있었다. 선사시대의 동굴생활인들은 보폭한 돌을 일렬로 세워놓고 둥근 돌을 굴러서 넘어뜨리는 놀이를 했다. 또한 원시인들은 적의 두개골을 보울로 삼아 현대의 「보울러」(Bowler)들처럼 눈알이 박혀 있던 자리에 손가락을 끼워 두개골을 굴렸다는 끔직한 전설이 있다.

현대 「보울링」의 기원은 13세기경 영국의 「잔디 위의 보울링」이란 게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게임은 커다란 나무공을 잔디의 「레인」(Lane : 보울이 굴러가는 길)에 굴려 「잭」이라고 불리는 목표물에 가깝게 접근시키는 놀이었다. 이 형태의 게임은 14세기 동안 영국에서 대 유행하여

에드워드 3세는 궁술의 퇴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하여 한때 금지령을 내린 일까지도 있었다.

현재도 「스코트랜드」와 「잉글랜드」에서는 날씨가 따뜻한 날 교외에서 행해지는 가장 인기있는 옥외 스포츠이다.

또한 현대 보울링의 기원은 「화란」과 「독일」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루터」도 보울링을 즐겨 그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보울링」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당시의 보울링은 현대와는 달리 9개의 핀(Pin)을 「다이아몬드」형으로 배열하여 행하여졌으며 이 게임을 「케겔스피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화란」이 주자들에게 의해 개척시대에 미국으로까지 건너갔다.

미국의 초기 보울링은 전부 잔디 위에서 행하여졌는데 1840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게임장으로 이용했던 「베트릭」북부의 공원은 오늘날 「보울링 그린」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러나 19세기 초엽에는 미국 보울링의 수난기로서 당시 보울링에 도박, 협박, 공갈이 수없이 뒤따라 「뉴욕」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이 게임의 금지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자 보울링을 즐기는 시민들은 「핀」수를 하나 더 늘려 10개의 「핀」으로 하고 그 배열 방법도 종래 「다이아몬드」형에서 현재의 삼각형으로 하여 범망을 피하였다.

19세기 중엽에 가서 이 「텐 핀 게임」(Ten Pin Game)은 「브로드웨이」의 구석 구석에 생기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보울링」장은 「보울링 서룬」이라고 불렀는데 「서룬」은 불어(佛語) 살롱의 변형으로 기분전환을 위한 휴식장소로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보울링 규칙이나 용구의 통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875년 이전까지만 해도 장소에 지방에 따라 모두 달랐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시도가 1875년에 일어나 「파울라인」(Fout Line)에서 「헤드 핀」(Head Pin)까지의 거리를 60피트로 고정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거리는 오늘날도 그대로다

1895년에는 「뉴욕」시에 「미국 보울링 협회」가 조직되어 보울링에 의한 과도한 도박의 배격과 「롤」의 정립작업에 나섰다. 오늘날 미국 보울링을 관장하는 기구가 「밀워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바로 이 「미국 보울링 협회」(American Bowling Congres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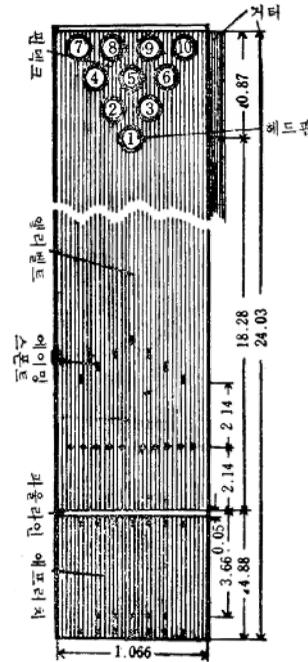
세계에서 보울링이 가장 유행한 나라는 역시 미국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현재 보울링을 체육 과목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울링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워커힐」에 보울링장이 설치되면서부터인데 소수의 부유층이나 외국 관광객들에게나 이용되었을 뿐 별로 대중화 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 보울링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서울 중심가에 「코리아 보울링 센터」(진양 테파트맨션 3층과 4층에 소재)가 42개의 레인을 설치하여 개장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70

년대에 들어와 그 수가 늘어나 현재 약 20여개 (서울에 8개)의 보울링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울링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보울링 인구는 약 15만으로 추산하며 1~2년 내에 50만 돌파는 무난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2. 보울링장의 구조와 명칭

보울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보울링장의 구조와 명칭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인」은 총 길이 24.03m에 너비 1.066m로써 양 옆에 「거터」(Gutter)라고 부르는 도랑이 있으며 「레인」의 끝부분에는 10개의 「핀」이 삼각형모양으로 서 있다. 그러므로 「보울러」는 보울을 잡고 「에프러치」에서 일정한 스텝을 밟아 보울을 투구하여 핀을 마추어 넘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파울라인」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핀」 중에서 제일 앞쪽에 위치한 「핀」을 1번「핀」 또는 「헤드핀」(Head Pin)이라고 부르며 초보자의 경우는 중요한 타격목표가 된다. 「핀」의 무게는 모두 동일하며 3파운드 또는 4파운드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3.5파운드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울」의 무게는 8파운드에서 16파운드짜리까지 무게별로 있다.



3. 보울의 선택과 잡는법

이제 보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에게 알맞는 「보울」을 골라야 하는데 「보울」의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함이 보통이며 「컨트」롤의 가능범위 내에서 약간 가감할 수 있다. 알맞은 보울을 선택한 다음에는 「보울」을 투구하기 좋게 쥐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립」(Grip)이라고 부른다. 「그립」의 요령은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울」에 둘러있는 3개의 구멍에 손가락을 끼워서 잡는데 그 방법은 끼우는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눈다.

표준형, 핑거보울(Finger Ball), 세미 핑거보울(Semi Finger Ball), 핑거 콘벤셔널보울(Finger Conventional Ball) 등으로

이 중에서 핑거 콘벤셔널 볼(Finger .Conventional Ball)은 손가락 2개를 끼우는 것이 다른 방법과 다르다. 그 방법의 선택은 보울러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취한다.



4. 스텝과 투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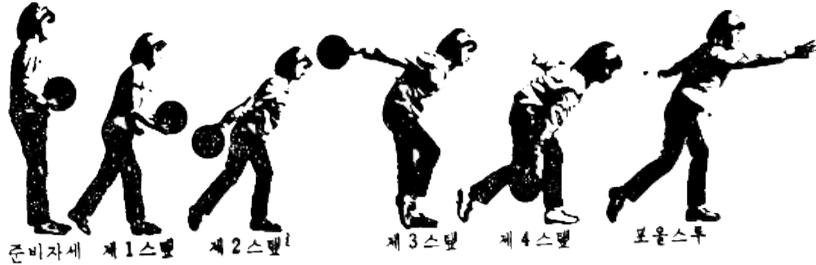
보울링을 하는데 있어 초보자의 경우나 숙련가를 막론하고 스텝과 투구방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스텝과 투구방법을 마스터 하면 「보울링」은 마스터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가. 기본동작

「에프러치」에서 발의 위치는 두 발을 나란히 하는 경우와 오른발을 약간 뒤쪽으로 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울러」에 따라 임의로 선택한다. 「보울」은 왼손으로 받쳐서 오른손으로 「그립」하여 허리보다 약간 위에 위치시켜 스텝이 시작된다. 시선은 표적에 위치한다. 보통 표적은 「핀」이 될 수도 있고, 보울을 굴리려고 하는 마루가 될 수도 있고 「레인」 위의 한 「마커」(Marker) 또는 갖가지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초보자는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는 「에이밍 스포트」의 마커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번째 것에 고정하여 투구하는 것이 좋다. 스텝은 「보울러」에 따라 4스텝 또는 5스텝을 비교적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4스텝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나. 첫번째 스텝

스텝은 완전히 일직선상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 행동은 스무스하고 조화된 동작이어야 하는데 완전한 투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번째 스텝은 그림 3의 2와 같이 오른발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보울」은 전방으로 가볍게 압출(押出)시킨다. 여기서 체중은 오른쪽 발에 놓여져야 하고 왼손은 여전히 오른손을 보조하여 보울을 받치고 있어야 한다.



다. 두번째 스텝

왼발을 전진하면서 「백 스윙」(Back Swing)을 할수 있도록 왼손을 보울에서 떼고 그림 3의 3과 같이 보울은 무릎엿을 지나 뒤로 스윙하는데 이때 팔을 쭉 뻗으면서 하는 경우와 팔꿈치를 약간 꾸부려서 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오른 팔과 손목은 자연스럽게 힘을 주어 어깨로부터 자유롭게 흔들리는 정확한 각도의 시계추와 같은 모양을 한다.

라. 세번째 스텝

다시 오른발을 전진하면서 보울을 「백·스윙」의 제일 높은 점까지 끌어 올린다. 그 모양은 그림 3의 4와 같으며 이 경우도 팔을 쭉 펴서 하는 경우와 팔꿈치를 약간 꾸부려서 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팔을 쭉 펴서 할 경우는 보울이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몸의 자세는 약간 앞으로 수그리기 시작하며 동시에 「스피드」를 가속시킨다. 눈은 여전히 표적을 주시해야 한다. 왼팔은 자연스럽게 어깨높이로 편다.

마. 네번째 스텝

지금까지의 모든 동작은 보울에 동력을 걸고 활주시키기 위한 힘을 쌓기 위해 전진 페이스를 가속시켜왔다. 네번째 스텝은 이제까지의 저장된 힘이 한꺼번에 발산되는 이른바 「폭발점」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3의 5와 같이 왼발을 앞으로 가축 밀창을 바닥에 대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며 무릎을 꺾는다. 몸은 앞으로 기울여 낮추면서 보울 「레인」까지 하강시켜 앞으로 스윙하면서 「파울 라인」을 지나 10~15cm지점에서 보울을 「릴리스」(Release) : 보울을 손에서 떠나보냄) 한다. 이때 잘못 「릴리스」하면 보울이 「레인」에서 뛰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할 것 또 발이 「파울·라인」을 침범하거나 너무 과격한 스윙으로 몸의 중심을 잃어서 바닥에 손을 짚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한다.

바. 「릴리스」(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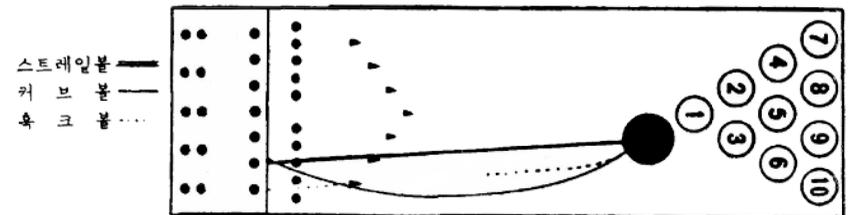
투구의 크라이막스는 말할 것도 없이 보울이 손을 떠날 때의 폭발점이다. 이제 보울은 「플레이어」(Player)의 손을 떠나 처음부터 정해진 방향으로 굴러가게 된다. 보울이 「릴리스」될 때 엄지손가락이 보울에서 제일 먼저 빠져 나오며 그 다음 중지, 약지의 순으로 나와서 그림 3의 6과 같이 눈높이까지 위로 큰 원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보울이 비록 「릴리스」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텝이 바르지 못하거나 「릴리스」를 잘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서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에 「레인」양옆의 「거터」(Gutter : 도랑)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 정확히 「스텝」과 「스윙」 및 「릴리스」 속달시켜야 한다.

이상으로 투구하는 방법을 스텝 및 동작별로 구분하여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스탠스」(Stance)에서 뒷 동작까지는 연속적이고 조화된 하나의 모션이다.

5. 보울의 코오스(Course)

일단 「릴리스」된 보울은 「릴리스」하는 방법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크게 3가지 코오스를 그리며 굴러간다.



가. 스트레이트 볼 (Straight Ball)

나. 커브 볼 (Curve Ball)

다. 훅볼 (Hook Ball)

이상의 코오스는 실제 투구를 하면서 숙달하게 되는데 초보자의 경우는 평균 150정도까지는 「스트레이트·보울」을 치는 것이 숙달의 첩경이다. 또 보울의 코오스 원리를 이용하면서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에이밍 스파트」를 지나가도록 「릴리스」하는 것을 「스파트 보울링」(Spot Bowling)이라 하며 숙련되는 「키 포인트」이다.

6. 보울링 용어와 그 표시법

보울링의 묘미는 무엇보다 단번의 투구로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통쾌감일 것이다. 이 경우를 「스트라이크」(Strike)라고 부르며 「플레이어」가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스페어」를 칠 경우에 주위의 동료들이 박수를 쳐서 축하해 주는 정경을 보울링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1) 「스트라이크」(Strike)

매 「프레임」의 제 1구로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모든 보울링 전문가들은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울의 진로는 그림 4와 같이 1「핀」(Head pin이라고도 함)과 3「핀」사이 (1.3 포켓)라고도 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왼손잡이라면 1핀과 2핀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보울이 1핀과 3핀 또는 1핀과 2핀 사이를 통과하도록 굴러야 할 것이다. 「스트라이크」의 표시는 <주 1>과 같이 한다.

단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매 「프레임」의 초구가 아니고 제 2구로 하였을 경우는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고 「스페어」로 부른다.

2) 스페어(Spare)

첫번째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게 되면 몇 개인가의 「핀」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이 남아 있는 「핀」을 두번째 투구로 모두 넘어뜨렸을 때 「스페어」라고 부르며 그 표시는 <주 2>와 같이 한다.

만약 모두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 남아 있을 경우는 「스페어」가 아니다

3) 파울(Foul)

투구하면서 발이 「파울 라인」을 침범하거나, 손으로 바닥을 짚었을 경우를 말하며 <주 3>으로 표시한다.

4) 미스(Miss)

제 1구로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면 몇 개의 「핀」이 남게 된다. 이 「핀」을 제 2구를 투구하여서 하나도 마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하며 <주 4>로 표시 한다.

5) 거터(Gutter)

보울을 잘못 투구하여 「레인」 양옆에 있는 도랑으로 보울이 굴러들어 가는 경우를 말하며 <주 5>로 표시한다.

6) 스피릿(Split)

초구 이후에 나머지 「핀」이 「레인」의 양쪽 모서리에 분리하여 위치한 경우를 말하며 <주 6>으로 표시한다.

7) 스피릿 메이드(Split m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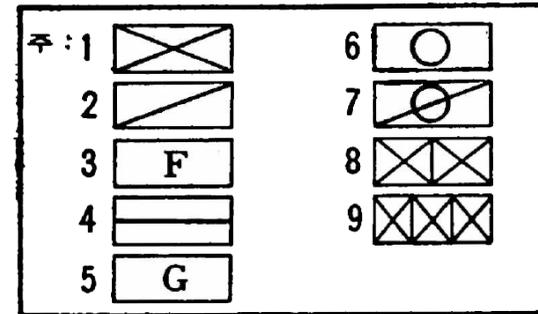
「스피릿」이 되어 있는 「핀」을 제 2구를 굴려 나머지 「핀」을 모두 성공시킨 경우를 말하며 <주 7>로 표시한다.

8) 더블(Double)

연속 두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친 경우를 말하며 <주 8>로 표시 한다.

9) 터어키(Turkey)

연속 세 「프레임」을 「스트라이크」친 경우를 말하며 <주 9>로 표시한다.



7. 보울링의 점수계산요령

대부분의 보울링에는 「크리크」(Clerk : 서기)가 옆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지만 훌륭한 「보울러」가 되려면 점수계산 하는 요령을 당연히 알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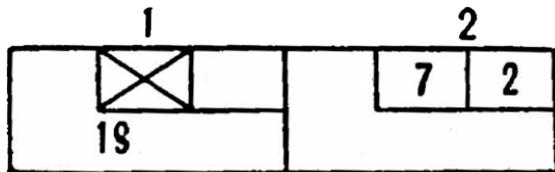
보울링에 있어서 1게임은 10회의 「프레임」(Flame)으로 되어 있으며 매 「프레임」마다 2회의 투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스트라이크」를 쳤을 경우에 한해서는 1회로 그친다. 그러나 마지막 「프레임」인 10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스페어」를 친 경우는 「스트라이크」는 2회를, 「스페어」의 경우는 1회를 더 투구하여 계산한다. 점수 계산서에 매 「프레임」마다 두개의 작은 4각형이 있으나 마지막 「프레임」에는 3개의 4각형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울링」 1게임을 하는데에는 1인당 최소 12번에서 최고 21번 까지 투구할 수 있다. 점수의 계산은 넘어뜨린 「핀」의 수(數)를 갖고 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점수 계산에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첫째 「스트라이크」를 친 경우로써 계산을 하는데에 「스트라이크」로 넘어뜨린 「핀」의 수인 10에다 그다음 2회의 투구에 의해서 넘어뜨린 「핀」의 수를 보너스로 더 얻어서 「스트라이크」를 친 「프레임」의 점수에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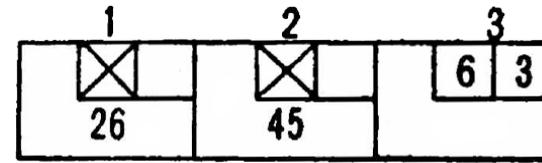
둘째 「스페어」를 쳤을 경우에는 「스페어」로 얻은 점수인 10에다 그다음 1회의 투구에 의해서 넘어뜨린 「핀」의 수가 보너스로 가산하여 「스페어」를 친 「프레임」의 점수에 계산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고의 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야 하며, 「스트라이크」를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스페어」를 해야 한다.

그러면 실제 계산하는 요령을 계산서에 표시하면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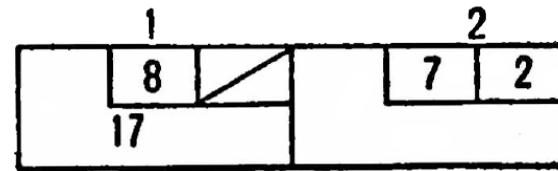


첫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 2회의 투구에 의해서 넘어뜨린 핀 수 7과 2를 합한 9개의 「핀」을 보너스로 얻어서 「스트라이크」를 친 「프레임」의 점수는 10+9=19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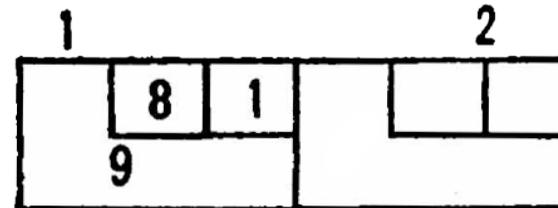


첫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10+10+6=26이 된다. 왜냐하면 첫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쳐서 보너스로서 10+6의 점수를 더 얻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10+6+3+26=45가 된다.



첫 번째 프레임에 제 1구로 8개의 「핀」을 넘어뜨리고 제 2구로 나머지 2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려 「스페어」가 되었다. 따라서 첫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스페어」를 친 그 다음의 제 1구에 의해서 얻은 7을 보너스로 얻어서 10+7=17 이 된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제 1구로 8개의 「핀」을, 제 2구로 1개의 「핀」밖에 넘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나 「스페어」가 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보너스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뜨린 「핀」의 수인 9가 첫번째 「프레임」의 점수가 된다.

그림 5의 계산표를 보면 특이사항이 몇개 있다. 「스트라이크」가 7개, 「스페어」가 4개가 나타나 있다

<그림 5>

BOWLING SCORE SHEET

년 월 일												
파울 F, 그터 G, 미스 MISS, 스페어 SPARE, 스플릿 SPLIT, 스트라이크 STRIKE, 더블 DOUBLE, 터키 TURKEY												
PLAYER	INDIVIDUAL HANDICAP	1	2	3	4	5	6	7	8	9	10	TOTAL
1	이재철	9/18	8/27	X/57	X/85	X/105	8/125	X/152	X/172	7/192	X/220	220
12												

첫번째 「프레임」에서 두번의 투구로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려서 「스페어」가 되었다. (「스페어」의 표시는 두번째의 조그만한 4각형 속에 사선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프레임」의 제 1구를 투구한 후까지는 첫번째 「프레임」의 계산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스페어」로 얻은 10에다 「보너스」로 가산되는 다음 첫번째 투구의 점수를 합하여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프레임」에서 제 1구로 8개의 「핀」을 넘어뜨렸다. 따라서 첫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10+8=18이다.

두번째 「프레임」의 제 2구는 나머지 2개의 「핀」 중에서 1개 밖에 넘어뜨리지 못했다. 결국 두번째 「프레임」에서는 모두 9개 「핀」을 넘어뜨린 셈이다. 그러므로 두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누계 하여 18+9=27이 된다.

세번째 「프레임」에서는 제 1구로 10개의 「핀」을 모두 넘어뜨려서 「스트라이크」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보너스」로 가산되는 두번의 투구가 끝날 때까지는 점수를 계산할 수 없다. 네번째 「프레임」에서 다시 또 「스트라이크」를 쳤다. (이처럼 연속 2회를 「스트라이크」친 경우를 「더블」이라고 부른다). 다섯번째 「프레임」에서 다시 또 「스트라이크」를 쳤다 (이처럼 연속 3회의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터키」(Turkey) 라고, 부른다.) 다섯번째 「프레임」에서 다시 또 「스트라이크」

크」를 쳤다 (이처럼 연속 3회의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터키」(Turkey)라고 부른다.) 이제 세번째 「프레임」의 점수를 계산할 때다. 세번째 「프레임」의 「스트라이크」 10에다 연속 2회의 「스트라이크」 20을 「보너스」로 가산된 30을 두번째 「프레임」까지의 점수인 27에 합하여 57이 된다. 여섯번째 「프레임」에서는 제 1구로 8개의 「핀」을 넘어뜨렸다. 이제 4번째 「프레임」의 점수를 계산할 차례다. 네번째 「프레임」의 「스트라이크」 10에다 다음 2회의 투구로 얻은 10과 8의 합인 18을 보너스로 가산한 28을 계산하여 85가 된다. (57+10+10+ 8=85) 여섯번째 「프레임」의 제 2구는 나머지 2개의 「핀」을 모두 성공 시켜 「스페어」가 되었다. 따라서 다섯번째 「프레임」의 점수는 10+8+2+85= 105가 된다.

다음 「프레임」의 계산도 이와같은 요령으로 하여 125, 152, 172, 192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 「프레임」인 열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얻었기 때문에 「보너스」로 2회의 투구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투구한 결과 「스트라이크」 1회와 8개의 핀을 얻었다. 따라서 28을 아홉번째의 「프레임」에 계산하여 220이 된다. 이것이 이 게임의 총점이다. 여기서 최종투구로 8개의 「핀」밖에 넘어뜨리지 못하여 2개의 「핀」이 남았다고 더 투구할 수는 없다.

보울링에서 「퍼펙트게임」(Perfect Game)은 12번을 모두 「스트라이크」한 경우로써 만점은 300이다.

이상으로 보울링의 점수의 표시와 계산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런데 보울링은 혼자서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울러」마다 「애버리지」(Average : 평균능력)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골프」와 같이 「핸디캡」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이 「핸디캡」은 어떻게 정하는가?

8. 「핸디」 계산요령

「핸디캡」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높은 「애버리지」 보유자가 항상 유리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평한 경기를 위하여 「애버리지」가 낮은 「보울러」에게 점수를 가산하여 준다. 이 점수를 「핸디」라고 부르는데 「핸디」를 정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정확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200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80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점에서 자기의 「애버리지」를 뺀 차이에 대한 70% (80%를 인정하기도 한다)가 그 사람의 「핸디」다. 예를 들면 어떤 「보울러」의 「애버리지」가 160이라고 한다면 그 「보울러」의 핸디는 (180-160) × 70/100=14이다. 우리나라에서는 70% 또는 80%를 인정하지만 미국에서는 차이의 2/3를 그 사람의 「핸디」로 정한다.

9. 보울링의 숙달요령

이상으로 보울링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했다. 훌륭한 「보올러」가 되기 원한다면 누구나 정확한 스텝과 투구로써 「타이밍」과 「스피드」를 잘 조화시켜 열심히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령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한다.

- 1) 정신을 집중시킬 것.
- 2) 기본자세, 스텝 및 「릴리스」의 폼을 되풀이하여 연습 할 것
- 3) 제 3동작 (Back Top Swing)은 어깨 높이로 할 것.
- 4) 스텝은 「레인」과 평행하여 할 것.
- 5) 「애버리지」 120까지는 「스트레이트」 보울링을 할것.
- 6) 「헤드핀」(제 1핀)은 제 1구를 맞출 것.
- 7) 「스트라이크」보다 「스페어」에 열중할 것.
- 8) 스포트 보울링 (Spot Bowling)을 할 것.
- 9) 「릴리스」의 「타이밍」을 맞도록 「스텝」과 「스윙」의 타이밍을 연습 할 것.
- 10) 「레인」의 콘디션을 조기파악할 것

10. 보울링 에치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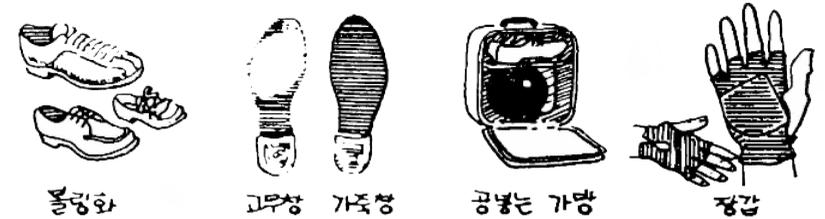
보울링에 있어서의 에치켓은 기술습득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은 「보올러」의 기본 정신 자세 를 말하기도 한다.

- 1) 파울 라인을 밟지 않도록 연습 할 것.
- 2) 레인에 올라설 때는 반드시 보울링 슈스를 신을것.
- 3) 보올은 일단 선정된 것으로 계속하여야 하며 타인과 보올과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4) 다른 사람의 투구하는 것을 보고 비평하지 않도록 할 것.
- 5) 투구 전, 중, 후에 정도 이상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며 투구한 보올이 핀에 맞는 것을 보았으면 곧 되돌아 올것.
- 6) 일단 「아프로치」에 올라서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7) 아프로치 위에서
- 가) 바로 옆사람이 투구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릴리스」할 때까지 모든 동작을 중지 하고
- 나) 옆사람과 자기가 동시에 투구자세가 되었을 때는 우측사람에게 우선권을 양보한다.

- 8) 게임은 경쾌하고 질서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흥분이나 언쟁 등의 불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끝은 음주자의 경우는 보울링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11. 보울링 용구

보울링장에서는 보올이나 보울링 슈스를 비치 해놓고 고객에게 서비스하지만 항상 똑같은 보올을 사용하지 않고는 똑같은 투구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신에게 알맞는 보올로 어느 정도숙련되면 전용보올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울링에 취미를 붙이려하면 또한 보울링 슈스를 가져야 한다. 스타일이나 색깔이 다른 여러가지가 있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울링 슈스는 오른손잡이 보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왼쪽 보울링 슈스의 밑창은 미끄러 지기 좋게 가죽창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고무창을 붙인다. 왼손잡이 「보올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신으면 된다. 보올과 보울링 슈스에 걸따라야 하는 것은 보울링용 장갑이다. 보올이 손에 힘있게 들어 붙도록 하여 스윙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준다.



12. 보울링장 안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여개의 보울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8개가 서울에 있다. 여가를 이용하여 볼링장에 가게 되면 우선 「프론트」에 가서 「레인」을 예약하고 보울링 슈스를 빌려 신어야 한다. 보울링 슈스는 대부분 1인당 50원을 받고 빌려준다. 그다음 자기에게 알맞는 보올을 골라서 자기 차례가 되면 배정된 레인에 가서 보울링을 하는데 요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인 1게임당 300원이 필요하다.

또한 처음 보울링장을 찾은 초보자에게는 요청에 의거 무료로 스텝과 투구 및 점수계산하는 요령을 수시 코치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보울링이 보다 대중화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다 대중화되고 개인소득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부담감은 해소되리라고 전망한다.

엄마는 대학교수

이 병훈 <의학박사>



1. 정치인의 증언

1950년 3월 서인인 황윤길은 통신사로, 동인인 김성일은 부사로 일년 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년 후 이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한 것은 제각기 달랐다.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전선(戰艦)을 가지고 필경은 쳐들어 올 것입니다.

도요토미는 안광이 형형하고 답력이 있어 보이며 불굴의 투지력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김성일은 「일본은 침략해 올 눈치는 전연 안 보입니다. 도요토미는 쥐새끼의 눈이라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임무를 띠고 간 사절단이 당리당략에 얽매어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상반된 증언을 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무사태평을 누리게 하고 결국은 왜적의 침입을 달게 받았다.

2. 교수님의 증언

소에 물을 먹여서 잡으면 무게가 더 나가는지 안 늘어 나는지 물먹인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별을 주려고 재판부는 명문대학 교수님 세분을 증인으로 모셨다.

S대 농대 최교수님 「10마리의 소를 12내지 18시간 동안 가사상태에 이르기까지 50ℓ의 물을 먹인 후 잡아본 결과 3.9%의 무게가 늘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K대 농대 이, 탁양 교수님 「소에 물을 먹여도 정육의 무게는 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을 먹여도 조직에 침투하기 위하여는 항이노「호르몬」을 투여하여야 하는데 물에는 그런 성분이 없어서 체중에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재판장은 양 대학교수님들의 서로 상반된 증언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후 검찰은 K대학교에서 소 4마리에 실험을 하였던 바 1% 가량 체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K대학교 탁교수님은 1%의 증가는 물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때 그때 무게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의의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물을 먹여서 정육의 무게가 늘어난다고 믿고 이렇게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실 소에게 물을 한 번 먹여 주는데 500원을 받는다. 그 다음 물증독이 되어서 가사상태에 이르면 몽둥이로 몸 전체를 두드려서 인공적 부종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도살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은 재판관이 고민 안하여도 될 만큼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게가 늘어나며 안마받은(?) 연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다.

3. 점쟁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니 아마도 지방에서 일년 이상을 근무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집과 전화를 전세주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 조박사(?)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안 것은 계약 후 두달 후였다.

대전에서 일년 이상 근무하고 본집에 와보니 대문 두드리는 것은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요, 그 보다는 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시내 뿐만 아니라 남한 각처에서 전화오는 것은 점쟁이 조박사를 찾는 내용이였다.

처는 귀찮고 신경질이 나니깐 「예 예 조박사는 이사 가고 집주인 이박사님만 계십니다」하고 전화를 끊는 것을 보았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시를 따져서 사주팔자를 점쳐보고, 작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짓고, 해마다 신수점과 토정비결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느 학교에 갈지 입학점을 쳐보고, 집을 고치려면 날짜를 받아서 하고, 이사 가려면 길일을 택하고 방향을 잡아서 가며, 취직을 하려면 취직점을 치고, 전근 하려면 날짜를 받아서 가며, 점포를 벨려면 상호점을 보고, 다 커서 결혼하려면 궁합을 봐야하고 결혼 날짜를 택일하고 좋은 시간을 잡아서 거사를 치르며, 임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쳐서 알고, 현대과학으로는 달나라 갔다 오기보다 더 힘든 것을 임신 즉시 남아인가 여아 인가를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편안히 쉽게 구별하며, 그래도 모자라 수시로 골상, 수상, 족상, 배꼽상, 눈썹상, 더 발달하여서 지문상을 보며 이번에는 매일 출근부에 찍는 도

장도 길흉이 따른다고 하니 도장상도 곱배기를 접치게 되었다.

길가에서는「당신은 불행이 닥쳐오는데 그대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역학계의 거성 아무개, 인생의 성공, 실패는 운에 있다」 이런 간판을 자주 보게 된다.

자연의 무서운 변화와 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행, 「길흉 화복」을 운명에 맡기며 지나치게 따져 보자니 자연 점쟁이, 관상쟁이를 찾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집에 오면서 미친 사람처럼 히죽히죽 웃으며, 돈 아까운 생각은 조금도 없다.

숙명적인 팔자타령,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상적이고 맹목적, 막연한 행운을 바라며 무조건 믿고 의지하려고 노력하며 주체성, 자립심, 이성판단, 의지력, 진취성은 전당포에 맡기지 오래되기 때문에 아직도 점쟁이, 관상쟁이의 문전이 한산하지 않다.

어렸을 적에 어린이 성격발달 과정에서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의 아기 개인지도 부족도 그 원인의 일부를 차지한다 하겠다.

4. 어린이 지도

난초를 가꾸는데 취미를 가진 사람은 매일 여러 차례 돌보며 한두 차례 물을 주기도 하고 벌에 내놨다 들여놨다 하며 일광욕을 시키는 것은 물론 밤낮으로 온도계와 습도계를 들여다 보며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주고 심지어는 붓으로 잎새를 닦아 주기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애지중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재산인 어린이의 발육이나 영양 상태에 대하여, 또는 현재 어떻게 피어가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관심과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자기 아이에 대하여 본능적인 사랑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는 하등 동물이 더욱 더 열렬한 것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사랑과 지나친 보살핌으로써 빼없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잔소리와 지나친 간섭을 하여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거나 신경질적이고 반항하는 성격을 길러주지 않는가? 아기 엄마 스스로 검토하고 반성하며 전문가와 의논하여 불 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여 볼 일이다.

어린이에게는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필요하나 이와 아울러 정신적인 건강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아무리 거칠은 세파에 휩쓸려도 독자적인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탐구력, 인내력, 창의력 및 진취성 등은 어릴적에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어린이의 정신발달은 대단히 급속 하여서 나이가 5세~6세되며는 성격이 거의 다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이루어진 성격은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1세에서 6세 이내에 여러가지 좋은 성격을 길러 주는가, 못주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일생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5. 엄마는 대학교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나이가 많을 수록 그 내용도 점차로 넓어지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을 길러주는 교육은 이와는 반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중요하며, 특히 생후 1~2년 이야말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성격교육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5~6세가 지나면 사람의 성격은 거의 고정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1~2세 때의 아기의 생활은 가정안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아기 성격교육의 대학은 즉 가정이며, 성격교육의 대학교수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엄마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아기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서는 국민성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강인한 자립심과 인내심, 정의감과 책임감, 풍부한 탐구력, 창의력 및 적극성,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 박애정신과 애국심 등 훌륭한 성격을 길러주는 성격교육의 대학교수로서 아기 엄마들이 자각하고 있거나 못하거나 간에 또는 그러 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간에 자기 아기의 성격교육의 대학교수 인 것은 아기엄마임이 틀림 없는 사실이다.

6. 엄마가 최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이와같은 근본적인 중요한 교육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효과가 문제이다.

모든 성격형성 과정에 필요한 시기는 거의다 지나 버리고 말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격을 길러주는 정서적 교육은 이미 가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는 폭 넓은 지적교육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각하였건 못하였건 간에 여러분이 유일한 아기의 대학교수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안 연후에는 무척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참고 할만한 책이라도 없나 헤매었을 것이며, 다행히 이에 관한 책을 구하여 보았으면

그때부터는 더욱 더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자기의 교육방법이 과연 옳았나 자신을 잃었을 것이며, 왜 그와같은 잘못된 교육을 하였나 후회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왜 알면서도 못하였는가. 차근차근 끈기있게 타일러 주어야 할 것을 왜 신경질을 부려서 아기를 당황하게 만들고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아기까지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역효과가 나서 문제가아 되고 반항아가 되게 하였는가?

이와같은 점에는 어느 정도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즉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아서 이루어진 성격이 강력하게 배운 그대로 되 풀이되어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 ○ ○

어느 사람은 우리 나라 국민성 중에 여러가지를 지적한다.

자립심, 진취성이 약하며 내성적, 소극적이고 의퇴심이 많으며 동족끼리 시기와 질투가 심한 반면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열등의식이 강하며 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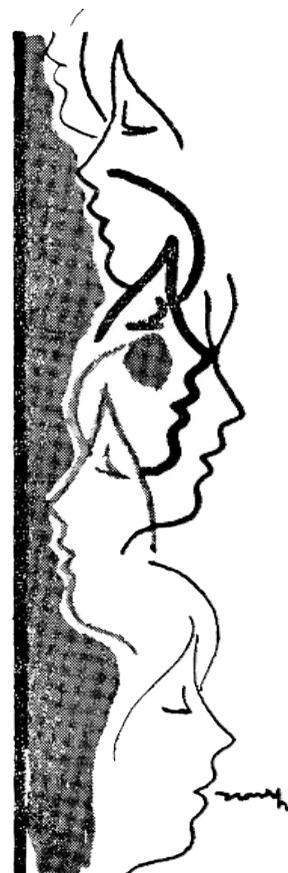
또 외국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한국사람은 돈만 있으면 자기만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다시 빈궁에 빠지게 되면 한탄하지도 않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고 표현한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세가지 증언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결론을 내린다면 강인한자립심과 인내심, 정의감 및 책임감, 풍부한 탐구력, 창의력 및 적극성,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 박애정신과 애국심 등 이와같은 좋은 국민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아기 엄마의 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 장래의 운명도 아기엄마의 힘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약혼

헤르만·헷세



히르셴 골목에 가면, 인근 집들과 마찬가지로 새 시대의 변모와는 아랑곳 없이, 옛 그대로의 집 모양인데다 꽤 많은 손님을 받고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직물가게가 하나 있다. 지금도 거기서는 20년째 줄곧 찾아 오는 고객이라도 누구나 「또 뵈옵기 바라웁니다.」라고 인사받게 되며, 가끔 이곳에 들르는 나이 많은 여자손님 두세분은 리본이나 레이스를 살 때, 엘레 자(尺)를 부탁하고, 이 편에서도 엘레 치수로 재어 드린다. 손님 시중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그 집 딸하고 따로 두고 있는 여점원이 맡아 보고 있으며,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가게 안에 묻혀서 늘 바쁜 몸인데, 통 말할 줄을 모른다. 주인은 일흔살 쯤으로 보이고, 매우 작은 키에 상냥해 보이는 발그스레한 볼에다 희고 센 짙막한 콧수염을 하고, 오래 전에 벗겨진듯한 대머리에, 언제나 자수판에 꽃무늬와 뇌문(雷紋)으로 수놓은 뽀뽀하고 둥그란 모자를 쓰고 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스 온겔트이고, 이 도시의 명문의 토박이 시민 태생이다.

이 말할 줄을 모르는 키 작은 상인을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의 외모는 몇 십년 두고 매한 가지며, 이전보다 더 늙지도 않고 젊어지지도 않는 상이었다. 물론 안드레아스 온겔트도 한때는 소년이었고, 젊은 시절을 가졌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물으면, 기왕에

는 그가 「꼬마 온겔트」라 불리웠고 팔자에 없는 명성을 떨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는 애길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가 서른 다섯쯤 되었을 예전에, 한번은 온 게르베르스아우 고을 사람들이 노상 입에 담고 다녔던 이야기거리를 그 자신이 빚어낸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약혼 이야기였다. 안드레아스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어떤 모임이건 모임에는 끼질 않았다. 그는 아무 데서도 남한테 놀리었고, 소심한 탓으로 남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 남한테 먼저 굽히고 자리를 내주는 어진 성품이었다. 선생님들한테는 극진한 존경심을 품고, 급우들앞에서는 송구스러워 하기만 하였다. 어쩌다 시냇물에서 미역 감을 때면 모를까, 골목길이나 놀이터에서는 그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겨울철에 애들이 한 주먹의 눈덩어리를 쳐든 것을 보면, 어느새 몸을 움추리고 오들오들 떨기만 했다. 그 대신 집에 와서는, 누구나 버려놓고 간 인형이나 장난감 가게를 갖고 알뜰히 재미 있게 놀았다. 그는가게의 저울에 밀가루, 소금, 모래알을 달아 놓고는, 조그마한 자루에 싸 놓았다가, 얼마 뒤에 서로 바꾸기도 하고, 쏟았다가 도로 집어넣고 또 달아 보곤 했다. 이 밖에 그는 자질구레한 집안 일에 어머니를 곧잘 도와주고, 어머니를 위해 바깥 심부름도 해 주며, 자그마한 집들에서 채소벌레도 잡아 주었다.

그의 학우들은 그에게 꿀탕을 먹이고 편잔을 주었지만, 그는 성내지 않았고 양값음을 한 일도 없어서, 대체로 힘들지 않은 무난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자기 또래의 애들한테 우정이라든가, 마음 쓰임새를 주고 받지 못한 것을, 그는 자기 인형한테 쏟았다. 아버지를 일찌기 여윈데다 그는 늙마의 자식이었고, 어머니는 애초에 그를 남달리 키우려고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의 천성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그가 늘 자기를 따르고 있는테는 얼마 쯤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그러저럭 지내는 이 생활이 지탱되기는 꼬마 안드레아스가 학교를 나오고, 옷동네 시장가의 디르람네 가게에서 점원 견습을 마칠 때까지의 일이었다. 열 일곱이 되었을까 말까 할 때쯤에, 애정이 그리워진 그의 마음은 탄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내 수줍어 하기만 하는 이 키작은 총각은 날이 갈수록 눈을 크게 뜨고 아가씨들을 쳐다보게 되었고, 그의 짝사랑이 슬프게 될수록 그 불길이 한결 세차게 타오르는 사랑의 제단을 남 모르게 가슴 속 깊이 가꾸어 갔다.

이 사랑의 제단에 모시게 될 아가씨들의 얼굴을 눈여겨 본다든지, 그들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많았다. 그것은 젊은 온겔트가 점원 견습을 마치고 나서 그가 후일에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숙모네 직물 가게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거기서는 애들과 여학생, 어린 처녀와 노치녀, 하녀와 부인네들이 종일 들끓었고, 리본이나 린네르를 뒤적거리다가 걸치레 감과 자수 본을 골라 놓고는, 칭찬도 해보고 나무라도 보고, 값을 깎기도 하고 또 막상 듣지도 않을 조

언을 곧잘 청했고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샀던 물건을 무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이 총각은 점잖을 빼고 수줍어만 하고, 서랍을 빼고 사닥다리를 오르내리고, 물건을 내놓고 다시 거두어 넣고, 주문을 매기고 가격을 일러 주기만 하였다. 그는 매 일주일마다 다른 여자손님한테 마음을 두었다. 그는 린네르나 양모를 지나치게 칭찬해 말할 때면 낮이 붉어졌고, 영수증을 쓸 때면 속 끝이 떨렸다. 또 예쁜 아가씨가 오만스럽게 가게를 나설 때면 뛰는 가슴을 안고 가켓문을 잡고는 황송하게 인사를 하였다.

그의 예쁜 여자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사느라고, 그는 세심 하고 깍쟁스러운 몸가짐을 갖기에 익숙해 있었다. 그는 아침이면 온 정성으로 그의 얇은 금발머리를 치장하며, 내외와 겉옷은 아주 말쑥하게 차려 입고 숨털만한 콧수염이 길어지는 것도 한시도 참지 못했다. 고객을 접대할 때면 판매대 위에 왼손을 얹어 놓으며 한 쪽 다리를 약간 굽히고 서 있을 줄도 알았다. 이것도 쉬 빙긋이 웃는다든지 진정 고맙다는 웃음을 띠다든지 하는 등 경우에 알맞게 미소를 지으며 숨씨 좋게 하였다. 이 밖에 늘 그는 새롭고 듣기 좋은 편어(片語)만을 하기 좋아했다. 이 편어는 거의 어찌씨로 되어 있고, 보다 새롭고 멋진 말들은 남한테서 배우기도 하고 멋대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 천성이 말주변이 없는테다 겁기가 많아서, 그는 어려서부터 입자씨와 풀이씨가 들어 있는 완전한 말을 하질 못했다. 그 때문에 이 묘한 어휘의 도움을 받고서, 말의 뜻이나 의사소통과는 관계 없는 눈가림의 말 재주를 보여 주기에 익숙해 있었다.

누가 「오늘은 멋진 날씨군요」하면, 꼬마 온겔트는 「그럼요—네—참—안 됐지요—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였다. 한 여자 손님이 이 린네르는 질긴가고 물으면 「그럼요, 네. 틀림 없죠, 말 씀이죠, 희한하죠」하였다. 누가 그의 안부를 물으면 「덕분이지요—종구 말구요—무고하죠—」라는 대답이었다. 각별히 중하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그는 「하옵지만, 괜찮읍시고, 그렇지 않습죠」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이럴 때면 내리 숙인 머리에서 발 끝까지의 온 사지가 온통 긴장하고 반듯하며 온 몸이 표정투성이었다. 그 중에서도 탄 데 비해 길쭉한 그의 목이 제일 뚜렷하게 표정짓고 있었다. 목은 살이 없어서 핏줄을 드러내고 유달리 커다란, 움지락거리는 결후를 달고 있었다. 이 키 작고 야윈 점원이 띄엄띄엄 편어로 말할 때면, 그의 몸의 삼분이 일찍이 후두로 차지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자연이 주는 것치고 무의미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온겔트의 두드러진 목은 그의 화술과는 인연이 없다 해도 한편 그것은 정열적인 가수의 상징이나 보배로서 안성마춤의 것이었다. 안드레아스는 그 도가 넘는다고 하리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인사하고, 아주 세련된 상인 행세를 하고, 「괜찮죠」든지 「하옵지만」등의 말씨로 오금 못쓰게 하더라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느끼기는 노래할 때처럼 거침없이 술술 잘 되는 일은 없었다. 이 재질

은 학창 시절에 세상 모르게 간직하고 있었지만, 변성기에 완전히 접어든 뒤로는 더욱 예쁜 목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아주 감춰져 있지 않은데서, 그의 숨겨 놓고 있는 취미나 재간을 드러낸다는 일은, 겁이 많고 수줍음이 많은 이 웅졸한 온겔트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녁 한때, 식사하고 자기전 한 시간쯤, 자기 방 안에 들어박혀 불이 꺼져버린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황홀한 서정에 도취하고 있었다. 그의 목청은 꽤 높은 테너였고, 연습이 모자란 대목에 가서는 대신 감정을 넣어 흠 없이 잘 해 내고자 애썼다. 그의 눈은 눈물에 반짝이고, 예쁘게 가리마 탄 머리카락은 목덜미 뒤로 처지고, 그의 결투는 노랫가락에 맞추어 아래 위로 움직였다. 그가 아껴 부르는 노래는 「고향 가는 제비」였다. 「이별, 아—이별은 슬프다」위 귀절에서 그는 목청을 떨며 길게 뽑아내리고는 눈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의 집원생활의 성적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몇 해 동안 그를 큰 도회지로 보내자는 계획은 섰다. 그러나 지금 그가 숙모네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몸이라서, 숙모가 그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든지, 또 그가 그 가게를 물려받기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따위의 일만 해도 그의 외적 조건이 내내 탄탄하리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다만 여의치 않은 일이란 그의 마음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 뿐이었다. 같은 또래의 아가씨들에게, 말하자면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에게 그가 아무리 눈을 주고 꺾듯이 인사해도 그들은 그를 한낱 우스꽝스러운 꼴로 밖에 보아 주지 않았다. 차례 차례 보는 대로 그는 모든 여자에게 흑해 버리고, 아마 그에게 단 한번이라도 얼굴을 비쳤던 여자치고, 그의 마음을 흔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씨를 더욱 점잖게 다듬고, 눈에 드는 웃감으로 몸치장을 해도 어떤 여자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별로 거들떠 보지 않았다. 키르헤르스 포이레라고 불리기도 하는, 파우라 키르헤르 아가씨는 늘 그한테 친절했고, 그를 정색으로 대해 주는 눈치였다. 그녀는 물론 예쁘지 않거니와 그보다 젊다기보다는 두셋쯤 위였고, 매우 약한 몸집이었다. 이런 흠이 있어도, 한편 그녀는 수공업업을 하는 유복한 가정의 깡썩스럽고 평이 좋은 처녀였다. 안드레아스가 거리에서 인사를 하면, 그녀는 정중하게 꺾듯이 인사하고, 가게에 와서는 너그럽고 꾸밈새 없는 겸손한 태도로 그의 시중을 탈게 해 주고, 그의 영업적인 차례를 순순히 고맙게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고 믿음성 있게 보았다. 이 밖의 점에 있어서 그녀는 그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게 이 외의 곳에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몇 안 되는 처녀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때로는 미끈한 구두에, 때로는 멋진 목도리에 희망을 걸어보았고, 이 밖에 나날이 커가

는 콧수염을 눈동자만큼이나 꼼찍히 아끼고 있었다. 종내 그는 행상한테서 큼직한 오파이 달린 금가락지를 샀다. 이때쯤 그는 나이 스물 다섯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이 서른이 되어도 여전히 멀리서 애타기만 하고 서른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와 숙모는 일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요긴 하다고 마음먹었다. 이미 상당한 고령에 접어든 숙모는 그를 위해 생존시에 가게에서 물러서려고 작정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 게르베르스하우 고을의 양갓집 규수와 결혼하게 되는 날에야 그리 하겠다고 말하게 되자 일은 벌어졌다. 이것은 어머니에게도 일을 벌여야 할 신호로 되었다. 여러 생각을 하던 끝에, 어머니는 아들을 어떤 모임에 들게 하여 사람들 새에 끼어들고, 여자들과 교제하게끔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노래에 많은 취미가 있는 줄을 알고, 이 방면에 그를 잡아 두기로 마음 먹고, 그에게 노래회 회원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남과 어울리길 싫어했지만, 안드레아스는 거의 동의했는데, 노래회보다 교회 성가대를 청했다. 이유는 좀더 엄숙한 음악편에 마음이 쏠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셈은 교회성가대에 마르가레트 디르람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아가씨는 온겔트의 예전 견습상점 주인의 딸이었고, 갓 스물쯤 돼 보이는 펍 아름다운 상냥한 처녀였다. 그녀에게 반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다.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이제는, 그의 나이포래에 맞는 처녀는 있을리 없고, 더우기 예쁜 여자라곤 없었다.

어머니는 교회성가대를 굳이 반대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성가대는 노래회에 비하면 사교적인 야회라든지 향연에 있어서 반 정도로 따를 수 없지만 그 대상 회원 자격을 얻기가 훨씬 쉽고, 안드레아스가 합창 연습을 한다든지 정식 합창을 할 적에 모여드는 아가씨들 중에는 양갓집 규수들이 많다는 등의 잇점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지체없이 아들을 데리고 성가대를 찾아갔다. 하얗게 센 머리의 학교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녀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그럼, 온겔트씨 저희들 한테서 노래 하시렵니까?」

「네, 그럼 요, 저—」

「전에도 노래한 적이 있으십니까?」

「참, 말씀이죠, 얼마쯤은요—」

「그럼, 한 번 해 보실까요. 어디 외어 두고 있는 노래라도 불러 보시지요」

온겔트는 아이들처럼 빨개져서 도시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간 고집이 아니었고 마침내는 역정까지 내게 되어, 그는 겁을 누르고 잠잠히 앉아있는 어머니한테 체념 섞인 눈을 주며, 그가 즐기는 노래가락을 뽑기 시작하였다. 노래는 선생님을 동하게 했고, 그는 첫 절을 막히지 않고 불렀다.

이 지휘자는 똘똘한 눈짓을 했다. 그리고 아주 점잖을 빼고서 물론 매우 훌륭한 노래 솜씨

이고, 애정이 솟는 목청인 줄로 알지만, 종교 음악엔 맞지 않을 것이니, 노래회 같은데서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물론 온겔트씨는 난처한 답변을 더듬거리려 보려고 했다. 이제 어머니는 그를 변명하기 위해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노래는 참 잘하지 않느냐고, 지금은 좀 당황해 하고 있으며, 그를 받아주신다면 몹시 고맙겠으며, 노래회는 아주 편편이어서 접잡지 못하고,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해마다 교회를 위해 시물을 올리겠고,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호의를 베푸신다면 적어도 연습 기간만 지내보면 다 아시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이 늙은 분은 또 한번 차분차분하게 교회성가대는 오락이 아닌데다가 오르간 무대는 발디딜 자리 없이 비좁다는 얘길 힘주어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웅변이 마침내 이기고야 말았다. 이 나이 먹은 지휘자에게도 서른 살이 넘는 남자분이 성가대에 들겠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곁들여 데리고 온 따위의 일은 없었다. 음악과는 아무 관계가 없긴 해도, 성가대에 이런 나이 먹은 사람이 낀다는 것은 암만해도 어색하고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이 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그는 다음 합창연습에 안드레아스가 나오길 청해 놓고는, 미소를 지으며 두 모자에게 가도 좋다고 했다.

수요일 저녁에 꼬마 온겔트는 합창연습이 행해지는 교실로 제 시간에 들어 섰다. 모두가 부활제 성가를 연습하였다. 차츰 모여든 성가대원들은 새 회원에게 반가이 인사하고, 모두가 명랑하고 유쾌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온겔트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물론 마르가레트 디르람도 있었고, 그녀도 갓 들어 온 친구에게 반갑다는 미소를 지으며 눈짓을 하였다. 뒤에서 작은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쯤 우습게 대해서는 것엔 이미 습성이 되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보다 그의 비위를 거슬리게 한 것은 마침 그 자리에 있고 남달리 우러러보는 여자 회원 가운데 끼어 있는 키르헤르스 포이레의 서름해 하는 예사롭지 못한 거동이었다. 예전에는 늘 그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던, 다름 아닌 그녀가 이제와서 유달리 쌀쌀하고, 그가 여기에 뛰어난 것을 자못 마땅치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노래할 때 온겔트는 매우 조심스러운 거동을 하였다. 그는 학교 때부터 어지간히 악보를 볼 줄 알았다. 그는 몇 박자쯤은 다른 사람을 쫓아서 노래했지만, 대체로 자기 재주에 별로 자신이 불지 않았고, 전과는 달라지질 않았나 하는 겁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의 당황해하는 모습이 우습게 보이고, 마음에 거슬리기도 한 지휘자는 그를 달래주면서 헤어질 때, 이런 말까지 하였다. 「꾸준히 하면 차차 나아져 갑니다.」 그러나 온 저녁 안드레아스는 마르가레트의 곁에 서서, 그녀를 자주 쳐다볼 재미를 맛보았다. 그는 오르간 연주에 맞추어 하는 예배 전후의 정식 노래를 부를 적에는, 테너 가수들이 바로 여자 뒤편에 배치된다는 생각을 하고서, 부활제나 장차에 있을 다른 기회에도 디르람 아가씨 가까이에서 그녀를 마음껏 쳐다보게 되리라는 기쁨을 마음 속에 그려 보았다. 이

때 괴롭게 떠오른 생각은, 그가 몸집이 작으니까 키까지 작아서, 다른 가수들 새에 끼어들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큰 용기를 내어 더듬거리려는 말씨로, 그는 한 대원에게 오르간 합창시에 있을 앞으로의 난처한 형편을 하소연하였다. 물론 자기의 참 사연은 털어놓지 않았다. 이 때 그 친구는 웃는 낯으로 그를 안심시키고는 그가 내다 볼 수 있는 발판을 세워주겠다고 말하였다.

합창연습이 끝난 뒤에, 거의 인사할 새도 없이 모두 바삐 가버렸다. 몇몇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배려해주었고, 나머지는 서로 어울려서 맥주 마시러 가고 있었다. 온겔트는 어두운 교사 앞마당에 가깝게 혼자 선채로 가는 사람들, 뒷보다도 마르가레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실망한 낯을 지었다. 이 때, 키르헤르스 포이레가 그의 곁으로 왔고, 그가 모자를 벗어 인사하자, 그녀가 말을 붙였다.

「집엘 가세요? 그럼 같은 길이니 함께 가지요.」

그는 동행을 고맙게 여기고, 그녀와 함께 물기 있는 싸늘한 삼월의 거리를 지나 총총히 집으로 왔지만 그녀와는 잘 가라는 두어 마디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이튿날 마르가레트 디르람이 가게로 왔는데, 온겔트가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그는 웃감마다 그것이 마치 비단천인 양 소중히 잡고 바이올린 활처럼 자를 휘젓고, 대단치 않은 시중에도 정성과 애교를 부렸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어제 저녁과 성가대와 합창 연습에 관해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긴 했다. 문을 막 나서면서 그녀가 말했다.

「노래하시는 줄 알지도 못했어. 온겔트씨. 오래 되는가요?」

이때 뛰는 가슴을 안고 「예-그저 그렇습죠-안됩죠.」라고 그가 말을 하는 새에 그녀는 살짝 눈짓하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보라, 보라!」 마음속으로 뇌까리면서 그는 앞날의 꿈을 그려보았다. 그래서인지 물건을 거둬 들일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순모 레이스와 반모 레이스를 혼돈해 버렸다. 한편 부활제는 점점 가까워졌고, 성 금요일과 당일에도 교회 성가대는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여러 번 합창 연습을 하게 되었다. 온겔트는 늘 제시간에 출석했고, 실수하지 말자고 매우 조심했기 때문에, 모두가 좋게 대해 주었다. 다만 키르헤르스 포이레만은 그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눈치였는데, 그런 일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지간히 믿고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와 나란히 집으로 가는 것은 줄곧 있는 일이었다. 마르가레트에게 동행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은 그의 은근한 소원이었고 또 결심이지만 그럴 용기를 갖지 못했다. 그 때문에 오늘도 포이레와 가게 마련이었다. 처음엔 도중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이윽고 키르헤르스는 그를 나무라면서 왜 그가 그토록 풍한지, 자기를 무시워하는지를 물었다.

「아뇨—되려—아니죠—아니죠」

그는 놀란듯 말을 더듬거렸다.

넌지시 웃으며 그녀는 물었다.

「노래하긴 괜찮으세요? 재미 있어요?」

「물론이죠—매우—네」

머리를 저으며 그녀는 한결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얘길 하면 안 될 일이라도 있나요? 온겔트씨 대답마다 꺼리는 눈치니 말이에요」

난처한 듯 그녀를 쳐다보며, 그는 어물쩍 거렸다.

「하긴 그것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는 크게 머리를 끄덕거렸다.

「좋아요. 하지만 저라든지, 괜찮죠. 또 아녜프라는 따위의 말 밖에는 아무말도 할 수 없나요?」

「예, 참, 하긴 하죠—물론이죠」

「하죠. 물론이죠라니. 저녁에 어머니와 숙모하고는 독일어로 말씀하시는가요? 그럼 저나 다른 사람하고도 그래 보세요. 하신다면 똑바른 얘길 할 텐데요. 어떠세요?」

「그럼요. 할립니다—참말이죠」

「됐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지요. 이제 저도 얘길 할 수 있겠지요. 몇 마디 말씀을 할까 해요」 그리고서 그녀는 전에 없이 그와 얘길 했다. 그녀는 물었다. —그가 노래할 처지도 못되고, 거의 다 그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만이 모였는데, 도대체 교회성가대서 뭘 찾느냐고.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있으며, 어찌구저찌구 말이 많다는걸 모르느냐고. 이런 그녀의 말은 그를 매우 상심하게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훈계가 너그럽고 호의에 가득 찬 얘기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냉엄한 부정과 따사로운 감사한 마음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거의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벌써 그들은 키르헤르스네 집 앞에 왔다. 손을 내밀고 파우라도 정색하며 말했다.

「안녕 온겔트씨 나빠 생각지 마세요. 다음에 또 얘길 하지요」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그는 집으로 왔다. 그녀가 터뜨린 얘길 생각하면 딱 괴로웠지만, 한편 그에게 것처럼 친절히 정색으로 호의를 가지고 얘길 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롭고 위안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 다음 번 합창연습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어머니를 대하듯 그는 그녀와 어지간한 독일어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성공은 그에게 용기와 자신을 돋구어 주었다. 다음 날 저녁엔 그

는 하소연도 해 볼까 하는 정도였다. 더우기 그는 디르람의 이름까지도 끄집어 낼 결심이 반쯤 서 있었다. 그는 포이레와의 경험과 도움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일에도 희망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그의 하소연을 가로막고 그녀는 말했다.

「결혼하고픈 거지요? 그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에요. 나이도 잡수시고」

「나이 말이죠. 그렇죠」 그는 침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웃기만 했고, 그는 위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에도 그녀와는 접때와 같은 얘길 할 기회를 가졌다. 그때 포이레는 이런 대답만을 던졌다— 그가 누굴 원하는 걸 밝혀야 하고, 더우기 성가대서의 그의 위치는 그에게 이룰 수 없으며, 이유는 어린 아가씨들이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비웃질 않고 가만히 내 버려 두길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포이레의 이 말이 던져준 마음의 고통은 성 금요일의 준비와 흥 때문에 마침내는 사라져 버렸고, 이날에야 비로소 온겔트는 오르간 연주의 합창무대에 나서기로 되었다. 그는 이날 아침에, 정성껏 옷차림을 하고 반질반질 한 실크해트를 쓰고 교회로 나왔다. 자기 위치를 지정받은 뒤에, 그는 발판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친구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사실 그 일을 사뭇 잊지 않고 있는 눈치였다. 그가 오르간 반주자 한테 눈짓하였을 때, 그는 싱긋 웃으면서 자그마한 꺾꽂이를 가져왔다. 꺾꽂이는 온겔트의 자리에 세워지고 그가 그 위에 올라섰다. 그래서 이제 남을 본다든지, 또 남이 자기를 본다든지 하는 점에서 그는 키가 제일 큰 테너 가수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서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잡고 있어야 했다. 혹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려 난간에서 있는 아가씨들 새에 굴러 떨어지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식은 땀이 흘렀다. 왜냐하면 합창무대는 비좁은데다 아주 비탈진 테라스에 마련되어, 교회 회중석과 맞서 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그는 숨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마르가레트 디르람의 목덜미를 쳐다 볼 흥을 가졌다. 합창과 예배를 마치자 그는 숨처럼 지쳤고, 종소리가 울렸을 땐, 긴 숨을 내 쉬었다.

이런 일이 있던 여러 날 뒤에, 키르헤르스 포이레는 억지로 늘인 그의 키가 불손하게 보이며, 그를 우스꽝스럽게 한다고 나무랐다. 그는 앞으로는 작은 키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부활제인 내일만은 마지막으로 그 꺾꽂이를 사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노리개감으로 만드느라고 꺾꽂이를 갖다 준 것인 줄 모르느냐고까지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저으면서, 그가 하는 대로 내 두었고, 그의 어리석음이나 철부지엔 한결같이 화가 치밀었다. 교회 성가대는 일전보다 부활제 날에 한결 더 엄숙한 분위기였다. 까다로운 음악이 연주되었지만, 온겔트는 겁없이 발판 위에서 균형을 맞추었다. 그러나 합창이 끝난 무렵에 그의 신발 밑의 발판이 단단치 않고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겁을 집어먹게 되었다. 그는 잠자코 있으

면서, 혹 떨어지더라도 테라스쪽만은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일은 뜻한 대로 되었다. 추문이나 변을 당하지 않게 테너 가수 온겔트는 바스락거리면서 천천히 몸을 쭈그리고 겁이 난 얼굴로 자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빠질 수 있었다. 지휘자, 회중석, 골마루와 금발의 마르가레트의 목덜미가 차례로 사라졌지만 그는 다친 데 없이 바닥에 닿았다. 교회 상에서는 히죽 웃고 있는 남자 대원 외에, 다만 일부의 가까이 자리잡은 학생들만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가 떨어진 장소 너머에서는 능숙한 부활제 합창이 환희에 넘친 환성을 울리고 있었다.

오르간 반주자의 산회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설 때, 성가대만은 남아서 몇 마디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부활제 이튿날인 명일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원들의 호화로운 소풍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였다. 애초부터 안드레아스는 이 소풍에 큰 기대를 걸었다. 더우기 그는 디르람 아가씨에게 함께 가느냐고 물을 용기를 가졌고, 이 물음을 거침없이 입술에 옮길 수 있었다.

「네, 가고 말고요,」 예쁜 아가씨는 차분히 말한 뒤에 말을 이었다.

「참 아까는 아프지 않았어요?」 이때 그녀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 대답을 들을새도 없이 내뱉고 말았다. 이 순간에 저편에서 동정조의 정색한 눈짓으로 포이레가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짓은 온겔트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손지에 들끓던 용기는 그만 못지 않게 쉬 다시 수그러졌다. 엄마한테 소풍 얘길 꺼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그에게는 소풍이나 성가대나 그 밖의 모든 희망에서 아예 손을 떼고 싶은 심정만이 간절했을 것이다.

부활제 이튿날은 푸른, 해맑은 날씨였다. 두 시에 여러 친지와 친척을 데리고, 성가대원 거의 모두가 낙엽송 가로수 길에 모였다. 온겔트는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간밤에 그는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였다. 그가 마르가레트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데, 별 가망이 없지만, 어머니의 동반과 이 한나절의 소풍에 얼마간의 희망을 두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 어머니의 생각으론, 마르가레트가 키 작은 아들의 마음에 딱 들어 있더라도, 그녀가 그에게는 너무 어리고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하기가 그것도 시험삼아 해 볼 일이지만, 문제는 가게 때문에도 그렇고, 아뭏든 빨리 부인을 맞아 들여야 한다는데 있었다. 사람들은 합창을 하지 않고 길을 걸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매우 비탈지고 험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온겔트 부인은 힘을 내어 담백 숨을 들이키고, 처음엔 아들에게, 닥쳐올 기회에 대비할 최종 훈령을 내리고, 뒤에 가선 디르람 부인과 유쾌한 얘길 시작했다. 마르가레트의 어머니는 산을 오르면서, 숨을 돌리고는 불가불 해야 할 대답을 주느라고 애쓰고 있었지만, 일련의 재미있고 흥겨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온겔트 부인은 날씨가 좋다는데서 시작하고는 교회 음악을 평하고, 디르람 부인의 건강한 신수를 칭찬하다가, 마르가레트의 봄철 옷을 감탄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옷치장 얘기에서 좀 쉬었

다가, 마침내는 시누이의 직물가게가 근년에 놀랄 만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길 늘어놓았다. 이런 말을 듣고서 디르람 부인은 젊은 온겔트를 칭찬할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그가 매우 씩씩하고 상술에 능하다는 것이며, 이런 일은 몇해전 온겔트가 견습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목격했고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아침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 온겔트의 어머니는 반쯤 한숨 섞인 대답을 하였다. 물론 안드레아스는 유능하여 성공할 것이며, 흥하고 있는 가게는 그의 재산이나 다름 없지만, 한 가지 걱정은 그가 색시들 앞에서 수줍어하는 기가 있으며 그로서는 재미없는 사람도 아니고, 결혼에 필요한 바람직한 미덕도 있지만, 의뢰심이든가 모험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디르람 부인은 그 걱정하는 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드레아스의 혼사야말로 이 고을의 어느 처녀도 기꺼야 받아들일 일이라고 다짐했다. 이 때 그녀는 물론 자기 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온겔트 부인은 이 말을 벌꿀처럼 빨아들었다.

한편 마르가레트는 일행 중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앞장 서 갔다. 이 제일 연소한 장난꾸러기 패거리엔 온겔트도 끼어 있었다. 물론 그는 짧은 다리로서 뒤따라 가느라고 죽을 힘을 다 썼다. 모두가 또 다시 그에게 유달리 인심을 썼다. 이 장난꾸러기 한테는 얼빠진듯한 눈을 가진 온겔트가 굴러 온 떡이와도 같은 것이었다. 어여쁜 마르가레트가 또한 인심을 썼고, 이따 금씩 그럴싸한 정색으로서 그 흠모하는 총각에게 말을 붙였으므로, 그는 행복에 도취하고 그녀의 달콤한 말치레에 온통 흥분했다.

그러나 유희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가엾은 친구는 뒤에서 조롱받고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그가 그것에 응수했어도 그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희망은 다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나 걸으론 되도록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젊은 친구들의 희롱은 십 오분마다 일어났고, 모든 피나 시늬가 다름 아닌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될수록,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웃어 보이려고 애썼다. 젊은 친구들 중, 제일 미련한 기둥 키의 약방 조수가 너무 서투른 장난을 치다가 마침내 희롱을 끝장내었다.

한 멋진 목은 참나무 곁을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약방 조수가 그 높다란 나무의 맨 아랫가지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해 보겠다고 청해 나섰었다. 그는 몸을 고쳐 가지고 몇 번씩 공중에 뛰어 올랐지만, 전혀 닿지도 않기 때문에, 반원을 그리고 있는 구경꾼들이 그를 야유하기 시작했다. 이 때 그 한테는 재주를 부려 체면도 세우고, 다른 한 사람을 대신 망신시켜야 겠다고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느닷없이 꼬마 온겔트의 몸뚱이를 잡아 공중에 치켜올리고는 나뭇가지를 잡은채 매달려 있으라고 소리쳤다. 날벼락을 맞은 이 친구는 화가 치밀고 안 하려고 바둥거렸지만, 허공에 떠 있는 자기 몸이 떨어질까 겁이 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그는 움켜쥔 채

매달려 있었다. 붙잡고 있던 약방조수가 이것을 보자 어느 새 손을 놓았다. 젊은 패들이 폭소하는 가운데, 온겔트는 별 수 없이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발버둥 치며 노기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려요! 빨리 내려 줘요!」

그는 크게 외쳤다.

그의 음성을 꼭 뎀 소리였다. 그는 아주 망쳐 버리고, 영영 망신감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조수는 값을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고, 모두가 찬성의 환성을 올렸다.

「값을 치러야만 해요.」 마르가레트 디르람도 외쳤다.

이에 그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네, 네! 빨리!」 라고 그는 외쳤다.

그의 고문자는 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짝막한 일장의 연설을 토했다—온겔트씨가 성가대원이 된 지 벌써 세 주일이 되어도 아무도 그의 노래를 듣지 못했으며 그가 이제 회중 앞에서 한국을 부르기 전에는 이 높다란 위협스러운 자리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어느새 안드레아스는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온 몸이 맥 풀려짐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거의 흐느끼듯 그는 「그 때를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첫 절이 끝나기 전에 그는 손이 풀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가 다리라도 부러뜨렸다가 뉘우치는 동정이라도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새파랗게 질린 낮빛이었지만, 그는 다친 데 없이 다시 일어나서, 곁에 있는 이끼 속에 묻혀던 모자를 잡아, 바르게 쓰고는 자리를 물러섰다. 그는 아까 걸어왔던 같은 길을 되돌아 갔다. 도중 첫 길모퉁이 뒤쪽 길옆에 주저앉아서 힘을 둔구려했다.

양심에 질려 가만히 뒤따랐던 약방조수가 여기서 그를 찾았다. 그는 잘못을 빌었지만 대답을 구하지 못했다.

그는 또 한 번 빌었다.

「정말 미안해요. 악의로 저지른 건 아니에요. 제발 용서하고 함께 돌아가요.」

「괜찮아요.」 온겔트는 말하고 사양하는 낮빛을 했다. 약방조수는 안 되었다는 듯 가버렸다.

조금 뒤에 중년들과 두 어머니가 있는 일행의 제 2진이 느릿하게 줄줄이 왔다. 온겔트는 어머니를 찾아서 말했다.

「집엘 가렵니다.」

「집엘,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뇨. 하지만 소용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뵈자 맞은 거야」

「아뇨. 하지만—」

그녀는 말을 가로 막고 그를 끌고 갔다.

「이젠 군소리 말아요. 따라만 오면 되는 거야. 차 마실 때, 마르가레트 곁에 앉아요.」

그는 언짢은듯 머리를 저었지만 두 말 없이 따라갔다. 키르헤르스 포이체는 그한테 말을 붙여볼까 하다가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묵묵히 앞만 쳐다보며 전에 없이 침울한 낮빛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 시간 뒤에 일행은 목적지인 자그만 숲 속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 음식점은 커피맛이 좋기로 이름난 곳이었고, 마을 부근엔 옛 산성의 폐허가 남아 있었다. 벌써 와 있던 젊은 패들은 음식점 마당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집안으로부터 식탁을 날라내어 가지런히 붙여 놓고 있었다. 어린 사람들은 기다란 의자와 짧은 의자를 날라 내었다. 산뜻한 식탁보가 씌워지고 식탁마다 찻잔, 주전자, 접시와 군과자를 차려 놓았다. 온겔트 부인은 아들을 마르가레트 옆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실속을 꾀하지 않고, 봉변을 당했던 생각에 잠겨 마음 둘 데가 없이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숟가락을 잡고 되는대로 식은 커피를 저었고, 어머니가 암만 눈짓을 해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잔을 든 뒤에, 젊은 패의 앞잡이들은 성터로 산보를 가서 놀자는 결정을 했다. 젊은 일행은 아가씨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일어섰다. 마르가레트 디르람도 일어섰는데, 그녀는 일어나면서 기가 죽어 앉아 있는 온겔트에게 그녀의 예쁜 구슬 수를 놓은 작은 손가방을 맡기고, 이런 말을 던졌다. 「온겔트씨, 잘 말아줘요, 우리는 놀러 가니까요」 그는 머리를 끄덕이고 물건을 맡았다.

그는 가까이 오고 있는 낮은 발걸음 소리와 바스락 거리는 옷자락 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일어나 보기도 전에 파우라 키르헬이 곁에 서 있었다.

「아주 혼자군요.」

그녀는 농을 하듯 물었다.

그가 대답이 없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정색하고는 부드러운 말씨로 물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좋잖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니지요.」 그는 치렛말도 구하지 않고 말했다. 「아니지요. 전 사람들 새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뿐이지요. 또 제가 저들의 광대노릇을 했다는 것도.」

「됐어요.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전하지요. 전 저희들의 광대였고, 더우기 저들 아가씨들의 광대 였습니다. 전 마음이 순한 탓으로 고지식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제가 성가대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옳은 얘기였지요.」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다 되잖아요?」

「물론 그만 둘 수가 있지요.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에 하고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제가 저들의 웃음감으로 되었으니 말입니다. 또 이제 아주 그 아무도—」

그는 온통 흐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다정스레 물었다.

「—이제 그 아무도—라니요?」

떨리는 음성으로 그는 말을 이었다.

「이젠 아주 그 어떤 여자도 저를 거들떠 보지 않고, 저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온겔트씨, 본심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면 제가 거들떠보고 마음을 받아들인다곤 생각 않아요?」 그녀는 느릿하게 말했다.

「네, 그렇지요. 저를 거들떠 보고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애긴 다른 겁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포이레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럼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나요?」

「물다니요? 아니 안 했지요. 뭇 때문예요? 아무도 안한다는 걸 알고서야.」

「그러시다면, 아가씨들이 찾아와서— 온겔트씨, 죄송하지만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저는 다시 없이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아직도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어도 좋을테지요.」

「알겠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한숨을 쉬었다.

「포이레양, 제 말씀을 똑바로 아셔야지요. 어떤 아가씨라도 저를 생각해 주고,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 준다면야—.」

「그렇다면 상냥해지고, 그 여인에게 추파도 던지고, 손 짓도 할 겁니까? 정말 됐어요—. 됐어요.」

이런 뒤에 그녀는 달려가고 말았다. 그러나 웃음기 같은 건 없이 눈엔 눈물을 지었다. 온겔트는 그런 기미를 알 바 없었지만, 그녀의 음성과 내 빼는 데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 그 때문

에 그는 그녀를 쫓아 달려갔다. 그가 그녀 곁에 섰지만 둘 다 할 말을 몰랐을 때, 그들은 서로 포옹하고 키스를 했다.

이제 꼬마 온겔트는 약혼이 되었다.

그가 그의 신부를 데리고 수줍기도 하지만 으것이 팔에 팔을 끼고 음식점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일행은 떠날 채비를 하고, 단지 이 둘만을 기다리는 참이었다. 모두가 소란을 떨고 놀라고 머리를 짓고 치하하는 중에, 아름다운 마르가레트는 온겔트 앞에 나와서 물었다.

「봐요, 나의 손가방을 어디다 두었지요?」

새신랑은 놀라서 두고 온 것을 알려주고는 숲 있는 데로 뛰어 갔는데, 포이레도 함께 달려왔다

편집을 마치고

신록의 계절—

이제 곧 푸른 숲과 나무 위에는 자연의 음악이 흐르고…….

한나절의 정적을 깨는 황소의 『음메』소리와 함께 시원한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검붉게 탄 농부가 휴식.

모두가 보람찬 내일을 위해 분주히들 움직이고 있다.

내일에 희망을 건 출근의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고, 새마을 운동으로 생활의 자립의식을 되찾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 표정 또한 밝다.

또 한 권의 공군지를 더하게 되어 장병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아울러 독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여>

○…후기를 쓸 때마다 언제나 관념의 시점에서 2개월은 후퇴해야 한다. 이 후퇴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가 된다. 이 반성에서 느끼는 것이 또한 언제나 참신한 내용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군의 과학화」를 엮었다.

과학적 경쟁시대를 맞아 과학의 발전도는 국력의 부강을 정하는 유일한 「바로미터」.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역정에서의 군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인 「군의 과학화」에 다소라도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독을 권한다.

○…바쁘신 가운데도 공군을 위해 알찬 글을 엮어주신 여러 집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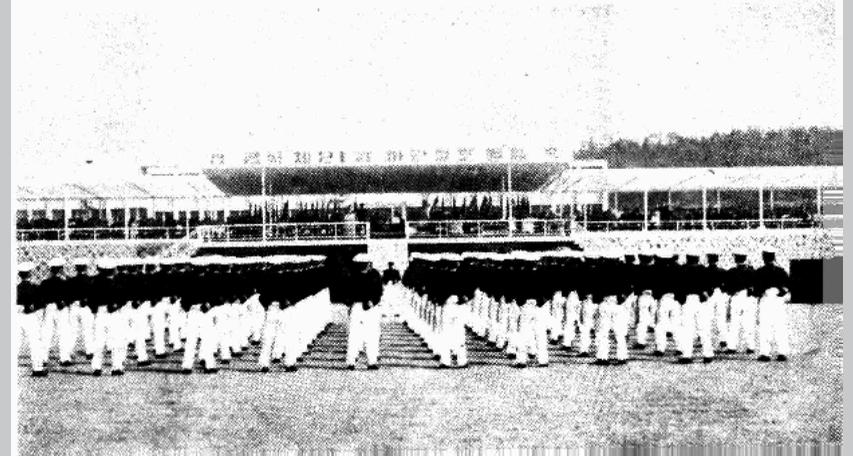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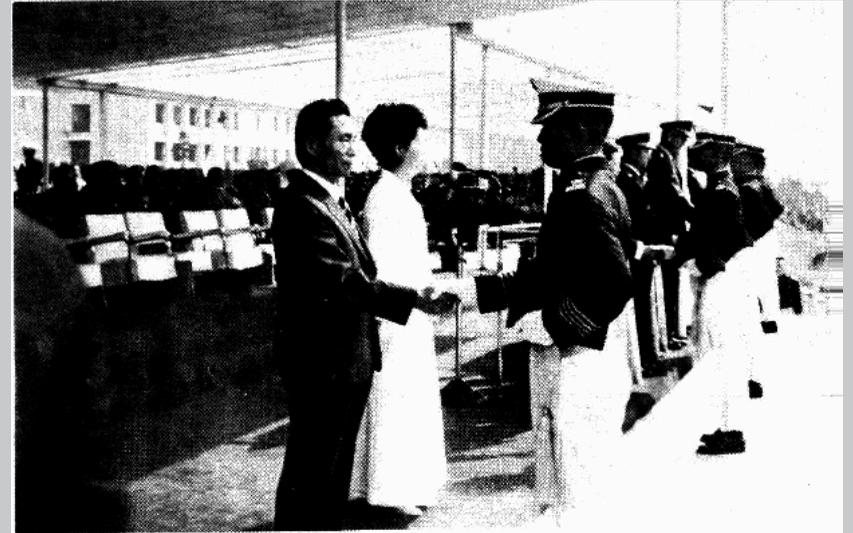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 찬
 인쇄처: 공군 교 재 창
 인쇄인: 공군대령 방 오 섭
 편집실 전화: 69-3511, 406-3353

경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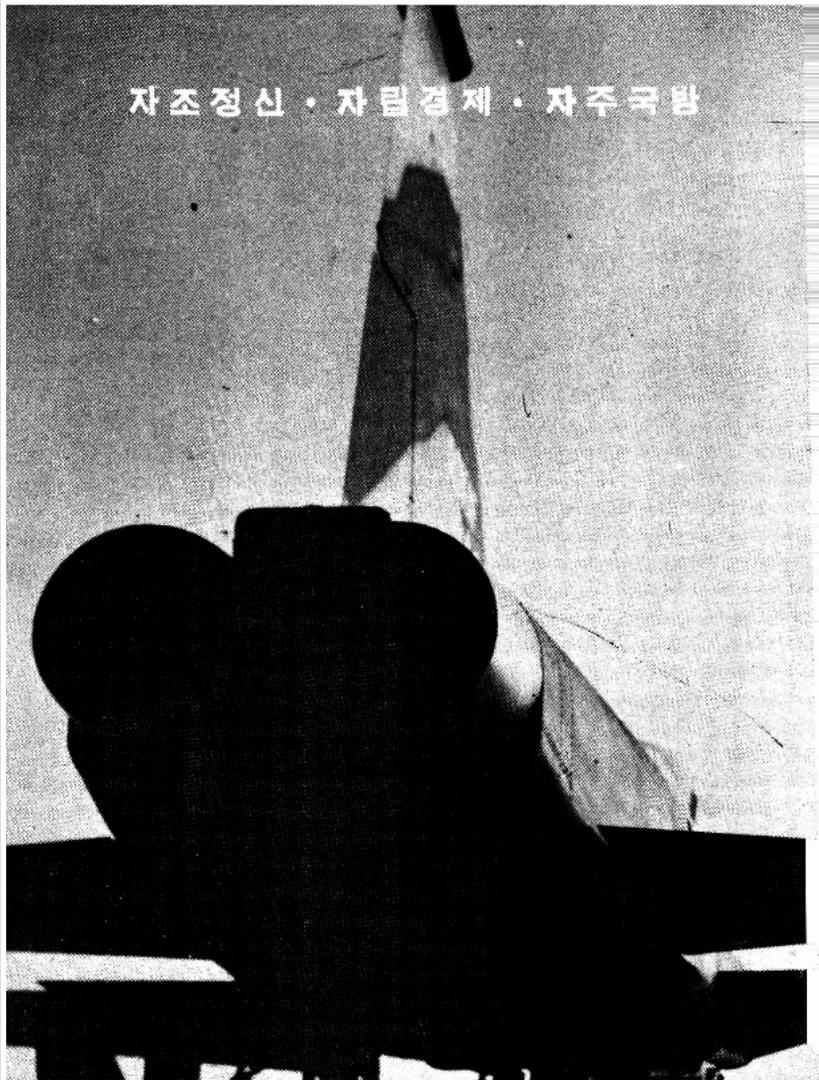
— 공사 제 21기 졸업 및 임관식 —

공군사관학교 73년도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31일 상오 10시 박정희 대통령각하 내외분을 비롯, 3부요인과 유재홍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베네트」 유엔군 사령관 등 많은 한·미 고위장성, 내외귀빈, 학부형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대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각하는 치사를 통해 「이 전진이 더욱 즐거우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통같은 국방태세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정 예 공 군 퇴 자